

2022

# 내가 살아온 이야기

교육운동과 문화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사 정리를 위해 구술작업을 진행한 지 3년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교육 운동과 문화 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아홉 분 - 조용명, 황진도, 하인호, 이세영, 박우섭, 정성열, 성효숙, 허용철, 양원모 - 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선정된 분들이 스스로 겪어내는 과정이었음에도 과거의 이야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사건을 상기하더라도 전체를 그려내는 것은 턱없는 일이고 그나마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조금씩 역사를 쌓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구술작업을 진행하였다.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엄혹했던 상황을 확인하고 시간 속에 내장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긴장은 역사와 개인의 관계이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묶어내는 힘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구술작업을 진행하는 의의라고 확신한다.

인천지역에서 80년대 교육 운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고질적인 사학재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사립학교 교사들의 투

쟁은 한국사회의 교육 부조리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면서 독재 정권 아래 중·고등학교의 비민주적인 문제와 선인재단이라는 거대 사학 집단을 시민사회와 지식인,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교육의 문제는 자식들을 키우는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도 미래가 달린 절박함이 배어있었다. 전교조를 통하여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처절한 외침은 널리 확산하여 인천지역민주화 투쟁의 주요한 영역이 되었다.

80년대 노동자에게 문화생활은 요원한 이야기였다.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절이기는 하나 평일 3시간 정도의 잔업과 철야근무, 휴일, 특근 근로를 밥 먹듯이 하는 고된 노동 생활에서 문화는 언감생심 먼 세상 이야기였다. 70년대 민족문화에 대한 깊어진 인식을 통하여 문화 운동을 노동 현장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풍물놀이는 노동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저항의 몸짓이 살아있는 목관화의 먹빛은 기존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과 문화 운동을 살펴보면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영역이 반독재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요구를 넘어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 전체의 요구와 삶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정성열 선생에 대한 인터뷰는 그가 마지막에 살던 충북 옥천 근처 청산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산비탈 거처에서 2022년 9월 1일에 이루어졌다. 8월 중순에 그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하기로 약속하면서 일

정을 의논하다가 인천의 스튜디오보다 좋은 집 앞의 풍광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 다시 한번 오기로 약속하였다. 집 앞이 탁 트여 바로 앞으로 청산면을 굽이 가로지르는 보청천이 천천히 흐르던 그곳에서 나는 두 번 같이 밤새 술을 마시며 30년 전의 젊은 날 풍물지기 정성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다이어리 한 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메모해두었고 가끔 그것을 보면서 기억을 확인하고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낯선 사람과 두 번째 만나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세를 꼳꼳이 하면서 풍물가락을 떠올릴 때는 ‘덩더쿵 쿵 따~~’ 신명을 올리기도 하였다.

지난 연말에 문득 그의 부음을 들었다.

풍물 상쇠 정성열의 마지막 노래는 이제 그의 목소리와 영상, 그리고 말을 풀어놓은 문자로 남았다.

3년 차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의 도움이 컸다. 조용명 선생 부부를 인터뷰하기 위해 강원도까지 동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가 하면, 80년대 문화 운동의 상을 그리기 위해 양평까지 찾아가 양원모 선생의 인터뷰를 주선하셨다. 오경중 센터장은 매번 대담자와 만나 이사업의 의의를 설득하여 인터뷰 당사자의 의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작업 공간을 내어주고 촬영과 녹취의 제반 실무를 지원해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두현 센터장과 최진석 팀장님, 녹취 작업을 꼼꼼하게 마무리해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정보라 팀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들의 목소리와 영상 그리고 구술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7~80년대를 지나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비유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귀에 거슬렸던 말들 중의 하나였다. 부모와 친척, 가까운 지인들,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면 나서길 꺼리는 주변 동료들, 민주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여기 실린 아홉 분은 바위 쪽이 아니라 계란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에게 80년대는 한 줌에 으스러지는 계란이 되어 날아가 바위를 무너뜨리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정성열 선생에게 이 기록을 바친다.

2022년 12월 30일

구술 진행자 이형진

**박우섭**



9

**성효숙**



65

**양원모**



121

**이세영**



187

**정성렬**



239

조용명



327

하인호



429

허용철



505

황진도



583

# 박우섭



- 1955년 충남 예산 출생
- 19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 1995년 인천시 남구 갑지구당 위원장
- 2010~2014년 인천남구청장
- 2022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일 시** 2022.7.26.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박우섭

이형진 오늘 2022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남구 미추홀구청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70년대 한국사회의 문화운동 그리고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주화 투쟁의 헌신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오신 박우섭 전 구청장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섭 청장님 반갑습니다.

박우섭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진 청장님께서 지금은 청장님이 아니시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섭 선생님 54년에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54년은 한국전쟁 상흔이 채 가지지 않았던 바로 직후였거든요. 충청도는 물론 좀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어려웠던 시절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장면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쪽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섭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형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 중에, 저의 형이 어려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전쟁 중에 돌아가셨는데 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때 아마 병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가서 또 제 바로 밑에 여동생도 한 다섯, 여섯 살 때 쯤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슬픔이 좀 있었죠. 제 형님의 죽음은 제가 몰랐지만 또 제 여동생의 죽음은 그렇고 또 어렸을 적의 기억은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일하시는 곳을 따라

서 이사과 전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초등학교를 태안에서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를 세 곳을 전학을 했어요. 태안초등학교, 근흥초등학교, 그다음에 당진의 기지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세 곳을 전학 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렸을 적에는 그냥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은 경찰 공무원이시고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농사일을 하거나 이러한 일은 별로 없었죠. 그러나 저희 친구들은 다 농사일하고.

이형진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을 하시게 된 거는 전쟁 이후인가요?

박우섭 그렇죠. 아버님이 전쟁 이후에 경찰에 지원하셔서 경찰 공무원을 하신 거죠.

이형진 당진 초등학교를 66년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등학교를 아마 서울로.

박우섭 용산중학교를 우리 때는.

이형진 서울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주시죠.

박우섭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제가 당진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성적이 괜찮고 또 저희 누님이 서울에 오셔서 공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님과 같이 자취하면서 서울로 중학교를 시험 봐서 오게 된 거죠.

이형진 그럼 일가가 다 서울로 이렇게?

박우섭 그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당진에 계시고 저만 누님이 저를 밥도 해주고 자취하면서 서울의 신대방동이라는 데서 재환의 용촌이 라고 6·25 참전 부상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사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형진 보라매공원 근처죠?

박우섭 그렇죠. 예. 신대방동 거기 그 바로 밑에가. 나중에 원풍 모방이고 그때는 아마 한국 모방이었었고 저희 누님은 세미코라고 반도체 그때 초기에 공장했는데 세미코에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형진 집안에서는 좀 될 만하다 싶어서 박 선생님을 유학까지 보내서 누님이 공부를 시킨 그런 과정인가요?

박우섭 그렇죠, 그때의 대체로 전형적인. 공부를 좀 하니까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고.

이형진 중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셨습니까?

박우섭 대체로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이형진 근데 박 선생님 초기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아주.

박우섭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녔고 또 저희 5학년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교회 권사님이시면서 굉장히 독실한 신자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도도 하셨고 또 그때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것만큼 그렇게 즐겁고 좋은 일들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유스포크라이스트'(Youth For Christ)라고 해서 YFC, 기독교 단체 서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그때 대표로 계셨었고, 김장환 목사님 지금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죠, 수원에 계신.

이형진 용산고등학교에서는 이과로 진학을 하셨던 건가요?

박우섭 그렇죠. 저희 용산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이과가 학생들 많고 또 대학 진학률이 좋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때는 서울대학교를 가야 등록금이 싸고 그때는 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립대학

하고 국립대학하고의 등록금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런 등록금 문제 때문에 서울대 쪽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도 그게 더 강박관념이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생물 공부도 잘하셨습니까? 과학 같은 거요.

박우섭 저희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막 거의 서울 사대 졸업하시고 젊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생물학을 강의하시는데 아주 최신, 그때 당시로서는, 최신 이론들 새로 발견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미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던 때라 소위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생명의 기원을 입증하겠다 이런 조금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미생물학과를 입학했죠.

이형진 당시에 본고사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 진학할 때였는데.

박우섭 그렇죠.

이형진 원래 초등학교 입학하실 때도 나이가 좀 젊게 어리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 아마 18살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박우섭 호적으로 보면 더 그렇고, 호적으로 보면은 만 16세 저기였고.

이형진 신동 나왔다고 했겠습니까.

박우섭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하하.

이형진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부모님들 하고는 떨어져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72년부터는 격변의 시기였거든요. 사실 72년 10월 유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부터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우섭 선생님의 그러니까 인생도 그때부터 격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주요했던 대목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섭 제가 사실은 전공도 이과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입학해서 초반까지도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 때에 들어서 이렇게 뭔가 서클 활동을 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 연극반을 선택했죠. 연극반을 선택했는데 문리대 연극, 제가 교양 과정부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정부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교양과정부에도 연극반이 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리대 연극반을 들어갔어요. 교양 과정부 연극반이 있는 걸 잘 몰랐고 제가 미생물학과여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문리대 와서 전공 수업을 듣는데 문리대 연극반을 들어갔었어요.

이형진 자연과학대학교 문리대?

박우섭 그때는 우리 들어갈 적에는 문리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는 자연과학대학의 문리대 이학부였죠. 제가 대학 들어갈 적에는 저희 미생물학과가 문리대 이학부여서 문리대 문학부하고 이학부가 같은 교정에서 있었고 문리대 연극반도 문리대 이학부와 문학부가 함께 연극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문리대 연극반에 가서 보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고 대학교 1학년 연극 연습 할 적에 10월 유신이

났죠. 10월 유신이 나서 연극 연습하던 것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YFC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그 서클이 대학교 들어와서 저 용산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수도여고졸업생들과 같이 해서 '한다발'이라는 독서 토론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선배들 중에서 이렇게 고대에 다니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선배들이 있었고 또 서울 약대 다니던 선배님이 학생 활동을 하시면서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선배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연극반과 서울 문리대 연극반과 '한다발'이라고 하는 독서 토론 클럽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형진** 보통 대학 가서 연극반 활동을 하는 거는 연극반이 사회적인 문제나 데모하는 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우섭**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랬죠, 하하.

**이형진** 뭔가 연극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처음에 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습니까?

**박우섭**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조금 쉽게 수용이 되는 것이 서울 문리대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워낙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그 때 당시에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이미 하고 있었고 3선개헌을 통해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등학교 때 지금은 조금 기억이 불확실하지만 71년도와 3선 개헌 반대할 적에 3선 개헌하고 그랬을 적에 고등학교 때의 분위기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었

습니다. 깊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도 우리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71년도에 교련 반대 때 뭐였던가, 위수령 나고 이랬을 적에 그리고 그때는 71년도는 우리가 고3 때였으니까 그다음에 그 3선 개헌하고 이랬을 적에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독재에 대한 저항심들이 약간은 잠재돼 있었다, 그리고 그전에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4·19하고 5·16, 나는 그 어렸을 적의 느낌이 4·19와 5·16의 느낌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이형진** 연극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집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후로 해서 기라성 같았던 선배들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 거고 그런 과정들 중에서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선배님이나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면 그다음 그러니까 3학년 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시는 그 계기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우섭** 제가 한편으로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72년도 10월 유신 때도 그렇고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학교가 휴교하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73년도에 대학교 2학년 와서 문리대에 와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73년도에는 문리대에서 최초로 10월 유신 이후에 최초로 10·2 데모라는 10월 2일 날 10·2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때 저희는 임진택 선배가 연출을 해서 김지하 선생의 작품인 진오기 굿이라고 하는 것을, 진오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데모가 나오면서 학교가 휴교를 하고 또 작품의 내

용도 그렇고 하니깐 일단은 다 해산이 되고 연습도 못하죠. 진 오기 곳 연습을 하면서 김지하 선배도 만나고 또 김민기 선배 그다음에 우리가 진오기 곳을 하려면 탈출을 취야 하니깐 탈출반에 채희완 선배, 장만철 선배 이런 선배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소위 유신헌법에 대한 반감들이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연극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10월 2일날 데모를 해서 많이들 다시 잡혀잡니다.

이형진 2학년 2학기 때였습니까?

박우섭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잡혀가고 우리 연극반 친구 중에서도 잡혀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서는 복학을, 학교가 다시 열려서, 잠깐 열렸다가 그다음 해에 4월 3일 날 민청학련 사건이 터집니다.

이형진 74년 4월이죠?

박우섭 74년 4월 3일. 그러니까 민청학련 사건 날 때의 제가 사전에 그런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는 않았고 뭔가 학내에 10.2테모 했다가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그러고서 군대들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봄이 되면 뭔가 또 시위가 있을거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돌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디테일이 4월 3일이 됐고, 4월 3일 날 문리대 교정에서 운동장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소위 단순 가담을 하게 되죠. 데모 현장에, 단순 가담을 했다가 동대문경찰서로 현장에서 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데 저는 단순 가담자니까 동대문경찰서 보호실에서, 유치장이 아니고 보호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장 가

기 전에, 거기서 한 50일 동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유치장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나는 단순 가담자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이 경찰에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손도 쓰시고 그러서서 그냥 보호실에만 있다가 일종의 훈방 조치가 되는 겁니다, 50일만 만에. 그러면서 나오고 그러고서는 문리대가 그때 당시에는 학생회가 없어서 학생회를 못 만들고 대의원대 중심으로 학생회가 있었구나, 그러고서 어쨌건 미생물학과 대의원이 돼서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러고 그때 박인배도 같은 연극반이고 또 거기는 물리학과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0월달에, 74년 10월이죠. 다시 시위를 계획을 하죠.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면서 긴급 조치 4호가 있는데 그게 4호가 조금 이따 풀립니다. 풀리고 또 석방되고 또 석방돼서 다 군대 가기도 하고 석방돼서 일부는 저기 했던 사람들 또 나머지는 그냥 석방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석방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 문리대 안에서 1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회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민청학련 사건 때 다 잡혀서 학교 밖으로 떨어져나고 그러고 나서 10월달 데모를 준비하는데 그때에 연극반 쪽으로도 제의가 오는 겁니다. 데모를 같이 준비하자고 또 저희 연극반 쪽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0월 데모를 하는데 저는 그때에는 제가 2선을 맡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룹이 데모 주동을 해서 이 친구들이 잡혀 가던 도망을 가던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며칠 후에 데모를 다시 주동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간 10월 데모를 하는데 보니까 데모를 하겠다고 이미 사발통문을 돌렸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 데모 현장을 주도하기로 한 친구들이 이미 잡혀갔는지 학교를 못 들어왔는지 안 나타나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을 제가 그냥 주동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문리대 데모를 하고 제가 약간 연극도 하고 이랬으니까 현장에서의 주동하고 분위기 끄는 거는 꽤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고서는 시간을 꽤 오래 끌었고 또 그때는 긴급 조치 4호가 해제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교내로 막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경찰이 밖에만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시위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꽤 모여서 그리고 그날 같은 날 법대 쪽에서도 데모가 법대에서도 담을 하나 두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문리대에서 먼저 문리대 도서관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이 일종의 점거 농성에 들어간 거죠. 도서관을 끌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저녁 때 늦게 법대 아이들이 담을 넘어서 우리 문리대로 와서 문리대 도서관의 점거 농성에 같이 합류를 한 거죠. 그랬는데 교수들이 와가지고서 밤이 계속 깊어지면 경찰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며칠 동안 조금 도망 다녔죠.

이형진 그 대목에서 말입니다. 우리 박우섭 선생님께서는 역사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 시위 현장과 문리 도서관에서의 농성 과정 이 부분에서 잘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좀 자세히 사진을 찍듯이 한번 회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교정은

서울 동승동의 문리대 앞이었어요. 그리고 교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동을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백 명 정도 모였습니까?

박우섭 한 200명 가까이 모여 그러니까 문리대가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이 모인 숫자였었고.

이형진 최루탄도 터졌나요?

박우섭 최루탄은 안 터졌습니다. 그때는 한 오전 10시쯤에 우리가 모이기 시작을 해서 모이기 시작을 해서 되게 마로니에 나무 있는데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하고 그리고서 교문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교문 앞에는 경찰이 와 있죠. 경찰이 와 있고 무슨 최루탄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 거기서 하고 또 우리는 구호 외치고 그런데 그때도 요구 수준의 수위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철폐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긴급 조치 위반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긴급 조치 4호가 해제됐고 긴급조치 9호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것을 긴급 조치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신헌법 철폐라는 구호를 못 외쳤을 수도 있어요.

이형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규탄은 하셨어요?

박우섭 그런 정도죠. 그때의 정확한 이슈가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약간의 학생들의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민청학련 사건이 나서 대대적인 탄압과 심지어는 물론 풀려나기는 했지만 사형 언도도 받고 무기 언도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한 6개월 만에 하는 데모였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수위는 좀 낮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기 편한 형태로 시위를 주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시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무슨 정의가 아니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또 나와서 규탄 발언들 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도서관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도서관을 밀고 들어간 거죠.

이형진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동숭동 일대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그 광경들을 이렇게 지켜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우섭 그런데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또 시민들은 그냥 밖에서만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 또 그것도 경찰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형진 경찰들 간에 대치는 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박우섭 그렇죠, 그때 그 상황은 그렇고. 어쨌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진 해산을 교수들이 와서 저기를 하고 그래서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진 해산을 하게 되고,

이형진 교수님들이 직접 설득하셨나요?

박우섭 교수님도 와서 설득했죠, 하하.

이형진 점잖은 시위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박우섭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때가 약간 일종의 유하게. 그다음에 그

래서 제가 그냥 도망다녔는데.

이형진 수배 상태가 되신 건가요?

박우섭 수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묘한 상태인데 나중에 그때 또 또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셔서가지고서는 저를 경찰로 데려가서 조사만 받고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 일로는 무슨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이형진 그 시점, 아버님은 그 아들이 대학을 가서 한 1년은 굉장히 행복하셨을 텐데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2, 3년 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계속 말썽을 피웠단 말입니다.

박우섭 그렇죠.

이형진 그쯤에서는 분명히 박우섭 선생님하고 직접 좀 부딪혔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박우섭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또 대학교수들도 우리 미생물학과 주임 교수나 이런 학과장 교수나 이런 분들도 너는 이과고 왜 데모 하나, 그냥 공부를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사실은 대학교 3학년 초에 그러니까 ROTC 할까, 군대 문제도 있고 ROTC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 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진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미생물학과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실험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결국은 내 길은 공부를 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74년도에 데모를 하고 나서는 진짜 공부를 할 생각

이었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서 또 공부도 하고 아까도 했지만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카이스트를 가면은 카이스트 석사 과정을 하면 군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가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75년도에 드디어 4학년이 된 거죠. 4학년이 돼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75년도 4월 3일 날, 4월 3일 날 민청학련 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근데 75년도에 관악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관악산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75년도에. 서울대가 관악산에 전체 대학들이 다 모인 거죠. 물론 그때 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데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이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모였고 75년도, 74년도 가을에 그런 데모를 했고 75년도에 관악산으로 다 모였고 아마 74년도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유하게했던 것도 관악산으로 이전하고 이러면 데모나 이런 거를 좀 통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년도 4월 3일 날, 다시 데모를 주동을 했는데 그때 데모를 주동한 친구가 박인배가 데모를 주동을 하면서 박인배가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이형진 실제로 공부를 하셨어요? 하하.

박우섭 공부를 했죠. 그래서 4월 3일 날 현장에 갔는데 그때도 박인배가 잡혀갔든가 안 나왔든가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4월 3일 날 데모 현장을 다시 내가 주동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은 데모였는데 그날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모

였고 그리고 제가 교문 앞에서 대치도 했고 경찰하고 대치도 하고 지금 재미있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들이 앞에 와있으니까 우리가 경찰들하고는 당신네하고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적이 아니다 이런 제스처로 우리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그때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권 독립이 75년도에 나왔던 구호인데 이제서야 하다가 다시 빠꾸하는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된. 경찰들은 그 얘기하면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 대치가 길어졌는데 거기도 오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오후까지 쪽 하고 그때는 노래도 꽤 다양하게 나오고.

이형진 그때도 최루탄을 안 썼습니까?

박우섭 그때도 최루탄을 안 썼습니다. 75년도까지도 그래서 학교 앞에서만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길어지니까 우리가 대학교 교문으로 나가서 대치하는 거는 교문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경찰이 앞에 있으니까 교문을 뚫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앞에서 주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는 저쪽 후문이 있다는 거예요. 후문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끌고 후문으로 해서 봉천동 고개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봉천동 고개까지 갔더니 거기서 경찰하고 거기서 경찰이 폐포그를 쏘죠. 그래서 봉천동 고개에서 일단 해산이 돼요. 해산이 돼서 그리고 났다가 다시 내가 관악산을,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때까지도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형진 오후 늦었겠습니까.

박우섭 늦었죠. 그러니까 일부는 데모를 아직도 하고 있고 저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현장을 저거 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쯤에서 어두워지고 나서 더 있으면 위험하니까 해서 그래서 또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때는 다시 집에 안 들어가서 도망다니고 그때는 경찰에서 나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때도 한 보름 가까이 20일 가까이 도망다니다가 저희 아버지가 와서 나를 데리고 관악경찰서로 가서 일종의 자수를 시키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받고 무기정학 조치를 받고 경찰에서는 그때 또 다시 훈방 조치 돼가지고서 시골로 내려가 있었죠. 시골로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니까 바로 영장이 나오고 신체검사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55년 생이기 때문에 75년도에 만 20세가 안 돼서, 만 20세가 안 돼서 아직 신체검사를 안 받았어요. 76년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잘리니까 바로 75년도에 신체검사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중이염을 앓고 있어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3을 4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을 4급이면 그게 방위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3을 4급이 나왔는데 신체검사를 하여간 5월쯤에서 가서 받았는데 7월에 소집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 21세 때 군대 가는 건데 20세 신검받고 일찍 나온 거죠. 7월에 군대를 가려고 방위 소집 훈련 받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돌돌(5.22시위사건)이 터진 거죠. 김상진 열사 49기 그러면서 긴급 조치 9호가 터지고 그러면서 나는 학적이 처음에 징계가 무기정학이었었는데 그냥 다시 제명으로 바뀌어버려서 제명이 된.

이형진 퇴학 조치가 되는 거죠.

박우섭 그렇죠. 퇴학 조치 중에서도 제적보다 더 강한 게 제명인데 무기정학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제명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러고서 방위 가서 1년하고.

이형진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박우섭 당진에서. 당진 읍사무소에서 방위 뭐 한 거고.

이형진 그때까지 그럼 당진에 부모님이 계셨던 건가요?

박우섭 그렇죠. 부모님은 당진에 계속 계셨고 근데 문제는 오돌돌 사건이, 오돌돌이 문리대 쪽에 소위 문학회, 문리대 문학회하고, 문리대 탈출반하고 연극반하고 3개가 주동이 돼서 김상진 열사 49제를 주도한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4월 3일 날 데모하고 그다음에 고대가 4월 9일 날 데모하고 그다음에 김상진 열사가 4월 9일 날 할복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면서 긴급 조치 9호, 긴급 조치 9호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는 제가 4월 3일 날 데모 했을 때까지는 긴급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진 열사 농대 할복하시고 고대 4월 9일인가 데모하고 이때서부터는 긴급 조치 9호로 다뤄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것이 오돌돌 때 긴급 조치 9호가 서울대인데 그 중심이 문리대 문학회, 연극반, 탈출반이기 때문에 그때 구속되고 한 친구들이 거의 다 내가 아는 친구들.

이형진 당시에 황선진 선배님은 오돌돌 때 농대 장례식장에 가서 탈출을 추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우섭 장례식장에 가서 탈출 추시고 그리고 오돌돌 때 저기를 하다가 구속이 되죠.

이형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우섭 그러니까 오돌돌 사건이 나서 오돌돌 사건 나고 나서 완전히 학교 분위기가 얼어붙죠. 그리고 저는 방위 생활하고 그리고 서 방위 생활하면서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자 1년 후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순진하게 돼요. 처음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7급 공무원 책 갖다 놓고서 준비를 하다가 하여간 2월인가 5월인가 쯤에 보니까 신문에 우연히 대한항공에서 고졸 사원을 뽑는다는 기사가 저기 광고가 나왔어.

이형진 76년이에요?

박우섭 그렇죠. 76년이죠. 그래서 76년도에 대한항공의 고졸 사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입사를 합니다.

이형진 그럼 방위 생활 끝나자마자 대한항공으로 취업을 바로?

박우섭 바로. 76년도. 8월쯤이나, 8월쯤이나 끝나자마자 하기가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대학을.

이형진 그 과정에서 오돌돌이 있었고 그리고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연락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진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까?

박우섭 내가 방위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친구들도 다 구속돼 있거나 뭐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이고 또 내가 학과도 미생물학과 이과고 또 서클도 연극반이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좀 약한 편이고 소위 학회 쪽 친구들과하고는 다

르게 그런 연결고리가 좀 약한 편이어서 그냥 어쨌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어디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시험이 있어서 보게 됐고 합격을 해서 대한항공을 다니는 거죠. 76년도 10월부터 그러면서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주로 연극반 선배들이나 연극했던 선배들 만납니다.

이형진 일단 그러면 대한항공 다니면서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퇴학당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복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하셨고 그러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것저것 접하게 되는 과정인가요?

박우섭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대한항공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국내선 화물과. 김포공항에서 그러니까 오전 오후 교대 근무입니다. 아침 한 6시쯤 가서 오후 2시쯤 퇴근하고 오후 2시쯤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고 맞교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주로 오전 근무만 하는 거를 자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뭐 연극 하는 선배들 만나서 연극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연우무대 창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연극 연습, 연극 공부를 주로 그때 정한룡 선배라고 연우무대 창단하시는 분이죠. 그분하고 같이 문리대 연극반 출신들하고, 가정대 연극반 출신들하고 모여서 연극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조금 막 시작되고 새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산학원이라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가서 다니고 그러면서 전산직으로 옮

겨볼까 대한항공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77년도, 77년도인가, 78년도인가 성대 야간대학 경제학과를 편입을.

이형진 아, 또 공부도?

박우섭 예, 성대 야간대학 경제학과를 편입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탈반 친구들 만나고 연극반 친구들을 만나죠. 만나면서 76, 77년도 이때쯤 되면 77년도쯤 되면 그때의 오돌돌로 감옥 갔던 친구들이 또 석방돼서 나와요. 나와서 군대 가기 전입니다. 대표적인 게 연성수인데 연성수는 저한테는 고등학교도 같은 1년 후배고 탈반이고 그래서 이쪽 연극반 쪽하고 연성수, 김봉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대 탈반들, 그 다음에 서울대 연극반 유인열, 유인택 이런 그룹들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문화운동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의기가 투합이 되고.

이형진 그게 연우무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박우섭 아뇨, 연우무대는 더 순수 예술 쪽이 가깝고 연우무대는 그러나 연우무대도 사회적인 의식은 있지만 거기엔 연극의 틀을 벗어나 연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벗어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발언하고 연극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거고 이 그룹들은 소위 우리가 문화패라고 하는 패들은 문화를 가지고 사회를 바꾸자 그리고 특히 그때쯤 되면 노동자, 농민들의 조직화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걸로 해서 문화를 통해서 농민을 만나자 이렇게 노동자를 만나자 이런 논의들이 되죠.

이형진 연우무대에서 마당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박우섭 연우무대에서 마당극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연우무대는 그냥 연우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극으로, 다만 사회 참여적인 연극을 하는 거죠.

박우섭 마당극은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발언도 하고 행동도 직접 한다 심지어는 거기서 데모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 결이 다른데 나는 개인적으로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형진 김성수 선생님이나.

박우섭 이쪽은 마당극 쪽이죠.

이형진 그래서 같이.

박우섭 그래서 그쪽은 뭘 하는가 하면은 77년도 여름, 78년도 여름, 아마 77년도 여름 때부터 농활을 가면 농촌 활동을 가면 우리가 끝나는 날쯤에서 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도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당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당극을 하는, 그래서 일종의 농민 농활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농활하는 쪽들하고 연결이 돼서 갖고 그때에 기독교 쪽하고도 같이 연결해 그 친구가 누가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운동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연극반 탈반도 이렇게 해서 패가 만들어집니다.

이형진 그러면 실제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농활을 했던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당극을 시연을 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관을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박우섭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지금 그 시기가 조금 헛갈리는데.

이형진 70년대 후반인가요?

박우섭 후반이죠. 후반인데 77년도부터인지 78년도, 79년도인지 이거는 조금 헷갈려. 한 2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2년 정도 했고 제가 77년도 78년도쯤이 맞다고 보는 거는 연성수가 감옥 갔다 나와서 군대 가기 전이니까 75년도, 잡혀 들어가서 2년인가 2년 6개월 살고 나오면 78년, 77년, 78년도, 하여간 그래서 78년, 79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진 박우섭 선생님 저기 공장의 불빛 내지는 동일방직을 규탄하는 연극을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은 마당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영향이 다시 좀 계기가 된 건가요? 그 과정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섭 그때쯤 되면 소위 르포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그때.

이형진 무등산 타잔?

박우섭 무등산 타잔도 하고 그때 대화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서. ‘공장의 불빛’, 유동우 선배 ‘어느 돌멩이의 외침’ 이런 르포문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게 되고 우리도 농촌 활동을 하면서 농활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르포문학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연극이든 마당극이든 이렇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등산 타잔인데 무등산 타잔은 소극장에서, 신촌에 있는 76 소극장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죠. 공연을 올리면서 그때의 이 무등산 타잔에 대한 구명 운동도 있고 원래 계획을 짜기로는 76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 소위 마당극 하던 쪽에서 연극을 하고 사회적인 참여로서 시위까지 한다는 식으로 계획이 됐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창작 기법으로서는 원자료는 있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만드는 같이 배우들하고, 같이 그랬는데 공연을 한 3일인가 앞두고 주연을 맡았던 친구가 또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됐고 겁이 났었던 거죠. 그러가지고 그때에 무대 감독을 유인택이 했었는데 유인택이 주인공으로 3일 만에 급조돼서 타잔 역을 맡아서 하죠.

이형진 78년이었습니까?

박우섭 기억은 지금 77년인가 78년인가 확실치 않아요. 내가 보기에 77년일 수도 있고 78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무등산 타잔을 우리가 하는데 그걸 나중에 연우무대에서 ‘한 줌의 흙’이라는 걸로 상당히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다시 합니다. 이제는 저하고 홍성규하고 둘이 다시 작품을 손보고 제가 출연하고 연출을 누가 했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당극이나 이런 쪽은 이거를 이거 가지고서는 데모까지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연우무대는 그 작품을 가지고.

이형진 완성도를 높이나요?

박우섭 완성도를 높여서 영상을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공연을 한 게 아마 79년도쯤이나 이쯤 될 거예요.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공연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무등산 타잔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를 들은 분들도 있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지금 장명국 선배가, 장명국 선배가 한승호하고 연결이 됐던가 해서 저하고 김봉준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리고 아마 그때쯤은 연성수는 아마 군대 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동일방직을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보면 어떠냐 그리고 동일방직 그 친구들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있으니까.

이형진 78년도 입니까?

박우섭 그 연극이 부활절 때 하는데 그게 79년인지 제가 78년인지가 좀 불확실해요. 부활절 기독교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부활절날.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은 동일방직하고 그전에 여름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전국을 순회공연하고 이럴 생각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가서 연습을 같이해요. 저하고 김봉준이 그리고 그때 주 저기는 이제 석정남의 그것이 저기가 됐었죠. 자료가 돼서 그거 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하는 공연을 했는데 연극을 다 준비를,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다가 부활절날 기독교회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독교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이형진 울음바다가 됐다고?

박우섭 울음바다가 됐을 뿐더러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치고 들어왔어요. 기독교회관을 처음으로 치고 들어온 케이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잡혀가고 저기를 했죠.

이형진 굉장히 심하게.

박우섭 기독교회관에서 심하게 싸우고 잡혀들어가고 그때 저도 잡혀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고 관여한 걸로 나타나는

않았어요. 연극을 그러니까 그건 노동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 걸로 돼 있었고 우리는 단순히 구경하러 갔다가 잡혀간 걸로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구류 살고 나왔던가 뭐 하여간.

이형진 그러면 노래극 '공장의 불빛'과 동일방직 그건 다른 겁니까.

박우섭 예. 다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성균관대학교 야간을 다니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하하. 거기서 잡혀가면서 그래서 그게 취소가 돼요. 저기 편입 취소가 됐고 어쨌든 제가 이쪽, 문화 쪽 따따라 활동한다는 것이 저쪽 정부 쪽에 다시 저기가 되죠. 그 77년도 78년도 79년도에 문화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들을 주로 하죠. 김지하, 김민기, 채희완 이렇게 문화운동 1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황선진, 연성수, 김봉준, 박인배, 이게 문화운동 2세대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문화운동 1세대는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좀 탁월하고 그런 작품에 대한 완성도도 높고 이런 우리는, 문화운동 2세대는 현장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김민기 선배의 '공장의 불빛'은 그러니까 약간 아까 그 연우무대의 '한 줌의 흙'과 같은 이 '공장의 불빛'을 노래극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완전히 작곡을 다 하고 그 상태에서 채희완 선배가 안무를 하면서 작품을 노래극으로 일종의 무용극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무를 채희완 선배가 합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배우로 참여를 하고 그런데 거기도 약간의 집단 창작적 성격을 갖습니다. 안무를 하는 과정이나 대사를 넣는 과정이나 이런 것

들이 약간 물론 기본 축은 다 김민기 선배가 작사 작곡은 해왔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연결시키고 이러는 것들을 집단 창작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채희완 선배가 주도해서 한 거고 그게 ‘공장의 불빛’을 해서 그거는 처음에는 노래 테이프만 만듭니다. 노래 테이프로 만들어서 테이프를 뿌리죠. 그래서 그걸 공장에 보내기도 하고 노조원들 통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장의 불빛’은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노래극 이런 형태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공장의 불빛은 그거는 노동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사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같이 그것도 집단 창작으로 그리고 적어도 석정남 씨 소설로 하고 또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우가 돼서 다 하고,

이형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주연을 하고 대본도 만들어냈다는.

박우섭 그렇죠, 같이 만들죠.

이형진 거기에 도움을 주고. 사실 77년, 78년, 79년 유신 긴조 9호 이후에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는데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결합하고 투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우섭 오히려 긴급 조치 9호 때문에, 9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문화운동 쪽으로 숨통을 이렇게 트여가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물론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극한적인 투쟁을 몇 분 내지는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있었고 문화운동이 그나마라도 사람들을 조금 모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박우섭 약간 그게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반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콘트를 데이터라도 가서 우리가 비슷한 걸 하려고 좀 만났었고 또 그쪽에서도 왔었고 청계피복노조도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민중덕이나 그런 노동조합 쪽에서 문화운동 쪽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고 노동조합에 가서 이렇게 탈춤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들도 생겼죠. 그러면서 반도상사가 그래도 노조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여서 반도상사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문화제 같은 것을 조합해서 그래서 탈춤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극반을 만들었지 탈춤반 쪽은 서울대 탈반에 치대 다니던 친구가 의대 다니던 친구가 누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연극반은 내가 하고.

이형진 그게 70년대 79년 정도였네요?

박우섭 79년도나, 78년도나, 겨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에 반도상사 노조 연극반들하고 같이 한 것이 나운규의 아리랑을 약간 개작을 해서 연극에 올렸죠.

이형진 그 축제 때 공장 내에?

박우섭 그렇죠, 조합 축제 때.

이형진 다 말씀해주시죠.

박우섭 그리고 나서 그때 출연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종의 학습 모임.

이형진 독서 토론회를 하셨는데.

박우섭 일종의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연극을 계속, 생각하는 연극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도 다시 또 일종의 씨클이지, 동아리. 연극 동아리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래서 하는 이 동

아리로 연결을 시키다가 그거를 내가 80년도 초에 수배돼서 도망다닐 때까지 조금 그때까지도 내가 유지를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모임을 박인배한테 연결을 시켜서 박인배가 그 뒤에.

이형진 그 모임에서 혹시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시나요?

박우섭 잘 기억 안 나는데.

이형진 근데 여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되셨어요?

박우섭 한 10명 정도.

이형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과정이었겠습니까.

박우섭 그리고 재밌어도 했고, 연극하는 과정, 연극 만들고 연습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재밌어도 했고 또 그런 능력들이,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꽤 이렇게 출중한 사람도 있었고.

이형진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공연을 한 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습니까?

박우섭 못했어요. 못했고.

이형진 80년대가 되면 동일방직 노조가 회사가 해산하거든요.

박우섭 반도상사가 80년. 노조는 해산 당하고 해산은 한 82년도, 3년도까지 유지를 하든가, 뭐.

이형진 예, 그렇습니다.

박우섭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은 없는데 80년도까지 무슨 공연이 한 번쯤 더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반도상사 쪽을 좀.

이형진 그러니까 79년 정도에 반도상사 노동자들과 같이 그런 활동까지는 쪽 이어졌는데 사실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국면이 바뀌게 되죠.

박우섭 그중에 문화운동만 놓고 보면 80년도, 79년도 10·26이 나잖아요. 약간의 소위 박정희의 죽음이 우리한테 좀 또 다른 충격들이 있죠. 약간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죽음과 그때의 세력 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이렇게 둘로 나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는 그룹은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만 놓고 보면은 조성우, 정문화 요쪽이 주도했던 청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협. 청년 민주화운동 협의회나 이런 정도의 이름인데 조성우, 정문화로 이어지는 청협. 70년대 후반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국민회의하고 연결이 되든가 뭐 그러니까 조금 중심이 되면서 소위 YWCA의 위장 결혼 사건을 주도하죠. 거기에 홍성엽이가 청협의 홍보국장인가 뭐 그리고 그래서 YWCA 사건에서 왕창 잡혀가서 또 깨지죠, 그 전에. 아까 저기도 얘기 했는데 75년도 오돌돌 이후에 얼어붙었던 것이 77년도 가을, 겨울쯤에 소위 이범영, 박석운 여기가 졸업을 앞두고 데모를 하면서 처음 그걸 깨는 거죠.

이형진 예, 그렇습니다, 법대.

박우섭 법대, 77년도고 그리고 78년도에는 소위 학교에서 시위하면서 광화문 시위를 예고하고 그게 이우재, 양민호, 이런 75학번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 7, 8년 시위가 학교가 아닌 시내 가두시위로 하고 이 친구들이 도망다니고 그런단 말이예요. 78년도에 봄에 한번 광화문 시위하고 가을에 서울대에서 이우재, 양민호, 성욱이 이 친구들이 시위를 하고 10월에 광화문 시위를 예고하고 광화문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나는

대한항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대 시위를 하고 이우재, 성욱, 양민호 이 친구들이 잡히지 않고 밖으로 수배돼서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중에 성욱이가 탈출반 출신. 그래서 탈반 쪽하고 연결이 돼서 성욱이 도망다니는 걸 조금 도와줘라 이런 연결이 오죠. 또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은 75년도에 제적당하고 군대 갔던 아이들 그런데 감옥은 안 가고 제적만 당하고 군대 갔던 친구들이 78년도에 제대해서 나와요. 그게 이동섭, 이내경, 박광순 요 한 73학번들. 김삼수, 요 73, 74들이 75년도에 군대에 갔다가 78년도에 제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모여 요기가 연결이 돼서 만나서 소위 공부를 하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학회 쪽 비슷한 쪽하고 처음 연결되는, 그러니까 문화운동 이외의 그룹들하고 연결되는 게 78년도 그 그룹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현장에 들어가는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내가 대한항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또 우리 같은 그룹 중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성욱이를 숨겨준 게 그때 육이도, 가을, 육이가 먼저 잡히면서 다 잡혀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나하고 이내경하고 여기한테 도움을 받았다, 돈 받고 또 우리가 어디 자취방 하나 얻어주고 이런 게 들통이 나가지고 성동경찰서로 잡혀 들어가지, 78년도, 한 10월쯤에 했지, 그래가지고서는 범인 은닉죄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치소인가 아니 그 범인 은닉죄로 구속이 돼가지고 기소 유예로 나와요. 78년도 10월쯤, 10월인가, 11월쯤 되는데

그렇게 기소 유예로 나오면서 대한항공에서 잘리고, 대한항공에서 나보고 그것도 봐줘서 제주도로 발령을 낼 테니까 갈 거냐하는데 또 회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오지. 그리고 나서 79년도 초반에 강구철 친구들이 서울대 영문과 나오는 영문과하고 강구철하고 셋에 그때는 오판상이 유행이었어요. 수입, 무역 수입하는, 그래서 오판상을 차려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공부 모임들을 계속 하고 그랬다가 문화운동 쪽은 하다가 YWCA의 사건이 터지지. YWCA의 사건이 터지면서 강구철이 같이 했던 강구철이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또 약간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고.

이형진 Y사건은 8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박우섭 YWCA는 79년도, 79년도 말이지.

이형진 그 10·26 직후에.

박우섭 10·26 직후였죠. 11월 며칠쯤 돼, 11월 며칠. 그래서 YWCA사건을 할 적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금 군부가 둘로 나뉘어 있다, 한쪽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어 있으니, 이런 시위를 해서 온건파 쪽을 조금 도와야 된다고 해서 YWCA사건을 들고 그때의 이슈는 하여간 그 대통령을 저기 뭐야 체육관에서 뽑는 거를 통일 주체 대의원에서 뽑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박정희 이후에 체제화 임시 체제에서 어떻게 넘어갈 건가 하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그때도 일종의 대통령 직선제 비슷한 요구였을 텐데 어쨌든 YWCA사건이 터지면서 약간 얼어붙는 분위기, 또 그러면서 그때의 문

화패들은 뭘 준비를 하는가 하면 장산꽃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하는 거죠. 그때 소위 문화패 1세대, 2세대 애들이 같이 하면서 황석영의 장산꽃매를 황석영 선배가 직접 대본을 써줬을 거야. 그 다음에 음악은 김민기가 하고 안무는 채희완이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장산꽃매라는 작품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연우무대 쪽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약간 마당굿패하고 연우무대까지 포함하는, 이 그룹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 그때 김용건 선배도 배우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김경란, 이기연, 이런 하여간 대거, 대거 공연을 하고 패 공연이 성황리에 드라마 센터에서 이루어졌죠.

이형진 80년 초?

박우섭 초, 3월 달인가, 3월이나 이쯤.

이형진 5월 직전이었네요.

박우섭 5월 직전이죠. 그리고 나서 80년 3월에 복학을 해서 80년 3월이 학교가, 약간 학교도 얼어붙어 있기도 하고 약간 학교, 박정희는 죽었는데 다 암중모색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깨야 된다 소위 어떻게 보면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뭐가 필요하더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앞장섰던 것이 문화패 쪽, 그래서 문화패 쪽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진동아 굿, 뭐 동일방직 그러니까 일종의 마당극을 서울대학교로 와서 그거는 정말 공연이 끝나면 데모하는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형진 진동아 굿.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박우섭 동아일보 사태를, 근데 80년도에 그 진동아 굿 같은 거 그것도

진동아 굿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진동아 굿인데 하여간 학교에 뭘 하면 쳐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데모를 할 상황까지는 우리가 못 갔고 그리고 그런 주체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공연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3, 4월 달을 저걸 끝낸 패들이 장산꽃매 끝낸 패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진동아 굿 하자 그게 주동이 장만철, 이런 선배들이 해서 그때 진동아 굿을 하던 날 무당 역할을 연성수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성수가 학교 들어오면서 잡혔어.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격리 수준이지. 공연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서 그래서 대신 무당 역할을 내가 하게 됐어. 그리고서는 또 조금 도망다니고 이리고서는 하여간 그리고 나서 80년도에는 복학생들하고 대학 총학생회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죠. 데모를 시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 학회들이나 이런 노동 운동하는 쪽들은 조금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복학생들하고 문화패 쪽이 치고 나가야 된다는 쪽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문화패 쪽에 진동아 굿이나 이런 공연 형태로 몇 번 달굼질, 일종의 저기를 하고 그러다가 병역직책 반대 이슈가 터지면서 학내 시위가 일어나지.

이형진 그렇습니다.

박우섭 반대 학내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집 반대 그 시위에서 교문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한참 논쟁을 하는 와중에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농성만 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와중에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치고 나오면서 5월 15일

날인가, 13일인가, 12일인가 서울대학교도 치고 나가고 서울역  
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5.18이 터집니다.

이형진 박우섭 선생님은 장산곶매 그리고 진동아 굿하고 이 과정에  
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배우로 이렇게 등장하셨던 것 같습니  
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곧바로 이렇게 연행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박우섭 장산곶매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진동아 굿은 그럴 위험  
성이 있었죠. 진동아 굿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저쪽  
에 전략적으로 놔두고 있었던 거죠.

이형진 그런데 복학생으로 3월부터 학교를 또 가기 시작했던 말입니  
다. 그리고 5월을 맞게 됐습니다.

박우섭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복학생 협의회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복학생 협의회에서 내가 복학생 협의회 소속이기도 하고 문화  
패 쪽 소속이기도 하여간 나는 치고 나가야 된다는 쪽이었으  
니까 계속 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쪽이고 그래  
서 5월 달에 시위를 다시 주동을 하게 되죠. 복학생협의회 대  
표로 해서 같이, 물론 그때는 전면에, 시위 주동의 전면에 쓰  
는 것은 총학생회나 이 그룹들이지만 어쨌든 그 토론하는 과  
정에서는 여기에서 계속 치고 나가자는 쪽에서 있었기 때문  
에 5.18 조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바로 수배가 되지. 며칠 후  
에 신문에 수배 명단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수배돼  
서 도망.

이형진 아, 3년이었습니다?

박우섭 예, 83년도, 83년도에 수배가 풀렸어요.

이형진 지명수배 사진이 나왔겠네요.

박우섭 그렇죠. 바로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 도망 다니면  
서 1년쯤 후에 또 나오고 그다음에 박계동이 밀양하러다가 못  
하면서 82년도인가 이때쯤에 다시 한 번 또 텔레비에도 나오  
고 그래서 계속 수배돼서.

이형진 수배 생활 3년과 그리고 인천에서의 활동이 시작되는 과정까  
지 이렇게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활동,  
정치투쟁이 활발했던 79년, 80년 5월까지 그리고 5월 이후에  
다시 잠복하고 그리고 모색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 무렵에  
박우섭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인천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천으  
로 이렇게 쪽 활동 근거지를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그 과  
정은 사실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  
민주화운동 세력 내에서 이렇게 판단들이 같이 있었을 것 같  
은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청련 활동 직전까지  
거든요. 김근태 선생님도 계셨고요.

박우섭 그 전에 인천하고 연계된 것은 70년대 후반에 동일방직 공연  
하는 거 하고 반도상사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연결 고리를  
쪽 지속적으로 갖게 된 거는 오히려 반도상사 쪽이죠. 그리고  
광야교회 그래서 80년대에 수배돼서 도망 다니면서도 반도상  
사 쪽을 만나니까 인천 쪽으로 많이 오기도 했고 수배돼서 도  
망 다닐 적에 80년 5.17이 나자마자 그때 우리 서울대학교나  
서울 지역 학생들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다음 날 영등포로  
모인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다음 날 영등포에 갔는  
데 결국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수배돼서 도망 다니는

데 광주 소식에 올라오죠. 광주의 소식이 올라오면서 소위 북학생들 쪽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일종의 접선 형식으로 한 7, 8명, 10명 이렇게들 만나요. 만나면서 광주 이 참상을 어떻게 서울에 알릴 건가 하는 것을 짚다고, 그래서 연흥극장 앞에서 모여서 시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형진 연흥극장은 어디지요?

박우섭 영등포. 영등포역 연흥극장 이렇게 해서 하려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대 최정순, 서울대 연성만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면서 6월, 정확히 기억을 하는, 6월 13일 날 종로 피카디리 단성사 극장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시위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한빛교회 쪽 아까 얘기한 이동섭이 이 친구를 통해서 한빛교회 쪽에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 화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인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 13일날 한빛교회에서 시위를 하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5.18 도망을 다니면서 수배돼서 우리가 홍대 앞에 이기연이가 화실을 하고 있었다고. 탈출반하면서 화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서 숨어들지.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연성수, 김봉준 이렇게들 만나고 황선진도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유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기현이 관화를 찍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광주 참상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6월 시위를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갔다가

한빛교회 팀들이 잡혀가고 이러면서 그것도 그렇게 그냥 불발 비슷하게 끝난다고.

이형진 한빛교회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박우섭 한빛교회 위치는 도봉구 쪽이죠. 그런데 한빛교회 학생회 쪽, 청년회 쪽 친구들이 강한 응집력과 그런 거, 또 근거지가 있으니까 데모에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데모하고 그리고서 6·13 그것이 실패하고 나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뭘 움직일 동력들이 한 8월쯤에 가면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뭘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는 대방동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하면서 도망다니는 소준섭이라고 몇 명 있었는데 국풍 81이라는 걸 한다고. 8월인가, 허문도가 기획해서 81년인가, 80년도에 도망다니고 그리고 나서 80년 6.13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는 동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도망다니는 것만 하고 유인물만 만들어서 가끔 뿌리고 그러다가 국풍 81 할 적에 그때는 대방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수배돼서 도망다니면서 광주에 조봉훈이 올라와서가 거기에다가 불이라도 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석유통하고 저기를 하고서 들고서는 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혼비백산이 그냥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방법이 없어서 인천으로 내려와서 간석 주공아파트에 황선진이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숨어서 살다가 도저히 오래 있기가 어려워서 이, 그게 전이구나. 80년도 그게 한 80년도 8월 달쯤 되고 그다음에.

이형진 수배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아파트를 구하셨잖아요.

박우섭 그다음이고 그때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거지. 혼자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부친의 성분도 수녀원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마 무슨 성가병원이나 뭐 이쯤 돼 있을 텐데 거기에서 누가 카톨릭 쪽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황선진이 이렇게 중간에 써줬을 텐데 거기 가서 취직하는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월급 받고 그때는 거기서 월급 받고 한 3개월 살다가 그다음에 대방동에 가서 방 얻어서 월급 받은 돈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방 얻어서 자취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때 쯤 구월동의 주공 아파트에.

이형진 81년 말이네요.

박우섭 81년 말이거나 그러죠. 81년도 하반기 여름 때쯤이거나 그때 81년도 구월 주공아파트가 막 새로 입주도 했고 그때의 김근태 선배가 거기 주공 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었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13평짜리가, 15평인가, 13평짜리가 그때 월세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었어요. 50에 5만 원, 구월 주공 아파트. 그래서 그때 김근태 선배하고 같이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준 선배가 거기가 간석동 극동 아파트인가 거기서 거기는 부인까지 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도망다니고 살고 내가 김근태 선배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것은 79년도 10·26 나고 나서 신동수 선배가 어디 누구네 집에 한번 가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김근태 선배가 인재근 의원하고 거기도 결혼 안 하고 살림 차리고 아기 낳아서 살고 있는.

이형진 김근태 선생님은 그때 장기 수배자였죠.

박우섭 그렇죠. 그보다 전에 인재근 의원은 동일방직 연극 연습하면

서 그때 만나서 봤었어요. 그때는 학출인 줄 몰랐고 그리고서는 뭐 여름 수련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근태형하고 사는 데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거야. 동일방직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래서 근태 선배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80년도에 근태 형 결혼하고 그래서 구월 주공아파트로 사시고 우리도 이제 구월 주공아파트로 와서 거기서 나하고 소준섭, 이범영, 민종덕 수배돼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네 명에서 같이 살았지. 박승호까지 살았구나, 박승호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간이 마련이 되니까 아지트였고 거기에서 학림 유인물 만들기도 하고 프린트를 거기서 하고 또 광주,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거기서 만들었지. 거기서 프린트하고 타이핑 치고 하는 거를 거기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민종덕이가 주로 타이핑을 하고 이거 미는 거는 내가 밀고 그게 꽤 유용한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구월 주공아파트가 그리고서 거기서 막 새로 입주하는 거니까 서로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명절 때는 좀 그러니까 명준이 형제 집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명준이 형제는 가족이 다 사는 거니까 명절 때 거기 모여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그러다가 박계동이 밀항을 하다가 그게 걸렸지, 걸리고서는 우리가 혼비백산해서 다시 흩어지지, 그걸 놔두고.

이형진 박계동 선생님은 그때 같이 살지 않았죠?

박우섭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만났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던 거지. 어디, 어디 가면 그러니까 박계동도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박계동은 tv에 얼굴 나와가지고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때 알고 있었던 문국주도 잡혀가는데 문국주는 횡단보도 건너든가 어디 이렇게 잡히더라고. 다 하나하나씩 다 잡혀 들어가고 끝까지 남은 거는 나하고 소준섭인데 중간에 82년도 말쯤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와서 같이 산다고. 구월동 주공 아파트에 가서 같이 살고 그러면서 여기도 약간 안정이 돼서 가족이 사는 것 같은 게 되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거기서 역곡으로 갔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와서 결혼식하고 역곡으로 갈 거야. 일단 그 주공아파트에서 꽤 오래 살았어.

이형진 박우섭 선생님이 수배 상태였는데 일단 결혼을 하신 건가요?

박우섭 옛날에 반도상사의 연극 같이 어떤, 집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 거지.

이형진 결혼식은 신부님 휘하에서 그냥?

박우섭 결혼식은 주안 5동 성당에서 집사람 언니하고 근태형하고 증인을 섰던가 그렇게 해서 주안 5동 성당에서 82년도에, 그거는 이제 83년도 정식 결혼식이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카톨릭이었으니까 카톨릭에서 혼배미사만 드리고 그것도 그냥 증인 둘만 세우고서는 하고서 같이 살고 83년도 해제되고 나서 당진교회에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린거죠.

이형진 점점 인천에서 그 활동 근거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역 운동이나 당시에 80년대 중반이 되면 조직적인 노동운동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우섭 선생님이나 김근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민청련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판단이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우섭 그러니까 83년도에, 8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석방돼서 미국으로 가시고 82년도에 그러면서 그때의 약간의 유화국면이 형성 이 된다….

이형진 그리고 83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렇죠.

박우섭 82년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82년도 하반기쯤에서 수배가 해제되고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82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내경, 이동섭, 나, 박광순, 정진태 이런 같이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이 80년대에도 쪽 지속이 됐다고. 그래서 82년도 말쯤에 모여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게 저쪽에 걸려서 모였던 장소가 털렸는데 거기에서 우리끼리 얘기한 중에 무슨 예비군 무기고를 털고 이런 얘기들이 저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 누구 모였다는 것이 여기 내가 거기 모인 것이 다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게 다시 못 나온 거지. 못 나오고 83년도에 한 4월 달쯤 해서 수배가 해제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아버님이 또 중간에 서서 경찰이 와서, 경찰은 그때 자수만 시켜도 1계급 특진이니까 나를 자수시켜서 83년도에 수배가 해제되고 나오고.

이형진 구속되시지는 않으셨던 거죠?

박우섭 구속은 아니고, 구속은 안 되고. 그리고 나서는 83년도에 시골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아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일단 당진에 있는 상황에서 뭐 같이 저기를 하니까 서울로 오자고 그래서 내가 수배돼서 가 있는 동안 집사람이 당진에 가 있다가 서울로, 역곡으로 집을 얻어서 왔고 거기에 근

처에 두진 아파트인가에 근태 형이 살고 그리고 우리도 역곡으로 방 빌려서 왔고 거기에 이제 이범영도 역곡에 살고, 역곡에 몇몇 사람들이 또 거기서 모여 살았지. 모여 살면서 처음에 내가 올라올 적에는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먹고 살.

이형진 당시에 30대 초반이셨습니다.

박우섭 30대 초반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운동연합이 그때 유일하게 있는 조직이에요.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공해추방 운동가 거기에 일하는 걸로 핑계를 대고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미생물학도 전공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수배돼서 나오면서 그때의 공개 운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크게 주창했던 것이 조성우 선배고 그런데 조성우 선배는 과거 청첩부터 해서 했는데 이 학생 운동했던 그룹 내에서는 지금은 그런 공개 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더 기층으로 들어가야 되고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림-학림 논쟁이기도 하고 소위 80년 5월에 대한 서로 평가의 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성우 선배는 너무 치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티가 좀 강해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안양로 선배나 이런 쪽들이 더 무림 쪽에 가까운 쪽이었는데 그래서 공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운동, 국민회의 같은 것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 그런 노력들을 했죠. 했는데 어른들이 그게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청년들부터 먼저 띄우자 그래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청년 조직을 공개 조직을 띄우기로 했고 그 대표를 누

가 맡을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논의가 많이 돼서 사실은 양노형이나 이런 쪽이 좀 맡았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장기론적인 데가 조금 움직여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고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근태 형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고민 끝에 본인이 결단을 해서 민청련을 맡으신 거죠.

이형진 우리 박우섭 선생님은 그때 민청련 활동을 통해서 공개 청년 운동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직접 정치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박우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화국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적인 조직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활동 공간을 좀 넓혀가고 또 이게 전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었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그런 걸 만들어내면 한 입에 적한테 털어주는 꼴이 된다, 이게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간 선도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민청련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민청련을 만들면 그 조직이 뜨면서 거의 다 구속이 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쪽의 정책도 그냥 이 정도는 놔두고 관리하고 간다는 쪽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김근태 선배가 구속되지 않고 석방돼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했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형진 탄압의 계기는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학생운동 민추위 수사 과정에서 민청련과의 연계를 했고 그러면서 김근태 회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쫓 가는 건가요? 1년 정도는 활동을 굉장히 활

발히 하셨습니다.

박우섭 그러니까 83년도에 9월 30일 날 민청련이 뜨고 그해 겨울에 우리가 황정하 추도식도 하고 황정하 영정 사진을 찍은 팸플렛도 만들고 또 8월부터 계속해서, 아니 9월부터 집회도 하고 또 83년 연말쯤에서 대거 석방돼서 나온다고. 석방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화 길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84년도 5월에 광주 참배하고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인물 만들고 유인물 돌리고 그리고 그때 일본 누가 오는데 그거 방한 반대, 이런 방한 반대 시위하고 우리가 계속 84년도에 집회를 한단 말이죠. 집회를 해서 제가 84년도에 4번을 그리고 살아요.

한 해에 그때 4.19 수유리 묘지 가서도 그리고 살고, 그다음에 박종만 열사 분신하신 거 장례식장에서도 하고, 노동운동 쪽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집회를 주도하고 그리고 그 뒤에 국민회의도 뜨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러고서 85년도 2.12 총선에서 약간 저쪽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저쪽에서 조금 그냥 놔둘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고서 그러면서 그 빌미를 민추위 사건으로 잡은 거죠. 사실 85년도 2.12 총선 이후에 탄압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85년도 2.12 총선과 이런 직선제 개혁의 움직임, DJ 들어오고 이런 점에서 탄압은 예견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민추위 사건은 그냥 하는 핑계고 민청련을 더 이상 놔두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형진 85년 상황은 악화되는데 사실 86년에 5·3까지 쪽 이어지는 국

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87년까지 가는 과도적인 단계였는데 86년 5·3은 인천에서 사건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청련이나 박우섭 선생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박우섭 그때는 민청련은 김근태 선배가 구속이 되고 나는 수배가 되고 85년도에 그랬다가 내가 86년도 86년도 3월쯤에 내가 구속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5·3 인천 사태 때는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민청련이 김근태 선배 없이 2기 체제로, 이미 2기 체제를 만들었는데 한경남, 김희택으로 이어지는 저기로 했다가 다 구속이 되고 하면서 소위 1기 그룹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되고 희택이 형까지 구속이 됐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민청련을 이어가고 있었고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민통련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직선제 개혁 운동이 불붙은 거죠. 85년도 하반기에 소위 212 총선 끝나고 나서 직선제 개혁 현판식이 붙고 그다음에 86년도 5월에 인천에서 5·3이 절정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또 한 번 저쪽에 대대적인 탄압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86년도 5·3 이후에는 활동이 없는 상황에 활동이 조금 침체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86년도.

이형진 3월에 구속돼서?

박우섭 9월이나 10월쯤 나와요, 집행유예로.

이형진 그럼 한 6개월 정도, 5·3을 지나서 나오시네요.

박우섭 5·3 지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85년도 10월에 갔다가 86년도 7~8월에 나오거나 그때쯤 나오거나 하여간 모

르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민통련으로 가서 활동을 한다는 민통련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4·13 호헌 조치가 4·13, 87년, 87년, 4·13 호헌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6년도 하반기가 상당히 운동이 좀.

이형진 찾아들어요.

박우섭 찾아들고 그거에 저쪽이 약간 자신감도 있어서 개헌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호헌으로 그냥 가버리고.

이형진 그리고 87년 2월에 박종철 사건.

박우섭 그전에 박종철 사건은 87년 1월이고 그래서 박종철 사건에 대한 것이, 박종철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있다가 호헌 조치 내면서 저쪽에서 그걸 확 막으려고 하는 거를 다시 87년도에 박종철 사건의 그러니까 박종철이 그냥 탁하고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가 났다가 고문치사가 됐다는 것이 사실상 호헌 조치 이후에 폭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밝혀지면서 6월 항쟁으로 가는.

이형진 민통련 활동을 가시게 될 때도 민청련 이후에 계속 공개적인 정치 운동, 정치 투쟁을 하신 겁니다. 보면 그런데 사실 그건 정당 운동도 아니었고 그리고 구속이나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민청련 자체도 두꺼비가 상징했던 구속되고 이렇게 싸워서 그러니까 이 국면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박우섭 선생님도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우섭 그런데 내가 특히 조금 민청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물론 내가 3년 동안 수배는 됐었지만 그리고 79년도

에 범인 은닉으로 이렇게 기소 이후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가 감옥을 한 번도 안 가,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거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때 사실은 고마웠던 거는 박계동 같은 경우도 일본인가 미국인가 유학 간다고 뭘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민청련 같이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홍성엽도 마찬가지고 연성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김근태 선배가 의장하고 부의장을 장영달이, 내가 총무하고 박계동이 홍보하고 홍성엽이 일종의 재정 이런 거 하고 연성수하고 그 사무국을 꾸리면서 어쨌든 다 감옥 갈 결심들을 하고서는 하는 거였다고, 특히 연성수 같은 경우는 감옥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또 저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80년 5·18 이후에도 다 감옥을 한 번씩들 또 갔다 오기도 하고 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감옥을 안 갔다 온,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선뜻 내가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민청련 활동하면서 85년도에 처음 감옥을 갔다 온 건데 그동안 구류는 살았지만은 그러고 나서 86년도에 나와서 민통련으로 가서 민통련 활동을 하고 그리고 87년도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에 일종의 민통련 파견 형식으로 해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형진 87년에 6월 항쟁과 7~8 투쟁을 지나면서 국민운동본부나 이렇게 아주 대중화된 민주화 투쟁들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저희 재야에서 투쟁을 했던 분들은 정치운동, 정치 1선에 나가는 문제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 1선으로 나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종적인 판단과 논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우섭** 그런데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6월 항쟁 때 그전부터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서는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6·19 선언 전에, 우리가 집회를 6, 26인가 뭔가 집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문으로 시위 과정에서 죽었던 이한열 연세대 추도식. 그래서 하여튼 6월 20일쯤인가, 며칠쯤에 그때는 산곡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날 자고 나가다가, 아침에, 청천동에 살 때구나, 청천동 처갓집에 살고 있었던 거구나, 청천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집에 들어왔다가 연행이 돼요. 연행이 돼서 6·29 선언 나고 나서, 그러니까 6.29 그 행사 준비하기 직전에 잡혀 들어갔다.

**이형진** 수시로 잡아가는 거죠.

**박우섭** 그렇죠. 6·29 선언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6·29 선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헌도 이루어지고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소위 김대중 비판적 지지 쪽 입장을 정리를 한다고, 물론 내부에서 논쟁이 심했고 하지만 민청련에서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무슨 저기 어떤 절에 저기 성북동에 있는 무슨 절 같은 데서 후보 초청 토론회도 하고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청련은 약간의 내부의 반대도 있고 저기 했지만 입장을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지지 입장을 했고 독자 후보론도 있고 단일화론도 있고 세파가 나뉘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때는 비판적 지지론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호남 대증을 그냥

이걸 지역, 지역감정으로 보는 거는 옳지 않다, 호남 대증은 그 자체로 소위 우리가 기층민중으로 봐야 되고 가장 탄압받은 세력으로 봐야 되고 결국은 여기가 주체가 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위 김대중을 통한 정권교체가 진정한 민주화다 이런 입장에 서서 근데 안타깝게 내가 11월인가 12월에 건대 1주년 그대 강연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강연하고 그리고 저기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간다고.

**이형진** 89년이었습니까?

**박우섭** 87년. 86년 10월인가, 11월쯤에 건대 사태가 나고 그때 왕창 잡혀 들어가면 다시 한 번 잡혀 들어가면서 86년도 말이나 87년도 초반에 확 얼어붙는다고. 그래서 87년도에 건대 사태 1주년 행사에 가서 연설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고 그리고서 88년도에 다시 나오죠. 그때 한 10개월 살았나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소위 87년 대선하고 88년 총선 때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등포구치소에 있었는데 구로 대선 끝나고, 구로, 구청 사건으로 감옥들 들어오고 그리고 어쨌든 대선 대패하고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나와서는 다시 민청련 활동을 다시 복귀해서 하죠. 민청련 활동을 다시 복귀해서 하다가 91년도에, 91년도에 소위 3당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3당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재야 쪽에서 소위 평민당하고 이쪽에서 소위 92년도 대선을 준비하는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정치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91년도에 우리가 신민주연합당인데 그 전에 민주연합, 민연을 만 들어요. 그래서 이부영 선배하고 오충일 목사 이런 쪽하고 같

이 만들다가 그게 깨진다고 깨지면서 이쪽은 신민주연합 당으로 가고 저쪽은 YS쪽으로 저는 91년도에 신민주연합당으로 들어와서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91년도에. 그래서 지방 그때 이부영 선배나 그쪽이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꼬마 민주당을 만들어요.

이형진 그렇군요.

박우섭 그러니까 YS가 3당야합으로 가고 남아 있는 이기택 이쪽으로 해서 꼬마 민주당으로 해서 그쪽은 꼬마 민주당으로 가고 우리는 평민당하고 합쳐서 신민주연합당을 하고 그러다가 지방선거에서 깨지면서 다시 꼬마민주당하고 신민주연합당하고 합쳐서 민주당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92년도 대선을 치르죠. 그리고 나는 91년 당에 들어와서 91년도에 그때 신민주연합당에 들어와서 꼬마 민주당과 합당해서 통합한 민주당 가지고 92년도, 92년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부평을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저쪽 민주당 쪽에 이병현하고 경합해서 이병현한테 밀려서 공천을 못 받고 그냥 당에서 부대변인 활동만 하다가 92년 대선을 치르죠.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나서 95년도 지방선거 때 초기에는 조순 시장 서울시장 선거 돕다가 인천의 신용석 시장 후보를 도우러 와서 여기서 대변인으로 신용석 후보 돕다가 그 해에 명화섭 위원장이 시장 안 된 것에 대해서 탈당하면서 인천 남구 갑 지역위원장을 그때 장기욱 의원하고 경합해서 그걸 맡아가지고서는 이쪽 남구 쪽에서, 지금 미추홀구 쪽에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이형진 정치하던 과정 하시게 된 과정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보니까.

박우섭 우리가 생각하기에 3당 야합을 하면서 김영삼이 김종필하고 3당 야합을 하면서 92년도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민당으로 세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재야가 발전 못 해서.

이형진 박 선생님,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운동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표현으로 이렇게 변혁운동적 관점, 이런 부분들에서 민청련 이후에 그 87년 이후에 정치 운동으로 넘어 하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조직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인천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격적인 지역 운동 내지는 지역 민중들과의 삶. 그리고 거기서 정치의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박우섭을 만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소회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섭 그런 생각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변혁 운동의 관점에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소위 85년 2·12 총선 때도 선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었고 87년도 대선 때도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적극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88년도에 평민당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는데, 대거 들어가는데 그때의 소위 민주화 운동하고 평민당으로 들어가는 정치 세력하고 선을 끊는다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 이제 소위 변혁운동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부분을 파견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중심을 변혁운동에다 두고 정치권으로 간 사람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정치에 가면 민주화 운동의 순수성이 계속 가지면 없어지니까 그거를 끊는 식으로 우리 변혁운동이 생각을 하고 관계 설정을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물론 진보 정당도 있고 또 다른 여기도 있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한 중요한 축이고 제가 이 생각을 견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들한테 정치권에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 당산네들의 현재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소위 진보적인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DJ는 스스로를 보수 정당이라고 이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되면 그때 따로 나가서 진보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경로다 그러면서 영국 노동당의 예도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올바른 경로라고 생각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확고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력이 민주당 내에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서 나와서 진보 정당을 이렇게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된..

이형진 그렇죠.

박우섭 그리고 DJ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우리 그때는 평민연인가 그런 모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히려 DJ 정부가 보수 정권임을 더 확실히 하고 그래서 저쪽 한나라당을 그쪽으로 확 밀어붙이고 그리고 무슨 그때 진보 정당이나 이것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분단이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세월이 흘러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87년도서부터 97년도, 2000년도, 2010년 이 때까지는 그런 개념으로 변혁운동이 정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로를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형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인천에 계시면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실 텐데 여기 남구, 미추홀구는 박우섭 선생님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연이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섭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하하.

이형진 쉬시고요, 하하.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나름 성과를 냈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우섭 이런 게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87년도보다 지금은 자본이 갖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뭔가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

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 평생 학습이 됐든 시민 운동이 됐든 심지어는 종교가 됐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이것이 아주 기저였어. 그게 교육 혁신이 됐든 지금 교육조차도 그러니까 교육.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본에 의해서 포획됐달까, 심지어 노동운동조차도. 이런 토대 하에서는 소위 바른 방향으로 변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초가 되는 운동이나 이게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종교, 교육, 노동운동 이 전반에서 소위 이기적인, 물질만능적인 경쟁,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막아내기는 어렵고 그런 토대 하에서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형진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섭 선생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헤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우섭 감사합니다.

# 성효숙



- 1958년 부산 출생
- 1984년 미술동인 '두령' 창립전
- 1985년 인천일꾼자료집에서 2인 공동작업 만화집  
'봄을 찾는 사람들' 출판
- 1988년 인천 부평공단 노동조합 활동과 '새벽'지 출간
- 2003년 인천민족미술인협회 대표
- 2012년 인천 콜트약기 공장 점거작업  
"콜트약기 공장에 예술작업실을 열었어요"

일 시 2022.9.28.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성효숙

이형진 오늘은 2022년 9월 28일입니다. 70년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 하셨는데 이후에 노동 현장에 투신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중미술운동 영역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문화운동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활동들을 해 오고 계십니다. 성효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성효숙 안녕하세요.

이형진 선생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1958년생인, 부산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78년도에 홍익대학교 미술교육과 진학을 하시게 된, 쪽 부산에서 사셨는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과정을 간단히 이렇게 좀 추억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효숙 저는 세 살 때 부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서울로 왔고요. 서울 영등포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불광동 북한산 밑에서 좀 오래 살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85년도에 인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형진 혹시 가족 관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효숙 가족, 저는 4남매고요. 1남 3녀의 막내입니다.

이형진 위로 그러면.

성효숙 오빠 한 명 언니 두 명 있습니다.

이형진 혹시 집 안에서도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신 다른 분도 계신가요?

성효숙 미술 전공자는 외가 쪽에 있고요. 외가 쪽에 성악이라든가 또 미술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큰언니 같은 경우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늦게, 이전에는 언론인이었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홍익대학으로 이렇게 진학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쪽 가지고 계셨고.

성호숙 쪽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은 매우 좋아했고 나중에 제가 치유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쪽 무슨 전공 뭐 화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대회를 선생님이 권해서 나가서 좀 쑥스럽지만 제일 큰 상들을 늘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그 책으로 보는 세계적인 화가들이 좀 큰 감동이 와서 그래서 그림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는 좀 뒤늦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진 대표적인 화가 혹시 꼽으실 수 있나요?

성호숙 네, 중학교 때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 뿐만 아니라 고희의 화집, 서신, 서신에서 동생 태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림이라는 것이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였습니다.

이형진 78년에 대학을 진학하시는데요. 78년은 사실 유신 말기였거든요. 홍익대학교는 좀 조용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주변은 어떻게 보면 엄혹했고 약간의 소요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78년 대학 가서 그러니까 졸업하기까지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눈 뜨게 되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시죠.

성호숙 아까 가족 관계에서 한 분을 빠뜨렸는데 그 민언협 회장이었

던, 한겨레 창간하셨던 성유보 오빠가 사촌 오빠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인이었던 큰언니하고 서울대 문리대 정치외교학과 그렇게 두 분이 같이 다녔구요, 같은 나이로. 그래서 암암리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저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아투위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듣고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해고되고 이런 얘기들도 저한테는 좀 새로운 세계를 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배들이 제가 1학년 때 4학년 선배들이 졸업하는 마당에 후배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그래서 스터디그룹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학도 소개 받았고요. 난곡에 있는 야학 그것이 직접 만나서 어떤 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저와의 다른 모습만 보았고 제가 거기서 잠깐씩 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삶, 삶에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들과 가끔 만나는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학을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차곡차곡 쌓이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제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직접적인 계기, 아주 큰 충격은 3학년 때 있었던 80년 광주항쟁입니다. 광주항쟁 때 이전에 제가 알고 그다음에 그렸던 어떤 삶뿐만 아니라 예술관, 세계관, 사회를 보는 의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계기가 되고요.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 사회에 어떤 활

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저는 그것을 사회적 세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세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주항쟁 뿐만 아니라 70년대 전태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전태일 그다음에 인천에 계셨던 유동우 선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그리고 그때 70년대에 나왔던 전태일, 거기도 서신이죠, 일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광주항쟁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서 어떤 것을 하게 됐던 계기는 빈민운동 했었던 허병섭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고요.

이형진 81년이네요?

성호숙 아니요. 80년도입니다. 80년도 광주 이후에 그때 엄혹한 분위기와 제 예술관과 사회관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노동자용 그림을, 노동자 교육용 그림을 그려달라는 허병섭 목사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형진 그 대목 그러니까 허병섭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쯤이었던 것 같습니까?

성호숙 광주항쟁 지나서 1980년도 가을부터입니다. 가을부터 당시 허병섭 목사님은 하월곡동에 판자촌 거기서 빈민교회를 하고 계셨고.

이형진 교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성호숙 아니요. 교회는 나중에 찾아갔죠.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홍대, 4명, 5명이 그룹을 지어서 허병섭 목사님의 그림을, 요구하는 그림, 노동자들에게 글로 하는 거는 굉장히 다가가

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좀 쉬운 그림으로 이미지라는 것이 훨씬 다가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쉬운 그림을 그려서 말하자면 노동자 의식화의 어떤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허병섭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해 주시고.

이형진 회의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호숙 회의는 지금 질경이라고 하는, 우리웃 대표인 이기연선배, 그 선배가 결혼한 분이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었고 그래서 거기 화실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화실에서 작업을 같이했고 그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열람도 하고 그때 만났던 화가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독일의 케테 콜비치라고 하는 작가를 거의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때 책이 비닐 포장 이 뜯지도 않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형진 화집을 발견했군요.

성호숙 네, 화집을 발견을 했구요. 당시 공부했던 초점은 예술과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예술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에밀 싱클레어가 쓴 힘의 예술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힘의 예술이라는 거에서 그 시대마다 어떤 작가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책 안에 있었고 당시 유명했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뭐 소위 예를 들면 로맹이다, 발자크다 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상황을 알려면 그 책에는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를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죠. 사회 경제적

인 문제, 그리고 아까 잠깐 1학년 때 야학을 잠깐 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주로 서울대, 이대, 교대 친구들이 했고 저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일반 검정고시 야학이었는데 노동야학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반경제사론이라든가 what is to be done?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대체 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어요. 여길 계속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계기가 노동자용 교육용 그림, 그리고 공부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직접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취재를 가죠. 카메라를 들고 그때는 뭐 제 카메라가 없어서 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청계천을 가보는 거죠. 청계천 다락방, 그 책에만 나오던 다락방을 보러 가면 정말 햇빛 못 본 파리한 여성 노동자,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초점 잃은 눈으로 이렇게, 저는 마치 감옥 같은 창살 사이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댈 수 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책과 다르지 않구나, 너무 현실을 보고 굉장히 놀랍구요. 그런 것들로 제 그림의 방향이나 삶의 방향이 좀 차곡차곡 쌓였고 그리고 그런 계기로 저희 홍대에서는 조소과 3학년부터 전공이 되어서 조소과로 했거든요. 그러면 4학년 때는 야외 조각전이라는 거를 해요. 저희 홍대 캠퍼스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 보면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서 4학년들만 졸업 전에 야외 조각전

그 다음에 졸업 전 이렇게 이어지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외 조각전 때 그동안 보고 느낀 노동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데요. 당시로서는 좀 스케일이 큰 거였어요. 지금은 아시바가, 요즘에는 좀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아시바였거든요. 아시바 높이도 굉장히 높았죠. 4, 5m 이렇게 된 것들을 열 개를 이용하고

이형진 목조 골조로 만들었나요?

성호숙 그 설치물, 제가 그 나무를 골조를 만들었다기보다 설치를 아시바를 활용했어요. 아시바에는 당시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광목에 실크스크린으로 떠서 10개에 감았어요. 아시바 앞에 노동자들을 작업복을 입히고 그리고 팔다리를 뜨고 이렇게 해서 열 명의 팔다리를 석고로 뜨고 이러면서 쓰러졌다던가 앓았다던가 일어났다던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교수들에 의해서 철거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철거 인생이라고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때 당시 빈민촌, 판자촌,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철거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형진 그래서 그거는 81년도 일입니까?

성호숙 네, 81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교육용 그림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의식화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의식화란 별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정말 부조리하고 또 빈부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는 어떤 그런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비인간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공부를 뭐 별반 크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였고 제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의식이 사회로 확장되는 계기 그러므로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인 성숙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권이 얘기하듯이 무슨 대단한 빨갱이들이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웠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웃을 눈을 돌려서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태일 또는 그때 시대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존재 이전을 하게 되죠. 존재 이전 또는 하방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양심 취업이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정권은 위장 취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위장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방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지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 그룹들에서 있었어요.

이형진 그 시점 정도에서 그런 홍익대학교 안에서 모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에서 허병섭 목사님과 교류해서 일련의 많은 만화 작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료들하고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후배들과, 아니면 선배들과?

성호숙 네, 만화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 그림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참 굉장히 아까운 것이 선배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분실해 버렸어요. 저희가 거의 1년 작업을 한 건데 왜 분실됐냐고 물어보니 그 당시 왜 가방 검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요. 뭐 이런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데 지금 질문의 답은 선배 한 분, 이기연 선배 그다음에 동료들은 이후에 많이 알려지게 된 깡순이 이은홍, 국보로 들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이정임이라고 하는 나중에 교사가 활동하게 되는 그다음에 이소영이라고 하는 후배 이렇게 그룹이 돼서 작업을 했고 그때 허병섭 목사님이 가지고 오신 문건, 그때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는데 해태, 롯데 노동조합의 실상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노조 하나 만들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해태, 롯데 노동조합 여성 노동자들이 동상으로 손이 얼어붙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들이 쭉 이어지죠. 전태일, 유동우 선배, 난곡 야학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광주항쟁 때 끌려가는 모습, 그런 것에서 삶이란 뭐고 예술이란 뭐고 진실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거에서 허병섭 목사님이 가지고 온 문건들을 늘 보고 이러면서 제 생각들이 좀 굳어갔던 거 같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노동자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허병섭 목사님하고 밤에 우리 그룹들이 계속 뭐 얘기 나누고 또 저희 학생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뭔가를 많이 얘기해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이 제가 병어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 동생이 병어리였다고 하더라고

요 제가 정말 멍어리인 줄 알고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 상황이 그런 걸로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리고 너무 매번 충격이었거든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끼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좋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그리고서 그림 작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는 생리휴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성 노동자가 생리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려본다든가 그게 제가 그린 분야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나씩 말아요. 논의를 한 다음에 누가 뭘 말할까 제가 생리 때문에 배아파서 몸을 숙이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그리고 그때 표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랬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지막의 컷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뭘가를 새롭게 눈 뜨는 노동자 이런거였고요. 그런 거를 그리다가 야외 조각전이 또 철회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민중미술이라든가 이런 말도 없었을 때였어요. 지금 얘기하면 조소계,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제 작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야외 조각전을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저의 담당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양화과의 어떤 교수라든가 조소과 교수 중에서는 한 분 같은 경우는 중립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하지만 이미 다 철회, 조교들에 의해서 다 철회된 이후였구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괴로웠죠. 괴로웠던 것이 제가 작품이 많으면 작품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조각 작품으로는 학교에서는 모델링만 해요. 모델링이란 뭐냐면 주로 누드 모델, 여성이 모델을 하러 와요, 시간마다. 그러면 누드를, 왜냐하면 인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체를 모델링 작업이라고 전신대, 전신상에 이렇게 뼈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흙으로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데 교수의 어떤 의견은 뭐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걸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작업을 하느냐, 이런 것이 주요 요지였는데 그것이 아니었겠죠. 뭘가 좀 이상한 작업을 당시로서는 하나까 또 그때 당시는 독재 정권 하에서 그 교수들이 친정권적인 것이었고 또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학생과장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졸업 작품전을 한 다음에 졸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에스키스라고 해요. 우선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만하게 먼저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요. 저는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뭘가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작품 하려고 하나 물어봐서 뭐 좀 만들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내용도 물어보기도 전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졸업 작품전인데 그러면 저는 졸업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졸업시킬 테니까 작업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작품만 전시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형진 4학년 때 학교에서 흑시 튀었나요?

성효숙 아니요. 저는 암전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무슨 팀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오픈해서 할 때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잖아

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밀적인 작업을 한 거죠. 화실에 가는 것도 몰래 가고 그래서 학과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고요. 학과 친구들은, 조각 작품은 특히 그래요. 이게 좀 메스를 다루는 작업이고 작업실이 큰 데서 작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갖춰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교수 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교수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친할 이유가 별로 없고 또 저도 제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형진 그러니까 4년 동안은 학교생활은 되게 조용했는데 내면은 끊임없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들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네요. 81년까지 해서 졸업 작품전은 못했지만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2년에 곧바로 공장을 가시게 된. 그래서 그 팀 작업하는 친구들하고만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학생 담당 과장님, 교수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대체 네가 왜 이러나 막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은 그래도 민중미술이라든가 보편화되어 있고 미술의 경향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행이라고 하는 소위 외래사조를 베끼는 뭐 개념미술 또 하이퍼 리얼리즘 뭐 이런 소위 잘나가는 교수들의 경향 성향들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대형 전시에 전시되고 또 그런 입맛에 맞는 작업들이 어떤 작품의 어떤 상을 받는다

든가 이런 연결고리들이 형성이 되죠, 그쪽 생태계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굉장히 또 낭만적인 대학을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보냈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면 정말 세상을 좀 알게 됐다.

성호속 네. 사실은 곧바로 아니고 그사이에 출판사 그림을 좀 그린, 그사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분기점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고 하는, 그전에는 대학에 보호막이 있었다면 분기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전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허병섭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미술 작업이 저에게는 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교육용 그림이랍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또 노동자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혼자 결심을 해요.

이형진 취업을 노동 현장, 공장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성호속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팀으로 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팀원들은 다 각자의 길들이 있잖아요, 졸업 이후에. 그래서 저는 혼자 갈 수밖에 없었고.

이형진 8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 현장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도 혹시?

성호속 저는 지금은 이렇게 사회적 관계들이 좀 많이 넓혀졌지만 당시는 정말 시야가 엄청 좁았어요. 생각도 좁았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달랐고요, 지금하고. 그래서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사람들 사귀는 것도 정

말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두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제 콤플렉스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걸 잘 못하는 게 엄청 콤플렉스였고 조직생활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그래서 그냥 혼자 구로공단을 배회하며 취업 공고판이 그때는 굉장히 많아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20대 모집 공고, 00명, 몇 세 이하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형진 가리봉 오거리 그쪽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가요?

성호숙 그럼요. 구로공단에 소위 말하는 닭장집 거기에 생활을 하죠. 거기에 월세를 얻고 생활을 했고 거기가 1공단이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철산동이거든요.

이형진 집에는 독립한다고 하고 나오셨어요?

성호숙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아버님이 좀 일찍 편찮으셨어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암 얻어서 고2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 안 식구들은 모두 다 걱정 끼치는 일은 1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할까 봐.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늦게 아셨어요, 어머니. 인천 공장에 취업하고 활동을 했을 때 공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87, 88을 겪고 나서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비합과 합법이 나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합법 활동도 하면서 합법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형진 어머니께서 아시게 됩니다.

성호숙 아시게 된 계기가 노조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회사와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설득하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노조 앞에까지 회사에 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저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서 힘들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형진 88년 정도니까 조금 뒤에 하시고 구로공단에서 82년 첫 노동자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호숙 네, 거기 삼성 하청 회사였는데 오디오 만드는 회사였고 저는 말하자면 아줌마 노동자로 들어간 거죠. 뽕글이 파마를 하고 주로 취업 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매 파마를 꼭 하고 들어가요.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라인 작업보다 포장반에 배치가 돼요. 그때 겪은 것이 이후에 저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계기가 됐던 것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사회과학 책에 나오지만 그걸 직접 겪고 보니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이형진 잔업 몇 시간 하셨습니까?

성호숙 서너시간 잔업뿐 아니라 새벽까지 철야, 특근 그리고 당시는 월급봉투 명세서도 없고 두루마리로 된 것 같이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러면 월급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데서 잔업이 몇 시간이고 그러면 얼마로 책정이 되고 특근은 뭐 얼마로 책정이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게 워낙 낯기도 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높다고 생각하지않기에, 자존감

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걸 찢어버리거나 화장실에서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루종일 물 빼빼질 하거나 그때 이후에 제가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서 만이 아니라 이후에 제가 구로공단, 그다음에 대구 경산공단, 그다음에 인천의 전자 회사 부평공단,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거지만 당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의 노동, 가계, 가사노동, 가사노동과 또 회사 생활 그런 이중적인 것 때문에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10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휴식 종이 올리기만 하면 그냥 쓰러져서 엎드려서 작업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제가 <휴식시간> 몇 점을 그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 휴식 시간, 아주머님들이 작업대 위에서 쓰러져서 자는 모습, 그다음에 <깜빡잠>이라고 하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장 작품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 잠시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동료하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 또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제가 봤던 모습 이런 걸로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죠.

이형진 83년에는 대구의 경산공단으로 잠입하셨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시다가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까?

성효숙 네, 큰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나중에 어딘가 기술을 하겠지만 박영근시인과 관계된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로공단에서는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경산 쪽에 저희 외가가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거기 봉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형진 대구 경산에서 봉제회사?

성효숙 네.

이형진 그리고 이제 84년경에는 '두렁'이라는 명칭으로 창립전을 하셨습니다. 동인이죠?

성효숙 네.

이형진 그간에 한 2년간의 활동과 졸업 이후에 이렇게 과정에서 작품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구상하거나 하셨던 건가요?

성효숙 아, 그게 두렁에 가게 됐던 계기는 자연스럽게 대구 경산공단을 정리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거기에서 파업에 연루되면서 치안본부로 이송이 되거든요. 치안본부에서 15일간 조사받고 이러면서 나오니까 라원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두렁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합류하겠냐라고 해서 저는 너무 반가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 예술, 미술과 관계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때 했던 거 제외하고는 제가 노동자 생활을 했을 때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중간에 뭐 그런 계기가 짧게는 있었지만 그런데 미술 그룹과 새로운 계기점이 되기 때문에 반갑게 흔쾌히 두렁에 합류하게 되면서 제가 경산공단, 대구 경산공단에 있었을 때 두렁 창립 예행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창립전부터 합류하게 되죠. 그때는 합숙을 했어요. 애오개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형진 창립전을 준비하면서?

성효숙 네, 애오개라고 하는 공간은 당사가 탈춤 부흥 운동과 연계되죠. 그래서 미술만이 아니라 노래 또.

이형진 예술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네요.

성효숙 네. 아현동에 애오개라는 곳에서 수많은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만나는 어떤 공간이 점점이 되죠. 거기서 저희가 합숙으로 거의 밤낮을 준비를 해서 창립전을 열게 되요. 근데 두령은 전시장 공간을 저희 어떤 작품에 결과물로 보여주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쪽으로는 예술계 쪽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인사동의 경인 미술관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예술계에서는 많은 충격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노동자, 농민 또 대학 이런 쪽의 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했고 창립전은 인사동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고.

이형진 선생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효숙 저는 그때 여러 개를 작품을 했었는데 그림일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림일기는 아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도화지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일기 형식으로 쓰고, 간단한 일기, 그래서 전지 반 사이즈 몇 개를, 4개 전시를 했고 제가 겪었던 것을 상징적인 몇 개를 포인트를 잡아서 했어요. 그다음에 낙서를 했어요. 전지 사이즈에 그때 노동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표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막혀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당시에는 화장실 낙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꼭 공장만이 아니었어요. 일반 대중의 공중화장실에도 낙서가 어마어마했는데 여성 화장실도 그랬는데 공장의 화장실은 또 특수한 게 있었죠. 관리자들 욕도 있고 또 그 공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특유한 그런 낙서도 있어서 거기서 계기를 얻어서 일 보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에 꼭 내가 본 것만이 아니라 본 거 플

러스 거기에 낙서라고 하는 한 매체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토해내는 느낌.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낙서화를 냈고요. 그다음에 또 시리즈물로 서울 풍속도라는 걸 당시 아직 인천에 이전해 오기 이전이잖아요. 서울 풍속도를 병풍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중에 제가 맡은 파트는 구로공단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구로공단 풍경을 한 폭에 그리게 되죠. 세로가 175cm 한 병풍의 한 폭을 그리고 어떤 회원은 서초동 부잣집 풍경을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구로공단 풍경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없이 그릴 수 있었죠. 흔쾌히 그렸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거 그때 기숙사 풍경 또 아까 말씀하신 가리봉 오거리 풍경 또 그때 전철이 놓인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이형진 2호선 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효숙 그래서 전철도 그리고 길에서 제가 처음에 구로공단을 배회했을 때 봤던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구로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물동이 쥐고 있는 한복 입은 여성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설치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지만 그것도 상징적으로 봤던 거라서 그런 것도 그려 놓고 근데 그 작품이 분실됐다가 2019년에 경기도에서 시점·시점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복원 작업을 합니다. 복원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참 기록이 중요한데 미술 세계라는 잡지 지면에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작품 사진이 남아 있는 걸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 사진보고 그렸고요.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일괄 작품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 작품은 인천

작업이 아니길래 그 작품은 팔기로 했고요 다른 작품들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인천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 두었어요. 두령 창립전에 작품 얘기 중에서 하나 빠뜨린 거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관화를 많이 두령에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들이 원작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상황에서 소통이나 유통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매체로 관화 또 만화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는 뒤걸개 그림. 그러니까 집회에 사용할 수 있거나 달력, 엽서등 유통이 용이한 것들을 만들었지요.

이형진 선생님, 두령 창립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기서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후 활동에 영향을 줘 주게 됐으니까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호숙 아니요. 인천으로 오게 되는 계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이전에 학생 때보다는 조금 시야가 넓혀진 면은 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에 사회관계를 전체적으로 아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당시도.

이형진 그런데 두령 창립전을 84년에 하고 85년에 전후에 다시 또 공장 생활을 들어가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좀 각오가.

성호숙 그게 두령의 연장선이에요. 인천으로 이전을 해 오게 되는 계기잖아요. 인천으로 오기 전에 두령이 논두령과 발두령으로 나뉘니까. 조직이 개편이 되고 논두령은 대학가에서 만화반,

관화반을 조직하여 전시를 순회하기도 하고 또 발두령은 노동자 지원의 팀으로 구성이 돼요. 그때 엄혹한 시절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합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저희는 미술패지만 두령이라고 하는 태생이 탈춤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연탈이라고 있었어요. 탈춤 연합. 두령 멤버들 중에 탈춤 연합을 함께 했던 그 시발점이 있었어요, 당시. 그게 문화예술운동의 뿌리. 탈춤 부흥 운동 또 노래 운동, 연극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뿌리에서 시작을 해서 애오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였어요. 요즘까지 전해오는 현장미술운동에서 두령이 어떤 저수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의 미술언어에서 통합 예술이든 다원 예술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장르별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 보편적인 예술계의 경향이었다면 우리는 통합적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인천에 와서도 두령과 다른 장르와 만나서 활동을 해요. 명신여고 맞은편에 아지트를 얻어요. 그래서 합숙도 했고 저는 그때 박영근 시인이랑 그 바로 길 건너에 1985년 인천에 와서 방을 얻었어요. 아지트에서 팀원들이 같이 문건 읽고 우리가 할 거 정하고 이렇게 거의 살았죠, 역사적으로 보면 5·3 항쟁이나 6월 항쟁이나 87, 88 노동자 대투쟁이나 그런 것에 함께 하는 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비합법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군부독재 타도라던가 이런 활동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림 화법에 이현세의 까치 그림을 빌려요. 그래서 누가 그린지 모르게 그래서 까치 그림과 구호와 이런 것들을 유인물로 만든 거를

산곡동, 청천동 일대에 피세일이라고 하죠. 집들이라고도 은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새벽에 구획을 나눠서 비밀리에 해야하니 목록 가방이나 또는 성경 책 속 안에 넣거나 새벽기도 가는 것처럼 해서 뿌리고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까치파라는 이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당국이 도대체 이 유인물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형진 유인물의 까치파가 그때 만들어진 것인가요

성호숙 네, 그래서 실제로 이현세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세 그림 캐릭터를 사용한거니까. 우리는 엄지나 그런 캐릭터를 그림만 도용을 한 거고 그래서 당국에 의해서 우리가 까치파로 분류가 돼요. 까치파가 미술 팀은 저랑 양은희와 같이 그런 거고 문구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소설가가 되죠. 정화진이라고 본명은 황의돈인데 ‘씻물처럼’을 썼는데 그때 ‘씻물처럼’을 썼던 것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다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 뻥 다음이 예술가 뻥이라더라, 작업하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계기로 그 친구는 ‘씻물처럼’ 소설을 썼죠. 그리고 저하고 양은희라고 후배는 그림을 그리고 또 장근주라고 또 있었고 전체 같이 작업을 했고 이런 것이 두령의 연장선으로 발두령 활동이었지요.

이형진 발두령은 이제 소모임을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수준을 좀 더 높여서 까치파라는 이런 조직으로 실제로 산곡동 일대에서 선

전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했는데 85년도인가요?

성호숙 네. 아까 빠졌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인천 산선과 작업했던 게 그거보다 좀 더 앞쪽 84년이에요. 85년도에 발두령으로 이전해 오기 전에 인천산선에서 만든 ‘봄을 찾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꾼 자료집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금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 작업으로 지금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관금(판매금지)을 하나라고 할 정도였던, 그림이지만 당시는 그것만 해도 탄압의 빌미가 되었죠.

이형진 그때 분량이 적지 않았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성호숙 그때 보셨어요? 반갑네요. 그 만화가 야학에서도 주요하게 사용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인천에 완전히 이주하기 이전이었어요. 서울에 있으면서 인천산선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철을 타고 오고 갔을 때였죠.

이형진 그 만화 작업은 혼자 하셨나요?

성호숙 저는 그때 그림은 이동수하고 저하고 같이 그렸고 그다음에 인천산선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기획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팀 작업을 한 거고요. 이후 동아일보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한겨레신문이 나오기 이전이었거든요. 일간지에 관금 도서 목록에 봄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일제히 단속이나 이런 걸로 관금 목록에 그게 나와 있었던 거죠. 만화 운동사에서는 해방 후 첫 관금된 만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인천산선을 만나게 된 계기, 요즘에 인천산선이 그 철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대 하에 철거되지 않기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 84년도에 인연이 됐던 거였고.

이형진 산선교회 몇 번 가보셨어요?

성호숙 그럼요, 그때 그 교회 지하에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년도에 인천 와서 이렇게 쪽 이어진거고.

이형진 그러면 85년에 인천으로 내려오셔서 집을 구하고 그리고 취업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성호숙 오자마자 취업하지 않았고요. 와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문건과 그런 유인물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평공단에 보면 거기 지금 로얄토토 맞은 편 그 청천동 쪽 맞은편에 보면 성풍전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산업체 학생들이 있었던 그 회사를 좀 다녔죠. 거기서는 노조를 만들거나 어떤 그런 걸 하지 못했고 그때는 주요한 것이 노동자와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목표로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발각이 난 것 같아요, 제 존재가. 삭제 그 회사는 노동자들과 작업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산업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라인 작업을 하거든요. 전자회사니까 조립 비스 작업 다음에 엔서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휴대폰이 있지만 그때는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에 누르면 그 대답이 나오는 그런 엔서링 전화기였는데 그거에 부품들을 쫓는 거라든가 이런 작업들 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회사 정규 시간 이후에 5시만 되면 학생들이 산업체 학생들이 전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 시간에 뭔가 작업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산업체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과만 친목 하고 얘기 나누고 또 그중에 한 친구하고는 집에 월세를 얻어서 살기도 했죠.

그렇게 살고 어떤 큰 성과를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때 86년도에서 87년 사이 였고요. 그러면서 5.3항쟁에 참여를 했는데 86년 5월에는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때 까치파 조직에서는 이리이러한 집회가 있으니 가보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박영근 시인하고 소설가가 됐다는 그 친구랑 이렇게 주안 사거리 거기 격전지에 가게 됐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구속됐던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때 그렇게 큰 규모의 집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아, 이렇게 집회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저한테는 학습의 장 이런 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거기서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 지랄탄이라고 하는, 최루탄을 넘어선 지랄탄이 너무나 많이 쏘였고 거기서 쫓쫓하게 버티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비염이 심한데 숨을 못 쉬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민회관에서 목 축이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최루탄이 박영근 시인 바로 여기(눈 방향) 살짝 지나간 것도 목격을 했고 또 황의돈 소설가 발등이 최루탄이 떨어져서 제가 막 업고 뛰었고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는 대부분이 월세에 살았기 때문에 옷이 전부 최루탄을 움팡 뒤집어쓰는 거잖아요. 최루탄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털고 들어가고 했었고요 다음에 제가 6월에 이한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편지 쓴 게 하나가 있더라구요, 엄마와 형제들한테 쓴 게 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이형진 그럼 87년인데요?

성호속 네. 86년도는 공장에 다녔고 87년도로 넘어가죠.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는 서울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인천에서는 6월 항쟁 때. 처음에는 거기서 시작을 하죠. 부평 동아 아파트하고 그 부평역, 지금은 부평역 자리가 뭐가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광장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구를 만나면 서로 만나는 데 좀 한참 걸려와야 됐거든요.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고 날이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서 부평역부터 동아 아파트 자리까지 이렇게 쪽이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 백마장 쪽으로까지, 노동자들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저 영아다방 사거리 있는 쪽으로 이 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늘상 집회 서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만 해도 우리 팀에서 그때는 팀이 미술만 발두렁 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소셜 쓰는 친구 또 영화 쪽 후배 노래 이렇게 통합적이었어요, 그 후배들이 당시 늘 세미나 하고 토론하고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계속되는 집회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인천에서 이 집회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별로 신빙성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서울에 비해서는 확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노동자들하고 합류하는 87, 88의 힘도 되는 거잖아요.

이형진 6월 항쟁 이후에는, 6월 말 경 정도가 되면 인천에 대규모 집회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죠.

성호속 네. 그때는 그전에 사귀었던 노동자들하고 한명씩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참여하는 그럴 정도가 되는 거죠. 관계가 좀 됐던

친구들하고는 갔었다가 선전물 스티커 작업 같은 거 하느라고 그때 사법 경찰 존재를 잘 몰랐을 때였어요. 집회 대오를 좀 벗어나서 시민들이 오가는 골목 같은데다가 스티커 작업하려고 갔다가 골목에서 사복경찰이 잠복해 있는, 사복에 걸려서 저랑 노동자랑 부평서에 끌려가고 그때 정말 굴비 엮듯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이형진 가면서 두드려 맞고.

성호속 네. 여자들은 좀 안 때리더라고요. 남자들은 정말 발로 밟는 그런, 폭력은 이전에 치안본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겪었지만 여기서도 전경들이 본인들 휴가 못 나간다고 남자들 정말 인정사정없이 때리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맞은 남학생들 파스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이형진 87년에 7,8월 투쟁을 겪으면서.

성호속 우리가 관계된, 친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공장에 다녔다가 저는 노조를 만든 건 88년도 봄에.

이형진 성풍전자를 정리하고 취업을 하신 건가요?

성호속 네. 거기 정리됐던 거는 자연스럽게 발각이 되면서 눈치를 엄청 주고 제가 거기서 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는 정리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노동자들하고 친목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한국 대양전기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4공단에 코스모스 있고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국

대양전기, 한국 샤프는 큰 길에 있는 거고 거기서 커브 들어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 명성전자가 있었는데 명성전자는 우리보다 조금 뒤늦게 노조를 만들었구요. 주변에 몇 노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대원제강이라든가, 대원강업, 그리고 마이크로라든가 한독금속이 있었고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당시 노동조합이 생기죠. 붓물 터지듯이 생길, 87년도만 해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88년도 초에 들어간 회사에서 내가 아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들어가니 어느 공장이든 학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만큼 부평 공단에 지식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형진 학생 출신들하고 같이 노동자들하고 한 10여명 정도 됐겠네요.

성호숙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내가 친했던 노동자들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 친구 중에 사무장도 한 명이 생기고 부회장도 생기고 저는 처음에는 교육부장으로 있었고 교육부장 다음에는 홍보부장 그다음에 사무장까지 하게 됐죠.

이형진 전부 20대 아가씨들이었습니까? 청년들도.

성호숙 이백여명 사원 중에 청년들이 있었는데 아가씨들이 주되었어요. 전자회사에 저항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색깔 띠들이 있는 아주 작은 부품이었어요. 그 저항만 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저항을 콘베이어에 내리면 기다랗게 가운데 정도에서 색깔 띠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색깔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확인하고 완성품에 담고 이런 과정이었고 남자들은 주로 전체 라인을 보는 기사라든가 또는 웰딩 부서와 몇 부서

들이 있었는데 라인 작업 과 담는 포장반, 포장반에는 작업의 특성상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부서였어요. 포장반 방이 따로 있었는데 붙어 앉아 있는 작업에 조건이 이후에 노동조합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아가씨들이 주고, 결혼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남녀 문제도 상당히 많고 젊은 에너지들이 있었어요. 작업은 12시간 맞교대였거든요. 낮 열두 시간을 일하거나 밤에 열두 시간을 일하면 아침에 교대를 하는데 그 12시간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청천동에 있는 산을 뺄뺄산이라고 불렀어요. 뺄뺄 기어오른다고. 근데 야간 12시간을 일한 후 아침에서도 전체 야유회하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거기까지 기어이 또 같이 가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즐지 않으려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일도 있죠.

이형진 전체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호숙 초기에는 이백오십 몇 명, 거의 260명 가까이 되는 규모가 있었는데 물론 대기업에 비하면 적지만 저희가 인노협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중소기업 위주였잖아요.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전략으로 인원 감축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연 퇴사들을 많이 하는데 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형진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성호숙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폐업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폐업하기 이전에 안산으로 이전하고.

이형진 그럼 선생님은 조합 활동을 거기서 교육 부장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사무장까지 하시잖아요. 그 조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까지 지켜보신 건가요?

성효숙 아니요. 제가 사무장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을 물려주죠. 사무장 물려주고 저는 현장으로 내려가요. 현장 가고 또 위원장이 몇 번 바뀌고, 저희가 그 총회를 거쳐서. 위원장 사무장도 바뀌고 저는 현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87, 88 이후에 노동자들도 기본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은 또 경제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4공단에 사무장 모임이 있었거든요. 사무장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요. 현장에 내려가게 되면서 앞으로 운동의 전망과 스스로의 전문성을 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노동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럼도 너무 많이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지금 퇴사하면 노조가 많이 약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 할 일을 또 찾아나가야 되는 시점이었고 또 다른 조직과 연루돼 있었어요. 까치파 이후에 제가 조직 얘기는 잠깐 생략이 좀 됐었는데.

이형진 발두렁 그룹 외에 다른 거 말인가요?

성효숙 네, 발두렁 그룹은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회원과 또 가지 않는 회원으로 나뉘었고 또 인천을 떠난 회원들도 생기고 그래서 점점 같이 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노동자대투쟁 정국에서 노조 활동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고 노조활동 외 시간을 내기조차 어렵고 그래서

혼자 남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직을 만나게 돼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렇고 그 조직 활동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노조에서 제 역할에서는 그때 당시 인노협이 생기는데 중요한 접점이잖아요. 인노협이 나중에 전노협이 되고 전노협이 민주노총으로 되고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고 큰 조직이 생겼으므로 거기에 인노협의 문화국도 있고 또 뭐 홍보국도 있고 교육국도 있고 조직 활동들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함께 세미나 하고 그랬던 그 소설가는 기타반을 만들어서 그때 4공단을 2지구라고 불렀어요. 기타반 합동 공연하는 것도 저한테 지금 영상이 있더라고요. 술아 푸른 술아를 같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고 다음에 풍물반, 풍물반들이 조직이 되면서 노동조합 현관식 할 때 풍물을 치게 되고 이런 거는 확장된 조직 하에서 하게 되는, 서로 시너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홍보, 노조용, 노조 기관지죠, 그 새벽지가 어느 누구도 안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형진 아, 대양전기 노보?

성효숙 네. 대양전기 노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 새벽지라는 거를 초기부터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안 갖고 있어서 아 이게 그냥 사라지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이형진 그 작업도 하셨겠네요.

성호숙 네. 같이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 인노협이 홍보부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하나씩 가져가면 그거를 모았다가 계승사업회 생기기 이전이었겠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육부나 홍보부 역할 사무장 역할로서 글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한 명이라도 쓰게 하기 위한 제 역할이었어요. 제가 많이 쓰기보다. 그래서 글씨체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그림이 하나 제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이형진 조합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다른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현장 활동 이후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 또 그림을 새로 그리고 싶은 욕망, 말씀해주시죠.

성호숙 네. 그때 뭐 폐업이나 파업이나 이런 거는 참 비밀비재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태업이나 파업의 방법 이런 것들도 개발해내는 것 같고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노조 사무실에서 끌려가서 윗도리가 다 찢기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저는 투쟁 속에서 파업을 하고 나오기를 원했는데 조직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더라고요. 제 역할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조용히 물려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맡겼는데 그 조직은 문화예술 쪽이 아니다보니까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직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아 이거는 논쟁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내가 작업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아서 작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이형진 노조 활동 과정에서는 4공단에서 걸개그림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성호숙 네.

이형진 걸개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성호숙 노동조합 활동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노조 깃발을 조합원과 함께 만들거나 손수건 그림을 그리거나 대부분 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이것은 이천년도 넘어 확산되는 문화예술민주주의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진 예술을 특별히 이렇게 접목시키실 여유가 없었네요?

성호숙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죠. 이후에 갯꽃과 인문연도 만들어지고 지금 민예총이라든가 이제는 작업에만 매진해도 되는 조직 형성이 됐잖아요. 당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전쟁터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면은 얼마 전에 이순신 영화를 봤는데 정말 전쟁통에도 난중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이순신이. 난 저걸 못 했네, 기록의 중요성이. 물론 간간이는 썼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쓰질 못했던 것이 놓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때는 전쟁터라 하루하루가 집회, 투쟁이었고 투쟁만이 아니라 내부 조합원들 다독이고 조직 노조원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형진 정확히 대양전자를 정리하신 건 89년도인가요?

성호숙 아니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90년 9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형진 90년 9월에 정리를 하시면서 그 무렵이면 혹시 기억나는 사건들 중에 89년에는 주안공단에 경동산업 투쟁이 있었고 이제

현장은 좀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몇 개의 조직 사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비합 활동 영역도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성호속 저는 그때는 그 이후에 저의 향방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경동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 가담, 고가 투쟁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냥 가는 것정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 사건이 생겨요.

이형진 90년이군요.

성호속 네. 조직 사건에 제가 어떤 큰 역할을 했다던가 이렇지는 않았 습니다. 이후에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아는 관계가 너무 많아서 정리 작업을 하느라고 꽤 오래 걸렸어요.

이형진 성 선생님. 80년대 초에는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두령 동인전 이후에 애오개 그리고 인천에서 활동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겨버렸죠. 그런데 작업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에 매진하시게 되는 건가요?

성호속 그렇죠. 전문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전에는 예를 들면 집회를 하는 것이 사회적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예술론, 민중미술 쪽에서, 민중 예술 쪽에서도 토론들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험주의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예를 들면 저는 민중적 현실은 많이 겪었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공감 또 감동이 라고 하는 거, 또 예술적 질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노동자들이 내 작품을 좋아할까 아니면 아무 현장 경험도 없는 그 작품으로만 더 좋아할까 이런 좀 극단적인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랬을 때 제가 해야 될 책임감, 이런 것도 있었고 의무감, 그런 거에서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선 같은 것도 느껴졌고 그런데 이 붓질이 라고 하는 거 조직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사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대적 투쟁이었다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연락이 와서 저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박영근 시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게다가 방이 한 칸이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좀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뭐 하고.

이형진 아직 청천동에 사셨어요, 그때?

성호속 아니요. 저는 산곡동에 제일 오래 살았죠. 인천에서. 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길이 좀 보이잖아요. 개인전이나 내 작품을 제대로 발표해 놓지 않으면 사회적 발언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작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전 준비가 예상보다 좀 길어진 이후에 개인전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작품 두령 작품에서 빠진 게 있어서. 행상길과 관화 몇 점이 있었는데 행상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노동자들이 건강한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행상길 세 분의 아주머님들이 행상을 하고 또 어디서 목격한 거긴 해요. 이 판화가 박영근 시인의 첫 번째 취업 공고판 앞에서의 판화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두령 이전에 공장 옥상에 올라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두령 창립 전에 행상길 말고도 취업 공고판 앞에서라고 하는 판화, 그리고 어머니를 여성 노동자가 낙서로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판화로도 발표됐어요.

이형진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셨나요?

성호숙 경인미술관에서의 전시.

이형진 전시는 그러면.

성호숙 84년도. 두령 전시.

이형진 그러면은 퇴사하시고 나서 모색 기간을 거쳐서 작업을 좀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94년경에, 미술인 협의회 창립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호숙 그렇진 않고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랬어요. 일단 제 창작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까지의 예술운동, 문화예술운동에는 현장성에서 좀 더 발전된 예술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들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품도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직 활동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측되잖아요. 조직 활동이나 그런 거를 하면 제가 어떤 행보를 걸어가야 된다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을 때 한편에서 인천 민미협이라는 걸

그때 당시는 이름이 미술인협의회였어요. 왜 그런 명칭을 만들었냐면 좀 다양한 사람들도 아우르자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제목을 지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죠, 준비 과정에. 그런데 그게 지금의 인천 민미협, 인천민예총의 전신이 되죠. 제가 생각했던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역사가 있잖아요. 7, 80년도부터의 역사가 94년도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발전된 형태로. 그런데 사람만 거기에 담겼지 조직의 형태 또 전시의 형태는 보수적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있죠. 근데 대세가 그런 쪽으로 갔고 저는 소수파에 속한 거였고 또 그때는 인천미술인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주된 내용 중에는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성도 있고 또 현장을 담보해야 되는 말이 있었고 하지만 발표는 전시장이었어요. 이전에는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바인데, 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죠. 예를들어 열사 정국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너무 급하게 의뢰가 온다던가, 또 문화예술은 그냥 똑딱하면 만들어지는 줄 알고 급하게 뭘 만들어 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제가 노동문화 제랑 나중에 결합이 됐을 때는 노동문화제는 만들어진 상황에 나중에 합류하게 된 상황인데 제랑 활동 시기가 조금 비껴갔죠. 어떤 데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거나 했을 때는 저는 단호하게 이제부터는 거절해야 된다, 문화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형진 요구에 짜맞춰 주는게 아니라고.

성호숙 그렇죠. 문화예술이 어떤 조직의 하부 조직은 아니다, 우리가 발전적인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해왔던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인천미술인협의회에서는 여러 문제 의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지역성을 좀 더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죠.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질적인 면을 담보하면서도 이전에 우리가 면면히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발전적 계승이 있으면 서로 조직 내에서의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좀 빠진 채 되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워낙 창작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난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새로운 어떤 조직으로 만들기에는 제 힘이 부치고 이런 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인천미술인협의회가 인천민족미술인협회로 이름이 되고 이후에 인천 민예총이 만들어지면서 장르별로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민예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민예총 이전에 현장 사람들하고 만들어진, 제가 가담하진 않았지만 인문연 조직이 많은 역할을 현장에서 했었죠.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천의 문화예술운동사라고 했을 때 인문연부터는 쫓겨났을 때다, 역사를 그때부터 거론하면 합법적인 공간부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 정권을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독재정권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은 비합법이 될 수밖에 없고 비합법적인 부분이 거론되지 않으면 그것은 알맹이가 빠져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비합법을 어디에다 기

록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문건을 읽으면 아궁이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 태우거나 장소도 계속 바뀌는 거 아시는 분이 아마 당시에 겪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로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꼬깃꼬깃 접어서 당시는 성냥갑 넣거나 대일밴드 그런 거에 넣어서 전달한다거나. 또 프락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첩자. 노동자 쪽에서나 지식인 쪽에서나 일반인에서나 그런 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밀정 김순호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조직이 털려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직의 보완 유지 이런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치안본부 갔을 때 빠져리게 느꼈던게 정말 창피한 일인데 편지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뭐든지 끄적거리고 뭐 기록하고 이런 게 습관화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뭐, 낙서 같은 것도 남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독재 정권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사의 중요한 어떤 흑암 같은 그런 시절이었고.

이형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성호숙 네. 그때는 늘 누가 따라붙는, 실제로 따라붙었을 거예요. 따라붙는 사람들이 막 바뀌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어느 골목에서 바뀌고 그래서 늘 너무나 조심해야 했던 그런 상황인데 노동조합 활동만 해도 공개 활동이잖아요. 그때도 합법과 비합법이 동시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법으로 있을 때는 노동조합은 87, 88 투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기폭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87, 88이 있기 위한 또 수많은

전 단계들이 있는 거고 제가 그 사진을 모으지는 당연히 없었을 텐데 전 사무장이 노조 활동을 굉장히 꼼꼼한 친구라 그러면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앨범을 이렇게 꼼꼼하게 모아놓은 거를 제가 나중에 빼들렸죠. 이거 왜냐하면 여기 나왔다가는 이 중요성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께서 인천미술인협의회 그러니까 인천민족미술협회의 전신이죠. 사실은 창립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선생님은 몇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 운동에 투신했던 경험,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런 과정들이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소중한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에 많은 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계속 남아서 작품 활동이나 또는 현장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미술의 전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감히 인천의 대표적 인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을 해오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숙** 노동 현장과 예술 작품과의 결합이 고민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작품뿐만이 아니라 노동 현실과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 또 부조리한 면 이런 부분들을 변화하고자 하는, 제

자신이 변화했듯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각인을 하려고 했고요.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떠오른 그림 몇 것이, 깜빡잠 같은 경우도 초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촛불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처음. 촛불의식은 지금은 촛불집회 이런 게 거의 유행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노동자들로부터 출발했어요. 야유회 가서 자신의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결의를 다진다던가, 이래서 그때 당시 촛불의식은 지금보다 훨씬 비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현장 회사에서만 봤던 동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지방에서부터 어떤 데서 살았고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울음바다 되기도 하고 그리고 파업 전야 때 파업을 앞두고 결의를 다질 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보다 동생들 어린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YH 김경숙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당했고 그래서 그때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촛불의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너무 아픈 게 많더라고요. 엎드리고 있거나 막 쓰러져 있거나. 그거는 내 무의식에서 나온 거고 그렇게 왜 내 무의식에 이런 것들이 우선 떠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농성장을 그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노조 활동하기 이전에 코스모스 전자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형진 파업 사업장에서 건물 안에서 농성 하면서

성효숙 처음에 봤던 거는 코스모스 전자 앞에 문 앞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집회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얘기했던 것들을 퇴근길에 봐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게 과연 정말 책에서만 보던 노동자들의 힘이구나 라는 거를 봤고 거기에 농성장의 그림은 제가 한국대양전기 있으면서 명성전자 수많은 지원 연대를 가잖아요. 파업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힘들지만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낙천성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서로 이 문건 같은 거 읽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구사대들은 바깥에 있기도 하고 어떤 한 노조를 넘어서 다른 노조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지원 오기도 하고 좀 힘 있는 모습도 그리자 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려졌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긴 봤지만 현장을 나온 상태에서는 혼자서 버티고 나가야 되기에 생활고 같은 것도 컸고 이래서 농성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내가 봤던 것 중에서 노동자의 건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현관식 할 때 제의하는 거 이런 것도 그린 게 있었고 또 좀 힘든 게 더 많죠, 사실은. 산재 당해가지고 ‘김씨를 보내며’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대원제강에서 야근하다가 용광로에서 돌아가신 분을 겪었을 때 무참에, 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관 시인이 용접을 했거든요. 큰 그림으로 용접하는 모습. 상징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조영관 시인으로 그린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업화를 신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그림이 있다면 남성 노동자들이 이런 작업화 신을 때 어떤 걸의 이런 것도 있었고 용접공 조영관 시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빛 아래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국대양전기, 명성, 그 다음에 몇 노조가 주변에 모여 있으면서 점심시간에 같이 집회를 했어요. 집회가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어둡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낮에 점심시간에 집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달빛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빛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동놀이 하는 것처럼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 노동자를 많이 그렸는데 손에 손잡고 있는 모습 거기에 달빛이 비치는 이런 걸로 그린 게 있고 그리고 그때 색상들을 보면 참 늘 그냥 공장 킁킁한 그리고 기계들이 녹색 종류, 무슨 카키색 같은 군복 색깔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치는 것은 불빛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색깔들이 그런 색으로 주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몇 명 있다던가, 소식지를 보며..,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형진 그림은 가능하면 사진으로 받아서 구술록에 참고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용산 참사 때도 작품 활동을 하셨고 현장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인천에 콜트약기 장기 농성 사업장이었고 공장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술가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었고 공장을 활용해서 그중에서 선생님께서도 그때 공

장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도 남기고 실제로 거기 그려서 전시하시고 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공장과 또는 투쟁의 현장 이런 데서 작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스토리를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성호숙 용산 참사 이전에 대추리도 있고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 와서 치유적인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이전에는 대적 투쟁이 너무 많았다면 그로부터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동료들도 있고 서로 가장 가깝게 일을 할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좀 한 발씩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꼭 무슨 활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이 제가 치유로서의 미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제 개인적 아픔이 너무 많아서 치유 미술이나 치유자 뭐 이런 것들은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만한 여유가 없었다고나 할까 이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 오히려 좀 폭이 좀 커졌다고나 할까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치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한 거는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치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후에 2005년 2006년인가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들어갔고 일반적으로 치유자들, 학과로 보면 치료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치료사라는 말이 어색해서 치유자라고 하거든요. 치료사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주어진 세팅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빈민들은 마치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 이렇게 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노동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왜 치유를 받아야. 물론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 치유와 비치유를 치료 대상자를 나누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어떤 주제로 할까라고 해서 그때 장기 실업 노동자를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건 왜 그랬냐면 여성 노동자 쪽에서 의뢰가 와서 장기 실업 노동자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 적도 있었고 여성 노동자들의 아이들,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출까 고민을 하던 차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충격이었고 제 개인사적으로 보면 빈민교회 달동네 목사님하고의 어떤 노동 미술의 시발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달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범한 자기 가게를 꾸리고자 했던 사람이 개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형진 도심이었던걸요.

성호숙 네. 도심이었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개발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그때 당시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계속 중천으로 중천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50년 뒤 이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50년쯤 될 거예요. 아마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50년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 온 지는 그것보다 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축대밭이 되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용산 참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해서 치유적인 부분들을 결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심리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예전에 활동과 그 이후에 제가 사회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인간 내면의 문제 이것이 예술하고도 결합이 될 부분인데 심리적인 걸 결합한 심리 사회적 지지로서의 예술 치유를 외상후 스트레스 관점에서. 그래서 논문을 그분 용산 참사의 부상자들 하고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건 한쪽에 녹색병원에 가서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결합을 해서 작업들을 하거든요. 저는 한대성 열사라고 그 때 뺨뺨기 장사 했던 분이예요. 그랬다가 조직원이 여기 막내 그냥 올라가자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그거 내놓고 올라갔다 정말 좋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자그마한 분인데 그분 사진만 봤지만. 그분 아내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대성 열사를 그리고 그거를 망루 가까운 곳에 걸었다가 또 그것도 철거되죠. 다시 또 거는 투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평화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모도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함께 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 치유적인 요소들을 뭐 프리 티벳이라던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던가 또 여성 노동자들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치유적 관점으로서의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콜트약기는 제가 노동조합 활동했던 88년도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당시에 알았던 그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기에서 함께 그냥 있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작업실이 정말 너무 좁기 때문에 작업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마음은 사실은 환경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콜트약기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거기서 고민 들어주는 것이 치유적인 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개인전도 하고 또 스 이라고 하는 점유 하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자본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저희는 또 끌려갔죠. 삼산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고 그러면서 공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있었던 작업들이 다 파괴되죠. 거기에 벽화를 새벽 세시라고 하는 벽화를 그렸어요. 치유의 상징인 돌고래, 제가 돌고래를 그린 이유도 있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돌고래하고 커다란 둥그런 달 또 여성, 남성, 기타를 안고 있는 여성들, 이렇게 치유적 관점의 그림을 새벽 세시라고 붙인 이유도 있는데 그쯤에서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건 아니었는데 부산 비엔날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작업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가장 사회 모순의 어떤 집약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룰까 했어요. 국가보안법 문제는 꼭 다뤄야 되는 문젠데 제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하는 중에 콜트나 이런 부분하고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 개인전 하는 걸 좀 확장해서 부산비엔날레 내기도 하고 작업화 이백컬레를 지회와 함께 그것과 또 약손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치유 그룹을 20, 2008년, 9년인지 정확하지가 않네. 그때 만들어서 여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숨인형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도 거기에 전시했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들도 전시했고 또 콜트 벽화도 그렸고, 새벽 세시라고 하는 등, 새벽 3시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거기가 5년 동안 먼지가 다 쌓여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들고 퍼포먼스를, 공장 곳곳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오신 분들하고 그런 퍼포먼스도 했고 그것을 비엔날레 때는 제일 아래층에는 지회와 작업한 이백컬레를 깔고 3층에는, 새벽 3시 등이 불을 밝혀주는 그래서 진혼에서 새벽 3시까지의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어요.

이형진 이런 일련의 작업과 지금까지 저어새에 관한 중요하게.

성효숙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7, 80년대와 다른 생산력과 생산 관계, 여전히 노자 모순이나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모순 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민족적 모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해 있지만 지금 생태적인 문제는 더 절박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한테나 다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그것이 90년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절박하진 않았어요.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멸종 위기가 결국은 인간도 멸종이 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에 날아오는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라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예전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몇 백 마리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그랬는데, 보호 활동에 의해서 최근에는 6천 몇 백 마리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날아오고 또 서해안 쪽에 그 중에서 인천이 귀착지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새끼를 낳고 키우고 그런 고향인 거예요, 저어새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중심으로 다른 멸종 위기종들을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전국 작가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작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연안 환경 바다 쪽에 쓰레기들이 많은 연안 환경 미술 행동이라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생명평화의 미술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전국 작가들이 생겨서 거기에 저도 흔쾌히 결합을 해서 요즘에 작년부터 전국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작업들 퍼포먼스와 전시 그리고 제 작업 방식을 저는 쪽 예전에 갖고 왔던 방법들

을 좀 사용하는 편이라 소통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자본주의가 되게 파편화되고 서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기는 더 어렵고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제가 소통 미술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써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여기면서 여성노동자회에서 제일 먼저 소통 미술을 글로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형진 그래서 최근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가요?

성호숙 네. 바다에서도 그림 그리고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시민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형진 이를테면 표현 예술치료사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술 화가가 근본이기는 한데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여성 노동자 또 장애인들을 위한 표현 미술 치유자라는 타이틀로 자기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성호숙 이게 쪽 이어온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은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뭔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함께 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심리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워서 내가 이 타이틀을 가져도 되나, 아예 떼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많아요. 제 자신도 잘 치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

운 사람도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닿을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2007년에는 사실 인천 지역에 인천 민족예술인총연합이라고 인천 지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민중문화운동의 대표 역할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공적이고 바쁜 일들이 많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술을 놓을 수가 없는데 지역 내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활동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관계들이나 인천지역 우리에게 동년배들 동료들과 앞으로 이렇게 좀 지향하는 방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숙 그런 직함은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거론하신 그 시기는 제가 예술치료를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배울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손실인 거죠. 공부할 때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고 가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배로 보면 여러 가지 직함이 좀 늦었던 게 계속 거절을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맡아줘야 되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시야도 좀 확장된 면도 있어요. 몰랐던 면도 사회적인 부분들 또 관계에서도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알

게 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야죠, 이왕했으니. 그리고 제대로 잘 못한 측면도 있고요. 제가 그때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없었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좀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 조건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아쉽죠. 지금은 작업할 수 있는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품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전과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작업에 좀 더 질적인 면을 좀 높여야 되겠다, 형상적 고민, 형상적 작업이 노동이고 그걸로 만나는 접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형진**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청소년들 친구들을 보면 사실 40년 전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성효숙** 이번에 사실은 바로 직전에 깜빡잠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청소년 교육용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거의 지금 최종 중간발표까지 했고 시범교육까지 했고 또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자료집을 만들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예전 미상대 위에 엮드려 있는 여성 노동자가 최근에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이게 옛날 얘기들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청소년들에게 맞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깜빡잠 속의 일과 꿈. 그래서 미래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과 청소년의 미래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지금의 현실 문제로 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엮드려 있는 것

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웃으면서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녹화하시는 청년 분이 아까 질문하신 게 있는데 87, 88을 겪은 사람들과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비교였나요? 정확한가요, 맞나요? 혹시 다른 거 있나요?

**학생** 어떤 운동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요즘 청년 세대가 그래도 옛날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때 감정이 어떠실 것 같은지.

**성효숙** 그 말을 들으니깐 내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내, 아,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이 사회는 점점 더 격차는 더 벌어지고 되게 안 좋은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안함이 가장 크죠. 미안함이 제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세대에서 87, 88을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을 봤어요. 아, 이렇게 사회는 변화하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가 제 일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뭐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또 철학에서도 얘기를 해요. 사실 변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지듯이 이 사회도 그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만 보는 분들은 변한 게 없잖아, 정말 이렇게 사회가 그런데 하지만 멀찌감치 이렇게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죠. 자기 권리도 얘기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만이 아니라 촛불 정국 이전에는 그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촛불 이후에 또 다시 변화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는 또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교과서처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역사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길게 보면 나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기후 위기나 아까 기후 위기 집회에도 참여하셨다고 그래서 반가웠는데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더 절박하다 예전에 단지 그냥 노자 모순, 민족 모순 이렇게 좀 약간 좁혔다면 지금은 좀 더 광범위하게 자본주의가 훨씬 더 심화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녹아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회적 단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전태일행사 때 이렇게 많이.. 또 예전에 활동했던 분들의 자녀들이 커서 청년 세대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면면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앞으로 꾸준히 갈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갔던 앞으로 갔던 성찰하며 앞으로의 청년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형진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 양원모



- 1958년 강원도 상동 출생
- 1984년 미술동인 '두령'에서 활동
- 인천우리문화사랑회 사무국장
-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장
- 경기도 미술관 학예실장
- 양평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일 시 2022.11.14.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양원모(필명 라원식)

이형진 오늘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양평에서 오셨는데요. 인천의 문화운동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신 양원모선생님 그리고 부인이신 손채수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다 70년대 후반에 인천에서 문화운동과 그리고 노동운동 그리고 함께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양원모 선생님을 통해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인천의 민주화운동과 문화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양원모 선생님 그리고 손채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양원모 반갑습니다.

손채수 반갑습니다.

이형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양평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얘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선생님은 78년에 홍익대학교로 진학을 하시는데요. 그전까지 유년기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원모 저는 양원모인데 인천에서는 라원식이라는 이름으로 쪽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라원식은 미술 동인 두령을 하면서 필명으로 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아명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원식이라고 불렸었고요. 그다음에 '라'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저희 양 씨가 한글 성으로 라 씨입니다. 그래서 라원식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저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 소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형진 몇 년도셨죠?

양원모 1958년 음력 5월 25일 출생이고요. 아버님께서 고시 공부하

러 산골로 오서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 고시 공부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같이 산골로 오서가지고 식당을 하셨었죠 그렇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고시 공부하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 시골 처녀를 만나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게 됐구요.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 되어서 가지고 서울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다닙니다. 서울 마포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시니까, 이동을 하시니까 아버님이 고향이 대구 경산 쪽으로 공무원을 하러 가서가지고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대구에서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구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는 오산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하나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가톨릭시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고등학교를 다녔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집안이 아버지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 가톨릭,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오산학교를 들어오면서 그게 33인 중에 한 분이 남장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라서 초대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이셨고 그다음에 또 예술 쪽에는 백석 시인이라든지 김소월 시인이라던 분이 저희 오산학교의 선배셨고 또 이중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림 하시는 선배셨고 오산학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받았죠.

이형진 이북에 있던 오산학교가 그러면 그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 오산학교를 다시 연 건가요?

양원모 그렇죠. 38선이 그어지고 그다음에 평북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가 남쪽으로 이전을 하죠. 지금 보광동 쪽으로 이태원 뒤에 그렇게 해서 남쪽에 오산학교가 열렸죠. 그래서 하나는 천주학으로부터 비롯한, 특히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이 문건들도 많이 보면서 공부했고 다음 하나는 대종교부터 시작해서 쪽 내려왔던,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학풍, 뭐 이런 것들을 오산학교를 통해서 접하고 그러면서.

이형진 양원모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가톨릭, 특히 바티칸 공의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양원모 네. 고2 때 집중적으로 가톨릭에서 셀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죠.

이형진 종교에 심취하셨나요?

양원모 네. 저는 거의 종교 활동을 꽤 열심히 했었죠. 대구의 삼덕동 성당 다닐 때,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가톨릭권은 조금 결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셨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대구 경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좀 레디컬한 추기경님이셨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성당에서 셀이라는 것들을 활동하게 되죠. 그 셀은 세포. 그러니까 가톨릭 세포 조직이 학생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미카일셀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전례부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 올라와서도 또 셀을 조직했고.

이형진 그러면 대학으로 진학하셔가지고 이렇게 사회운동이나 이 문

제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양원모 대학 들어오면서 접근했던 부분들에 굉장히, 대학에 와서 호기심도 많았고 이러저러한 공부들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당시에 대학 풍토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뭐 청강도 많이 다녔지만 그걸로 충족이 안 됐고 그래서 명동성당을 제가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때 친구가 와서 권해가지고 향린교회로 가면 인문사회과학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형진 명동성당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양원모 네. 그래서 향린교회에 가서 공부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뭐 신학 공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고 탈춤도 추자 그래서 탈춤도 추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독교 청년탈이라고 얘기하는 기탈이었죠. 기탈이었고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초교파 연합 조직이었고 거기에서 김상복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공부들을 했죠.

이형진 선생님, 홍익대학교 진학하실 때는 사범대로 진학을 하셨다고. 그럼 전공은?

양원모 전공은 외국어교육학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외국어교육학과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영어교육과로 바뀌어 있었죠.

이형진 그러면 학교 생활하고 향린교회 생활을 거의 병행을 하셨습니까? 78년, 79년 이때인데요.

양원모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한 게 한 네 가지 서클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건 다 종교 서클이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와 와서 기독교탈춤반 활동도 하면서 그런 공

부들도 하고 그걸 보고서 제가 자극을 받아서 가톨릭탈춤반을 제가 후배들 모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탈 활동하고, 카탈 활동하고, 또 홍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니면 선배들이 저를 찾아서 홍익 탈춤반에 들어가니까 홍익탈춤반 활동도 하고 또 홍익탈춤반에 활동하면서 연합탈이 만들어져서 연합탈 활동도 하고.

이형진 연합탈이라 하면?

양원모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만든 모임이죠. 당시에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에 만들어진 전국 대학 탈패들의 연합 조직이죠. 거기에서 교육 주무를 맡아가지고 여러 대학 후배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그런 역할들을 맡죠.

이형진 선생님, 78년에 입학을 하셨으면 78년, 79년, 80년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박정희 정권 말기였거든요. 폭력적인 탄압도 되게 빈번할 때였는데. 대학교 간의 연합 활동을 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았나요?

양원모 그렇죠. 사실 기독교 탈춤반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주로 향린교회, 제일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대학 출신들이 모였었는데 기독교탈춤반에도 그런 멤버들이 모였었고 그다음에 또 당시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 이대, 숙대 하여튼 한 대여섯 개 대학 정도가 그래도 서로 탈춤에 대한 교류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흐름하고 합쳐지면서 선배들 모임에는 한두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민중문화연구회라는 한두레 모임 하고 매칭이 되면서 힘을 모았고 거기다가 긴급조치 9호 이후에 서울대에서 1977년 5월 22일 오돌돌 사건으로 그 학교에

서 쫓겨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선배들이 계셨죠. 거기에 뭐 채광석 또 황선진, 유인열, 연성수 이런 선배들. 또 그다음 탈춤 중에 제일 꼭지로는 채희완 선배가 있었고.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1979년도 말에 전국 연합 탈춤 조직을 언더에다가 만들었죠.

이형진 그런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행사를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했습니까?

양원모 당시 상황에서는 학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통 탈춤 공연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봉산이라든지 양주라든지 뭐 강령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1977년 78년, 79년, 80년 이러면서 당시에는 가장 핫한 서클이 탈춤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배철수 선생 같은 활주로 같은 경우에서 탈춤을 추자 이런 게 대중가요에서 막 나오고. 지금 힙합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케이팝을 따라 하는 댄스 동아리들. 이런 게 확 퍼지듯이 전국 곳곳에서 탈춤반들이 막 우후죽순씩 막 생겨나고 있었죠. 거의 수백 개의 탈춤반이 그 시기에 다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고.

이형진 억누르기는 쉽지 않은 확산력이 있었네요.

양원모 왜냐하면 탈춤반이 처음부터 저항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문예진흥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도 1971년 만들어질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게 한국의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것을 융성하게끔 해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조동일 선생님이 그다음에 실천적인 거에는 김지하 시인. 거기 임진택 선배라든지 김민기 선배. 김영동 작곡가. 이런 이에 주 누님. 이런 분들이 다 탈춤과 관련된 초창, 처음 만들었던 1960년대에 만들었던 탈춤의 중요 멤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학내에서는 주로 전통 탈춤을 공연하고 창작 탈춤에 대한 모색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이 학내 기반이 오돌돌 이후에 탈춤반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등록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학교 밖에 그런 공부도 하고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계기가 향린교회나 제일교회였는데 특히 제일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죠. 박형규 목사님이 계시는. 그래서 제일교회에 있는 대학 생희하고 그다음에 오돌돌 시대 때 중심적인 멤버들하고. 또 학내에 있는 탈패들하고 연결해서 만들었던 게 소리굿 ‘아구’. 이런 최초의 소리 굿 아구같은 초창기에 창작 탈이라 그럴까, 마당극이라 하는 게 주로 교회에서 발표가 되죠.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 가톨릭 농민회나 기독교 농민회나 이런 농민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또 노동조합하고도 연계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로들을 타고 또 허병섭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월교회 같은 경우에서 빈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창작 탈춤이나 창작 마당극을 가지고 하는 공연들 이런 것들은 그런 기반 위에서 학교 밖에서 다 행해졌었죠.

이형진 선생님, 그 70년대 말이 그러니까 단지 엄혹한 것만은 아닌, 그 탈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 되는 요새 표현으로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과정 어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탈이 꽤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양원모 아니요. 저는 처음에 탈춤을 취볼 생각이 있느냐고 의향을 이렇게 비쳤을 때 제가 오산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연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몸치였었어요.

이형진 하하. 기량은 영 아니셨어요?

양원모 네. 몸치여서 사실 고고장이나 디스코장 이렇게 가도 뭐 다이아몬드 스텝 정도만 밟을 뿐이지 그렇게 춤 잘 추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탈춤은 굉장히 강도 높은 춤이예요. 그러니까 오금주기라고 덩~따~기 덩~따 얼~쭈 이런 걸 하루에 오십 장단씩 하면 막 이런 데가 다 종다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게 막 땀땀이 뭉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탈춤이나 민요나 이런 것들은 생경하지가 않았어요.

이형진 그런데 체력적으로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양원모 힘든 운동이죠. 그래서 당시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침이면 선배들이 무용 교습실을 빌러가지고 모이게 한 다음에 무예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삼무도라고 하는 건데 굿할 때 무자하고 무술할 때 무자하고 춤하고 무자가 같다고 그래서 삼무도 같은 것들도 배웠고 그다음에 또 탈춤

을 추던 선배 중에 스님이 되신 분이 계셔 가지고 내려오셔 가지고 불무도, 붓다 할 때 불자에다가 무술할 때 무. 불무도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그런 걸로 배우고 그다음에 더 탈춤도 추고 풍물도 배우고 그랬죠

이형진 대학에서 쪽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울이 아닌 인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내려오시게 되는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원모 저는 인천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고가 있지는 않았는데 저보다 인연을 먼저 맺은 게 여기 옆에 있는데 손채수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채수 선생이 인천하고 인연을 갖게 되면서 인천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런 계기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천을 내려오게 되는 부분들에서 했던 것들은 제가 미술 동인 두령. 두령이 1984년 4월에 창립이 되고 창립전을 하는데 두령의 멤버들은 개개인적으로 많은 경우들이 노동 현장하고 인연이 일찍 있어요. 일례로 김봉준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가 75학번이신데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동일방직.

이형진 극을 그걸 만드셨죠.

양원모 그거 할 때 나중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형진 박우섭 선생님하고 같이.

양원모 네. 동일 방직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에 박우섭 선배님하고 김봉준 선배님이 극본도 공동 창작으로 하고 연출도 하시고 이런 인연 인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선배들 중에 장진영 선배, 만화 그리는 장진영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일찍 노동

조합, 민주노동조합하고 연결돼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용 만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탈출반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노동 현장을 접하는 게 되는 게 79년, 79년도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기독교 탈출반에서 하셨던 게 YH, 원풍 이런 곳에 유동우 선배님의 중재로 그런 데 들어가서 저희 선배나 동기들이 탈출반도 만들고 또 마당극도 연출하고 특히.

이형진 원풍모방 같은 데서 실제로 탈반 모임 같은 걸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원모 그렇죠. 구성 예술 뿐만 아니라 구성 용도가 대단했었죠. 원풍모방에서는 김민기 선배님의 공장의 불빛을 테이프를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공장의 불빛도 작품으로 발표하고 나중에는 원풍모방에서 1920, 30년대에 있었던 조선방직쟁의 역사를 공부해서 그걸 서사, 서사극으로 만들거든요. 마당극으로. 그래 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죠. 그 작품은 노동 예술사에서 특히 공연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백미 중에 하나죠.

이형진 제목은?

양원모 조선방직쟁의. 제목이 조선방직쟁의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풍모방의 전 노동자들이 다 모여 있는 노동조합의 날에 발표도 했었고. 더 나아가 가지고서 영등포산업선교에서 만드는 영등포 성문 밖 교회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때 공연 작품의 퀄리티나 그 감동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을 때 됐죠.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1983년도에 민청련이 만들어지고 근데 민청련은 주로 학생운

동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한 반 개월 정도 지나가지고서 각 대학에서 문화패 활동을 했던 학생들로서 문화운동을 했던, 학생운동인지 문화운동인지 이런 쪽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한국민중문화운동연합이거든요. 민문연을 만들죠, 아연동에.

이형진 거기 80년대 아직 넘어가기 전이니까요. 잠깐 좀 쉬시고. 그 대목에서 우리 손채수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 오지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야학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노동 아마 현장에서 좀 계시는 과정에서 우리 양원모 선생님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채수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환경은 좀 많이 풍족하게 자랐고요. 제 아버지가 일본 유학생이면서 진주고등학교 출신의 일본 유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토목을 전공을 하셔가지고요.

이형진 기술자셨네요.

손채수 그러니까 그 당시 좀 특이하게 세계 일주를 세 번을 하셨어요. 그 기술을 다 배워오시느라고 우리나라 국비장학생이셨거든요.

이형진 김찬삼 선생님도 아닌데, 하하. 세계일주여행을 하셨다고요?

손채수 그니까 배우러. 배우러 다니는 그런 걸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토목 쪽에 그런 아버지의 특허와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됐다고 자라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교수로 강의를 하시다가 중앙산업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그쪽에서 부사장인가를 지내셨을 거예요.

이형진 함자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채수 손 상자 기자입니다. 어머니는 외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인천 여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외대에서 인하공전으로 그걸 자리를 바꾸시고 거기서 스튜어디스, 항공운항과 교수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형진 그럼 인천에 쫓 사셨습니까? 선생님은.

손채수 전 사는 거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적인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외국을 자주 가셨고 또 어머니가 그런 쪽으로 또 여력이 있어서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종로에 있는 YMCA 거기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거기 유치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잘 사는 집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활동을 그런.

이형진 약간 금수저셨는데요. 하하.

손채수 그때 당시 집은 혜화동에 있었고요. 자라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 그때 신문에 보면 한쪽에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좀 소용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다 싸들고 그 주소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꼬마가 어떻게 이걸 여기를 찾아왔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막 그때 음료수를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구해다가 저한테 고맙다고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근히 제가 하는 거를 오히려 이렇게 좀 반기고 또 그렇게 하는 항상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하셨던 말 중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받는 것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제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학생회를 혼자서 찾아가요. 가서 그래서 대원정사라고 제가 수도여고 다녔는데 남산 쪽에 대원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공부할 거 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머니랑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교적인 그런 공부를 제가 더 이렇게 심취했던 것 같고요.

이형진 불교 학생회도 좀 진보적이었나요?

손채수 거기는 그렇게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세상을 구제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물음은 제가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한다는 걸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가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티끌, 먼지도

안 남잖아요, 실은요. 먼지밖에는 안 남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느낌에, 좋은 공기라도 됐으면 참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고.

이형진 야학 선생님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언제쯤이었습니까?

손채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저는 사회, 항상 신문을 저희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야학 선생을 야학 선생을 하면 좋겠다, 그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 야학은 실은 제 주변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죠, 검정고시 학원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검정고시를 대상으로 하는 야학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실은.

이형진 하하하.

손채수 가는 데마다 대학 들어가고 와라 이러면 그래서 그때 막 다니다 다니다가 아현동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박근혜 쪽에서 하는 그거였어요. 무슨 박근혜 한마음 봉사단인가. 한마음 야학인가 있었어요. 거기를 두드렸더니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고 그래서 저희가 국사하고 세계사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국사 세계사를 맡고서 되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받아줬다고. 하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도 저는 가정 방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주로 때밀이, 구두닦이,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인데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사람도 계셨어요.

이형진 청년들이었나요? 아니면.

손채수 청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0대, 30대, 40대 초반. 주로.

이형진 제일 어리셨겠는데요.

손채수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거나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걸 가르친다는 게, 저분들이 만약 나 같은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하여튼 부끄럽다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어요.

이형진 선생님 고3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방문 다니고 그러셨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나요? 대학 공부도 하셔야 했는데.

손채수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그런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 공부 때문에 국내에 안 계셨어요. 하하. 저는 제가 딸딸이기 때문에 저를 누가 그 할 사람은 없고 대신 아버지가 잘하고 있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하고. 하여튼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고 그래야 될지 참 그렇긴 한데.

이형진 일단 대학 진학하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손채수 대학을 진학할 때 원래는 의대 가서 나중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눈 시력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수를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집에서 편 입을 자꾸 권했는데 편입이라는 게 생각하니까 그게 그럼 내가 앞에 사는 삶은 지워버리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건 아니다 싶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서 저는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형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곧바로 또 야학.

손채수 그대로 야학을 계속 했죠. 야학하고 아침에는 혼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서, 되게 탈반이 들어가고는 싶은데 야학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형진 79년이었습니까?

손채수 네. 79년. 제79학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가을에 제가 탈출을 추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나 봐요. 그런데 탈반에서 양주 별산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숭이를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형진 하하.

손채수 그래서 혹시 원숭이라도 괜찮냐, 너 할 생각 있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탈출만 출 수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단기간으로 원숭이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양주 원숭이 중에서는 제일 잘했다고. 하하.

이형진 하하.

손채수 호평을 받았죠.

이형진 선생님 혹시 만나시지 않으셨고요? 양원모 선생님 그때.

손채수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전혀 아니고. 80년도 때 저희 탈반의 선배가 남궁, 남궁, 언니, 선배가 계셨어요. 남궁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형진 나중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채수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저희 대학 대표로 대학 탈연합에 나갔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좀 대신 나갈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저희 학교 대표로 그냥 나가게 됐어요.

이형진 연대 모임에 나가신거죠?

손채수 뭐 대표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정쩡하게, 하여튼 어떻게 나갈 사람이 없었나. 그래서 하여튼 나가게 됐어요.

이형진 연합탈인거죠?

손채수 네. 그래가지고서는 연합탈을 만나게 되죠.

이형진 80년을 넘어가던 상황이었나요?

손채수 80년은 넘어가는 상황이죠.

이형진 그러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9년 말 10·26이 일어나고 그리고 80년 5월까지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 두 분 입장에서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절이거든요. 80년 5월까지는 사실 또 열리는 분위기였지만 곧바로 이렇게 탄압 국면이었잖아요. 그때 각자 대학 생활을 2년 정도는 하셨을 테니까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양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원모 저는 1980년 5월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죠. 79년도에 12·12, 신

군부의 쿠데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이 왔고, 서울의 봄이 올 때 연탈에서 서울의 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계속 학내에서 시국과 관련된 탈춤이나 아마 마당극이나 또는 시위나 이런 걸로 계속 해가고 있었지만 가두로 진출해서 12·12 쿠데타를 전국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힘을 결집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우고 이런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 어떻게 대응할 건지 머리를 맞댈 때. 그때 연합탈에 들어온 손채수 선생하고 처음 만나는 게 80년도 5월, 제 기억에는 5월 3일 정도로 기억해요. 그때 여러 대학의 학교 대표자들로 탈패들이 모이고 사실 모든 학교의 탈패들이 굉장히 동질성이 있어서 강하게 모였는데 훗날은 결국 마이너 대학의 모든 학생운동의 본산지는 탈패가 되는 거거든요. 탈패에서 풍물패 나오고 문화패 나오고 나고 탈패에서 언더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드를 비롯한 메이저 캠프는 독서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나중에 그것도 다 민청련으로 축출되고 탈춤반, 문학반 이런 게 나섰다가 그것도 한 번 서리 맞고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거기도 탈패였지만 그래도 독서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병진되어 가지만 마이너 캠프는 독서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탈춤패적인 방식이 다 본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서로 만나게 되고 저는 서둘러서 우리가 조직을 정비해서 서울역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채수씨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었고. 그게 저희들의 이 첫 만남이

됐죠. 80년 5월이 오기 전에 서울역에서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대부분이 다 탈패들이 팽과리 들고 풍물 들고 선두, 진두지휘하면서 나갔고 왜냐하면 80년 5월 때 총학생회가 다 부활한다 했지만 아까 메이저 캠퍼스는 그래도 학생운동이 전통이 있으니까, 총학생회가 나름대로 그러그리한 것들을 끌어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지만 마이너 캠프의 총학생회는 결이 좀 달랐어요. 실질적으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전체나 민족 전체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위의 그룹들은 거꾸로 탈춤 쪽, 이쪽 계보 쪽에서 공부되고 이러면서 단련돼서 성숙해 왔기 때문에 전국대학탈춤연합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논의는 총학생회 중심의 논의가 되잖아요. 총학생회 중심의 논의에서는 결국 위화도 회군하듯이 서울시청에서 회군하는 걸로 결정났는데 저의 탈패들 논의에서는 아니었어요. 회군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연세대탈도 그렇고 서강대탈도 그렇고 동분서주 뛰었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회군 결정을 내리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막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역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다시 촉발하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계속 운동화만 신고 있으면 다 잡아가고 막 이러는 판이니까 결국 그러지 못했고. 그런데 광주에서는 총학생회는 물론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탈패들이 있었고 거기 선배들이 극단 광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들불야학 같은 것도 저 문화패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상원 선생 같은, 도청에서 마지막을 지켰던 윤상원 선생은 우리

가 나중에 광대 신장으로 모신 분이고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남 선배나 이런 쪽도 원래 다 탈춤 추다가 미술 쪽으로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으로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쪽 소식을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일찍 접하고 MBC에 있던 임진택 선배가 피디였는데 MBC 보도에서 나오는 보도 지침서를 갖고 나오고 또 창작과 비평으로 올라오는 광주 쪽의 소식을 김봉준 선배가 취합해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당시 저희가 탈패들이 확대 계엄령이 그때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 어디로 모였냐 하면은 경복궁에서 하는 매년 마다 하는 민속 대전이 있어요. 인간문화재들이 탈춤도 추고 뭐 풍물도 주고 이러거든요. 탈패도 거기 모이는 거죠.

이형진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거네요.

양원모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모여서 이삼십 명이 남산에 있는 모 여인숙에 만나가지고 논의를 하죠.

이형진 5월 말인가요?

양원모 5월 그게 아마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나는데 19일인지, 20일인지 여하튼 그즈음이었어요.

이형진 광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네요.

양원모 네. 그 이후에 광주가 끊어지기 전에 먼저 제일 먼저 그런 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인물을 호외, 호외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호외 제작에 대한, 호외 제작과 살포에 대한 논의를 하죠. 그리고 1진이 먼저 형성이 돼서 1진은 주로 연합탈 중심으로 해서 한 이삼십명이 호

외 제작을 하고 서울 시내, 명동, 신세계백화점, 곳곳에 종로, 이런 데서 지하도 이런 데서 가지고 전부 호외를 살포하죠. 광주 소식 전한다고. 이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지워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형진 실제로 작업을 상당히 하셨습니까?

양원모 네. 그래서 거기에 서울대 안건석이라는 친구가 명동 백화점, 명동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검거가 되죠. 그래서 그쪽 배포조가 먼저 검거가 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참여했던 이삼십 명의 연합탈 하고 그다음에 오돌돌 세대 선배들 이런 명단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당시에 2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1진이 연합탈이고 2진이.

이형진 1진은 그렇게 해서 잡혀간다가 목표였겠네요.

양원모 그러니까 1진은 연합탈을 중심으로 호외를 제작해서 살포한다는 개념의 목표였고 1진 다음에 2진을 구성하는 것을 기독교 탈춤반에서 준비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탈춤반에서 출발해서 흥대를 통해서 하고 연합탈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탈춤반에도 여러 동기들과 선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재야의 큰 어른의 딸도 있었고 또 재야 쪽에 진보적인 활동을 하신 목사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거기에 꼭 다 2진의 최종 책임자, 총괄 책임자를 그때 제가 맡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확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명단이 떴어요. 수배자 명단이 떴는데 그 명단 안에 1진에서 참여했던 연합탈 멤버들하고 선배들 명단 다 나오고 제 이름도 나오고, 대신 2진에서 준비한 사람들

은 제가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저 외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쪽은 다 잠수함을 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수배.

이형진 양원모 선생님이 수배당하신 거네요. 수배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양원모 그래서 수배를 해가지고 잠수함을 다 탔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 이지호라든지, 서강대 지호라든지 이런 친구가 만화방을 전전하면서 하자, 만화방이 제일 안전하다 이라고 그래서 지호도 수배돼 있었고 그런데 저는 셀 활동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셀 활동. 가톨릭 셀이라는 게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가 만든 세포 조직이 나중에 코뮤니스트들이 배워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멤버들 중에 한 남동 그러니까 그쪽에 옥수동 뭐 이런 쪽에 보면 달동네가 있어요. 잘 사는 데 말고 위에. 아주 오래된 그쪽에 친구들이 있 어가지고 그쪽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잠수함을 탔었고.

이형진 그쪽은 확실히 안가였겠네요. 고등학교 관계니까.

양원모 고등학교 관계인 데다가 셀 자체가 또 여러 대학의 여러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지역이 여러 학교고 이러니까 저 쪽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걸도 했지만 그걸 다리를 건너 건너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했었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합동수사본부로까지 갔었구요.

이형진 언제쯤 그러면 연행이 되나요? 6개월 정도 수배되셨나요?

양원모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이형진 들어가서 혹시 징역을 사셨어요?

양원모 아니요. 안 살았어요.

이형진 조사받고 나왔나요?

양원모 네. 조사받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2진에 대한 얘기들은 다들 합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연결 그리고 제가 입을 안 열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1진 쪽에서는 2진이 준비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관계된 선배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선배들도 입을 안 열었고 그러니까 1진 회담 같은 걸로 연결됐는데 1진 이랑 연결되는 게 호외 제작 살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접 호외 제작 살포를 한 게 아니라 2진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왔죠.

이형진 손 선생님은 80년대를, 그 시절 80년대 5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시점에. 그때 두 분이 만난 것도 사실 초창기였을 것 같은데 숨겨주진 않았습니까? 양 선생님을.

손채수 초창기였고 그때는 아주.

양원모 수배돼서 다닐 때 연락 연락처 거치면 연락할 때 같이 다니고 그렇게.

손채수 난 기억이 가물가물해. 너무 오래돼서. 예전에 라 선생님이 구타를 맞는 걸 제가 몸을 먼저 다 던져서 제가 대신 맞았던 기억이 나요. 하하.

이형진 선생님은 5월 광주 이후에 학교로 복귀하고 기존에 하던 일, 야학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모색을 하셨나요?

손채수 그다음에는 제가 현장을 들어갔죠.

이형진 그러면 학교 중퇴하시나요?

손채수 학교인데 저는 학교를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형진 학교에서 잘라주지 않았네요.

손채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교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등록금을 계속 내고 있었던 거야.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형진 공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손채수 그때 저기 저쪽이 삼양동에 있는 삼영모방이라는 데를.

이형진 양복 만드는 데였나요?

손채수 지금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천하고 관련된 그걸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이형진 그럼 미싱 일을 하셨나요?

손채수 아뇨, 미싱이 아니고 저는 포장을 했었어요. 포장일을 해서 그래서 좀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을 못 배웠고 그런데 그 일을 삼영모방 근처에 삼양라면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면 그 냄새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그 쪽에서 일을.

이형진 처음 공장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손채수 그렇죠.

이형진 80년대 후반.

손채수 그렇죠, 80년 후반에 겨울에 들어갔거든요. 겨울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무슨 홍반 같은 게 생기면서 다리를 이렇게 못 쓰게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현장을 들어갈 때 저희 집에서는 물건을 들

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를 80년 그때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가 아서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막으시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들어가려는데 뭐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불 보따리나 이런 거를. 근데 실은 그때 제가 아는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쓸, 무슨 물건들, 이불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원모 선생님 보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양원모 선생님을, 빼짝 마른 사람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하하.

이형진 하하.

손채수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선배로 제 눈에는 난 선배여 가지고 찍혀 있던 분인데 그분이 제 뒷바라지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하하.

이형진 그 공장은 구로공단 쪽이었습니까?

손채수 아니요. 구로공단 쪽이 아니라 삼양동. 의정부하고 가까운 쪽, 삼양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떻게 제가 들어갔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형진 그러면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나와서.

손채수 다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죠. 다니게 됐다가 제가 8월 15일 날 2차 집을 나옵니다. 다시.

이형진 그럼 81년이겠네요.

손채수 그때는 명확한 게 제가 광복날 나온다는 계획을 아예 처음부

터 세웠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나오죠. 어딜 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욕먹을,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고 술은 먹어도 딱 3잔 이상은 안마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실은 야학 생활을 하면서.

이형진 노동자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손채수 네.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땀 흘리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하고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형진 나오실 때 이불 보따리는 챙겨서 나오셨나요? 하하.

손채수 아니요. 그때는 그냥 짐 가방 하나. 짐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살림을 봐주신 언니가 막 저를 붙잡으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 어떻게냐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랬는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호박 부추전은 내가 구워놨으니까 아빠 오면 그거 드리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나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이형진 아이고. 그래서 다시.

손채수 그때는 인천으로 갔어요.

이형진 취업을 하셨나요?

손채수 네. 인천을 갔고 인천에 주안에 처음에 간 데가 홍창물산인가, 하여튼 홍창물산에서 제가 오래 있었어요. 홍창물산.

이형진 전철을 타고 내려오셨죠?

손채수 전철 타고 내려갔죠.

이형진 주안역에 내리셨나요?

손채수 네. 주안역에서 공단,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서는 제 이름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이형진 주안공단에 홍창물산이 있습니다.

손채수 네. 홍창물산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하여튼 홍창물산은 저한테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고요. 잊을 수 없는 곳이고.

이형진 오래 다니셨나요?

손채수 거기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들통이 나는 게 중국으로, 공장이 잘 되고 그때 중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제가 맨 아래부터 가가지고 좀 일을 하면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컨베이어 속도 맞추려고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뭐 품질 관리, 품질 관리,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큐시 해가지고, 큐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작업반장까지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무직으로 또 저를 하라는 거예요.

이형진 하하.

손채수 근데 제가 사무직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평일 할 때 제가 마음을 붙일 때가 기도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이 주안 4동에.

이형진 용화사에 가셨나요?

손채수 주안 5동 성당. 혼자 그런데 나와 있으니까 겁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새벽 일이 끝나면 막 성당에 막 뛰어가 가지고 그 문 앞에서 빨리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끝났다 그러고서는 자꾸 그렇게 혼자 저를 이렇게 좀 약간 다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이형진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손채수 한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3년 했고 그쪽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겠느냐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혼자서 어떻게 제가 중국까지 그렇게 그거는 진짜 제 계획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원조회 같은 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 이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집에 연락을 했어요. 라 선생, 양원모 선생님 집하고 저희 집에 옥상에다가 호박을 썰어서 말려가지고 잘 있다는 표시로 호박 말림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부쳐줬어요. 제가 잘 있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고,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형진 그럼 그 2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손채수 못 갔죠. 갈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찾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집안의 불운이 많이 겹쳐가지고 아버지 사업도 완전히 사업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막역한 서장대 정일수라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집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나오면 너네 집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정초에 집을 갔죠. 갔더니 집이 진짜 많이 쇠락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병을 얻으셨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마가 너 그냥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퇴근을 하겠다고 대신 잡지만

말라고, 제가 출퇴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그때까지는 홍창물산에 출퇴근에 하셨다고요?

손채수 홍창물산에 다녔죠. 홍창물산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가니까 엄마한테서 엄마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는 현장 분한테 편지를 보낸 거에서 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구나, 제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집에 요번에 오면 오늘 갔다 오면 무조건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빵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는 엄마가 못 나가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집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이형진 홍창물산을 떠나게 됐네요.

손채수 네. 그러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많이 아쉽죠. 거기 저를 많이 따랐던 후배 현장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별안간 그렇게 돼서 너무나.

이형진 84년 경 이었네요.

손채수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서 그다음 뭐 한 달 만인가에 얼떨결에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웬지 계속 등록금을 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말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하여튼 학교를 갔는데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 가지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애들을 보면 재네들하고 똑같이 젊은, 이쁜 애들이 한쪽에서는 현

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매일 그냥 학교 앞에 술집에서 술을 먹었죠. 막 술을 많이 먹었죠. 그때는 진짜.

이형진 양원모 선생님이 위로를 좀 해 주셨습니까?

손채수 아니요.

양원모 저는 그때 군대 가 있었습니다.

이형진 군대 간 얘기 좀 하실까요, 그러면. 양원모 선생님은 군대를 가시게 돼요. 그 과정에서 혹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강제 징집되신 건가요?

양원모 초기 강제 징집 형태였습니다.

이형진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양원모 학교에서 학생운동 관련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었고 왜냐하면 80년대 확대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강제 징집 형태로 군대를 가게 되고 이게 81년 6월 입대를 합니다.

이형진 그러면 군대 생활을 그때는.

양원모 군대 생활을 2년 3개월 정도 하고 전역해서 나오죠. 전역해서 나오니까 그게 83년 9월이었고.

이형진 유화국면 시작이네요.

양원모 83년 9월에 나왔는데 선배들이 김봉준 선배 홍익대학교 탈출반 쪽에 제일 꼭지 선배가 김봉준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가지고 있던 화살을 처분한 걸 가지고 애오개 소극장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애오개 소극장이 열리죠. 복합문화공간적 성격인데 거기에 옛날 선배들하고 그다음에 연합탈출에 추축이었던 멤버들도 모여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집단 재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두레가 10년 만에 재창단이 돼요.

이형진 재 창단이에요? 한두레가?

양원모 네. 한두레가 그동안 중간에 해체됐다가 재창단이 되면서 연합탈출의 추축인 멤버들이 거기에 극단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배우들로 그래서 다시 소리굿 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당극들을 순차적으로 올리게 되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형진 83년에 수해 있었어요.

양원모 네. 그때 ‘강쟁이 다리쟁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쟁이 다리쟁이를 할 때 창무회하고 한두레하고 연합해서 공연을 올립니다. 창무회는 그 이후에 전통 무용을 현대화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 거기에 한두레의 멤버로서 공연에 참여하고,

이형진 혹시 강쟁이 다리쟁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양원모 강, 그다음에 다리, 강쟁이 다리쟁이, 그래서 강과 다리에 그 당시에 물난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난리가 처해졌을 때 소위 특권층 또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그다음에 일반 물난리를, 수해를 당했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극화한 것들입니다. 총체적 고발극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작품이었죠.

이형진 어디서 공연했습니까?

양원모 저기 대학로에 있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 때 관소리를 김명곤 선배가 했었고 그다음에 연출을 김민기 선배하고 채희완 선배가 맡았었고 당시에 그 탈을 제작했던 게 오윤 선배가 했고 그다음에 여성 춤꾼들은 창무희, 남성 춤꾼들은 한두레.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배우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그랬었죠. 한두레 재건되고 그다음에 미술 동인 '두렁'. 민중미술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하고 현장하고 연계 돼서 다양한 실험적인 민중미술의 미학과 실천 방법론을 내왔던 미술 동인 두렁이 형성이 되고 그때 두렁 활동을 돕다가 창립될 때는 정식으로 두렁 멤버로 들어가서 거기에 미술 담론, 미술 이론,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이끄는 작업을 하고 민중미술 비평가라는 3대 민중미술 비평가로 원동석, 최열, 라원식 이렇게 꼽을 때 그중에 하나로 민중미술을 주창한 비평가가 되고 20대 때 '힘' 전 이런 걸 겪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20대였기 때문에 민중미술의 창작과 방법론에 대한 걸 그 당시 힘 전 때 특강을 하게 되고.

이형진 에세이를 쓰셨나요?

양원모 정식 비평문으로 냈습니다. 지금 비평문으로 정식 비평문으로 나가 있고 그런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메아리, 서울대 메아리하고 이대 한소리 멤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래패 새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문승현이, 김보성이 이런 주축으로 했고 훗날 거기에서 배태돼서 나간 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찾사가 거기서 나오구요. 그다음에 사회 사진연구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장산꽃매 같은

이 영화 소집단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유화 국면 이후에는 민중문화운동연합의 다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중문화운동연합이라고 그리고 애오개에서 교육과 전시, 공연 이런 게 늘 상설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인천 출신으로 정성렬이가 애오개에서 와서 관리, 소극장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성렬이가 와서 일을 했었고.

이형진 1년 후배시죠?

양원모 네. 서강대 후배. 79학번, 탈쪽 후배고 저는 홍대탈이었고. 홍대탈하고 서강대 탈은 거의 굉장히 가까웠어요. 연대탈하고 이대 보다 특히 서강대하고 가까워 가지고서 탈패들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탈패라고 하는 또는 동질성 때문에 다들 아주 가깝게 지냈더랬죠. 그러면서 민중운동연합의 서강대 76학번, 탈패 76학번에 김영철 선배가 있었었는데 김영철 선배는 뒷날 한겨레 문화부 기자도 되고 뭐 논설위원도 되고 그러지만 민청련 선배가 중심이 돼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인력을 발굴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됐던 게 인천 쪽하고 그다음에 구로공단 쪽이었는데 저희들은 인천 쪽으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서울대 78이었던 장영덕이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이미 현장에 미리 들어가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서강대 78에 장군주. 이렇게 해서 세 명, 78학번으로 현장 투입이 구성되고 79쪽에 아주대 79 학번이었던 조봉호 그다음에 저기 또 서강대에 79학번 탈반이었던 송송섭이 그다음에 노래패 쪽에서 서울대 79학번이었던 김보성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한 달 이상 현장 투입에 대

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순차적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봤던 곳은 부평공단이었습니다. 부평공단이었고 현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미술 동인 두렁에서도 두렁을 논두렁, 밭두렁으로 재편을 하고 밭두렁은 필드가 밭이기 때문에 현장 직접 투입조들은 밭두렁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이주까지 인천으로 하는 거고 그때 같이 왔던 게 성효숙 그다음에 양은희, 정정엽 그다음에 후배들은 김진수, 현윤애 이런 두렁과 관련된 미대 출신들이었고 그다음에 탈반 출신으로 오게 되는 게 오황식 지경옥 나학수 이런 후배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문화패들의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화패는 개인의 이전이 아니고 학내 기반이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대학만 한다면 서강대탈, 홍대탈, 서울대탈, 아주대탈 뭐 이런 식으로 탈패들이 움직이면 탈패들이 만든 언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언더 조직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학교 단위가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래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메아리가 움직였고 한소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노래패 그 멤버들을 중추 멤버들이 또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민화패. 민화패는 홍익대학교 민화패 그다음에 이대 민화패 정정엽이가 이대 민화패 출신이거든요. 그 민화패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한 10명 안팎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20명, 30명, 4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고 움직이고 군대에서 남자들은 제대에서 나오면 선배들이 설득해서 현장으로 투입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휴학계를 내놓고 오는

경우도 있는

이형진 문예운동은 어땠습니까? 문학 쪽은.

양원모 문학 쪽에서는 문학 쪽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문학 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서포터하기 그래서 박영근이, 노동자인 박영근이 움직였고 효숙이하고 같이 부부로 오고하면서 박영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뒷날 노동소설을 처음으로 썼던 정화진이, 정화진이가 황의돈이거든요. 황의돈인데 정화진이도 서강대 탈패 조금 활동하다가 글 쓴다고 했었는데 노동 현장으로 오면서 거의 부평에 왔을 때 그 집을 얻어서 살 때 저하고 화진이하고 장근주하고 같이 살았죠. 그러면서 정화진이가 현장에 투입돼서 진행됐던 췌물 공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췌물처럼’이라고 하는 노동소설을 만들고 그 만든 것들을 구로공단하고 인천공단 쪽에 보통 소설을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끔 빨간 책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걸 채광석 선배가 보고서 그 당시에 창작과 비평이었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으면서 노동소설이라는 게 공개되면서 쪽 나오고 그러니까 박노해가 등장하기 전이었됐죠. 그래서 노동 쪽은 그러니까 문학 쪽은 그랬었고 문학은 개개 활동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이전을 다 건너오는 거죠.

이형진 그 무렵에는 그러면 선생님도 인천에 정착을.

양원모 그런데 인천에 왔는데 인천에 왔을 때 내부에서 검토됐던 부분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들어가는 멤버들은 들어가서 공부하고 소모임 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조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 활동이 필요했잖아요. 현장 활동, 문화

활동, 부분들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다수의 멤버를 다 현장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하기에는 힘이 딸렸죠. 그래서 그때 애오개에서 일찍부터 인연을 맺고 활동했던 정성렬이를 만나게 되고 정성렬이가 인천에 토백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성렬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한광대를, 풍물패 한광대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술 운동이 확산되어 가면서 지평 활동을 하고 있던 허용철 선생하고 그다음에 현장 투입 쪽으로 왔다가 다시 재배치된 정정엽이하고 만나서 그림패 깃꽃을 만들고 그래서 깃꽃이라는 게 생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노래패 쪽 계열의 그게 인천하고 닿으면서 노래패 산하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갔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나와서 노동 문화나 노동 문화 상담을 하거나 노동조합 만드는 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일손 나눔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수홍이를 비롯해서 이런 멤버들이 일손나눔을 만들고 이 영역들을 전부 다 주안역 앞에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쑥골마루'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서 풍물 강습, 노래 강습, 음악, 저기 그림 강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형진 쑥골마루는 87년 전이었나요? 이후에 인문연으로 되기 전.

양원모 쑥골마루는 제 기억에는 87년 6월 항쟁 전 이었죠.

이형진 왜냐하면 이후에 인문연으로 공식화되기 전 단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포괄적으로 여러 영역들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양원모 네. 87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인천 지역에서 여기 인천 인사연도 움직이고 막 이럴 때 문화 쪽에서는 인천우리문화사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쑥골마루를 기반으로 호인수 신부님하고 최원식 교수님을 대표로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그 나머지 후배들이 함께 손을 잡고서 민중 문화예술 쪽에 그걸 대변하고 문화 쪽을 대표하는 것, 그건 인천우리문화사랑회가 연대 모임에 참여하고 그랬었죠.

이형진 그건 88년이니까 87년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선생님이 84년 이후에 정착을 해서 그러니까 활동하던 과정 그러니까 87년 전까지 그 단계에 한 3년 동안은 또 여전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같으면 5·3을 경과하면서 탄압과 이쪽의 반격 이게 계속 반복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과 바깥에서 사업은 사실 노출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수밖에 없을 텐데.

양원모 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저와 같이 지역 운동하고 연계되면서 지원 활동도 하고 문화 운동도 일구고 그다음에 또 중앙 서울하고 또 서울하고 또 연계 활동, 민중문화운동연합에서 나중에 노동자 문화운동연합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걸 연결고리를 갖는다든지 또 80년에 국민운동본부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제가 당시 합법적 신분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거는 민족미술협의회 정책실장이었거든요. 그 영역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인천에서는 쑥골마루로 해서 우리문화사랑이 하면서 그런 걸 했었고요. 그 영역을 분리해요. 현장 활동

에서 하는 영역하고 저하고를 서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 쪽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쪽에서 스스로 그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인천 지역의 민중문화운동, 예술 운동, 이쪽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형진 거주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양원모 저기 제 처하고 같이 이사를 와서 부평에 와서 살죠.

이형진 청천동 쪽이었나요?

양원모 부평에 처음에는 발두령이 건너오면서 인천 부평공단 백마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가지고서.

이형진 산곡동 쪽이었네요.

양원모 네. 한 방은 그림 쪽에서 오는 여성들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화진이 하고 저하고 장모님 이렇게 생활을.

이형진 집단 거주를 하고 계셨나요?

양원모 아니요. 서로가 같은 조직인 줄 모르고 있었죠. 나뉘져 있었고요. 근데 근거리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제 처가 부평으로 왔기 때문에 저하고는 같이 살림을 따로 내와서 같이.

이형진 그쯤에서 그러면 우리 손 선생님은 그때 그러면 아까 공장 생활 후에 집으로 복귀를 하셔서 학업을 일단 마무리 하셨네요.

손채수 학업을 일단 일단 마무리를 한 거죠. 마무리를 했고.

이형진 그럼 85년경에 정리가 됐겠네요.

손채수 네. 그리고 한 번 더 또 현장을 들어가려고 또 시도를 하다가 그래서 저기 어디죠, 무슨 마을, 저기 라자로 마을, 성 라자로

마을에서 잠깐 제가 들어가서 있다가.

이형진 라자로 마을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손채수 그분들 이렇게 봉사하는 일 하면서 거기서 현장 들어갈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상황이 그렇고 제 아래 동생이 이대 사회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사회학과인데도 사회학과 무슨 과 활동도 못하고 왜냐면은 제가 맏이인데 저 대신 집을 집안일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 친구가 또 이대 사회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동생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는구나 싶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장 일은 꼭 현장에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면 어디든지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그냥 그거를 하면서 그러다가 졸업하고 대한투자신탁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한투자신탁에 갔더니 상황이, 제가 대한투자신탁, 식품영양과 출신이니까 영양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그쪽 저는 거기 들어가서 그쪽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어떤 그런 걸 해볼까 하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치된 거는 실은 거기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서 이렇게 이미 쓰고 있어 가지고 저를 도서 자료실로 발령을 냈어요. 조사부로. 그래서 대한투자신탁 조사부로 발령이 났어요.

이형진 그럼 86년 정도인가요?

손채수 그렇죠. 85년인가, 85년, 86년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조사부 자료실의 실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

국 자료, 외국 뭐 파이낸셜, 뭐 이렇게 금융자료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서 부평으로 라 선생하고 제가 그쪽에다가 방을 얻죠.

이형진 그럼 선생님은 부평에서 출퇴근하셨네요? 서울로.

손채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라 좀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쪽 사정을 듣고 제가 거기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리고 그때 자취를 하다가 한 번 라 선생이 저기 맨밥만 먹고 맨밥에 간장만 먹어서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쉼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평에 방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다니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죠.

이형진 자, 87년이 됐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비합법 시기를 좀 지나면서 인천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급격하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6월 항쟁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비합법 굴레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을 거고, 훨씬 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열린 공간에서의 활동 얘기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문화사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는 88년이거든요.

손채수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형진 그리고 인문연도 그 해 88년 10월 말에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으로 출범해요. 그런데 우리문화사랑회 때는 사무국장님이셨고 그리고 인문연에서는 중앙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양원모 지도위원.

이형진 지도위원이었어요?

양원모 네. 86년 11월에 한광대를 창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안 5동 성당을 빌려가지고 노동자 문화 한마당이라고 하는 문화야학도 86년 때 해요. 그리고 이게 두 군데에서 진행하는데 하나는 백마교회 쪽에서 작업이 들어가고, 하나는 주안 5동 성당의 호인수 신부님의 배려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때 주안문화공간 쑥골마루라는 게 개관을 하고요. 그게 86년입니다. 그리고 인천우리문화사랑에는 86년 겨울인가, 그 무렵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지도위원이 되는 건 87년 9월입니다.

이형진 기록이 조금씩 다르네. 우리문화사랑회가 87년이라고요?

양원모 86년 11월에 한광대 만들어지고 쑥골마루로 개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87년 6월 항쟁 하기 전에 이미 우리문화사랑회는 인천 지역의 사회운동연합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형진 그때는 사무국장님이셨죠. 상근 할 수 있었습니까?

양원모 네.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상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 9월로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옛날 기록을 좀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별별 여러 가지를 다 했죠. 강습만 한 건 아니고 강습하는 사람들이 특히 풍물 강습하면 복장구 같은 경우도 팔아서 중간 마진으로 운영비에도 보태고 뭐 현대미술 혼례식 같은 것도 해가지고 혼례식도 하고 또 뭐 회갑연 같은 것도 하고 또 대우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직원.

이형진 연수 교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성렬 선생은 그걸 통해

서 돈도 좀 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원모 정성렬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 성당마다 다니면서 또 풍물패를 만들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공간 운영비를 만들었죠. 그런데 공간 운영비를 월세를 내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 활동비라는 건 교통비 정도밖에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각자 나머지 각자 자신들이 해결해 가야 하는 거였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몸이 아파서 한번 실려나가기도 하고요. 87년도에 들어왔을 때 87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어가지고 서울에서는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때 였더랬죠. 근데 그전에 이미 저희가 85년도에 민미협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국민운동본부에 들어가서 운동본부 만화 신문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그거를 해 나가기 시작하죠. 최정현이 반쪽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만화가 이희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시고 하여튼 박재동 선배 같은 것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국민운동 만화 신문을 움직이고 이랬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안 5동에서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할 때 그게 아마 1986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87년 진행이 됐는데 이미 그때 노동자들 하기에 풍물 마당극 또 촌극 또 걸개그림 어떤 등등 이렇게 예술로 노동자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각해 돼가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때 쓰여졌던 주로 교재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만화책이.

이형진 만화책 많이 나왔어요.

양원모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민미협에 올라가서 민미협의 이름으로 책을 만들게 하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교육이 들어갔던 거였고.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저녁이면 주안 5동 성당 뒤에 또 시장 통해서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할 때 이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 정치 조직, 노동자 대중 조직 이런 걸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이 결이 다른 쪽이어서 그런지 예전에 민주노조하고 활동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들이 만든 노동자복지협의회하고도 인연이 있어가지고서 노동조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꾸릴 수 있는 중추적인 인물들을 노동조합문화연합에서 발굴하면 김포 쪽에 또 성당으로 연결해가지고 노동자 학교를 꾸렸죠. 노동자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재들을 저희들이 직접 이옥배 같은 친구들이 삽화 그리고 이고 그쪽 멤버들이 글을 쓰고 그래서 따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어떤 세상, 사회인지 또 노동자들은 또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교재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것도 교재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렁에서 논두렁이라고 나머지 멤버들은 집중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갈래는 구로공단 쪽으로 가서 하면서 서노련하고 연결돼서 깡순이, 위에 작가들로 들어가 있었죠. 김주영이라든지 아니면 만화 그리던 이은홍, 김주영이, 이은홍, 다 저희 두렁 멤버들이니까. 깡순이 쪽에 그걸 했고 그다음에 연성수 선배가 민청련이었는데 연성수 선배하고 이규현 누나가 부부가 되면서 민청련

쪽하고도 연계되고 이러면서 '사장과 진실' 이런 책들도 만들어내고 또 '나뭇골 사람들' 목동 이야기 이런 것도 만화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장준영 선배라든지 뭐 거기에 박현이라든지 쪽 이런 멤버들이 결합되어 들어가면서 기노련 기독노동연합에서 나오는 만화 신문을 제작을 해서 그걸 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소식지 형태로 보내지는 부분들이 저희 논두렁 외 밭두렁으로 들어와 있던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게, 유인물을 만들었던 게 그게 당시에 유행하던 까치만화. 그 백두산, 엄지, 까치를 주인공으로 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살포하고 이랬죠. 그래서 저희 언더쪽으로 움직이는 쪽을 그쪽에서는 어느 조직이 계보인지 몰라가지고 까치 그림 그런다고 까치파라고 명명하는 게 거기서 비롯됐던 거였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소설인 셋물처럼도 그렇고 현장에서 그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독금속 노조였죠. 한독금속 노조에는 문화패 출신으로 왔던 친구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있었죠. 나중에 사무국장으로 하는 정기용이.

이형진 김성환 다음에 정기용.

양원모 기용이가 홍대 82학번인가, 지혜 후배고. 그다음에 이한철이 같은 경우는 한신대 79 탈패 출신이, 80학번이 들어가 있고 그 래가지고 한독금속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갔었고 그래서 훗날 장산꽃매가 '파업전야'를 만들 때 남일금속하고 한독금속을 이야기를 합쳐서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장을 그 당

시에 한독금속에 들어가서 한독금속에서 촬영을 하고 노동자들의 도움 하에 사업 분야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영화를 못 보게 막 전경들이 달려오는 거 방어 저지 투쟁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영화가 올라가면서 그걸 대학가나 일반 시민들에게 영화로 독립 영화로 알리는 작업이 그래서 비롯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패 깃꽃이 들어가 가지고 한독금속에다가 한독금속의 노동 운동사를 벽화로 뭐 허용철이라든지 정정엽이 들어가서 벽화 작업을 하고 그런 게 다 이런 계보가 있어요.

이형진 허용철 선생은 자신이 주문한, 그러니까 이미지 생산을 위해서 작업은 계속 했는데 그게 누구와 자기한테 작업을 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양원모 한독금속에서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독금속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인천 인노협 의 의장을 맡았던 황재철 선생이 제가 했던 노동자 문화 야학에서 아까 노동 문화 주안 5동에서 했던 거기에서 함께 했었고 거기에 노동자 문화학교, 노동자 학교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노조가 만들어질 때 노동조합이 된 경우거든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는 직접 관리해 왔지만 저희 문화패 멤버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투입돼서 들어갔던 게 대우자동차였고 대우자동차 직 혼을 통해서 들어가려다가 조봉호가 학력이 발각이 돼서 못 들어갔지만 그 앞에 야학 출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때 대우자동차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림자동차에도

들어가 있었고 대림자동차 장영덕이부터 한독금속에 아까 정 기용부터 해서 등등등 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연계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문예 운동 쪽에서는 논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 문예라는 걸 어디로부터 탄생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노동자 문예에 대한 부분들의 바탕을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 중에서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 쪽에서 자기 축을 가지고 관계에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성수 선배 계열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노동 운동하고 직접 만나서 노동운동 안에서 생성돼서 그 영역에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노문연, 노동자 문화 문예운동연합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호외 제작하고 유인물 만들어 발표 그런 거 할 때 제작 책임을 저주고 저희가 받아와서 했지만 관계는 나중에 그러그러한 지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끊어지죠. 끊어지고 독자적으로 가게 되죠.

이형진 소위 당시에 80년대 후반부에 사회구성체론이나 NL 또는 PD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논쟁이 예술계 내에 있었다는 건가요?

양원모 네. 노동자 문예운동을 부문 운동으로 이해하면 부문 운동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죠.

이형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양원모 노동자들의 입장이나 처지에 서서 노동자적 세계관으로 작업,

예술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을 노동자 문예로 이해할 때 그 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노동 현장으로서부터 비롯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의 미적 대리자 입장을 취하는 쪽의 진보적 작가로부터 오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 쪽에서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은 작가주의적 경향의 미적 대리자로서 오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축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중심축은 노동자 안에서 생성되는 문예 운동이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작가들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현장으로 와서 협동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것들이 생성 가능하게끔 주객관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형진 노문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걸 확대하는 과정이었나요?

양원모 노동자문예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경로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나갔어요. 노문연이. 노동자문예운동연합이. 급진적으로 나갔고요. 그러니까 저희 노동현장에서 그랬지만 전위조직 또는 노동자 정치조직, 노동자 대중정치조직, 이런 논의들도 가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들에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자기 성장 발달 단계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지식인과 같이 레디컬한 의식을 갖다가 그렇게 도약하는 성질이 아니라고 봤던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존재 자체가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변화시키려면 저희 식의 지금 표현을 하면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은 자기 하나를 결단을 내리면 되고 자기 부모가 어떻건 형제가 어떻건 간에 자기 계급으로부터 위반하더라도 진리를 통해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사회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는 인류의 공공선을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이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 노동자 가족이기도 하고 이거는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나아가는 경우에 결단을 내리더라도 영혼이 무거운 사람들이고 무겁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단의 무게를 인정해 주면서 단계 단계적으로 자기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것들이지 청년, 학생들 같은 건 아니라고 본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형진 우리 손 선생님은 그때 87년을 겪으면서 증권회사를 다니시면서 뒷바라지 하시면서.

손채수 대한투자신탁. 현장 활동하는 친구들 뒷바라지 하면서.

이형진 그때 그러니까 부평에서 만났던 분들 좀 기억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손채수 부평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그렇지만 저는 대한투자신탁 안에서 여직원회 제가 대표를 맡게 됐었어요.

이형진 노조는 아니고요?

손채수 그때는요 은행권에서 노조가 없던 때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고 싸우던 초기 형태로.

이형진 맞아요. 87년에 사무직들.

손채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소녀 씨라고 그분이 금융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했었고요.

이형진 하여튼 몇 군데 은행은 노조를 시도해요.

손채수 저는 그때 당시에 결혼하면 제2금융권을 못 다녀요. 그때 시대는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하고 같이 사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또 그래가지고 결혼하고서 제가 시댁으로 들어갔죠. 시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사는 거를 되게 좀 제가 좀 원해서.

이형진 87년 11월에 하셔서 시댁으로 들어가셨네요.

손채수 네. 시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서도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걸 제 목적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직속상관인 너무나 좋은 과장님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시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좋으신 분이데 위에서 저 때문에 압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어떠한 압력을 많이 받고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저를 따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집안을 봐도 그렇고 뭐 듣고 어떻게 보면 꼭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계속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직원들은 대부분 여상을 나온 친구들이예요. 카운터에

앉아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학 출신자가 저 하나였던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하나 그거는 제가 결혼해도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보여주겠다, 저는 그게 같이 다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마를 다니더라도 저는 일단은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하더니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양원모 한겨레 신문사로 갔나요?

손채수 건너가면서 저한테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하하. 그 래가지고서는 제가 다녔어요. 다니는데 다니다가 임신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배가 불러와요, 소변이 막 차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제 남자 동기들을 전화를 해서 부르면 동기들이 와가지고 잠깐 도서관 도서 자료실을 봐 주고 그 사이에 저는 그 앞에 있던 경동상가로 뛰어가서 거기서 소변을 뽐고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찬 거를 뽐고 다시 뛰어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임신 중독이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한 두 달을 제가 결혼하고서 두 달인가, 석 달을 제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시부모님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금융권

에 가면 이렇게 막 많잖아요. 여성 간부들이 보면 마음 쪽으로 되게 흐뭇해요. 저도 조금 도운 것 같아서.

양원모 그렇게 한 덕분에 대한투자신탁에서 제 처는 그만두게 하고 나머지 여직원들은 그 위에 결혼하고도 남을 수 있고 주식도 우리 주식으로 하죠.

손채수 자사주 다 받을 수 있게 됐죠.

양원모 페미니즘 운동하고 결합도 있고.

이형진 양원모 선생님은 80년대 후반에 물론 건강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운동이 좀 정립됐고 그리고 사회 운동 영역은 합법화되기도 했지만 사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곧바로 90년에 사회주의권 몰락 이렇게 되면서 퇴조하는 분위기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은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양원모 제가 인천에서 일하면서 한 번 아파서 실러가고 나중에 두 번째 또 크게 실러나가게 되는데 그때 진단을 받았을 때 폐결핵 진단이 나와요.

이형진 88년이었어요?

양원모 그게 88년 말이었나, 89년 말이었나, 하여튼 폐결핵 진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폐결핵 진단이 나온 다음에 저희 더 이상 부모님을 제가 폐결핵까지 걸러가지고 모실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하고 1년 동안은 다락방에서 약만 먹고 자고 약만 먹고 자고 책 보다가 자고 이런 1년 동안 폐결핵하고 싸우는 과정이 이게 진행이 되고요.

이형진 인천에서요?

양원모 아니요. 서울로 가죠. 서울로 가서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 처가 약값을 벌겠다고 선배 언니, 수원 울전 쪽에 가서 거기 보조 약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회복이 돼서 저희가 일산 근처의 행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꿈나무 서점이라고 어린이 서점 같은 걸 하면서 약값도 벌고 생활비도 벌면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시절이 있어요.

이형진 몸이 아주 안 좋으셨나요?

양원모 한 1년 약을 먹고 한 2년 때까지 그랬었고 그래서 좀 회복이 돼서 제가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후배들이 권유한 바도 있고 뭐 또 인연이 닿은 바도 있어가지고서 문예마당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해 내고 월간 예감이라고 하는 잡지도 창간해내면서 내가 편집인으로 하고 그런 과정들이 병진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건너가다가 제 처가 쓰러져요. 그래서 제 처가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아주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병의 원인도 모르고 진행 과정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치병이라고, 베체트병이라는 게 걸려서 일곱 개 병동에서 실험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그냥 저기 이사 가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건 시골로 가건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고치자, 고쳐보자, 그래서 안성으로 91년도에 안성으로 이사를 하죠. 그래서 4년 동안은 제

처의 병을 고치기 위한 거고 저도 요양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서 일은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겨레의 노래 사업단 일도 했고 그다음에 하여튼 월간 미술의 월마다 한국 현대미술 연극으로 해서 민중미술운동을 연재하기 시작하죠. 뭐 관화 운동, 만화 운동, 벽화 운동, 1년 또 갈레별로 연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한 '활생' 예술제 같은 것도 하고

손채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도 모금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생 미술 전시도 하고.

이형진 활생?

양원모 활생. 생명을 살리자.

손채수 활생 미술 전시회를 해서 그것도 해서 돈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안성에 있는 생협, 의료생활협동조합 1호거든요, 우리가. 그거 만들 때 그걸 하는 거를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고 고삼저수지, 고삼 청년회부터 해서 다 모여가지고 그걸 라 선생님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금해서 병원에다가 그랬어요.

이형진 그동안에 치료도 되셨어요?

양원모 네. 4년 동안 그래서 완전히 19세기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궁이 떼고 우물 길고 푸세식 에서 그거 하고 아주 오래된, 몇 년 동안 비워져 있던 한옥을 쓸고 닦고 해가지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4년을 그 과정을 밟아가죠. 그러면

서 89년에 동부권 무너지고 이러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왔는지 또 천안문과 같은 것들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 당시에 선배들이 시작한 게 한살림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한살림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죠. 한살림에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민족주의자였고 그다음에 어떤 국제주의자를 거쳐서 생태주의자로 나름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생명 운동, 생명 평화 운동,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돼서 인천에서 강화도에서 하는 생명 문화축제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어린이들과 하고 동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쪽 밟아오게 되는 것들인 거고요.

이형진 80년대를 돌이켜 보시면서 사실 인천에서는 주요하게 5·3이 있었고 그리고 87년 민주화 투쟁과 노동항쟁 그러니까 그때 제일 격렬하게 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변화 발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대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양원모 아니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형진 당시에?

양원모 네. 비판적이었는데요. 사회 구성체 논쟁도 하고 그다음에 혁명론 담론 가지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선배들이 저를 공부 시키려고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하

면 본격적으로 심화된 사회과학 공부를 할 때 근데 저는 그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인이예요. 유신론자예요. 저는 천주학이고요.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그쪽은 배경이 사적 유물론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신론자고 지금은 신기론자인데 때문에 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바티칸 공의의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을 믿건 안 믿건 어떤 종교를 하건 간에 함께 해야 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선배들이 저를 설득하기에 그건 과학이다, 물리학자가 신앙이 있다고 물리학의 법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궁구하듯이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과학이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언젠가 진화된 또 새로운 과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회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적 합의로 그 공부를 한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서는 신앙인인 후배들이 많아요. 선배들이 설득이 안 되는 신앙인의 후배들은 주로 저한테 다 넘기면 제가 너가 불교냐, 너가 천주교냐,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일례로 대표적인 게 정화진이 같은 경우에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정화진이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거고 조봉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봉호도 아주 독실한, 감리교탈까지 했던 신앙인이었는데 그래서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일찍 접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 중에 아까 민중문화운동연합에서 현장 이전을 하고 담론을 논의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멤버들이 있었고 다양

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봤을 때 저희들이 봤던 부분들은 소위 스탈린주의라든지 마오주의라든지 김일성주의라든지 이런 민주집중제라는 이름으로 당 독재가 일인 독재로 하고 이런 것의 폐해가 어떤 건지를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미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이라는 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세계 혁명에서 이들이 어떻게 혁명적 이념을 배반하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이미 노멘클라투라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귀족 계급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특히 동부권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천안문이 터져서 들어왔을 때 천안문과 관련된 벽보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소위 주자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붉은 자본가 양성 계획을 해서 노동자, 농민, 병사 사회에도 붉은 자본가를 어떻게 양성해서 시장사회주의로 갈 경우에 붉은 자본가들을 어떻게 키워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왜곡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당연히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뭐 이런 마오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은 예민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변혁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그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미리 그려볼 수 있었고 대신 천안문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천안문은 굉장히 쇼크였었어요. 인민의 가슴에 인민해방군의 총부리를 겨누는 걸 보면서 광주하고 다를 바가 없었

거든요. 중국식 광주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나마 그것을 한국의 인텔리겐치아 지식이나 하는 사람은 저나 제 처 같이 자기 계급으로부터 위반해 오더라도 사회 정의나 공공선을 위해서 집안을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했더라도 인류의 모두의 나은 삶을 위해서 민족이나 국가 이런 걸 위해서 그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중국은 사실 홍콩이나 대만하고 중국 일부 외에는 그러지 못하고 철저하게 금압되면서 시장사회주의라는 소위 국가자본주의 전략 플러스 알파로 했던 그게 다 흡수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당연히 저희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진보적 운동이 이미 축이 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녹색 계열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하물며 해적단과 같은 또 소위 해커들 중심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어느 쪽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 덕을 넘어서는 것들을 필로 예비할 것인가 할 때 그나마 제일 위에 선배님이나 선생님들이 검토했던 것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일례로 진보당의 맥을 이어서 하시는 장일순 선생님, 원주파에서 하신 거나, 김지하 시인이 검토하는 거나, 아니면 녹색 비평의 김종철 선생이 얘기하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문학 쪽에서는 이 계열을 개벽파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영역에서 역사를 다시 분석하고 재구성하려고 그래서 아까 동학에서 나오는 공생주의 같은 것들도 다시 보는 것들인 거고요. 그게 유럽에서는 공동체주의 이런 거지만 아무튼 우리식 맥락에서 탄생하는 것들을

다시 보고 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 행보는 그런 관련으로 온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저희들은 부수적인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혁명이나 또는 정치나 또는 사회운동에 하나의 아지프로의 틀로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이 펼칠 수 있는 많은 힘의 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갈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선취해서 그것을 구성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는 것들인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낱알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합해서 정서적이건 문화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거꾸로 저는 문화가 상상하고 정치가 구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화가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문화 선행론자입니다. 정치 선행론자가 아니고 문화 선행론자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건 새로운 문명을 새롭게 유도해야 적으로 구성할 때 그것들도 예술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먼저 상상하고 구축해놔야지 그것을 뒷날 정치나 사회에서 일반화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의 자기독자적 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제 동료들도 꿈을 꾸었지만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 강국의 꿈, 소위 소프트웨어, 문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저희 같은 파인아트나 또는 하나는 사회 참여적

인 예술을 하는 예술가만이 아니고 대중예술을 하거나 대중예술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아티스트로 깨어나서 나름대로의 미래를 선취하고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공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여튼 K-팝이건 뭐 이렇게 웹툰이건 하여튼 웹소설이건 뭐 다양한 영역, K-패션, 이런 영역들이 문화예술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세계 시민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와 인류의 공공선 또 새로운 세계관이나 패러다임 또 새로운 문명의 꿈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그런 게 지역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저는 중앙보다는 저희들이 옛날에 인천에서 활동할 때도 그랬고 경기에서 활동할 때도 모든 예술은 경계에서 꽃이 핀다, 경계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경계가 소위 조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을 포위하면서 경기에서 꽃을 피워서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양 선생님 그리고 우리 손채수 선생님. 오늘 상당히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양 선생님이 최근에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옆에서 보시면서 또 본인으로서 최근에 또 그림도 그리시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손채수 라 선생님을 먼저 제 옆에서 지켜본 그 과정.

이형진 계속 라 선생님이 더 익숙하신가 봐요. 양원모 선생님보다, 하

하.

손채수 네. 저는 그냥 라 썸이라고 항상. 평소 때 부르는 게 라 썸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라 선생님하고 저희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 선생님이 활동하는 것도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경동시장에서 제가 비디오 가게를 해요. 생활 때문에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약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한약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제가 교육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야학 때부터 특히 세계사라든지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흥에,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요, 하하. 시흥에서 어린이 예술학교 식으로 학원 선생님한테 뭐랄까, 뭐라 그러지, 진행을 다 맡았다고 그래야 되나.

이형진 어린이 예술학교 기획을 하셨네요.

손채수 네. 그래서 기획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실은 세계 문화학교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 문화학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걸 없이 기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세계 문화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시흥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저는 맡아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후원만 하고 전체 진행은 제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형진 2000년대 이후예요?

손채수 전이죠.

이형진 아, 90년대 말.

손채수 인천에서 한번 살다가 다시 시흥을 가고 시흥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세계 문화학교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세계 문화학교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면서.

양원모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001년, 2002년 그 무렵이었는데. 스위스 쪽에서 제안을 받아요. 스위스 쪽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서 정신문명 발달사에 기초해서 고찰한 예술사에 대해서 평생을 노부부 교수가 연구를 하시고 이리셨는데 거기에 장학생으로 올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하고 제 처하고가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은 나오지만, 스위스는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저기 대치동하고 방배동에서 교육예술 학교하고 문화창조학교를 열어서, 방배동에서도 열고 대치동에서 그걸 열게 하는 과정이 돼요. 그때 했던 게 인류 시원 문명에 대해서 8대 문명에 대해서 한 문명 당 3개월씩 공부하는 거니까 24개월 부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턴 6학년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형진 선생님, 나중에 다른 기회에 그 부분 얘기는 한 번 더 들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손채수 그것만 할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0년 전부터는 학생 원래 그전에 학생들하고 했던 것들을 학생들이 학생들 작품 전시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 작품을 보고 오히려 전시를 하면 더 좋겠다고 그래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 작품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 지구별이라는, 지구별 자체가 되게 지금 우리 인간 때문에 많이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상황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을 위한 대책이죠. 인간을 위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작품들을 저는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작품과

이형진 야생화.

손채수 그리고 지구별에 대한 역사. 그래서 가이암하고 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구별 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전시부터 시작 해가지고 멸종위기동물 이렇게 쪽 오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는 고마운 지구별의 선물 해가지고 곡식과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하는 전시.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은 약초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약초에 대한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장영덕 한의사님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저는 실은 제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구별 생명의 수호천사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

이 아이들을 1:1로 연결시켜줘서 말 못하는 생명의 대변자를 기르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사막 여우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자기랑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생명하고의 연결권을 만들어 줘서 우리 인간만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생명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다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인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식처라든지 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이 그들도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들끼리 생명으로서의 사람과 그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건 생명의 수호천사를 계속 양성하고 싶은 게 지금 제 바람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멈춰졌어요. 학생들 수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앞으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생명의 수호천사를 많이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진 두 분 얘기 중에 2000년대 이후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80년대를 중심으로 사실 인천의 민주화 운동과 문화 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고맙

습니다.

# 이세영



- 1953년 충북 증평 출생
- 1980년 선화여자중학교
- 1989년 전교조인천지부 전국대의원
- 1991년 범선인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1992년 선화여중 복직
- 2001년 전교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일 시 2022.6.22.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이세영

이형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전교조 교육 운동으로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에 온몸을 바치셨고 그리고 해직됐다가 복직하시면서 계속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우리 이세영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과 80년대 사학 내지는 교육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세영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코로나도 좀 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세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형진 이세영 선생님 1953년 출생이시고요, 53년 10월에, 충청도 증평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세영 충북 증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형진 그 이후에 그 대학까지 과정을, 선생님께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세영 예, 제가 53년 증평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옛날 수리조합 연합회 기사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사로 근무하시던 곳이 충북입니다. 그래서 증평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관사에 들어가서 같이 계셨습니다.

이형진 수리조합 관사에 말씀이십니까?

이세영 그렇죠, 그래서 수리 관사에 생활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게 됐고 자란 건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증평, 진천, 이월 이런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전, 이때 보게 되면 기억이, 그 외갓집에서 생활했었

습니다. 그 외갓집이 수원에 고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이형진 아버님하고는 그럼 좀 떨어져서 지내셨겠네요.

이세영 그렇죠, 계속 떨어져 있었죠. 거기에 그 외갓집에서는 옛날에 형하고 저하고 같이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동생들은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있었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떨어져서 수원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수원에 매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매산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중학교는 수원에서 서울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성동중학교를 나왔는데 65년이죠. 65년에 성동중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를 갖다 다니고 그러니까 수원서 서울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때는.

이형진 그러면 서울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셨던 거예요?

이세영 아니에요. 아는 분은 없었고 그때 수원서 서울로 학교를 가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어머니가 왕십리 쪽에, 그때 아마 전세일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갖다 다녔고 형도 옆에, 아, 배명고등학교라고 다녔습니다. 형은 수원 농고를 다니다가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배명고등학교에 전학을 해서 같이 졸업하게 됩니다.

이형진 선생님은 그러면 성동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는.

이세영 어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경희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경희대학교 병설 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학교, 경희여고, 이렇게 해서 다 캠퍼스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형진 이과로 진학을 하셨죠?

이세영 그렇죠, 제가 원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과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대학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갖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형진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이세영 72년이요. 입학해 가지고 저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중학교 입시를 봤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건 무우즙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침 속의 소화효소, 그래서 디아스타제라고 들어있는데 그게 무우즙에도 같이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무우즙, 디아스타제가 다 같은 정답이 된다고 해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형진 입시 문제에?

이세영 예, 입시 문제.

이형진 침만 효소가 있는 게 아니고 무우즙에도 효소가 소화 효소가 있다, 복수 정답 문제가 생겼다 그런 파동이 있었다는.

이세영 그렇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이형진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으니까, 재수를 해서?

이세영 예, 그때 성동중학교 졸업하면서 성동고등학교를 그냥 가라는 걸 갖다 좀 탄 데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다가 떨어졌죠, 하하. 거기가 상당히 썩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경희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이형진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미 1년 재수하는, 어린 시절에 벌써 그런 약간 쓰라림을 보셨겠습니까.

이세영 그래서 재수하고 경희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때 생각하기로 27:1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세영 그래서 그때 우리하고서 거의 고등학교 무시험 진학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 당시에 경희고등학교 오십명이 붙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학교에서 그대로 올라가고.

이형진 전체 학생 중에 50명만 선출을, 선발했다.

이세영 보니까 그 경쟁률이 굉장히 셧었습니다.

이형진 그러면 경희고등학교 가서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세영 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당시에 노는 걸 좀 좋아하고 이리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70년인가, 그때가 3월인가 5월인가, 5월쯤 되네요.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참 집안도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이형진 선생님이 차남이셨어요?

이세영 예, 차남입니다. 형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을 갔다가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대학을 안 가려고 하고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나면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졸업하면 계룡산에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진 스님이 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세영 산에 들어가서 그때 보면 계룡산에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런 생각까지 했고 그 대학도 사실 대학 시험을 안 보

려고 그랬습니다.

이형진 고3 때까지 방황을 계속 하셨네요.

이세영 글썽요, 그런데 한동안 또 공부도 좀 할 땐 했죠. 하긴 했는데 나중에 입시를 갖다 보면서 대학도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이형진 예, 맞습니다.

이세영 예비고사가 있고, 예비고사 합격자가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차를 연세대학교 원서를 사다가 쓰질 않았고, 뭘 생각인지 모르겠어. 쓰러 갔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쓰지 않고 보고, 참 그때 시험은 본다고 했죠. 시험은 딴 사람한테 본다고 하고 그때 생각하면 1차 시험 날 하루 종일 영화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형진 그럼 또 재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세영 아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저쪽 청량리에 대왕 코너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영화관에 '권격'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이형진 무협 영화였습니까?

이세영 예, 그러니까 중국 쪽이 아니라 태국에.

이형진 격투기 영화 같은 거였네요.

이세영 그렇죠, 무슨,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2차도 그래서 성대(성균관) 원서를 쓰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솔직히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친구 때문에 원서를 썼습니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 예비고사 떨어진 친구였었는데 나한테 '너 시험 봐야 된다'고 말이야, 그 친구 누나 집을 놀러 갔다가 성대 쪽에 가자, 그래서 원서 사가서. 이과를 원

래 공부를 했었고 학교 시험 봐서 붙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공대에서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전자공학 쪽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그 과학 경쟁률이 센 데가 화학공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학공업 육성해가지고 한참 중화학공업에서 화학공학이 썼던 산업이 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제일 세더라구요.

이형진 그런데 또 겹도 없이 그거 쓰셨어요?

이세영 그래서 이왕 떨어질 거 경쟁률이 센 데 보고 떨어지자 해가지고 원서를 갖다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 뵙고 원서를 갖다 썼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학교서 제대로 말도 듣지 않고, 뭐 보면 고3 때 방학 동안에도 다 보충 수업하는데 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가져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써주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따지고 그런데, 근데 본고사를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형진 좀 신기한 일이 생겼네요.

이세영 그래서 떨어질 걸 생각하고 원서를 갖다 낸 건데 합격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없고 어머니가 생계를 갖다 꾸려나가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전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뭐 은행 융자 받고 해가지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라 하여튼 뭐 학교도 처음에 6개월 다니고 또 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이형진 대학에서도 방황을 계속 하셨어요?

이세영 하하, 예. 그래서 졸업을 80년 2월에 했으니까.

이형진 그러면 72년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80년까지 대학을 다니다가, 쉬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이세영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군대도 눈이 나빠서, 그 당시에 고도군사라, 고도군사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신체검사에서 고도군사로 보충역 편입돼가지고 방위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방위도 그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사포 방위입니다. 주특기가 일오공(150)이에요. 그 당시에 포병이에요. 그래서 삼일에 한 번씩 나가서 24시간씩 근무하고 보초도 쓰고 그러면서 생활했습니다.

이형진 서울 근교에서 군대 생활을 하신 거네요.

이세영 그렇죠. 생활했던 데가 지금 연안부두 수협 건물 옥상입니다. 거기에 고사포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이형진 그러면 집은 서울인데 또 인천으로 이렇게.

이세영 그 당시에 집이 인천이죠. 인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여기서 통학도 하고 뭐 서울 가서 자취도 하고 뭐 하숙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형진 혹시 80년 성균관대학교 다니실 무렵에는 학생 운동 같은 거는 혹시 관련이 좀 있었습니까?

이세영 학생운동은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좀 엉뚱한 걸 좋아하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무술, 지금 전통 무술 이쪽을 좋아해서 지금 운동 찾아다니고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단전호흡을 했습니다.

이형진 도를 닦으셨네요.

이세영 고등학교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에 올라가고 싶다 생

각을 했었고 국선도라고 있었습니다. 국선도 본부가 저쪽 종로 상가 단성사 있는데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계속 단전호흡하고 그렇게 지냈죠. 단전호흡하고 명상도 하고 자기최먼도 배워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그런 모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은 학생들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고 스님도 계셨고 하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진 어쨌건 72년도에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셔서 그 과정에서 군문제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80년까지 해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교직으로 가시게 되는데 학교 다니실 때 물론 교직과목을 이수하셨죠?

이세영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대 출신들은 교직과목 갖다 이수를 안 해도 교원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신청하면 나왔는데 그때는 보통 교직이수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 나왔습니다. 졸업하면서 그걸 신청하고, 근데 학교 올 생각은 뭐 꿈에도 안 했었는데.

이형진 어떻게 교직을 하게 되시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세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80년 2월 20일자로 선화여중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형진 아니 그러면 졸업하시자마자.

이세영 졸업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졸업은 25일에 졸업인데 2월 20일부터 선인재단 선화여중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형진 누구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세영 이상하게 연결이 돼서 학교 올 생각은 못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하면서 저쪽 한국화학에서 현장 실습을 했었거든요.

이형진 용현동. 인천에?

이세영 소래 쪽에. 거기로 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형진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79년 말에 한국 사회의 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26이 터졌고 그리고 80년 5월까지 과정이 긴장되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년 2월에 졸업하시고 그리고 선화여중 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세영 그렇죠. 정치적인 격변기 아납니까.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저는 뭐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다닌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도 못했고 참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하게 된 거죠.

이형진 그럼 80년 2월에 선화여중으로 중학교.

이세영 예, 선화여중에 들어가게.

이형진 과학 선생님이로 가신 겁니까?

이세영 예, 처음에 과학으로 임용을 합니다.

이형진 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선인재단에 있는 선화여중이었잖아요. 거기 뭐 분위기가 어쨌건 심상치 않았을 텐데 교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과정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세영 처음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출근하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냐하면 학교 가는 길로 얘기가 되고 재단에서 면접을 갖다 하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뽑은 인원을 갖다가 재단에서 면접하고 확정을 하는 거죠. 근데 면접하면서 저 다른 것도 물어봤지만 국민교육헌장을 외워보라는 거였습니다.

이형진 그러니까 백인엽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했던 겁니까?

이세영 아니요. 백인엽 씨가 이사장은 아니었죠. 당시 이사장이 누구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이사장이 직원들 그쪽의 책임자들 해가지고 그 면접을 갖다 진행했죠.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워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그것도 얘기를 해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화여중 근무하게 되면서 처음에 학교를 나가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선인학원 정문 잘 아시겠지만 그 정문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형진 좀 위압감이 있죠. 사자상 같은 게 있고.

이세영 상당히 넓고, 길이, 그런데 처음에 출근하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줄 맞춰서 제식 훈련하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이형진 운봉 이런 애들?

이세영 운봉, 운산, 향도, 남자, 남자애들. 그땐 교복이 사관생도 복장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식 훈련해서 올라가고, 전부 그러니까, 정문에서 각 학교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학교까지 올라오고 했었던데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어떤 사회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선화여중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게 뭐냐 하면 학생들 이게 보면 시험을 보면요. 처음에 과학이 아니라 처음에 수학을 했었습니다. 수학을 하다가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과학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 시험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한 90점 뭐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반 평균이. 근데 저는 수업하면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형진 90점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세영 그러니까 거의 보면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애들이 성적 나쁘고 그러면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때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여학생들을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화여중 있는 동안 근 15년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애들한테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등록금을 받게 되면 각 학교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받을 때 재단에서 파견이 됩니다. 직원이 파견해서 돈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 돈을 받는 기간이 3일이에요.

이형진 학교 한 곳에다가 애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돈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세영 학교에 파견 나온 거죠. 재단에서. 선화여중이니까 재단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내려와서 등록금을 3일 동안 받고, 근데 3일 동안에 등록금을 거의 다 걷습니다.

이형진 못 내면 학교 못 다니는 건가요?

이세영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전 도저히 3일 동안을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형진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을 그러니까 독촉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는 말씀인가요?

이세영 담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하면 미리 한 달 전부터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준비시킵니다.

이형진 돈 가져오라고요?

이세영 그렇죠. 그래서 미리 받기도 하고 그걸 미리 받아서 모아놓기도 하고 그러고서 그 직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갖다 놔. 그래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기억하기론 아마 담임 선생님이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납해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하나까 도저히 뭐 저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을 갖다 수업하면서 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등록금도 못 걷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직원회의 시간에 지적하고 문제를 갖다 계속하면 야단맞는 겁니다. 못했다고. 그런 상황이고 교사들이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업무를 수업계를 갖다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업계 전부 수업 시간 관리하고 1년 동안에, 그 해 1년 동안에 교사 이동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선화여중 교사 수가 한 40명 됐었습니다. 40명 됐었는데 한 해 동안 이 동한 교사 수가 45명이었어요.

이형진 아, 40명인데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들이 45명이었다는?

이세영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달 있다가, 왔다가, 몇 차례나 한 2, 3일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몇 달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45명이 교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이거 뭐 굉장한 거죠. 그런 상황이고 뭐 완전히 무슨 얘기도 있었냐 하면

선인학원을 갖다 교사 양성소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자리 있으면 다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데가 아니다 해 가지고 80년에 겨울방학 때 교장선생님한테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만두겠다, 도저히 여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사표를 제출하니까 이 양반이 교장선생님이 그럼 어디 갈 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갈 데 없다,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냥 그만 두겠다 그러니까 다시 사표를 갖다가 반려하면서 나중에 갈 때 생기면 얘기하라고, 하하.

이형진 그때 선생님이 28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이세영 그렇죠, 그때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게 됐고 참 보면 있으면서 첫 해는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했죠. 재단에서, 뭐 애들 때리지 못하니까 성적도 안 올라, 맨날 보면 여선생들이 성적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등록금도 맨날 꼴찌, 교무회의 시간에 야단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고.

이형진 그래도 꾸준히 버티셨습니다.

이세영 예,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또 있게 된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굉장히 좁, 학습 여건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이형진 80년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한 몇 년이 지나면서 거기 선생님 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세영 그렇죠, 처음에는 근무하면서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잔하고 그러면서 풀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

년대 중반 정도 돼 가지고 조금 학교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85년도인가 교사들이 방학도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쉬어야 3, 4일, 일주일 쉬고 학교에 근무를 합니다.

이형진 방학 때요? 근무를 해서 뭘 하시는 거죠?

이세영 근무해서 책상도 고치고, 이런 일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다 했으니까.

이형진 학교에서 불러내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이세영 예, 85년도에 학교에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과학실에 근무하면서 쉬는 시간 같은 데 앉아서 명상을 하고.

이형진 대학 때 하셨던 그걸 학교에서 좀 하시면서 마음을 달래셨네요.

이세영 또 같이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명상을 또 시작하게 되죠.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딴 거 보지 않고 일종의 나 자신 속에서 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85년도에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교총 회비를 갖다가 계속 내는데 교총 회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총을 갖다가 학교에서 업무과가 있었는데 내려가서 교총을 탈퇴를 합니다.

이형진 혼자 내려가서 교총 탈퇴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신건가요?

이세영 혼자 내려가서 교총 탈퇴를 했어요. 근데 그날 교장이 부르더라고요.

이형진 85년이었습니까?

이세영 85년쯤인 것 같아요. 왜 교총 탈퇴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총이 내가 보기에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탈퇴하지 마라, 교총 회비를 차라리 내줄 테니까, 탈퇴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장도 문책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득 당해가지고 그걸 철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85년도쯤에 여름방학 때 근무조를 갖다 편성하면서 불합리하다, 방학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학교 나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해서 그때 다른 선생님하고 둘이 교무실에서 주저앉아서 농성을 합니다.

이형진 그냥? 방학 때 불러내지 마라? 그냥 주저앉아서 농성을 하셨어요?

이세영 그렇죠, 교무실 바닥에 그냥 앉아서.

이형진 피켓도 준비하셨지 않아요?

이세영 예, 그렇게 해서 좀 그걸 얻어냅니다, 하하.

이형진 하하.

이세영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제가 특별히 어떤 사회 운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정도서부터 88년 6월 항쟁.

이형진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이세영 이걸 전후해서 학교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뀝니다.

이형진 선생님도 그 학교 계시면서 87년 그 바깥의 격동적인 상황을 이렇게 느끼신 거죠.

이세영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그때 젊은 선생님들이 임용하면서 공개 채용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이걸 추구하고 그리고 학계에서 그런 움직임이 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내 교사협의회 이런 게 움직임이 있었고.

이형진 그 무렵에 그러면 선생님은 신입 교사님, 교사 분들하고 같이 모임 같은 걸 하셨어요?

이세영 아닙니다.

이형진 그 정도는 아닌데?

이세영 그리고 이런 모임 있을 때 저한테 또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교사 중에서는 중견이었습니다.

이형진 벌써?

이세영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인데 완전 중견교사입니다.

이형진 5년 밖에 근무 안 했어요. 한 6, 7년밖에 안 했어요.

이세영 그 당시에 한 7, 8년 됐는데 그 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재정적으론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이 먹게 되면 호봉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호봉도 낮고. 그러면서 순환이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명상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으니까 명상하면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려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이형진 근데 또 갑자기 농성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학교 내에서는 영똥한 선생님이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세영 그러다가 그 당시에 보면 아마 88년서부터 선인재단 내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운산이라든가 향도라든가 저쪽 운봉공고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저희 선화여중도 교사협의회가 89년 2월에 만들어집니다.

이형진 교사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세영 예, 그래서 89년 2월 8일 날 선화여중 교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기 처음에 관여하지 않았습디다. 관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2월 초에, 젊은 친구들 몇이서 찾아왔어요. 퇴근한 다음에 제물포역 앞쪽 다방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구요.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나가서 만났더니 이렇게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 교사협의회를 만드는 걸로 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회장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그만뒀다.

이형진 학교를?

이세영 아니, 학교를 아니라 교사협의회 회장을 갖다 갑자기 못한다고 다 그래가지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뽑아왔던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형진 아, 회장으로?

이세영 그 친구를 하여튼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주임을 시키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임교사는 지금 부장교사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느냐 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예요, 교사 회장을 해달라고. 처음에 못 한다. 내가 무슨,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앞에 나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친구들이 계속 설득하고 뭐 하는 바람에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맡기로 한 겁니다.

이형진 그러면 89년 3월 계학하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선화여중 교사 협의회 대표가 되신 거네요.

이세영 89년이요. 2월 8일 선화여중 교사협회가 출범하는데 제가 그 선화여중 교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거죠.

이형진 학교에서 압박이 없었습니까?

이세영 그러니까요. 사실 학교에서 가만히 놔뒀다면 제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사 협의회 했더니 그 앞에 동부경찰서가 있었는데 동부경찰서 형사가 찾아오더라고.

이형진 맞습니다. 선인재단 송림 로타리에 있는데 그쪽에 동부경찰서 있었죠.

이세영 형사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이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 해, 형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형이 그때 치안 본부에 있었어요. 근데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동생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형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왜 다 큰 앤데 그거 무슨 소리냐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절대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전화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나한테 당신 밤에 길 다닐 때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라, 백인엽이고 백인엽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겁도 주고 상당히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

고, 그래,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겁을 주고 그러면 좀 뒤로 물러나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 효과가 났던 거죠. 학교에서 운동하고 이게 타킷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형진 선생님께서 89년에 한 37살 정도 되셨는데요. 그런데 들어오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후배들이, 후배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교사협의회 회장을 부탁을 하니깐 그걸 받으셨는데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개학 이후에 모임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세영 그렇죠. 활발하게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형진 동아리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세영 침을 갖다가 배우는, 수지침 같은 거.

이형진 그때 혹시 참교육 운동이나 자체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세영 그런 것도 그런 의제에 계속 있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교사협의회 활동을 다 하면서 사립학교 교수사협의회가, 인천 사립학교 교사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사회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선인재단이 되면서 같이 나갔던 사람은 원학운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원학운 선생님을 만나서.

이형진 89년에 만나신 거네요?

이세영 그렇죠. 교사협의회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각 학교 교사협의회가 6개인가 만들어집니다.

이형진 인천예요?

이세영 아니, 선인학원.

이형진 선인학원 내에서만 교사협의회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이세영 운봉, 운산공고, 향도, 저쪽 인화여고, 선인고, 선화여중 이런 식으로 6개 기억합니다. 6개를 중심으로 선인학원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학원 교사협의회 당시에 한 300여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750명 정도 교사 수가 이정도인데 한 반 정도가 참여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3월 18일날 선인학원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6개 학교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인학원 각 학교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이형진 그러면 재단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이세영 그렇죠, 그래서 재단을 상대로 하고 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인천 대학에도 여러 가지 학내분규가 일어나고 그거는 선인학원 백인엽 씨가 복귀하려는 움직임, 이런 거 하고 좀 연관이 돼야 하는데. 백인엽씨하고 관계를 보면 백인엽 씨가 80년에, 80년 초에 신군부, 전두환이 신군부 들어서면서 백인엽이가 공금 횡령 이런 걸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고 부인이 구속이 되니까 부인이 일본으로 아마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채권 이런 걸 가지고 도망가다 잡힙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채권 같은 거 최고 금액으로 해서 10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상당히 큰돈입니다. 구속되고 걸리니까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8억 원을 갖다 헌납합니다. 재단에 헌납하고 그리고 처음에 구속이 되고

하니까 선인학원을 군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형진 백인엽이 2선으로 물러났다는 말씀이시죠?

이세영 2선이 아니라 손 떼게 된 거죠. 구속돼가지고.

이형진 아예 포기를 했다는 거죠?

이세영 그러니까 모든 걸 헌납하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국가에 헌납한 서류가 정부의 어디에서도 없어집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서류가 사라져요. 그때 문교부죠. 그래서 관선이사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형진 인천대는 그래서 80년대 말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이세영 그렇죠. 그런 게 조금씩 바뀌죠. 그런데 86년이 되면서 다시 백인엽이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학교를 갖다가, 108억 원을 갖다 내놨는데 관선이사들이 쓰지도 않고 그냥 저거 해놨다, 그래서 학교를 갖다가 건설하고 학교를 갖다가 시설하는데 관선이사들이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교육부에서도 국가의 헌납을 갖다 받았으면서도, 문교부에서 국가에 헌납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그런 초·중·고등학교는 국립화시키고 대학은 시립화라든가, 국립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정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에 본인이 헌납한다고 내놨는데 국가에서 받지 않는 거야.

이형진 사실은 헌납은 그냥 쇼였던 거죠.

이세영 그렇죠. 결국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86년에 정부에서도 관선이사 나가고 정 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백인엽 씨가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인엽 씨가 뭘로 복귀하느냐면 학

교에 건설 본부가 만들어지고 건설 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학교에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시작이 돼요. 잔디구장에다가 인공폭포를 갖다 만들고 멀쩡한 거 그냥 파헤쳐 가지고 무슨 파라솔을 갖다 벤치 파라솔을, 벤치를 갖다 만든다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 돈 갖다 다 빼가는 거죠. 그리고 선인재단 한가운데다가 올라가는데 가운데다가 또 분수대를 만든다고 공사를 갖다 벌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건설 본부해서 복귀하면서 그런데 교육 시설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만 돈을 갖다 쓰지 그런 것 때문에 인천대에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분규가 일어나서 학생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결국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91년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하루는 학교에서 갑자기 각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각서가 학교에서 알게 된, 어떤 체득한, 어떤 비밀이나 이런 걸 누설하지 않겠다, 각서를 제출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반발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웅성 웅성, 거리고 모여서 저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선인학원은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사협의회가 89년에 3월 18일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89년에 어떤 일이 일어 나냐면 전교조가 89년 5월 28일인가 출범을 합니다. 전교조가 생기면서 교사협의회가 전교조를 가입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형진 선인 재단 내에서? 선인학원 교사 협의회가 전교조 가입을 두

고?

이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전교조 가입해야 바뀐다 또 일부는 우리가 순수한 교사협의회로 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서 선화여중 교사협의회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 출범식을 광주에 전남대에서 하게 되는데 전남대 대의원대회 때 원학운 선생님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광주에. 그래서 거기서 대의원대회하면서 백골단이 침투하고 결국 쫓겨나가게 되죠. 거기서 도망가고, 그 당시에 보면 도망 나와서 학교 앞에 나와 가지고 타이탄 트럭이 지나가서 세웠더니 태워주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저 이제 광주역으로 간다, 거기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목적지가 송정인가 그걸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반대야. 근데 거기까지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어. 거기서 걸린 사람들은 다들 잘렸죠.

이형진 원학운 선생님과 이세영 선생님은 그때 해직은 아니셨고? 아, 아니셨구나.

이세영 해직이 안 났습니다. 걸리지 않았어요.

이형진 전남대 침탈 당했을 때 학교를 빠져나와서 다행히 피신을 하셨군요.

이세영 예, 그런데 돌아와서 그러니까 선인재단 내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노조의 가입 여부를 두고, 출범하기 전에 가입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조직이 와해가 되는거죠. 하여튼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교사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사립학교 교사 협의회, 89년에 초에 사립학교 교사협의회하면서 선인학원 선생님들 같이 만나려고 하면, 항상 나가면 원학운 선생님하고 둘이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나와서.

이형진 동료 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이세영 있죠. 각 학교 대표자들 모임을 하는데.

이형진 근데 그 대표자들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세영 그렇죠. 그래서 원학운하고 둘이서만 만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재물포 역 앞에 올리브라는 카페 같아,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기다리면 거의 둘이서만 앉아있는데 그런 식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여기에 일이 생기겠다, 그 당시에 이게 저쪽 인천 대학에서는 교수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인천대 교수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그쪽 교수협회와 재단 교사협회하고 같이 연대가 모색되게 됩니다.

이형진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인학원 그러니까 백인엽을 둘러싼 정상화 투쟁을 준비하는 건가요?

이세영 예, 91년 7월 5일에 범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범선인학원 정상화라는 정서가 이제.

이형진 범선추라는 것이.

이세영 예, 범선추입니다.

이형진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과 교수분들 말고 시민사회도 이때 같이.

이세영 아, 그건 또 다음 단계. 그래서 범선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범선추가 그때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표를 갖다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학에 두 분 장학식 교수라는 분하고 장석우 교수 세 명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장학식 교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세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아가고 91년 7월 5일날 범선추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구성할 때 전체 교사가 3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형진 다시 복구가 되네요.

이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들 문제가 상정되니까, 각서 쓰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각 학교에서 백인엽 씨 집으로 인사들 가고 거기서 지시를 받고 학교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형진 선생님 그 뒷부분,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 들어가기 전에 87년 상황이 말입니다. 인천에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지나고 인천의 또 노동자 투쟁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사 운동은 조금 늦었죠.

이세영 그렇죠.

이형진 근데 그런 분위기를 보셨을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80년대 그 중반까지는 상당히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잖아요.

이세영 그렇죠.

이형진 근데 이런 조직 활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결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결심이나 이런 게.

이세영 마음의 결심보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압을 갖다 받

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이 뭐라고 할까. 사람이 조금 멍청해서 그렇다고 할까. 오히려 겁을 먹고 뒤로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형진 한 번 해보자?

이세영 강해지니 한 번 해보자, 그래 뭐 이런 저거 하면서 이쪽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 그렇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죠.

이세영 아이고 이거 참.

(1부 끝)

이세영 그럼 선인학원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걸 갖다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형진 그러시죠.

이세영 선인학원이, 저쪽 도화동에 처음에 성광학원이라는 게 만들어 집니다.

이형진 60년대.

이세영 60년대 처음에 했수가, 백인엽 씨가 시작하셨으니까, 그 성광학원이 만들어지는데 운영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광학원을 가지고 백인엽이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광학원을 인수해 가지고 하나하나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부모는 그 학교가 진흥 유치원, 효열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선화여중, 인화여중, 선인중 3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선인고등학교, 인화여고, 그 다음에 선화여상, 운산,

운봉, 향도, 그리고 체대, 인천체대, 거기에다 전문대, 그 다음에 인천대 그다음에 인천대 대학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교사 수도 그렇고, 학생 수가 아마 1만 3천, 1만 6천 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립학교 학생 수에서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43% 정도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인학원이 많이 차지해요. 이제 확장하면서 상당히 지역에서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하나 학교 조금씩 넓히면서 땅을 사잖아요. 땅을 갖다 사면 도로 이런 거 그냥 다 먹습니다.

이형진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세영 예, 주민들 쫓겨나고. 그리고 땅을 갖다 안 팔면 옛날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땅을 다 안파니까 집하나 있으면 거기에 다 쪽 흙으로 담 싸놓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 그 옛날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가 오면 장마 질 때 전부 물이 고이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갖다 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쫓아낸 거예요. 전부 주민들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 선인학원 옹벽 때문에 옹벽 무너져 가지고 그때 사람도 죽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확장돼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무리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군사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형진 그렇죠.

이세영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간섭을 못 했어요. 학교 여기서 뭐 보면 여긴 처음에 졸업장 그냥 팔아먹고 그랬어요. 돈 갖다가 받고 학교 안 나와도 졸업장이 막 나가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재단 관계자들이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닌답니다.

이형진 1만 명이 넘는 학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세영 그리고 공고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는 돈을 갖다 받는 게, 돈을 갖다 자루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전두환이 정권 들어서면서 구속된 게 횡령 금액이 63억 원인가 그런 식으로 내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선술, 저걸 무술을 하고 또 옛날에 보면 이 불무도에도 관심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 골굴사 갖다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 니다.

이형진 경주에 있는 골굴사?

이세영 근데 거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한 건 제가 사십 대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전교조 활동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몸을 갖다 좀 학대를 했죠. 그래서 저 운 동을 시작한 게 이 24만 무예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4만 무예를 갖다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임동규 선생님이라고, 임동규 선생님 무기(징역) 받으신 분입니다. 남민전 사건으로 쌍 무기, 감옥에서 이걸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한 건데 그래서 제가 95년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93년인가 하여튼 40대에 이걸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쪽 일종에 미쳤죠. 그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끝나고 집에 들어 가서도 한 12시 돼서도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칼을 갖다 휘두르고 혼자 그러면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 일찍 한 7시쯤 출근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서 혼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로 한 이십 년 정도 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

이형진 자 선생님 91년에 범선추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쟁 과정에서 해직도 되시잖아요.

이세영 예.

이형진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세영 범선추가 출범하고 인천대하고 연계하면서 그 당시에 선인학 원 문제에 대한 그 백서를 갖다 만듭니다. 백서를 갖다 만들어 서 이걸 갖다 발표하는데 거기에 교장들 문제 이런 것도 내용 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장 세 사람이 검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그때 구약식기소를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 고 벌금 30만원 때립니다. 각자 세 사람 다. 그런데 벌금 30만 원씩 때리는데 아마 그 당시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재단에 서 일종의 징계를 하려고, 징계하고 직위해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랬겠죠.

이세영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그 세 사람이 그걸 갖다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해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서 1심에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1심의 재판관이 누구냐 하면 주심이 추미애예요. 젊었을 때죠, 그 양반. 근데 이거 갖다가 무죄를 갖다 때립니다. 이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 누구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를 갖다 때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항소를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일부 승소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0만 원 벌금 돈 줍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파면을 갖다 92년 2월 1일날 파면됩니다.

이형진 그러면 그 10만 원 벌금형이 포함되어서 파면이 되는 건가요?

이세영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 전이죠. 그런데 이때는 재단에서 파면 갖다 시키는데 파면 갖다 그 대학에서는 장석우 교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저하고 장재선 선생이라고 총무를 맡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파면됩니다. 근데 세 명이 파면 되는데 장재선 선생 같은 경우엔 파면당할 게 아닌데 그냥 파면 당했습니다. 그 양반은 아무런 저기 없었거든요. 명색만 총무였지. 하여튼 그래서 파면을 당하고 교육부에 재심 신청을 합니다.

이형진 그러면은 장석우 교수님 그리고 장재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세영 선생님 세 분이 파면되고 해직 교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세영 그렇죠.

이형진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전교조 가입과 교육 운동을 둘러싼 투쟁하고 약간 그 류가 다른 거네요.

이세영 그렇죠, 전교조하고는 다르고 그건 재단 문제로 해서 풀린다는 겁니다. 선인학원의 싸움에서 선화여중에서 그 판이 나오니까 파면 당하면서 학교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휴게실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이형진 농성은 그냥 자리를 깔고 이렇게?

이세영 그렇죠. 철야농성을 갖다 합니다.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이형진 여름이셨습니까?

이세영 그때가 2월 1일로 파면했으니까 여름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그 농성을 시작하고 거기서 휴게실에 있다가 그때 학생부, 학생과 내려와서 거기서 하고 학생과에서 그랬더니 하나씩 그 학생과장도 그렇고 학교에서 제발 좀 여기말고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과학실로 나중에 또 옮겨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이형진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세영 학생들이요? 선화여중 근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뭐 동조라든가 이런 건 거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형진 그렇죠. 중학생들인데.

이세영 또 모르고 그러죠. 그때 또 대학은 장석우 교수님이 파면되면서 대학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철야농성을. 그래서 대학에서 45일간 철야농성을 합니다. 거기 교사협의회 분들이 같이 가서 농성을 합니다.

이형진 인천대 학생회관 그쪽에서 하셨나요?

이세영 그렇죠. 옛날 본관이죠. 농성을 시작하고 같이 농성을 하고 참

농성을 하면서도 제가 그때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두 분이 여기 인천대 교수로 있었어요. 한 분은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그게 박 00 선생님이라고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그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조 00 선생이라고.

이형진 인천대학교 교수로?

이세영 예, 인천대 교수로. 그런데 박 00 선생님은 반백이고 조 00 선생님은 친백인 거예요.

이형진 백인엽과 관계가 달랐던 거군요.

이세영 그래서 박 00 선생님은 같이 농성을 하고 거기서. 그때 그 양반이 대학원장을 갖다 했었는데 여하튼 그러기까지 좀 했었고 그러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같은 선생님인데 서로 반대 입장이었으니까.

이형진 학생들 호응은 어땠습니까?

이세영 인천 대학생들은 같이 지지했죠. 그래서 그쪽 버텼던 게 인천대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버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텼습니다. 그가 그쪽 저 하나까 그 총장실 들어가서 집기도 다 드러내고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교협 갖다 농성하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못했죠. 결국 인천대 학생들이 농성하면서 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싸움도 나중에 승리로 있게 된 거죠.

이형진 시민사회 쪽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세영 그렇죠. 시민사회 쪽은.

이형진 최원식 교수님의 딸이 선생님 반이셨다고요?

이세영 그때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 집니다.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 모임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기서 같이 했던 분들 지인 모임에 이진 목사, 그 다음에 뭐야, 지금 교통공사 사장, 갑자기 깜빡깜빡해서. 그때 그 친구가 간사를 맡았고 이진 목사가 집행위원장 맡았고. 정희운 집행위원장. 그때는 뭐 김병상 신부님이라든가 김승묵 변호사라든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준비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지고 최원식 교수님을 준비위원장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되니까 하루는 정희운, 이진 목사님 그 다음에 나, 조용명 선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최원식 교수님을 갖다 만나 배요,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만나 뵙고 하나까. 최원식 교수 큰 딸 내가 1학년 때 담임을 했어요. 1학년 담임하고 그때 파면 당하게 생겼던 게 3학년 때니까, 최원식 교수 처음에 못 맡는다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못 맡는다, 그런데 찾아와서 지금 당장 딸 담임 했던 사람이 지금 잘리게, 파면 나게 생겼다, 하하,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최원식 교수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맡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맡았다,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 이걸 갖다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사유를 갖다 적는데 그런 내용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게 싸움에 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식 교수님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이러면서 전체 시민들 서명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싸움이 승리하게 되

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선인학원 싸움이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그리고 아까 80년도에 백인엽 씨가 국가에 헌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에 헌납한 것을 갖다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헌납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헌납했지. 그게 정식으로 헌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록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 부처 어디에도 그 서류가 없는 거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인천대학교가 학내분규 심해지고 학생들이 구속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인천대학의 종합감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종합감사해가지고 이걸 무마시키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김승묵 변호사님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찾아냅니다. 어떤 서류냐면 백인엽 씨가 관선이사 재단한테 관선이사 이사장한테 108억을 갖다가, 108억을 저희가 돈을 갖다 이 학교를 갖다가 바꾸라고 내놨는데 그걸 갖다 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다 내놔라, 이자 액수가 얼마나 하면 78억을 갖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이형진 백인엽 씨가요?

이세영 예, 근데 소송을 갖다 제기하는 게 그것도 회한한 건 뭐냐 하면 관선이사회에서 같이 합의를 합니다. 화의라고 하더라고요. 화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 죽었으니까 재판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 54억인가가 백인엽 씨한테 넘어갔더라구요, 이자가. 근데 이 지사가 보니까 법정 최고 이자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보니까 뭐 28프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형진 그럼 실제로 이미 백인엽 씨는 자기 재산을 헌납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그 반환 받은 셈이네요.

이세영 반환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자를 그걸 빼겁니다. 이자 명목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김승묵 변호사님이 서류 갖다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화의 절차를 하면서 서류 중에 이사회 의결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국가에 헌납한다는 거 이사들이 전부 도장 찍었던 그 서류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문교부에서 사라졌다 소리가 법원에서 그러면서 이게 뒤집힌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발표하고 이러면서 감사도 무마시키려고 나왔다가 그 증거 자료가 나오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저쪽 정 이사 체제 나왔다가 다시 관선이사가 파견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파면 당했다가 관선이사 체제 들어오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교육부에.

이형진 재심 사유가 됐네요.

이세영 예, 다시 재심 요청하고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재심 신청하고 소를 갖다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재심위원회에서 이거는 지금 징계를 하는 게 징계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심의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심의하는데 그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러니까 다시 관선이사가 다시 심의하면서 여기서 파면 취소가 결정됩니다.

이형진 그제 90, 그러면.

이세영 그제 92년 9월 1일 날, 그래서 9월 1일자로 선화여중에 복직을 합니다.

이형진 선화여중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이세영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화여중에서는 상당히 결집을 갖다 했었고 이게 보면 처음에 이 서류와 파면에서 이사회가 열리는 날 선화여중 교사협의회 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그 회의장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X표를 갖다 쓴 마스크를 쓰고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화여중 한 30명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 대표들 몇 사람이 와서 그때 원학운 선생이라든가 한 서너 명, 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저걸 참여해서 합니다. 선화여중 그때 하여튼 제가 하면서도 했던 게 선화여중 결집이 잘 됐어요, 선생 사이에. 그러니까 농성장이고 쫓아와서 저것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파면될 때 또 선생님들이 저기 하면 봉급도 못 받으니까 좀 그 교사에 선생님들이 각출해가지고 생활비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형진 해직 기간은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었나요?

이세영 7개월?

이형진 별로 안 길었네요.

이세영 예, 길지 않았습시다. 그때 만약에 그 서류가 발견되지 않고 했으면 그때 영원히 파면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서류가 나오

고 반전되면서 이러한 기간이 짧아지게 된 겁니다.

이형진 복귀하시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전교조 활동을 이제?

이세영 그다음에 전교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전교조 활동하면서 인천지부 전국대의원도 하고 중앙위원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형진 근데 선화여중은 그 공립화되면서 선생님은 더 이상 선화여중에 계신 건 아니었어요?

이세영 그렇죠, 이게 공립화되면서 94년 3월 1일자인가 선화여중에 국립으로 선인재단 초·중·고등학교가 국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학은 시립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95년 3월 달에 저기 인천 기계공고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죠.

이형진 선화여중에 한 25년 정도 그래도.

이세영 15년 정도 있었죠.

이형진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신 거예요?

이세영 그렇죠. 그때 전공 찾아간 거죠.

이형진 공업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인천기계공고.

이세영 하여튼 그때도 인천기계공고 생활은 괜찮았어요. 그때도 저는 전교조 활동은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그쪽은 전혀 조합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쪽에서 하여튼 뭐 과에서는 잘 지냈고. 그래서 그때도 옮기고 나가지고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4반 무에 감독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애들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은 학교 생활하시면서 체벌 같은 건 전혀 안 하셨겠네요?

이세영 체벌이요? 근데 기계공고 있을 때는 애들 좀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딱 정해놓고 때렸지 그냥 막 때리진 않았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공고니까 애들이 학교 안 나오는 일도 있었고 뭐 지각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도망가거나 이런 애들, 그런 건 때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 학교 안 나오면 몇 대, 다음은 몇 대, 그다음에 학교 도망가면 몇 대, 지각하면 몇 대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때 실험실에서 공고니까, 실험실에서 때렸어요. 그 애들이 매를 갖다 만들고 그랬어요. 절대 이거 하면서, 손대는 것도 때리면 매로, 공동이만 때렸지 뭐 머리카락 이런 거 때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거 이외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학공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형진 여중생들 하다가 고등학교 다 큰 애들 할 때는 느낌이 참 많이 달랐겠습시다.

이세영 그렇죠.

이형진 인천기계공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어요?

이세영 인천기계공고에서 부평, 여자공업고등학교로 또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평 여자공고에서도 거기서 애들 하나도 안 때렸습니다.

이형진 거기서도 또 화학을 가르치셨어요?

이세영 그때 거기는 환경공업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화공과 출신들이었으니까.

이형진 몇 년도였습니까?

이세영 그게 97년도에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인천기

계공고에서 다 채우지 않고 부평 디자인, 부평 여자공업고등학교로 전출하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5년 있다가 저쪽 청학공고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또 부평,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부평 디자인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부평 여자공업고등학교가 거기로 옮기고. 2011년 말에 2월에 명예퇴직을 한 거죠.

이형진 정년을 안 채우시고 이렇게 퇴직하시게 된 건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세영 정년 안 채운 건 제가 전교조 활동도 계속 했는데 전교조 활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대의원, 그 다음에 중앙위원도 하다가 2001년에, 2001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을 합니다. 그때 하면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였는데.

이형진 지부장님이 누구셨죠? 지부장님이 그때 누구셨죠.

이세영 지부장이 이청년 선생님. 그러니까 초등 지부장을 하면 중등이 수석부지부장 했고 중등이 지부장을 하면 초등이 수석부지부장입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수석부지부장을 하고 계속 전교조 활동을 했었죠. 그때는 뭐 저는 상근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활동하다가 지역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지역 활동하면서 제가 집이 계양구니까 그때 계양구에서 2000년에 계양산 화약고 문제가 터집니다. 계양산 화약고를 갖다 다남동에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시진 구청장 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하루

는 양재덕 본부장님이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 그때 그쪽에서 오리농장 뭐 이런 거.

이형진 IMF 이후로 자활 사업을 하실 때였습니다.

이세영 그래서 나갔더니 그 모임을 갖다 하는 거예요. 화약고 대책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고 구민 집행위원장을 그냥 엉뚱하게 그러면서 지역 문제에 결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가 다남동에 움직였던 사람이 이한구, 이한구하고 살았고 그래서 같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한구를 갖다 처음 만납니다.

이형진 시의원이었나요, 그때?

이세영 아니죠. 그냥 지역 활동, 동네 활동,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하여튼 거기 주민들하고 구청에도 쳐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같이. 그러다가 2001년에 계양구에 계양 의제가 만들어집니다. 계양 의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구청장인 이익진 구청장이 계양 의제를 갖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선 그 기초 의제는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나 이한구 같은 경우엔 이 의제를 갖다 만드는 게 순수한 게 아니라 이익진 구청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준비위원장 맡은 분이 계산동성당에 이준희 신부님이라는 분이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한구하고 저하고 신부님을 찾아뵙습니다. 신부님 말지 말라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양구에 러브호텔이 막 생깁니다. 택지 들어서면서 택지 부근에. 그래서 이익진 구청장이 막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거기에 두산 쌍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갖다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분얼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쪽 러브호텔 반대 대책위를 갖다 만듭니다. 러브호텔 반대 대책위 상임대표를 갖다 맡습니다. 국민 대책위 뭐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면서 이준희 신부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당신들이 들어와야지, 당신들이 들어와서 바꾸라 이거야, 그니까 신부님 그만두시라고 했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분과가 여러 의제 4개가 있는데 저는 도시 분과에 들어가게 되고 이한구는 계양산 분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분과위원이, 한 도시 분과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엔 대부분 관변단체들입니다. 무슨 뭐 여성단체, 협의회, 새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뭐였어, 계산여고 교장도 있었고 그래서 구성되고서 분과위원장을 뽑는 회의가 열립니다. 분과위원장을 뽑는 회의가 열리는데 분과위원장 선출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를 갖다 도시정비과장이 구청 도시정비과장이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과 위원장 뽑는데 추천을 하니까 추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계산여중 교장 추천됐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있고 뭐 바르게 살기 추천됐고 근데 그 추천하는데 그 도시정비과장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추천해도 되느냐, 한 사람, 그러니까 다들 과장이 그러니까 추천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반이 나를 갖다 추천하는 거예요. 난 그 양반도 알지도 못해. 자기가 볼 때는 적합한 사람 같다 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몰아봤어요. 왜 나를 갖다 추천했느냐 했더니 내가 그 계양산 화약고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 쳐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걸 자기가 보고했다 이거야. 그래서 일할 사람, 오히려 일할 사람으로 과장이 추천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선출이 됩니다. 표가 과반수가 넘게 나왔어.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두세 명 뿐이 안 됐는데, 그래서 도시 분과위원장으로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사를 갖다 또 뽑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분과, 위원장, 간사, 4개 분과, 그 다음에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이래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운영위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근데 위원에서 운영위원장 선출하는데 제가 또 선출이 돼요.

이형진 그게 계양 의제 만들 때?

이세영 계양 의제 만들어질 때.

이세영 근데 어떤 조건을 봐도 제가 그 운영위원장 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에서도 이상하게 또 제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계양 의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석부지부장이었었거든요. 전교조 여기가 계양 의제가 투쟁단체냐, 어디 전교조 수석부지부장이 와서 여기 운영위원장을 하나, 완전히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장이 선출되고 나가지고 한 1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계양 의제 그렇고 그게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한 일 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제가 뭐냐 하면, 하는데 거기서 의제는 의제 일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다른 건 얘기하

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재미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의제가 시민, 기업, 행정이 같이 하는 거니까 무슨 행사 있거나 하면 같이 움직여서 기업하는 사람들 같이 가고 나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 같이 차타고 가는데 전교조 욱을 갖다 막 합니다. 전교조 어떻게 그러면 아는 사람은 지금 위원장이 전교조야, 입을 짝 닫는 거예요. 그러면 전 그때 아이, 욱해라, 해도 좋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욱해라,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익진 구청장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같이 그 공동대표라고 그랬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 나중에 그 양반하고 확 가까워져가지고 하여튼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그 양반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어요. 후원도 해주고 한기모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나중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천 의제에 관여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형진 교직원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사실 일이 많아지셨네요.

이세영 그렇죠. 그러면서 전교조 또 수석부지부장 임기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인천 참여자 치연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인규가 나를 갖다 끌어들이는, 그때 박인규 사무처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의정 감시도 좀 시키더라고요.

이형진 의정 감시 활동.

이세영 그래서 그 활동하다가 좀 지나니까 또 운영위원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전에서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합니다. 운영위원장하고 또 좀 이따가 같이 공동 대표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참여자치 연대가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로 바뀌게 될 때까지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계양 의제도 처음에 운영위원장 하고 운영위원장 하면서 한 6년 정도를 제가 합니다. 한 6년 정도 그만 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양 의제가 이 구청장이 그걸 폐지하려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비대위원장을 갖고 그리고 전국 의제가 대책위원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집행위원장을 맡고 이러면서 뭐 그때 환경부라든가 이쪽 하고도 그렇고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의제를 다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2009년인가 2016년인가부터 또 계양 의제 상임회장을 맡습니다. 계양 의제 상임회장을 맡고 여기 또 인천에 기초의제협의회 회장을 갖다 같이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밖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에서 무슨 비대위 대책이 만들어지면 공무원 대책위도 그렇고 일이 있을 때마다 집행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시간이 없는, 결국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뭐 회의하다 보면 또 의제 같은 경우는 전국 회의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이거는 가게 되면 며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봐줘가지고 수업 갖다 다 미리 바꿉니다. 할 거 수업 다 해놓고, 거기서 출장 내가지고 근데 출장은 무급 출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학교에 있으면서 도저히 뭐 활동이 곤란하게 해서 나가자고 해서 2011년 2월 달, 2월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형진 31년 학교에 계셨던 거예요. 한 중간에 한 7개월 정도 파면 해직 기간이 있었어요.

이세영 근데 이거는 결국 파면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형진 공백은 없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교조 활동과 함께 사회운동 특히 의회 의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됐나 봐요.

이세영 그렇죠, 이래서 좀.

이형진 계양구에 오래 사셔서 그런 게 좀 생겼나요?

이세영 그런데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 운동하게 된 것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같이 내가 처음부터 뜻이 같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그게 깨지게 생겼으니까 저를 갖다 끼우는 거거든. 그리고 계양 의제 같은 경우도 거기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인천 참여 단체에 활동한 것도 그렇고 다른 거 보면 그냥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건 없어요. 이상하게 여건이 그렇게 맞춰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될 뿐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운명적인 삶이라 생각하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 활동을 갖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

금 현재가 있는 거고 지금 하는 거지 그 과거가 근데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갖다 봤을지도 몰라.

이형진 그렇죠.

이세영 근데 금전적으로는 사실 교사 되기 전에 이 주식 투자라고 그랬거든. 그런 것도. 근데 이거 교육 운동 시작하면서 전부 끊었습니다. 손을 안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오락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즐기는 것도 있었는데 교육 운동하고 하면서 그런 건 하는 거 다 안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생활도 건전하게 된 거지, 하하.

이형진 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세영 저희 결혼은 80년 했습니다.

이형진 그러면은 선화여중 생활 시작하고 1년 만에?

이세영 그렇죠. 1년 11월에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참 조금 재미있는 게 학생이 전에 저 학생이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말하자면 결혼하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집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발 자기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편지를 갖다 써 보냈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전부 빨간 거를 해가지고 와서 편지를 갖다 보냈더라고.

이형진 그 여중생이? 하하.

이세영 그런데 참 결혼한 것도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운명 얘기했는데 집사람도 인천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형진 결혼하고 이제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이세영 예, 대구에서 미군 부대 왜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도 한 몇 년은 떨어져서 왔다 갔다 주말 부부였습니다. 85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거기도 만난 게 참 희한해요. 중매로 만났는데.

이형진 당시에는 중매 결혼이 좀 있었으니까.

이세영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전 중매도 선, 처음 보는 거 한 번 보고서 결혼한 거예요.

이형진 근데 이후에 정규직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부인께서요.

이세영 그런데 뭐 사실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가정보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회의하다 보면 거의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들어올 데가 없었으니까. 거의 뭐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태어난 애들 학교 다닐 때 애들 돌보지 않는다고 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애들은 나보다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조합원들이 애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형진 학교 선생님들 조합원들이 챙겨주셨네요. 제자들은 좀 어땠습니까? 공고 다니면서 이렇게 큰 애들은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관계들을 좀 유지를 하나요?

이세영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에 애들이 찾아오고 그랬었죠. 찾아오고 그러다가 뭐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더라고요. 찾아오기도 힘들고, 애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92년도가 선화여중 저기에서 복직하고 그때 담임을 갖다 3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93년도가 그래서 졸업할 때 감사패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선물보다 패를,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았는데 애들이 졸업할 때 패를 만들어서 주더라구요.

이형진 학교는 80년부터 해서 약 한 30년 정도 쪽 하셨고 그 이후에 퇴직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이렇게 통일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세영 제가 하여튼 그동안에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자활 이쪽도 계양 자활 같은 운영위원 오래 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쪽 활동도 했었고 그 외에 뭐 하여튼 참여 여러 가지를 갖다 해봤던 것 같아요. 골고루 그냥 다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남북평화재단, 처음에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다가 2014년인가 그때서부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공동대표를 갖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쪽에 같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위원장하고 공동대표를 갖다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맡으면서 아직까지도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무, 그니까 총무, 재무,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 그게 이 회비 가지고 인건비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적자 보다가 계속 적자 보다가 그때 사무국장을 갖다가 광경전이가 맡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만두면서 내가 운영위원장 할테니까 하면서 그냥 실무 다 처리하고 하니까 인건비 안 나가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이형진 남북 평화재단은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남북평화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세영 지금이요?

이형진 예.

이세영 그 남북 평화재단이 주로 처음에 나무 심기, 북한에. 북한에 나무 심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저쪽 평양 근교에 배나무 농장을 갖다 조성합니다.

이형진 가보셨어요?

이세영 전 못 갔습니다. 근데 저쪽 배나무 농장 주소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북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게 2008년 정도 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게 차단됐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그게 지금 우리 저희가 상임대표 맡고 있는 김의정 목사님이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농공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옷 같은 거 또는 그래서 태양광 랜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속 이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또 나무 심는 게 남포 그쪽에 학교 관련해서 학교 숲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 학교에 숲 조성하는 이런 걸 갖다가 좀 합의해서 진행했구요. 그 다음에 위쪽 지역에 훈춘 그 맞은편에 그쪽에 나진선봉 지역, 이쪽에 사과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갖다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9년에 그쪽에다가 북쪽에 사과나무 심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해서 묘목을 심는 작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8, 19년 이렇게 해서 두 해는 좀 갔다 왔는데 북한에 직접 가지 못하고 중국 연변으로 가서 훈춘에서 북으로 나무를 갖다 보내는 이런 작업을 갖다 2년 동안 했

었습니다.

이형진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혔고?

이세영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블라디보스톡 통해서 북쪽  
에 밀가루 좀 제공하면서

이형진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세영 건강은 좋습니다. 건강이 좋으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들어서 활동을 못하는 게 대부분 건강  
이 안 좋아서 못하거든요. 건강이 따르지 않으니까 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형진 평소에 무예를 계속 연마 하시고요? 하하.

이세영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진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후배들과 이렇게 사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더욱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은 이 정도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열



- 1959년 인천 북성동 출생
- 1979년 서강대학교 입학
- 1987년 한광대 대표
-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중앙집행위의장

일 시 2022.9.1.

장 소 충남 옥천 청산면 자택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정성열

이형진 2022년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여기 청산리 오게 됐습니다. 우리 정성열 선생님하고 7, 80년대에 걸친 인천 지역의 문화운동,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성열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여기 풍광이 참 괜찮습니다.

정성열 제가 늘그막에 복이 많은가 봅니다.

이형진 살게 되신 건 언제부터셨나요?

정성열 옥천에 온 것은 만 3년 돼 가구요. 이 집에 산 것은 2년 정도입니다.

이형진 인천 떠나신 후에 여기저기 도를 많이 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성열 길에 좀 많이 있었죠.

이형진 우리 정성열 선생님은 1959년 인천에서 북성동에서.

정성열 예, 맞습니다.

이형진 그래서 줄곧 인천을 떠나지 않고 초중고 그리고 79년에 서강 대학교에 입학하시고 문화운동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옛날 얘긴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인천 정경이랄까 인천 북성동 일대에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성열 프로이트가 얘기했나요. 나이 먹어가면서 가까이 지나간 일들은 점점 망각세계로 접어드는데 과거의 일은 새록새록 기억난다는 얘기를 책에서 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 이렇게 새록새록 생생하게 나는 거는 제가 갇잡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제일 서쪽이죠. 북성동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선친께서는 그 우리 저

한국동란 때 북에서 넘어오셨고 어머니도 북에서 넘어오셨죠. 그 선친은 평안북도, 모친은 황해도 두 분이 따로따로 넘어오셔서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인천에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형진 1·4 후퇴 무렵에?

정성열 예, 어머니는 1·4 후퇴 때고 선친은 조금 그 전에 오셨던 듯 싶어요. 해방 후에 동란하고 좀 무관하게 월남하셨죠. 그때야 뭐 통행이 자유스러웠을 테니까 그러다가 전세 후에 못 가신 거죠.

이형진 혹시 선친으로부터 그 평안도에 사실 때 가게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정성열 가게요. 글썄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거는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구한말 때 그때 뭐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마 할복자살을 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함자는 후자 답자를 쓰셨던 분이었고요, 아까 평안북도라 했는데 선친께서 좀 일찍 가셨어요. 55세에 가시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좀 몸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늘 고향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고향이 청천강 유역에 정주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정주 그러면 잘 모르죠. 근데 영변 얘기하면 다 알더라고요. 거기 영변 하면 떠오르는 게 묘향산이죠.

선친께서 죽기 전에 묘향산을 보고 싶더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영변에서 바로 옆이 정주거든요. 영변보다는 행정구역상 정주가 더 훨씬 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묘향산 인근이었기 때문에 이 산수야 뭐 빼어났었겠죠. 뭐 사명대

사가 얘기했나요. 금강은 화려하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는 웅장하되 화려하지 못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묘향이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묘향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 아닌가, 선친 말씀만 들어도 상상이 되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지 싶어요. 그 모친은 황해도 웅진에서 오셨어요. 1·4 후퇴 때 오셨는데 그때 가족들이 함께 다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배를 타고 오다가 일부는 연평도에 내리시고 또 일부는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외가 식구들이 연평도에서 자주 오셨어요. 왕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왼쪽 서북방의 끝에 있는 섬이 백령도인데요. 저 백령도를 몇 번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보면 북한 땅이 아주 코앞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가 옹기포가 아니라 무슨 반도인데 아무튼 거기가 옹진이라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월남하셨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갈망이 남다르셨겠죠. 뭐 다 이산가족들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끝내 두 분 다 통일의 영광을 맞이하지 못하고 가셨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이산가족 상봉 시리즈가 진행될 때에 저희 선친이 사(4)형제였었어요. 아들만 넷이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형제님들이 5년 터울이었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그 덩치가 좀 컸었답니다, 형제들이 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는 사형제 떴다 그러면 대단한 이렇게 힘 자랑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제 중에 저희 선친이 셋째였고 둘째 분이 나중에 월남을 하셔가지고 전 후에 만나게 돼요. 그분은 저희 큰아버지죠. 그분은 인천 만석동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그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목선, 고

깃배 그거를 만드시다가 96세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그런데 제일 맏이와 막내는 못 내려 왔어요. 그래서 사형제 중에 첫째와 넷째는 북에 있고 둘째 셋째는 남쪽에 있게 되고 저희도 이 산가족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준다했는데 저희 백부님이 그래도 고령자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되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형진 북성동 일대, 예전,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정성열 태어난 곳은 인천역, 그러니까 하인천이라고 해서.

이형진 현재 인천역까지.

정성열 지금은 뭐 매립되거나 고깃배나. 모든 항만시설이 하인천 뒤편에 아주 바로 접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나 부두하역 노동자들이, 항만 일대에 술집이나 유흥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당히 번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인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차이나타운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1년 이내에 그 근방으로 이사를 했죠. 근데 뭐 거기서 멀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지금 요즘에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살던 집은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북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든 꽤 컸던 교회였는데 아마 성결교회였죠. 교회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인천 앞바다 월미도나 도크나 또는 기차역 지금과 같은 전철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 기차 경적음도 자주 들

고 하여튼 전망이 상당히 좋았어요.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지금 제가 사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산하를 봤지만 거기서는 아름다운 바다에 관련된 풍광을 보고 자랐지 않았나, 참 보기 좋았어요.

이형진 아버님께서 월남하셔가지고 어머니와 만난 시점도 전후였겠네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59년에 선생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정성열 두 분이 만난 게 5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사진 보니까.

이형진 많은 일을 하셨겠네요.

정성열 제가 59년생이고 제 위에 친형이 있었죠.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69년에 사고로, 당시 사고라고 해봤자 익사 사고가 그 지역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여름방학 때 동네 형들하고 월미도에 수영하러 갔다가 월미도에서 익사 사고로 어린 나이에 중학교 일학년일 때 죽게 돼서 그래서 또 선친하고 모친하고는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요즘에야 뭐 띠동갑도 다반사이긴 한데 당시 10년 차이 났기 때문에 좀 많이 났던 거였죠. 나이차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자라는 동안에 두 분 다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언성 높인 것도 전혀 기억이 없고 두 분 워낙 말이 없던 분들이라 또 싸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치열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해소된다면 뭐 싸울 일이 없었겠죠.

이형진 선친은 바다, 뱃일을 하셨나요?

정성열 전쟁하고 관계없이 와가지고 그 양반이 일을 시작한 게 배하고 관련된 일 그걸 하다가 그 형님을 만났겠죠. 그전에 미군부

대에 또 군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꽤 오래 하시다가 그때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지미 카터 때인가요?

이형진 그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정성열 그때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다니시던 장소가 월미도였어요. 당시에 월미도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방파제에 있고 뭐 이렇게 유흥시설이 많이 들어섰지만 어렸을 때 기억에는 거기가 월미 해수욕장이어가지고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모래사장이 제법 있고 수영장으로서의 구실을 하던, 그래서 1년에 일반인들은 거의 출입이 안 됐을 때였는데 선친이 군무원이라서 일 년에 한두 번, 그렇게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뭐 구경도 하고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역할을 하시다가 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생활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축을 좀 제대로 하셨나 봐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북에서 내려올 때 뭘 짐문서를 갖고 왔는지, 하하. 그래서 고깃배를 구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선주 역할을 또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뭘 투잡을 하신 셈이죠. 미군 부대 군무원하고 고깃배 선주 노릇을 하셨어요. 그 생활을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두 가지 잡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약주 안 하신 모습을 거의 본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지 저도 만만치 않게 먹습니다.

이형진 나름 뭐 약간은 어린 시절에 좀 여유 있게 사셨을 것 같아요.

정성열 상대적으로 그랬지 싶어요.

이형진 동인천 고등학교를 진학하신 게 7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 예, 75년에. 당시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서울에서 7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 이듬해에 아마 인천에서 시작됐죠. 근데 뭐 다 알지만 그 박통, 박정희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앞קות은 정책이 아니었나 당시에는 좀 마음이 설왕설래 했었죠.

이형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성열 예,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래서 인천에서는 평준화로 추첨 케이스로 동인천 고등학교로 가게 됐죠.

이형진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이과 취향이어서 이과 쪽으로 공부를 하셨고 서강대 진학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성열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의 선택이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후회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 왜 내가 이랬을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최초의 선택이 문과냐 이과냐 할 때에 이과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서는 커다란.

이형진 실수였던 것 같습니까?

정성열 오류였어요. 하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문과한테 근데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친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제 성격이나 성향이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문학도랄까 아니면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이라 생각했는데 선친께서는 죽은 형이 의사가 됐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형이 죽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 뭐 이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친이 그쪽으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그 후에

도 이과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이형진 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그때가 74년 이때인데요. 혹시 좀 방향을 하셨었나요?

정성열 어, 그때 선천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인천의 변두리죠, 그 당시에는, 제물포라는 지역 넘어가면 주안, 석바위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69년도에 형이 죽고 나서 70년도에 아버지가 거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서 자리 잡은 게 지금의 만수동이에요. 당시에는 거기 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경사가 워낙 져던 데라 과수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허허벌판에 땅을 좀 크게 사서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 제가 중학교는 남중, 고등학교는 동인천, 남중도 추천, 그런데 둘 다 제물포 자리에 있었어요. 둘 다 통학을 하는데 지금이야 뭐 먼 거리가 아닌데 옛날에는 좀 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베이비붐의 또 아주 한 중간에 있거든요. 중학교 때는 저희 한 반에 7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한 학년이 13개 반까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구백 명이 넘었으니까.

이형진 오전, 오후반도 있었어요.

정성열 저는 다행히 그 짓거리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멀다 보니까 집하고 학교, 좀 웃기는 애긴데 도서관 그 이외에는 어느 공간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쪽팔린데 좀 모범생이었다고 그럴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줄도 몰랐고 흔한 빵집에 간 적도 없고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차 시간을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 놓치지 않게 집에 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방향이라고는 엄두를 그 방향이란 말조차

도 몰랐었구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쑤에 그렇게 워낙 책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공부를 다 하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심리학 공부서부터 철학 공부, 우주물리학 공부 다 독학으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이. 그래서 뭐 사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할 나이에 전 책에서 그런 것들을 티득하는 그 즐거움이 컸지 않았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쑤에 세상 보는 눈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현황,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안티 반응. 그것들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도 공부지만 세상을 좀 바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부에 대해서 좀 멀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는 원체 반골 기질이 좀 극에 달해가지고 선생님을 팼던 사건도 있었고.

이형진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성열 좀 말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그건 뭐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안 나서면 누가, 그런 강박 관념이 있지 않았었다, 우리 반 아이가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는 거야 우리 성장 과정에서는 다반사였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손바닥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야 뭐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뭐 육성회비인가 뭐 기성회비인지 그걸 못 낸 친구가 있었어요. 가난했고 학업 성적도 낮았고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내서 때리는데 좀 과

하더라고요. 자빠뜨리고 구둣발로 밟는데 아, 못 참겠어요. 근데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따귀를 맞아 잔하다 했는데 저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도 때리려고 해서 저는 덩치가 좀 컸어요. 학교 다닐 때 지금 덩치하고 똑같아, 때리고 그냥 주먹 날려버렸어요. 당시로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뭐 정확히나 퇴학 감이었죠.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어떤 조치도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좀 당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유급이 있었어요. 공부 못 하면 학년 진급을 못하고 유급을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매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반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는 학교에서 씨름 제일 잘하고 체중도 제일 많이 나가고 나이도 많죠. 한살 선배였죠. 근데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워낙 개구지고 반에서 애들 못살게 굴고 공부하는 거 못하게 방해하고, 그걸 또 못 참아 가지고 걸상을 들고서 후려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둘이 맞붙었는데 제가,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상까지 들고 마대라고 그랬나요? 대걸레 그걸 들고 그냥 뭐 난리를 쳤는데 이게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로 제가 제압한 것 같아요. 그 선배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고인갑.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억눌렸던, 내재했던 어떤 반골 기질이 그때 이렇게 하나 돌씩 튀어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너무나 눌렸었나 봐요. 그게 뭐 제가 어떻게든 간에 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다 폭력이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고 말 일이지만 당시에는 좀 황당한 일이었죠.

이형진 정 선생님 7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건 79년이거든요. 1년 재수하시게 되네요. 고3 때 공부를 제대로 좀 못 한 거네요.

정성열 예, 못했어요.

이형진 재수하면서 좀 머리가 더 커지셨으니까?

정성열 재수할 때는 더 못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위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됐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좀 하게 되고 또 어떤 선의로는 가르치게 됐어요, 아이들을. 모자란, 학습 능력을 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뭐 핑계지만은 제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시간 여유도 없었고 그때 별로 공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술 마시고 그랬던 듯 싶어요. 시험 보는 날 전날도 아마 술 먹었을 거야, 뭐 성적 제대로 나올 리도 없고 또 기대도 안 했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했고 다행히 아주 나쁘게 안 나와서 시험 봤는데 역시나 떨어지더라고요.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안 했어요. 그냥 술 마시고 보고 싶은 책 보고 뭐 그러다가 요즘 같은 시기일 거예요. 여름 지나면서 제 꼬라지를 지켜보던 선친이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아주 사정을 하셨죠.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대학생인 모습 보고 죽고 싶다, 너 이게 뭐냐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다반사고, 저한테 그냥 뭐 야단 칠 기력도 없으실 때예요, 그때는. 뭐 몸이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근데 그

게 저한테는 커다란 울림이었고 충격이었죠. 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게 된, 종로학원인가 그럴 텐데 거기 몇 달 다니고 예비고사 보고 그때 예비고사였지 아마.

이형진 그 위에 본고사.

정성열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예비고사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하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안전하게 가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서강대 이공계열, 그때 그 학교가 계열 모집이었기 때문에 이공계열 다행히 붙었죠, 다행히. 떨어졌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형진 79년 이공계로 진학한 후에 곧바로 그 해 3월부터 학교에서 소위 문화행사 속에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는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정성열 소위 대학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저는 다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뭐 수업 듣고 이런 것들도 별로 재미도 없더라구요. 근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그냥 나가서 친구랑 술이나 한 잔 할까 하고 학교가 대문이라는데 뭐죠, 정문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학교가.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도서관 그 뒤 쪽에서 많이 들던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북소리, 장구소리, 팽과리 소리 이런 거였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발길이 거기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내재된 저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하, 저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 마력 같은 그런 소리였지 않나 싶은

데,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거기가 민속극 연구회, 소위 당시에 탈반이라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던

이형진 굿관을 제대로 벌린 건 아니고 연습을 한 건가요?

정성열 연습하던 자리였어요. 오금질이라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 언덕에 앉아서 꽤 긴 시간을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좀 더 한 발 두 발 가까이 접근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상황을 판단하게 됐죠. 그리고 그 길로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어렸을 때에 안 좋았던 기억하고 완전히 상반된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

이형진 어렸을 때는 굿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가요?

정성열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아예 저희 집에서 삼촌이 전주다 보니까 고깃 배 출항하기 전에 굿을 하든가 뭐 인근에 당일이나 일박 일정일 경우에는 고사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굿을 할 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의 영향이겠죠. 그 어린 나이에 가출해봤자, 그게 싫어서, 근데 가봤자 교회로 간 거죠. 그 후에도 한참 고사상에 올라가는 시루떡이 귀신이 썬 떡이다 해가지고 한동안 안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굿이라는 걸 그때 굉장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악마다,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미신이다,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었던 듯싶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제 뇌리 속에는 깊게, 아주 깊게 자리하지 않았었나, 근데 그 소리가 대학교 교정에서 들려올 때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 느낌보다

는 아련한 어떤 그 추억 그런 걸로 다가왔어요. 그게 제가 철이 들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 첫 출발이 된 것이었죠.

이형진 그날 그 전경을 생각을 해보면 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온 집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으로, 판을 벌려서 연습을 하던 거였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걸려서 그길로.

정성열 그렇죠. 모진 길로 들어섰죠.

이형진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성열 그래서 그 모임에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그때가 거의 뭐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술집에 간다는 거야. 당시에 신촌에 일미집, 실비집, 잉어집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을 갔는데 다 아는 집이고 뭐 술 먹자는데 저야 뭐 너무 좋았죠.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못 갔죠. 그 옆에 여인숙에서 잤지만 그때 통금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또는 대화 나누는 방식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렇게 술 마시면서도 서로를 위하고 눈을 마주치고 선배와 후배의 거리 없이 그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이 처음이니까 아주 눈 여겨, 관찰자 비슷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가 바라던 동경하던 그런 모습, 인간관계,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딱히 선배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모습이 하늘과 같았어요. 아, 진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많이 알고 정말 멋있다, 닳고 싶은, 그런 모습을 내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좌표를 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시고 처음에 경계

했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면서 그분들과 하나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형진 서강대학교 탈반 예술연구회라는?

정성열 민속극 연구회.

이형진 아 민속극 연구회.

정성열 당시 다 알겠지만 70년대 초에 그 탈춤반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에서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71년인가 아무튼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 탈반이라는 걸 만들고 그 후에 연대, 이대, 서강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대학마다 민속극 연구회 소위 탈반이 결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대단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단지 우리 전통에 대한 되살리고 뭐 이렇게 연회하고 이런 걸 떠나서 70년대 들어서 대학에서도 세상 보는 시각과 어떤 조직이 되고 학습을 통해서 지향점, 어떤 사회 전환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변화의 커다란 물꼬가 트이는 시기였다면 그 시기에 바로 탈반이 출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커다랗게 그때 뭐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전태일 열사, 그 사건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계급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학습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탈춤반이 그 당시에는 대학 내에서 어떤 이념적 좌편향을 좀 많이 가졌던 그런 단체였지 싶어요.

이형진 70년대 후반이니까 유신 이후에 대학 내에 그러니까 민족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그게 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열 전통 문화로서의 탈춤이나 우리 뭐 풍물 굿 같은 것들이 당시

에는 있는 그대로 전승돼서 내려오는 형태로 배우고 그걸 또 학내에서 공연하는 형태였어요.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탈춤, 봉산 탈춤이다 그러면 봉산탈춤 전수자들한테 가서 그걸 전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연습 끝에 정기 공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마당에서 풍악 올리면서 학생들 쪽 이렇게 둘러앉아서 거기서 연희를 하는 그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과거에는 분명히 연희되면서 있어야 할, 우리 놀이 문화가 막 박제화 되거나 아니면 소멸 단계에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같이 노력한 끝에 문화재로 등록되는 데 일조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만 하더라도 경상도에 보면 소위 야류라고 해서 들놀이 베품가게 사실 뭐 고을마다 다 있었지 않나 싶은데 오광대라고 있습니다. 다섯 오자 광대. 근데 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광대가 있었다는 풍문을 들었고 가서 연구 조사한 끝에 있어요, 보니까.

이형진 가산? 경상도?

정성열 예, 거의 고성 근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3년에 걸쳐서 발굴해서 과거에 그 고령자들 중심으로 진술과 아니면 남아있는 의상이랄지, 탈이랄지 또 뭐 사진, 이런 자료들을 총괄하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냅니다. 놀이 형식을 완전체로 만들어 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선배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했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이형진 정 선생님, 인천에서 은율탈춤 이런 거 직접 그러면 가서 그러니까 탈반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그런 걸 전수받는 과정들도 이렇게 해보셨나요?

정성열 저도 많이 했죠.

이형진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성열 탈춤반이 어떤 내용적으로.

정성열 어떤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75년도였지 않나 싶어요.

이형진 전수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됐던 선배들도 있어요?

정성열 아, 많죠. 소위 오돌돌 사진, 75년도이죠. 김상진 열사였나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통 위주의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전후에서 어떤 사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민속극. 이 탈춤의 내재된 사상성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해학과 풍자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 되던 시대에 사회 구조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배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을 현실에 대비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사상무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전통극에 대한 열정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동안에 어떤 과도기를 거치면서 소위 현대판 우리 전통 민속극, 놀이극, 풍물극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당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당극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분은 뭐 채희환 선배가 역할을 하셨고 물론 개인만의 역할은 전 아니라

고 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피로 속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 선배가 어떤 탁월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전통 민속극이 갖는 그런 형식을 초월한 모든 문화, 예술 형식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소위 서양 것까지 뭐 나중에 무슨 뭐 브레히트에 관련된 것들도 무대까지도 나중에 선보이게 되죠, 80년대 들어오면서. 하여튼 그런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는데 그래서 민속극은 80년대 넘어서는 완전히 대학로에서는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해요.

이형진 전문화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성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마당극이나 어떤 뭐 촌극이나 뭐 이런 것들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것, 단출하게 한 것이 탈춤이 갖고 있는, 탈춤이 꽤 오랫동안 연희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연희하는 거는 아마 그쯤에서 사멸하게 됩니다. 소위 탈춤반이라 하면은 탈춤 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야말로 운동 하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이 그때부터 본연의 임무가 됐다고 제가 보여져요. 그전에는 소위 뭐 장구치는 거 좋아서, 판소리 배우고 싶어서, 또 춤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어떤 사상적 토대가, 사회 변혁을 위한 자기 확신과 역할을 찾고자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어마어마한 변화였죠. 불과 10년 만에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의 75학번 이상 선배들을 보면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면 어떻게 한 번 탈춤 얘기나 하지 그 후 사람들은 탈춤 얘기 안합니다. 세상 얘기하자고 그래요, 하하.

이형진 그렇군요.

정성열 그리고 그 더구나 80년대 후배들은 그것조차도 안 해요. 뭐 투사지, 투사. 그렇게 변화를 거치게 되죠.

이형진 정 선생님이 입학하신 79년은 사실 80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 학생운동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모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밀스러운 활동이었을 텐데 지금쯤 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 얘기 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 하도 오래돼서. 어떤 모임, 뭐 동아리, 동아리라는 말도 제가 학교 갔을 때는, 처음 갔을 때는 별로 안 썼던 용어인데.

이형진 원래는 서클이었어요.

정성열 그렇죠, 서클이었어요. 이게 층층시하 선후배들이 학번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갇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 형태를 대학 들어가서 처음 봤어요.

이형진 그렇겠죠.

정성열 하하, 그런데 그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저는. 선배들 봐도 편하고 친구들 만나면 즐겁고 후배 만나면 사랑스럽고 근데 그러한 그것들은 제가 활동함에 있어서 그 활동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지 싶어요. 그 조직 논리에 얽매어서 거기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멀리 했지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탈반에 가입을 하고 뭐 체계적으로 우리 때만 해도 사실 79년이라 하면 김재규가 총을

쫓던 해 아니에요? 휴교령 2학기 때, 휴교령 떨어지고 그 이듬해 또 광주에서 대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뭐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공부를 못했었잖아요. 더군다나 공부할 마음이 없는 놈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딴다고. 여기서 그러던 차에 연대의 탈반 현광일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어느 날, 아, 전 학번 얘기 아주 싫어하는데 현광일이라는 선배였어요. 이 선배가 저의 존재를 알고 대면을 하게 되죠. 여차저차 지역 모임에 대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79년 그래, 좀 봄이 무르익고 초여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때 저야 뭐 쌍수 들고 환영을 했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선배로는 임명구라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은 임명구, 출판업계 나중에 좀 했고 젊었을 때는 전문 연극인으로서 활동도 했어요. 황석영 '장사의 꿈'이라고 하는 연극에 또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른 적도 있고 워낙 춤을 잘 춰요. 정말 아름답게 춤이 크고 웅장하고 누가 봐도 그냥 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춤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명구 선배 또 황선진 선배 최흥기 선배 아무튼 몇몇 선배들이 배우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몇 분 더 계세요. 그 이름은 가끔 기억났다 말다 하는데 이분들이 배후에 있었고 현광일 선배가 주도적으로 해서 인천에 거주하거나 출신인데 대학 생활을 하는 탈반 내지는 의식이 깃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있는데 조직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알음알음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79년 늦봄 초여름의 일인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한 열댓 명이 모여서요. 뭐 거의 대학을 총망라해서 있었

어요. 인천에 있는 대학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학습이었죠.

이형진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성당 같은 곳이였습니까?

정성열 인천 배다리 중앙시장 언저리에 있는데 가물가물하네, 어디 있었는지.

이형진 거기 가서 탈춤도 좀 하고 학습은?

정성열 거기는 주로 춤을 췄던 것 같고 학습은 누구누구 집에서 했었더라. 순이도 누구도 박 모 씨 집에서 주로 한 기억이 나고요, 뭘 공부했는지, 기본 목표가 엄격히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김학준 선배의 러시아 혁명사를 필두로 한, 이영희 선생의 8억인과의 대화, 전환 시대 기타 등등 또 조직에 관련된, 어떻게 조직 활동을 지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사회구성체에 관련된 또 교육의 폐다고지라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꽤 많은 학습을 진행을 했죠.

이형진 토론을 했다는 거죠?

정성열 예, 듣고 세미나 좀 빠르게 전개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안 하는데 하여튼 이를테면 책 한 권 보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한 달 걸렸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는 한 보름이면 한 권 떼게 할 정도로 좀 벅찼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갔고 그해 여름에 합숙까지 하게 돼요. 덕쪽, 영흥도인가, 영흥도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누구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영흥학교 교감 선생님이로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교 방학 때였기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숙식하고 춤하고 악기도 연습하고.

이형진 한 15명 정도가?

정성열 예, 그때 사진이 있을 텐데 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하던 일 계속하고 또 선배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배 타고 와서 보투(보급투쟁)를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샀어요. 근데 제일 환장하게 목말랐던 건 담배였어요. 당시에 우리가 환회이라고 하는 담배를 피웠는데 간혹가다 어떤 선배가 청자를 사왔어요. 최고였거든요. 환회 50원, 필터 없는 건 40원. 청자는 150원가. 나중에 하나 필터에다가 이름까지 써가지고, 하하. 아무튼 좀 빠세계 하여튼 빠세계 훈련했던, 학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79년도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은울탈춤 그 전수소거든요. 사실 은울이 황해도잖아요. 그게 남북 분단되면서 거기 연희자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다 자리 잡고 전수소를 만든 거죠. 경제적으로 열악했죠. 그래서 뭐 이층 삐덕삐덕 하는 마룻바닥에, 그냥 장관, 비닐장판 깔고 거울이 있었어요. 또 그래도 거울은 전면 거울이 있어가지고, 방음도 안 되고 형편없던 시설이죠. 근데 지금은 자유공원인가 아니 저 수봉공원인가요, 으리으리한테 은울 전수 뭐 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과거에 그랬죠.

이형진 거기서 월남하신 분들이 직접?

정성열 예, 근데 저희는 그 선생님한테 은울탈춤이나, 강령도 황해도거든요. 우리가 탈춤하면은 봉산 탈춤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탈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건 봉산 탈춤이 주로 뭐, 강령, 은울, 재령 하여튼 커다란 도시에는 상업이라고 하는 것들

이 조선마을에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런 연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마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춤사위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동소이 한데 그래도 특색이 있어요. 특히나 춤사위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장소만 임대하는데 아마 임명우 선배가 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년? 1년 정도. 재능, 기능 춤이나 장구 뭐 이렇게 풍물 이런 것들 연희했고 학습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하게 되죠. 하여튼 초창기 기획하고 준비했던 현광일 선배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없어져요. 일찌감치 현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조직과 이런 일단 대표성을, 제가 대표라고 했고 대표라기보다는 총무, 심부름꾼, 녹화를 했고 또 선배들 후광이 좀 많았죠, 그 때는 아무래도.

이형진 정 선생님 기준으로 동년배들이.

정성열 아니에요. 저는 막내였어요. 학번으로 막내였고 근데 78학번이 많았고 78학번이 다 또 동기들이니까.

이형진 그렇죠.

정성열 77, 76까지 있었어요. 학번으로 제일 낮았는데 심부름꾼 역할을 했었지만 기능 면에서는 제가 좀 가르치는 입장이었어요.

이형진 아, 자부심이, 하하.

정성열 풍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가르쳤고 춤은 명구 형이나 지나 고규영 셋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은 그냥 1년 남짓 밖에 지속을

못합니다.

이형진 이후에 다시 바뀌지는 않고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정성열 예.

이형진 그럼 80년 5월 이전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성열 제가 아마 6월로 기억합니다. 광주 이후에 해단식을 갖게 돼요, 정식으로. 발전, 개인 활동을 위한 발전차 해체 그런 개념이었어요. 조직 내 조직을 내세워서 뭘 하기에는 좀 많이 취약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다 구성원들도 학생이었고 또 지역적으로 또 한 게 있었고 그래서.

이형진 좀 더 먼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체하자.

정성열 서로의 지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예, 그리고 거기 소속했던 선배들이 그 모임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뭐 학교 모임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습 구조 속에 포함이 됐거나 아니면 자기 활동을 하거나 아마 3분의 1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굳이 인천 모임이 아니었다라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나름 하여튼 뭐 이렇게 타산지적이 좀 됐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남짓했지만, 글썽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까 모르겠는데 아마 문화 운동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첫 모임 제 역할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형진 모임이 해체된 후에 정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 모색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2학년이었어요.

정성열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인천 모임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1학년 때부터 여러 활동을 하게 돼요.

이형진 학교 탈반 활동, 인천 지역에서 학습 모임.

정성열 그 이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습게 시작했던 게 어린 나이에, 저급한 학년일 때 황선진 선배의 요청을 받고, 저는 황선진 선배가 뭐 하라고 그러면 토를 단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거 해라, 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네,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그 당시에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인천의 학익동에 소년원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떻겠냐.

이형진 교도소, 소년 교도소?

정성열 거의 구속돼 있는 아이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겠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했던 건 춤 가르치고, 율동, 마임, 풍물 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을 했어요.

이형진 소년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성열 엄청나죠. 그리고 점심을 꼭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는 다행히 교도소는 한번, 빵에는 한번도 안 갔는데 빵 밥은 많이 먹었어요, 하하.

이형진 혹시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만난 인연이 있을까요?

정성열 저하고 연배가, 저보다 기껏해야 한 5살? 그 차이밖에 안 됐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체격 차이가 엄청났으니까 지금이야 뭐 5,6년 차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제 눈에는 아이들로 보였었죠.

이형진 아직 중학생이니까요.

정성열 그러니까요. 그 후에 연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뭐 시차가 막 널뛰는데 자꾸 기억 속에서 그러다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제 인생에서, 제 기능, 역할이 이렇게 한, 좀 이렇게 한층 고도화되는 고마운 분이죠. 어떤 때는 형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대선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고 그런 신부님을 뵙게 돼요.

이형진 아, 신부님?

정성열 호인수 신부님을 80년에 뵙게 돼요. 그전에도 뵈는데 여러 사람들 와있었는데 80년에 비로소 개별적으로 인사하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신부님이 아시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 양반의 후광이 뭐 이렇게 넘쳐납니다.

이형진 호인수 신부님을 80년에, 그 신부님이 어디 계실 때였죠?

정성열 그때 아마 고잔 성당이었을 거야, 아마. 거기서 첫 주임 신부였지 싶어요.

이형진 남동구 맞죠?

정성열 예, 부평이나 송림동이나 보좌 신부였던 것 같고 여기가 첫 주임 신부 부임지였던 걸로, 글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형진 80년대 초중반을 신부님께서 아마 고잔동 선당에서.

정성열 예, 거기서 있었죠. 하여튼 첫눈에 반했죠. 아,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호랑이를 닮았을까.

이형진 탈을 배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열 아니, 신부님이 이 얼굴 그 자체가 더 탈로 보였어요. 세상을 바꿔내는, 그 사회 부조리를 꾸짖는 탈춤의 말뚝이라고 있거든요. 또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탈,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 멋있다, 근데 하여튼 그 후에 제가 좀 많

이 달라졌어요. 그 분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쪽에서 관련된 일을 그 후에도 좀 다방면에서 하게 돼요, 나중에. 인천에 큰 모임이 만들어질 때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이형진 연회 활동 관련해서는 기량을 계속 닦고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는 뭐 그 애오개에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성열 그 학교에서 선배님들한테 탈춤 배우고 풍물 배웠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좀 많이 다녔어요, 배우러. 대학교 2학년 때쯤 났을 때는 뭐 요즘 얘기하는 넘사벽이라고 그럴까, 기량이 이 소위 풍물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그 기량이 상당한 수준에 제가 올랐았어요. 그쪽에 소질이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상쇠를 했어요. 팽과리라고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내에서도 어떤 공연이나 이런 형식에서 제가 앞장서게 됐어요.

이형진 팽과리가 리더죠?

정성열 그렇죠. 아무튼 미친 듯이 배우고 가르치고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우리 전통 문화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향후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무기가 된다고 뭐 엄연히 알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사실 있었어요. 어설픈게 했다가는 설득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고, 이거는 이용해 먹는,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회하는 사람들한테 또 야단맞을 수도 있

는 거고, 그건 아니라고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뭐 우리 사회 변혁 운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술적으로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서 치부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멸을 느꼈었어요. 이걸 아니다.

이형진 정 선생님, 상쇠를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일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배우셨던 것 같습니까?

정성열 학교 선배님한테 기본을 배웠는데 그 선배한테 잘 배웠어요. 잘 배웠고 그 후에 서울대 농대 풍물패 상쇠였던 오영호 선배였던 지금 강화에 있어요. 오영호, 오영호, 7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또 선진 형 통해서 민속촌에 지금 아마 총장으로 계실 거예요. 정인상 이름이 좀 특이하기는 한데 그분한테 사사받고 또 소위 그 김덕수 사물패 버금가는 저희가 또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저보다 연령이 두세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남사당패예요. 근데 부모들이 남사당패고 그 자식들이예요, 주로 대개. 어려서부터 뭐 악기나 뭐 이렇게 재주는 뭐 그 뭐 이거 무당으로 치면 신내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수 받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배우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내 것이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내 것이 되면서 가르치면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 안에 딱 자리매김하게 되더라고요. 배웠던 것들이 뭐 국내에 있는 가락들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은 나이 들어가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하하.

이형진 82, 83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간 세월을 지나면서 그 풍물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80년 광주항쟁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운동의 모색 이런 게 이루어지고 학생 운동도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문화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성열 계기 많았죠. 근데 계기라는 게 커다란, 이렇게 뭐 큰 바위처럼 온 것이 아니고 자잘하게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늘 있어왔어요. 이를테면은 야학에서의 제 역할이나 아니면 대학 탈출반을 지도한다든가 또는 어떤 뭐 단체에서 행사를 위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당극이나 풍물굿이나 판굿 이런 거를 지도하고 이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제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또 이 지경에 있어서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깨우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커다란 전환점은 82년도에 이쪽에서 제 역할이 분명하게 되고 그 전에도 노동 야학.

이형진 네, 야학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성열 81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인천에서?

정성열 인천에서도 하고, 안양에서도 하고, 안양은 노동자들만 있어서.

이형진 박순희 선생님?

정성열 예. 맞습니다. 거기 소개한 거는 임명구 선배예요. 명구 선배가 그 역할을 못해요. 풍물을 못해요. 동우 형이 그런 것도 쟈

병이고 명구 형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가서 거기 했던 게 풍물도 풍물이지만 주로 놀이 지도를 했어요.

이형진 야학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열 예, 그때 한 40, 50명이었던 것 같은데 놀이 위주로 지도를 했어요.

이형진 놀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정성열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사람들의 친교, 친분 어떤 조직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게 율동이랄까, 뭐 이런 거였는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풍물도 마찬가지로였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건 여러 가지 노래들, 그때 나왔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랄지 처음에는 노래 같이 부르기로 하다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쉬운 노래들을 갖고 조편성을 한다든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좀 생각나서 다시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형진 80년도 초네요, 그러니까?

정성열 82년, 81년도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인천에서 주로 했죠. 신부님하고 연결.

이형진 인천에서는 신부님 통해서.

정성열 예, 야학을 하게 되고 중학교.

이형진 야학은 고잔동 성당이었어요?

정성열 아니요. 그 후에 81년, 82년은 아니고 이걸 좀 뒤입니다. 그 후에 부평에 계실 때에 성심야학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물포 안 됐지만, 주안 5동 성당으로 가셨을 때는 한길야학을 만드셨죠. 거기서 야학 활동하면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그전에는 김

근태 선배의 부름을 받아서 YWCA에서 또 노동야학을 했었고요.

이형진 YWCA에서요?

정성열 예, 그때 근태 형이 노동법을 강의했었어요. 거기서 그때 저보고 놀이 지도 좀 해달라 그래서 했었죠. 그때 거기도 하고.

이형진 놀이는 집단 놀이 같은 거죠? 그 말씀하신.

정성열 그, 뭐, 주로 율동이 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아 이게 생각이 '한도 돈 돈 돈 내 돈 돈 악마의 그전 갑들이 하고 갑순이 하고 돌이 살아' 하다가 이러면서 서로 율동하면서 재밌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분은 안쪽 남성분은 바깥쪽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금방 끝이 어딘 줄 모르고 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몰라요, 또 생각나고 할지도, 근태 같은 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진도 아리랑은 다 알잖아요. 진도아리랑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우리 회사 사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팀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써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부르게 하면 수줍어하면서도 나중에는 무지무지 즐거워해요. 그런 것들이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이게 더 좋았을 걸 제 스스로가 깨닫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까 어떤 계획이라는 게 제 스스로가, 그, 뭐라 그러죠, 알게 모르게 변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소위 개는 뭐 전문가.

이형진 그러니까 여기저기 야학이나 모임 같은 게 있으면 불러서 가면 그런 걸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그리고 흥을 돋우고 모임

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이었겠네요.

정성열 뭐 시차가 좀 있지만 나중에 제가 놀이패를 만들고 지도했을 경우에는 2천명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이형진 한꺼번에 2천명을?

정성열 가능해요. 그런 응용력이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때 하여튼 애오개 직전까지 또는 그 후까지도 했는데 아무튼 시절로 보면은 애오개 시절이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층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애오개를 이끌어준 선배는 황선진 선배예요. 형이 너 와서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좀 풍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형진 그게 이제 80년.

정성열 82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이형진 애오개로 활동 무대를 일단 거기로 정하신 거네요.

정성열 그런데 거기만 엮매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소모임 또는 뭐 이렇게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천의 간호전문학교가, 경기간호전문학교가 거기 아이들 세미나 지도하고 춤 가르치고 인하대도 풍물 가르치고, 인천 교육대, 당시 2년제였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가르치고 또 인천 청년 가톨릭 청년 문화패들 지도하고 또 인천 모임 있을 때도 거기도 갔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이형진 학교 세미나 학습 모임하고 연회 모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다는 말씀이시죠?

정성열 그러니까 뭐 정신 없었어요. 인천, 서울, 안양, 부천, 그때 교통비가 상당했을 겁니다.

이형진 학업은 아예 내팽개치셨나요?

정성열 하고 싶어도 못했죠, 하하.

이형진 애오개는 연회 중심의 모임만은 아니었던 거죠. 문화 예술 다양한 부분이 좀 총괄했던?

정성열 제가 주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커다란 그 후위(후광?)를 보고 야망에 가득한 문화예술 쪽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82년도의 활동은 미술패로 시작한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이형진 처음에는 미술패였어요?

정성열 처음에 바깥으로 드러났던 거는 두렁이라고 하는 소위 민중 미술협의회 민미협을 창립하기 이전에 전 단계로서 두렁이라고 하는 홍대, 서울대, 몇몇 학교 미술 운동을 하는 그 분들이 여행전을 거기서 하게 돼요. 82년 말에,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게 돼요. 거기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나름 활동하던 그런 예술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허구한 날 싸질만 했으니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선배들이 이 모임을 했었죠.

(1부 끝)

정성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애오개에서 주로 잠도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제가 낄 자리가 있고 안 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뭐 그 내용성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일 만이 형은 홍석화 형으로

기억을 해요.

이형진 임진택 선생이랑 홍석화는?

정성열 동기일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름 붙였던 사이였거든요. 석화 선배가 주로 이야기하고 문화 전반에 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 아마 그 형이 효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뭘 주제를 가지고 꾸며내고 풀어내는 데는 귀재였어요.

이형진 이야기꾼?

정성열 예, 이야기꾼. 그 후에 그 형님을 뵈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국의 맛집 뭐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좀 파격적이었죠. 그게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을 책으로 낸다는 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식으로 그거 출간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홍석화다.

이형진 80년대에?

정성열 80년대 말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존경스러운 선배였고 딱히 뭐 직업도 없으셨는데 애오개 공간에 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던 선배였고 상주했던 사람은.

이형진 미술 쪽은?

정성열 미술 쪽 그때는 미술 쪽이 많았어요. 미술 쪽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봉준, 김봉준 선배가 제일 많이 출입을 했었고 미술 쪽에 많았어요.

이형진 홍성남?

정성열 홍성남 이철수 뭐 이런 오인호 선배는 그때 돌아가셨고, 아, 그

때 거기서 그러니까 이철수 홍성남. 김봉준, 김봉준 이런 선배들의 밑세대가 오인호 선배였죠. 당시에 목관화랄지 하나의 미술 표현 매체로서 그때 두드러지게 목관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오인호 선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김봉준 선배를 필두로 해서 아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나요. 영상 선배는 다른 분야였는데 제 후배였지만 정정엽이라든가 물구나무 섰는데 발 모양이 거꾸로 돼가지고 나중에 크게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 아, 여기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저희 집에 남편하고 그 남편도 꽤 유명한 노동 활동가였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권오광.

이형진 아, 부부예요?

정성열 예, 난 권오광씨를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공유되는 거야. 아이, 그때 안 만나길 잘했다, 전부 다 1년 선배예요, 근데 제 절친한 친구 송성섭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성섭이하고 권오광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면 좀 애매한 관계가 될 것 같아. 권오광씨는 나한테 뭐 선배니까 아무런 저의 관계가 활동이나 뭐 아무튼 뭐 그렇고.

이형진 인천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라원식.

정성열 라원식 씨는 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양원모죠, 양원모. 그리고 연극, 마당극 뭐 이런 쪽에 진짜 이름만 들어도 빛이 날 정도의 채희완 선배가 큰 선배로서 아주 역할을 하셨죠. 또 놀이에 관하는 한 독보적인 선배가 연성수 선배였어요. 간혹 가다가 임진택이니 뭐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김민기의 선배님. 그때 이렇게 자리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기가 지하였어요. 여기가 북아현동이거든요. 거기 뭐 이렇게 형편없

는 공간인데 방 들이고 그 방을 장치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뭐 일꾼으로 참여한 거죠. 후에 또 문지기로서 역할을 한 거고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하는 선배들이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어떻게 규합되고 또 새로운 힘으로 창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 거기서 전국 단위의 민주문화운동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요즘에 그 지역마다 있는, 인천에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형진 민예총?

정성열 민예총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이형진 민중문화운동 뭐.

정성열 민예총인가? 아무튼 그렇게 자기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논의됐던 것들이 아마 큰 모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 당시에 나이도 20대 후반, 30대 초 밖에 안됐었지만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로서는 아마 최초의 그 선배들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후에 생겨나는 어떤 조직 형태의 모체라고 해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첫 번째 그 공간에서 했던 거는 물론 제가 거기 있었지만 활동은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또 제 활동을 하러 인천도 가고 안양도 가고 어떤 때는 경주도 가고 그랬었지만 그해 겨울에 준비했던 사업이 민미협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령 미술전 창립에 예행전을 하게 되죠. 그게 두령이었어요.

이형진 예행전이라는 것은?

정성열 두령 창립을 위한 준비전, 전시회 겸 그때 간단하게 마당극도 했어요. 애오개의 소극장에서 그때 제가 두령 역할을 했었죠.

이형진 두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죠?

정성열 민중의 삶과 애환과 놀이와 문화가 두령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두령 뭐 이런 거 하고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예술가들이죠. 화가들, 목판을 하게 되는.

이형진 목판 전시를 거기에서 했나요?

정성열 예, 거기서 했습니다. 한 작가가 뭐 한 서너 작품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형진 좁았을 텐데.

정성열 그래도 이렇게 판화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거 뭐 A4 용지나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작업하는 작가도 있었지만 극장에서 작업하는 화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주요 라인 이렇게 조각을 해주면 쳐내야 되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제가 했어요), 하하. 아,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한정판을 찍었었어요. 그때 50장이었나, 아무튼 근데 뭐 칼라로 했거든요. 흑백으로 한 것도 있었어요. 녹두 장군상은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하여튼.

이형진 그 미는 작업도 하셨어요?

정성열 미는 작업도, 예, 근데 좀 색깔이 덜 나오거나 라인이 부정확한 것들은 파지로 빼놓고 그리고 작가가 직접 맡고.

이형진 어깨 너머로 일을 다 배우셨겠네요.

정성열 많이 배웠죠. 그때 그 파지를 다 버렸어야 되는데 어떤 건 낙관을 찍고도 파지로 빼놓은 것도 있어요. 잘못 보고, 그런 것들을 제가 버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대부분 버렸을 거야.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수집 욕구가 있나봐.

이형진 그걸 좀 챙겼어요?

정성열 많이 챙겼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민중 미술에 대한 세간에 시선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초창기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진짜 많이 홍보됐죠. 여러 가지.

이형진 그렇죠.

정성열 책 표지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집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거의 다는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때 두령 예행전하면서 공연할 때 맨 앞에다가 봉준이 형이 전봉준 상을, 그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전봉준 상을 그렸는데 자기 얼굴, 하하. 그거를 할 때 전시 걸었던 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봉준이 형 드리려고요. 그건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화가들, 작가들을 보면 나중에 민주대시위할 때 소위 만장이랄지, 걸개그림이랄지.

이형진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는거죠?

정성열 보편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 보면 누가 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작가의 얼굴이 거기 있어요. 하하. 그 판화 작업을 하고 그해 겨울에.

이형진 82년 겨울입니다.

정성열 그렇죠, 두령 예행전을 마치고 그 즈음에 커다란 기획을 하게

돼요. 그건 이제 가톨릭하고 또 관계되는데 기독교나 불교하고 다르게 청년 조직 내에 문화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조직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당시에 전국 소위 탈반에서 삼십 명을 차출을 했어요. 10개 조, 한조 세명씩, 그래서 전국에 10개 바우를 선정해서 한두달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이형진 가톨릭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정성열 아니요. 가톨릭하고 관련된 청년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 농촌에 성당이 주로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의 청년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정성열 그때 혹시 누가 주도했는지는 정성원 선배가 정성현.

이형진 30여 명 정도를 모아서 세 명씩 조를 짜가지고 10개 조를 전국에 파견했어요?

정성열 예, 나중에 평가, 품평 저기를 태선에서 하게 됐어요. 거기 가톨릭 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하여튼 10개 마을에 세 명씩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대 신모모, 충남대 송모모 이 친구 둘 데리고 경기도 안성 미양면 갈전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책이 많았으나 봐요. 그리고 마을 최고 언덕 꼭대기에 성당이 위치해 있었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전후에 거기가 배급소였을 거예요. 그 지역 물자,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을에서 나름 활동을 하고 그 후속 모임의 여부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좀, 중간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형진 뭐 했는지 모르죠?

정성열 그렇죠.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근데 10개 마을 중에서 후속 작업이 예정되고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결과물이 나오게 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갔던 마을도 됐고 그게 인연이 돼서 만 40년, 올해가 40년이에요. 지금까지 그 동네 모임을 합니다.

이형진 동네 청년들하고?

정성열 지금은 청년 아니죠. 하하.

이형진 그렇죠. 이제 노인들이 됐죠.

정성열 지금도 모임을 해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무튼 84년도 인가 한겨레 신문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형진 87년 지나서요.

정성열 아, 87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새해 각계각층이 듣는다 해서 1면에 이렇게 인물이 나오고 1년을 그런 게 기획물로 나왔는데 농민을 대표해서 그 마을 아이가 나왔어요. 강태공 강성덕 저보다 1살 아래, 시골에서는 3년 터울을 동네에서는 이렇게 친구로 묶어주더라구요. 외부 나가면 또 각뚫하면서 선배 대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민, 여의도 집회나 모든 시위나 어떤 그 단체 활동에 있어서 최고 주도자, 활동가로.

이형진 농민운동으로, 그러셨구나.

정성열 예, 그래서 그 후에도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농촌하고 연관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소위 견학, 경험을 하는,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이형진 그 동네를 가꾸는.

정성열 예. 굉장히 이렇게 지명도가 높았어요. 오히려 거기 거주하는 농민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지도하는, 하하.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그런 걸 전 바랐거든요. 정말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다섯 가지 꼽는다면 저는 그거를 마땅하게 꼽고도 남죠. 지금도 어떤 친구는 성열아, 난 마누라보다 니가 더 좋아, 하하. 지금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힘 떨어지면 같게, 하하. 뭐 이거는 친형제만큼 친해요.

이형진 여기서는 멀지 않잖아요.

정성열 안성, 1시간 반이면 가요. 9월 달에 거의 만이 형이 있는데 개털 보라는 형인데 교통사고로 갔어. 그 다음 선배가 지금 우리 나이로 70대 선배가 있는데 저보고 시간 맞춰서 안성에서 한번 보자, 올해가 40주년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도.

이형진 와, 그러네요.

정성열 겁나요, 이제는. 내가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처지인 것 같아.

이형진 가서 도움을 받아야죠.

정성열 아휴, 그럼요. 옛날에 술값 냈는데 이제는 술값 얻어먹어야 돼, 하하.

이형진 82년이 지나면서 뭐 가톨릭 농민 지원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83년.

정성열 안성에서의 활동은 계속 지속됐어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쪽에서 원하시기도 하고 저는 가면 기본적으로 열흘 이렇게 묵었다 왔어요. 그래서 다른 활동에 좀 지장을 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안성에 집중했을 때였어요.

이형진 그쪽 농민 조직이 활성화됐겠네요.

정성열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안성의 타 지역 고상면이랄지 또 여러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요.

이형진 모아서 또 연회도 가르치고, 탈도 하고.

정성열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 청년들하고 같이 농사하고 저녁 때 제 숙소가 있었어요. 과수원인데 아주 오래된 오두막 같은데 부엌, 아궁이, 방 하나, 방 해봤자 10명이 이렇게 앉으면 조금 이렇게 버거울 정도, 근데 많이 모일 때는 15명도 모여서 저녁 때 주로 했던 게 세상 이야기, 책 보는 건 안해요, 하하. 세상 이야기하고. 엄한 거 끄집어냈던 의견 충돌로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확인된, 지나간 이야기들, 뭐 박정희가 왜 총 맞았을까, 왜 김재규가 총을 쏘을까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 광주가 흥흥했잖아요. 의견들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형진 3년 밖에 안 됐을 때?

정성열 엄한 거 끄집어냈던 의견 충돌로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확인된 지나간 이야기들 뭐 박정희가 왜 총 맞았을까 왜 김재규가 총을 쏘을까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 광주가 그때 뭐 흥흥했잖아요. 의견들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잘못 꺼내면 좀 의심받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여튼 조심스럽게 주로 이렇게 듣는 입장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직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래 같이 부르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농민가, 삼천만 잠들었을 때, 몰라요, 다 가르치고 울동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뭐 춤 같은 거, 아까 그 야학 현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재미없어 하더라고, 100퍼센트 남자였거든. 나이가 저보다 7년 선배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저보다 한 살 아래가 제일 어렸고 그리고 제 동기가 의외로 많았어요. 열 몇 명. 그 다음에 여름에 거기 갔다가 큰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진천인데 거기 하천이 이거보다 좀 작은 하천인데 지금 개발지가 있어서, 유흥지 비슷한 거기 갔다가 거기 현지 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십여명 진짜 패싸움, 주먹 쥐고 막 싸워대. 나는 어느 편이에요. 사실 말려야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지금도 회자가 돼요. 그 얘기가 맨 앞에 너무 두드러 패가지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더니 물속에 처박고 험한 욕을 하면서 승기를 잡아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때 엄청 친해졌다고. 아니, 이거는 농담같은. 아무튼 그래서 거기 활동을 주로 했고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정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소위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일을 했죠. 그때는 교회에도 많이 갔었던 거 같아요. 뭐 수봉산교회랄지 부친 제일교회랄지 뭐 어디 어디 하면서 연극 마당극 지도하고 이런 기억이 나고.

이형진 인천 산업선교회, 그러니까 일꾼 교회도 좀 가셨어요.

정성열 거기뿐만 아니라 산곡동에 있는 제이오씨(JOC), 우리 때는 지오씨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많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군대는, 가기 전에 가을에 왔는데 그 전에 정리를 다 했어요. 그

리고 그때 세미나 그 학습 지도하고 제가 또 힘 써왔던 게 경기간호전문대학에서 근데 거기도 79학번, 78학번부터 83학번까지 줄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을 세미나 지도 그때 했었고 물론 뭐 춤도 가르쳤고 무지 친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예뻐는지 몰라.

이형진 그게 대학 4학년 때 인가요? 그 학교는?

정성열 뭐 안 다녔으니까 뭐 학년이 없어서요. 근데 뭐 숙대에도 한번 갔는데 거기는 뭐 정문에서 검사하고 막 누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도 몇 번 가르치러 갔다가, 아이씨, 재수 없어, 그런 과정이 너무 싫어서 인하대도 다녔던 거 데 중점적으로 했던 거 경기간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형진 간호전문대가 위치가 어디였죠? 송의동 쪽이었나요?

정성열 동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합숙도 가고 그랬었어요. 남자인데도 같이 자고 그랬는데 아무 일 없었고 혼자 가기 민망해서 어느 선배를, 인수인계 해줄 선배를 일찌감치 이렇게 얼굴 익히고 같이 이렇게 가고 저쪽 과천, 어디 영보, 수녀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네. 지금 보니까 거기가 동물원으로 바뀌었나.

이형진 그러니까 정 선생님은 풍물과 배우의 활동, 그리고 83년 군 입대 전까지는 실제로 소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학습만이 아니라 놀이,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할 수 있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정성열 이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실 그런데 뭘 해달라고 그

러면 다 해줬으니까.

이형진 그럴 수가 있죠.

정성열 뭐든지 다 했었어요. 춤만 같아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탈춤, 그다음에 중부지방 산대놀이가 있어요. 야류 오광대니까 좀 특징이 상당히 달라요. 북쪽 춤은 춤 사이가 굉장히 커요. 남쪽 춤은 부드럽고 장단 자체가 남쪽 춤이 달랑달랑 이런 춤들이 많아요. (춤 시연) 근데 저쪽 북춤, 근데 중부춤은 그걸 좀 섞어놓은 듯한 어떻게 참 그렇게 사람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춤들을 다 했어요. 소위 우파리라고 얘기하는 경기, 충청가락서부터 경상도 가락, 풍물 그러면 전라도 얘기하잖아요. 전라도도 엄청 달라요. 지역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은 좌도리 우도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분명히 달라요. 가락이 완전히 달라 근데 오도 가라 이리 어디 어디 얘기해도 또 달라 춤 다르듯이 풍물도 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을 저는 그때 캐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거기에 맞게끔 소위 맞춤 교육, 하하. 잘난 척해서 미안합니다. 그랬었어요.

이형진 우리 정 선생님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천에 문화운동 조직을 만드는 과정들로 넘어가거든요.

정성열 이민우 선배님하고, 저, 김성복 목사나 뭐 이렇게 해서.

이형진 산선 교회 쪽하고?

정성열 예, 산선교회 계셨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만남을 지속했던 것 같은데.

이형진 김근태 선배도 계셨습니다.

정성열 그러니까요. 많은 기억이 안 나요. 근태 형도 거기서 알았고 많은 사람들 거기서 알았거든요. 이름 들으면 아는데 제가 이렇게 특하고 내뻗지 못하고.

이형진 사실 거기 산업선교회 2층에서 모임하면서 거기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성열 그랬을거야.

이형진 지하도 있고.

정성열 잘난 척 엄청 했을 거야, 하하.

이형진 그거 정리를 하시고 일단 군대 생활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85년에 제대하면서 곧바로 그러니까 놀이패 한광대 결성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나요?

정성열 아뇨, 염두에 뒀죠. 내가 나가서 내 활동 영역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하는 일, 이런 것을 85년 말에 제대하면서 하나, 둘, 제 생각대로 놀이패 한광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준비 작업을 꽤 오래 했어요. 거의 1년 했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해서 대학 동기생으로 굉장히 친했던 송성섭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아마 동수였을 거예요, 아마.

이형진 한동안 못 만났던 거죠? 대학 다닐 때 이후로는.

정성열 그렇죠, 동수는 학교하고 좀 계속 근거리에서 후배들 관리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외부로 돌 때 성섭인 학교에 좀 활동을 많이 했고 딱히 노동 관련된 일 이외에는 아직 안 왔었어요.

그걸 다 사전에 알았죠. 그래서 85년 나와서 제대하고 그 해 겨울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성섭이었고.

이형진 85년 겨울?

정성열 그렇죠.

이형진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성열 부평에 있는 하꼬방 같은 집을 어렵게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성섭이 그때 뭐 공장 가있었고 그 부인인 은주, 애가 또 장가를 일찍 가서 애기가 있었어요. 아, 성섭이 장가 갈 때 내가 사회 보고, 하하. 성섭이 발바닥을 때렸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저게 죽을 뻔했다고, 하하. 아무튼 그래서 은주부터 설득을 하고 성섭이 퇴근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 와서 네가 할 일이 왜 없겠니, 네가 여기 괜히 왔겠니,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지금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인마,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가 없으면 이 일은 안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때야 그냥 핏발이 그냥 서서 투쟁심 하늘을 찌를 데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었죠, 사실은. 무슨 풍물 놀이패 만들고 한량 짓거리나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커다란 큰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성섭이가 동의를 했고.

이형진 설득이 됐어요?

정성열 네, 현장을 성섭이가 정리하고 나오게 돼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부평 쪽에서 풍물을 가

르치는 강사가 있다, 장구를 무지 잘 친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나게 돼서 박영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선한 인상에 참 좋았어요. 느낌이 내가 얘기했더니 뭐 그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고 바로 합류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형진 4명 사물놀이패를 생각하셨나요?

정성열 아니야. 그 사물놀이 하려면 4명이 필요한데 사물놀이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전만 해도 사물놀이는 저주했거든요. 저건 아니다. 근데 그 후에 사물놀이가 하나 문화 장르보다가 풍물 장르다가 자리 매김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도 사람들 만나면 풍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물놀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같으면 미치고 팔짝 뛰죠. 그냥 바로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그것이 다르다, 풍물이 갖고 있는 커다란 형체 기능에서 그렇게 일부만 끄집어 낸 것이다. 좀 많은 데 어떻게 큰 걸로 대변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물놀이가 하나의 형식인데 풍물에 빚대서 사물놀이가 굿이다라고 표현하지 마라, 근데 사물놀이는 또 나름대로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형진 일단 그래서 한 분 더 얘기를 이어가지죠.

정성열 응, 그 군대 가기 전에 인천 가톨릭 청년회, 가청의 문화부를 또 지도를 해요. 제가 아, 별짓 다했나 노라바치 노라바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박승태 김효식 이런 애들이 또 서울대 애들인데 이놈들이 똑똑해요.

이형진 노란 바지?

정성열 노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주게 되고 거

기서 알게 된 청년, 신영철, 아, 이 새끼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야, 영철이까지, 영철이는 기능이 없어요. 풍물을 접한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거의 문화패를, 이렇게 선배로서 역할을 하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싶어서 권유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넷이 모이게 되고 사실 하나를 더 모았어요. 이거 저 포함해서 네명은 다 동년배고 후배, 서울 농대 아니던 애를 하나 또 포섭, 아, 포섭이란다, 진짜, 섭외를 해서 조직원으로 만들었죠. 근데 결국은 끝이 안 좋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뭐 저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려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참여하고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형진 5명 정도가 일단.

정성열 예, 4명이라고 쳐도 되고요.

이형진 그래서 연습을 하시나요?

정성열 그래서 제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호인수 신부님이 그 큰 도움이 그때 나오십니다. 신부님 어떻게 공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다 어렵잖소,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봐, 저기 용환이가 용현동 성당으로 갔는데 거기 뭐야 부속 건물 지하에 기가 막힌 게 있다더라고, 당시에 김용환 신부도 제가 알았어요. 호인수 신부님 신학교 동기가 김용환 신부님, 부천의 이성득 신부님, 이 세 분이 동기에요.

이형진 김용환, 이성덕.

정성열 예,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 너무 달라. 잘 안 모여. 그런데 이성덕 신부님하고 이렇게 모이니까 술자리도 제가 여러번 가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 김용환 신부님하고 연락이 돼서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얘기 들었어, 씨, 이렇게, 하하. 거기 방 있잖아, 방도 2개 씨, 지하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가 컨테이너에 살다가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느꼈을 그 규모나 편안함과 그 감탄사 나왔을 것보다 아마 더했을 거예요.

이형진 완벽한 공간이었네요.

정성열 완벽했어요. 방음서부터 정말 완벽했어요.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잖아요. 진짜 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뭐 앞드려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김용환 신부님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그냥 씨, 여성스러웠거든요. 그 신부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공간도 얻었겠다 이렇게 해서 맹연습을 하게 돼요. 정말 맹연습.

이형진 그러니까 리더는 기량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열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정성열 오전에 모이면 점심 먹기 전에 하고 밥 먹고 나서 술 먹을 저녁 때까지 특별한 일은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귀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중간에 아까 제 개인적으로 연습 이렇게 공부하러 갔던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거기 가서도 지도도 또 받고 어느 정도 돼야 가잖아요. 준비가 안됐다면 망신만, 나 욕이나 먹지, 이게 교수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따르릉 땅 땅 다 땅 치고서 한번 쳐보

라 이거예요. 아, 못 치면 진도 안 나가, 하하. 하여튼 엄하게 한 열 달 가까이 진짜 엄하게 해서 자체 발표를 했었어요. 호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이형진 85년 말에?

정성열 아니죠. 86년도죠, 초에. 그래서 초여름, 가을쯤 돼서.

이형진 86년 5·3 전에 시작했네요.

정성열 5·3 때는 저 혼자 참여하게 된 거구요. 그때는 막 연습하고 조직으로 전환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을 마치고 조직명을 정하고 단체 조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 때에 도움 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이형진 신부님이랑.

정성열 신부님은 그런 공간 활용이나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격려하는 제일 큰 역할이죠, 사실은. 그 당시면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 형편없을텐데. 격려금까지 주시고 너무 고마웠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도움 받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라원식이야.

이형진 양원모?

정성열 양원모. 어떻게 나타났는지 부르지 않아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형진 성당으로요?

정성열 예, 그 당시에 그 형 집이 수원이었다. 꽤 멀었는데 거의 매일 사무실에 와서 협의하는거야, 난 알았으니깐 선배는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협의하는데 자기도 꺼달라고 해서 꺼졌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렇게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도움을

받았어요.

이형진 방향성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정성열 그런 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그때 형이 조언을 해 주고 그랬었죠. 바람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이야기를 좀 심하게 할 때는 내가 제지 시켰어, 형, 여기까지.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4명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형에 의해서 이렇게 변곡,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왜곡되기 싫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조심을 했는데 아무튼 큰 역할을 했어요, 그 형이.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도 많이 쫓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대중 또 알음알음 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강습을 했던 거죠.

이형진 전문 놀이패로 한광대라고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성열 아니, 아니요.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맹렬한 연습을 하고, 학습도 하고, 근데 학습을 이렇게 싫어하더라고, 영준이하고, 영철이가. 그래서 뭐 그 나이에 또 뭘 또 하라 간단한 것들 저는 이렇게 하다가 86년도 이정도면 되겠다는 내 판단이 들어서 한광대를 만드는 거죠. 누구 발상이었는지, 아마 라원식 발상일 거예요. 한광대라는 이름이 누리 편광대.

이형진 한광대, 그러니까.

정성열 그렇죠, 큰 광대다인데 들어보니까 좋아요. 나도 뭐 몇 가지 이렇게 냈는데 그 형이 얘기한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내

거 뭐 포기하고 좋다 다른 사람은 어떠냐 뭐 이렇게 다 좋다 그래서 한광대가 만들어지게 돼서 창립 공연을 했어요. 아, 창립공연을 성당 지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왔고.

이형진 그제 86년 말.

정성열 예, 그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요.

이형진 성남 지하실 연습장을 공연장으로 해서?

정성열 공연장으로 해서 창립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떡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신부님들 다 오시고, 선배들도 다 오시고 그때 그날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성대했던 건 맞아요. 그렇게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형진 그러니까 전문 놀이패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성열 놀이패 한광대,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전국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형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전문 놀이패, 그러니까 운동과 무관하게.

정성열 있었죠. 그건 있었어요. 김득수 패나, 수표나 패나 이렇게 있었는데 소위 운동권 출신이.

이형진 어떤 최초였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 대중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했다, 놀이패를 만들었다, 이건 아마, 글썬요,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형진 그렇죠, 전문성을 갖춘 수준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정성열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 갖추지 않으면 이름 붙이지도 말자 제가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아, 저야 뭐 오래 했기 때문에 손에 익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나 특히 영철이 이 친

구는 북을 치는데도 미묘한 엇박을 내거든요. 잘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 송질머리가 드러워가지고 치던 뿔과리를 던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연습하다 막 울고 그래서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하.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냥 끝나고 술 먹으러 가면 영철아... 하하. 서로 다 아니까 아무튼 제가 욕심이 있으면 많았나 봐요.

이형진 그 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락이나 이거에 대한.

정성열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들 수준이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형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욕심이.

정성열 그때 문화 어떤 전자기기가 카세트 테이프가 그게 범용, 할 때 었거든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전문패.

이형진 비교해봤어요?

정성열 못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근데 어느날 들었더니 우리 잘 치는, 하하.

이형진 느낌이 왔어요?

정성열 자신감이 생겼어요. 됐다, 대중들 앞에서 자신있게 우리 모습 보여도 되겠다, 설득력 있게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 내 얘기가 먹히겠다, 이제는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조직명서부터 그 이후에 활동 중장기 계획 세우고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광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광대 또 인천에서 그런 게 처음이다 싶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 노조 활동, 특히나 택시 회사가 당시에 한 50여개 됐었는데.

이형진 택시회사 50여개고 그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죠.

정성열 노조, 우후죽순처럼 현판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노조 위원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근데 와서 좀 해달라, 왜 안 해줘.

이형진 노동조합들이 백운 심정동에 있는데.

정성열 맞아요, 택시 회사들이.

이형진 본보기였죠.

정성열 그래서 가서 현판식을 해주니까 택시 동종 업계 노조 관련돼서 준비하거나 어떻게 여러 과정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다 와서 보게 되고 좋거든요. 여기저기서 제 기억에 한 스무군데 갔지 싶었는데.

이형진 그쯤 됐을 거예요. 김장수 열사.

정성열 아, 잘 알죠. 경기. 그때는 개인적으로 저기 집회 때 갔었어요. 구월동에 살 때, 전 개인적으로 참여했었죠.

이형진 한광대로 가는 건 아니었고?

정성열 그때가 몇 년이었죠?

이형진 87년에.

정성열 87년에? 그때 왜 개인적으로 갔나 모르겠다. 그 시위 집회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형진 장례 절차 자체에 이렇게 풍물을 안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성열 갔으면 초대 받았으면 당연히 갔죠.

이형진 그렇죠, 초대받았으면 풍물을 동원했으니 당연하죠.

정성열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막 그 장례비나 이런 거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문화 형식을 활용할 것인가 그때 뭐 만장도 있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럼 완전히.

이형진 미술 작가 분들.

정성열 작가님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초라하고 좀 안 됐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무슨 개업식, 그런데 일반 개업식이 아니라.

이형진 단체.

정성열 그렇죠. 아니면 그 단체 뭐 축하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머머하게 출동을 했었어요. 보통 출동한 게 아니었고 더불어서 대중 강습을 하게 되는데 뭐 역할분담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담당, 일반인들 담당, 노동자 조합 일반, 개인적으로 오는 노동자 담당, 또 조합원들이 와서 하는 거 담당, 또 전교조 저 인천지부 김기열인가.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

정성열 문화패 거기 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단체로 와서 또.

이형진 그럼 주로 그 성당에서 다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는 안했습니까?

정성열 안했어요. 사무실은 그 2층에 방이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책장 겸 악기 보관소 하나는 회의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하여튼 일반인도 뭐 이렇게 또 뭐 또 다르고 그래서 아우, 꽤 많았어요.

이형진 성당이 그것 때문에 꽤 붐볐겠습니까.

정성열 후문에 있었어요. 그게 정문으로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후문

쪽으로 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니까 정문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통과하니까 어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몇 년 있으니까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시끄럽다, 뭐하는 거냐, 교회에서 갖하냐, 그걸 다 이렇게 무마해주고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해준 거는 김용환 신부님하고 호인수 신부님, 김용환 신부님은 아마 쫓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호인수 신부가 꼭 쥐어 있었거든, 하하.

이형진 나중에는 전통혼례 같은 것도 살려내게 되나요?

정성열 그래서 87년부터 민속혼례, 전통혼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사실 전통혼례가 고리타분해요.

이형진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정성열 이를테면 뭐 신랑 신부 맞절이 있거든요. 그럼 뭐 신랑 신부가 먼저 절하는데 과정이 이래요. 신부, 신부 사 배. 아이고, 야, 이걸 아니다. 그것부터 잘못됐잖아요. 왜 여자는 네 번 절하고 남자 두 번 절 해? 더 빠서 뭐 합판주 하는 거나 양가 부모가 이걸 평등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혼례를 지금 시대정신에 맞게끔 새로 짰어요. 우리 지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 버렸는데 그 자료는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남겨놨을 거예요. 이거 혼례 집사를 제가 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걸 진행을 제가 아니까.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진행을. 길놀이 해주고 옷 갈아입고 진행을 다 한 육십 몇 쌍 됐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집안 가서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것도 아마 손에 꼽히게 최초이지 싶어.

이형진 전통 혼례가 도입되는 또 계기가.

정성열 예, 맞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옛날식으로 하는 건 성대, 뭐 또 지방 유교, 그런 분들은 전통혼례로 그대로 하는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혼례가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연구해서 새로 짰으니까 근데 그 역할에 라원식 씨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혼례를 많이 하게 되죠. 일반인들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할 때는 좀 그래요. 뭐 안영근 할 때나 이용식 할 때나 누구야, 최근식 할 때나 뭐 주변 사람들 많이 해줬거든요. 가톨릭 회관에서 하고 또 성당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다양했어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 임기응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일반인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제일 바랐던 거예요. 아, 제일 바랐던 게 일반인들이, 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70년대 초에 탈춤이 민속극 연구에 비슷한 명의로 대학가에 뿌리 내리면서 그것이 자가 발전에서 마당극으로 자기 변화를 거치고 시대 언어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운동성을 가질 때에 그 모습과 저는 대동소이하다 같은 맥락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옛날 거,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시대에 도입해서 이 의식으로 가자, 난 그 관혼상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그나마 제래거든요. 제래도 뭐가 있어요.

전 엉터리라고 보거든요, 그나마도. 매장할 때야 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이나 뭐 장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형진 혼례는 축하하는 자리니까.

정성열 당연하죠. 그러니 관이나 뭐 제래나 상, 이런 거야 뭐 옛날하고 다르니까. 근데 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그게 무슨 혼례예요. 아무 의미 없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순 몇 쌍 해주고 100번째는 제가 하기로 했던 거야. 100번째는, 내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백번쯤 나다, 근데 그 후에 저희가 했던 방식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혼례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걸 보고.

이형진 성공했구나 했습니까?

정성열 고마웠습니다.

이형진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정성열 인천 청학동에 거기서 마을과 이웃이라고 마을 공동체를 매년 행사를 하거든요. 요즘에 아까 10월 달이나 거기서도 은혼식이나 금혼식 다시 혼례를 해요, 부부가. 거기에 언제 한번 대표가, 아니, 점점 한번 와서 봐줘, 한번 오시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했던 거랑 거의 같아, 내 얘기 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그러니까 그때 머리 맞대고 어떤 형식을 만들었던 게.

이형진 그게 구성되고 또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정성열 맞아요. 그때 기초가 튼튼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2부 끝)

정성열 문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지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형진 실제로는 전문 연회패로, 운동적 관점을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시도였거든요. 그게 지역사회 내에서 당시의 운동권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을 텐데, 그 과정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성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로운 사회, 평등이 담보된 사회, 자유롭게 모두가 살 수 있는 삶을 저는 꿈꿔왔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민중이라고 규정했던 계층들을 보면 노동자, 농민, 또 혼한, 그 당시 흔히 했던 얘기로는 도시 빈민 뿐만이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터에 문화적으로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가져보자, 그런데 그게 누구나 얘기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쟁과리 쳐가지고 무슨 의식화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운동성을 가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막 같이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그 탈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말 그대로 탈춤에 가장 힘이 무엇이나 했을 때는 나는 사회 변혁운동이었다고 봐요. 물론 그때는 현 사회를 풍자하고 고발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보해 냈지만 그런 것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데에서 저는 원초적인 출발점이 됐던 것이었죠. 나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광대라는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놀이패였었고 놀이패 한광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도화선 역할,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놀이패 한광대가 구심점이 됐던 건 맞는데 문화 예술 운동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특장점을 가지고 미술 운동하는 사람, 노래 운동하는 사람, 또 연회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면 애국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총체적 그런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상생 구조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도 그런 거 봤었고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우리 시대 해보자 그런 제가 아까 큰 꿈이라는 건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면 학생들에 걸맞는 교육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공유하는 또 일반 대중이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각의 그 많은 고민 속에서 그걸 좀 도출해내자, 표준을 좀 만들어보자, 아까 민속혼례 이런 형태로다가 교과서를 좀 만들어보자, 물론 없겠지만 처음에 시도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게 후대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로 끝내는 운동은 아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사업이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이것은 필요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거의 뭐 본능적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공부하면서 그런 걸 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패 한광대를 만들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그 주변에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하려고 했거나 이미 조직이 돼 있거

나 그렇게 하는 그 문화패들을 봐왔었어요. 그래서 놀이패 한 광대가 내가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중 되게 되더라고요. 한광대로 사람들이 모여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토론 구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후인가, 3년 후에, 2년 후가 마지막에 제가 활동했던 지역 민중문화 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이형진 인천지역 민중문화 연합?

정성열 그런 조직체가. 사실은 그런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놀이패 한광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맞아요.

이형진 그때 당시에는 그 새로운, 그러니까 민중문화라는 차원에서 여러 분야가 모이게 되는 건가요?

정성열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그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 변혁을 위한 자기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형진 그림은 주로 누구 어떤 분들이었어요? 성효숙 화백?

정성열 성효숙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 친구는 아마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고.

이형진 주로 노동 현장에 있었죠.

정성열 그렇죠, 현장에서 활동했고 허용철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형진 교사.

정성열 예, 지금 퇴직해서 강화에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허용철 저보다 1년 선배죠. 허용철 선배가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송의동 어디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만장 걸개그림을 그린다

든가. 사실 5·3 때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돼서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전에는 안영근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만났는데 사람이 그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동지구나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랬었죠. 그 모임에는 나중에 놀이패로 간 친구도 있고 안영근 선배 본인 누구나, 김말숙이도 그 모임에 있었고 그 모임하고도 개별적으로 인간, 뒤통, 인간관계를 계속.

이형진 미술 운동 그러면.

정성열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소그룹 스터디 그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다가 허용철이는 그 정체성이 워낙 미술이라고 하는 게 강해가지고 그쪽으로, 김말숙 씨도 그림 쪽으로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노래 운동 쪽은 아, 참,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 서울대 최도원을 비롯한.

이형진 최도운? 여자, 그거는 한참 나중인가요?

정성열 이름을 들으면 딱 알텐데 내가 잘 몰라요. 하여튼.

이형진 인천에 노래 운동 하던?

정성열 그때 8, 7명이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친구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하고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 병으로 죽은 그 아이하고 주도적으로 순이라는 친구도 있었다.

이형진 놀이패 산하?

정성열 맞아요. 산화였어요. 산하, 실력도 출중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또 대학 쪽에서 문화패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도 이렇게 연대했었고.

이형진 산하는 인천에 있는 놀이패였나요?

정성열 인천에서 시작했고 인천 애들 중심으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산하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광대 공간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들 모임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녁 사주고, 술 시중 드는 일 그런 거 했었지, 그리고 향후 조직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는 생각이 딱 일치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준비 작업이라 그럴까요. 밑밥 작업들이 상당 부분 일상에서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일손 나눔,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성섭이가 당시 일손 나눔 거기에 활동했었기 때문에.

이형진 거기는 문화운동 그룹이었나요?

정성열 문화 활동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이를테면 노조 현장에서의 지원 활동, 노래 지원, 기타, 하여튼 나름대로 노조 지원 활동, 이런 걸 꾸준히 했었죠.

이형진 김일섭?

정성열 일섭이 선배, 일섭이 형하고 저는 친분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그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88년 한광대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1년 만에 어마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대중 교육 활동도 있죠. 민속혼례라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대학이나 뭐 다른 지역 문화패 교육 활동, 가천문화패랄지, 아까 얘기했던 뭐 간호전문대학이랄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지원 활동, 굉장히 많았었고 나중에 88년도에 시작돼서 경제적으로 정말 황당

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농치고 지나갈 뻔했는데 김일섭 선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경기간호전문대학의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암암리에 거기 문화 동아리를 엄청 지원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랑 모임 가질 때 학생회장이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그 친구가 가족인데, 뭐 대우 그룹하고 관계된 가족이 있는데 용인에 대우 중앙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서 매주 연수를 한답니다.

이형진 전국 직원 데리고?

정성열 예, 전국 직원이 수십만 명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과장급, 전국 단위 과장급, 또는 뭐 신입사원, 사무직도 이렇게 있고 노동자들 같은 거, 현장 노동자들, 아니면 강제로 뭐 노조원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노동자들 연수였고 절반 정도는 사무직, 매주 하는데 노동자들 교육에 내가 그럼 참석할 수 없겠냐 얘기가 잘 났어요. 연수원 그 책임자가 저희 사무실로 왔죠. 근데 허투루 막 갈잡은 외관이었으면 아마 안 댔을 겁니다. 근데 성당에서 뼈까번쩍한 공연장도 있겠다, 사무실도 제대로, 회의실에도가, 자료실에도가 이런 거 보니까 믿음이 간 거예요. 그 전에 탄 데서 했답니다. 근데 나를 보더니 우리 조직을 보고 공간과 이게 여러 그 조건을 보더니 오케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우연수원 연수 과정에 마지막 날 밤 프로그램을 맡은 거예요. 3박4일, 4박 5일 자체 교육을 하겠죠. 그 마지막 날은 그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요. 염병, 운동장에다가 차려 놓고 술도 있고 먹어가면서 놀고 공동체 놀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공연만 했대요. 근데 우리는 사물놀이 공연하고, 민요 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 놀이를 했던 거예요. 아까 2,000명을 내가 했다는 게 바로 거기서 했던 거거든요. 이성도 신부님 있던 성당 거기 신자들, 뭐 수백 명 있는 거, 뭐 그 경험들이 있고 주안 5동 호신부님이 계실 때 학교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할 때도 이렇게 했었고, 2,000명, 같은 연배의 같은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조건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런 경험이야 나와 뭐 능구렁이었으니까 잘 먹혔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덟시에 시작을 했다, 저녁 먹고 시작을 하면은 열 시나 열한 시에 끝나는 게 맞는데 한 시 두 시까지 안 가요. 끝까지 밤새 놀자 뭐 끝까지 놀아줬어요. 놀아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놀아요. 속으로 이렇게 모이면 또 술도 먹고 뻘하잖아,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우리가 노린 게 그거거든.

이형진 한번 풀어보세요.

정성열 하하,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가다 보니까 소위 그 수고비를 받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출동하면은 거기서 버스를 보내줘요. 처음에는 승용차 세 대를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도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대우차에서 나오는 차, 로얄, 뭐 듀크, 뭐 이래서 그렇게 해서 소수만 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버스 달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 한광대 단원이 있었고, 준단원이 있었는데 준단원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이 가자, 그것도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갈 때는

열댓 명, 승용차로 뭐 감당이 안되니까 또 악기도 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장비도 싣고 버스로 나중에 다녔는데 하 여튼 출연료가 상당했어요. 거의 관리자들, 연수원의 관리자들도, 또 책임자까지 대 만족이었었나 봐요. 결과가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소개해준 학생회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선배님 교육받은 사람들 이렇게 쓰잖아요. 뭐 좋았던 거, 개선할 거, 항상 최고로 인기 좋았다. 그러니까 횡수가 늘어나게 돼요. 관리자까지 하게 해달라는. 뭘 할지 사실 고민했어요. 그 사람, 저 사람들하고 뭘 하지, 아니다, 하자, 내가 하자 했고 내 의견에 라원식이 공감했고 관리자들도 했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대우가 그때 침몰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죠. 6개월 이상은 했는데 한 달에 4번 가다보니까, 주말에 가는 거니까 누적된 군자금.

이형진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성열 아,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강습료나 아니면 어디 노조 현관식이나 아니면 어디 활동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뭐 결혼식이랄지 그걸 다 차곡차곡 해서 한도 내에서 공동 분배했어요. 잘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대우를 통해서 군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니까 아니다, 최소 생계비는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서 그때 가족이 있던 성섭이를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당시 돈으로 꽤 컸었던 것 같아요.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이형진 생활비로 가능했다는 거죠?

정성열 20만 원으로 생활했거든요, 그 당시에. 술은 공동으로 먹거나

아니면 건방지게 나는 5만 원을 더 가져갔어요. 개인 활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하고 합의하에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너 그때 많이 가져갔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 하하. 농담이고. 그래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해준 게 사실은 대우였어요. 아,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수익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대학 공연을 가게 돼요. 축제 때문에 유명 가수들을 부르잖아요. 아까 나왔던 정태춘이나 또 박 모씨, 향수 불렀던 박은수하고 같이 불렀던 가수, 아무튼 그런 사람들 오는 자리에 저희들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형진 그 정도가 됐네요.

정성열 대학 축제 때도 참견하게 되죠. 거기서도 출연료 만만치 않아요. 어쩔 땐 가수보다 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중에 인문연을 만들고 주안에 그 빌딩 한 층을 전체 얻어서 내부 방음 장치하고 모든 구성 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자금이 그 자금이었어요.

이형진 드디어 성당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지네요.

정성열 성당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따로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게, 내 욕심은 거기 사무실이 두 개 우리가 썼는데 잘하면 거기가 방이 네 개 있었어요. 각각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 게 확 불을 냈어요. 준 단원이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단원으로 올라올 아이가 퇴근하다가 담배꽂초를 관리를 잘못해서 성당에 불을 낸 거예요. 근데 뭐 다 탄 건 아니고 우리 사무실만 그 책이 타면서 그때 비축했던 도서, 사회과학 도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놈들이 뽑은 연기가 그냥 끊어,

다행히 그 성당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에 순찰 들어가 그 연기를 발견하고 다행히 소방차 와서 끄는 바람에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죠. 다음날 불러가서 어떻게 할 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얻었던 게 주안역.

이형진 주안역 뒤였죠?

정성열 앞이죠. 남쪽 역 앞. 아니, 공단 쪽이 아니라 시민회관 쪽. 주안역에서 나오면 큰 길 있잖아요. 그래서 동암 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조금 가면 9층인가 8층 건물이 있어요. 거기 6층인가 꽤 큰 건물인데 그걸 통째로 다 얻었어요.

이형진 혹시 스페인 하우스?

정성열 그거는 아무튼 그 공간을 얻게 되어 그전에 각 단체들이 연대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들 좀 충돌들이 미미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가끔 만나서 협의 좀 하자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문화 사랑회, 우리가 우문사 했던 게 그 당시 조직 행태였었죠.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그냥 바로 다른 거 없대야, 그냥 같이 가자 연합으로 가자, 그 당시에 서울에서도 민중 문화 운동 연합 형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뭐 애오개 있던 선배들이 큰 역할을 했죠. 인천에도 지역 그 이름을 따서 하자 그래서 서울 쪽하고도 소통을 해서 인천 지역 민중문화 운동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되죠. 주안 그 공간에서 그래서 창립공연하고 또 초청 공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주 거하게, 근데 뭐 돈 없으면 못했을 텐데 여윌 돈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호인수 신부님이나 인하대 최 교수님.

이형진 예, 최원식 교수님?

정성열 김영규 선배, 교수도 마찬가지로 황선진 선배 하여튼 그분들을 고문으로 다 일일이 내가 뭐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다 해가지고 고문 부탁을 했더니 뭐 최원식 교수는 집에까지 찾아왔다니까. 거기 무슨 동에, 인천, 도서관, 옛날 집인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아 해줘요, 그랬더니 알았어 인마, 다 모시고 성대하게 잘 치렀어요. 그리고 연합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구체 논쟁이 나오고.

이형진 그때 본격화 됐죠. 초대 회장으로 정 선생님이 취임을 하신 거네요.

정성열 그러니까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서 제일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거 나는 다 봤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하자 했던 거였어요. 근데 뭐 본의 아니게 의장이 됐죠. 그래서 초대 의장이 됐었고.

이형진 문화 운동 각 영역을 쪽 망라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였습니까, 풍물연희 그리고 미술, 문학 쪽까지도 좀 포괄했나요?

정성열 하여튼 그 짧은 10년 가까이 경험이 다방면에 걸쳐서 저한테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게 정말 큰 토양이 돼서 지엽적이 아니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트지 않았나, 저로서는 뭐 정말 고마운 10년의 삶이었죠. 그래서 의장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좀 펼쳐보자 했었는데 그때 지랄맞게 선택적, 이렇게 정치 활동,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내부에서도 모임의 핵심 담론이 그거였었죠. 어떻게 조직 활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긴데 사실은

한광대를 조직하고자 했던 의도랑 규모가 커졌더라도 인문연이라고 하는 조직이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계급, 계층을 망라하는 그런 교육과 조직과 동력을 갖춰내는 그래서 연대했을 때 진정한 힘이 생기고 혁명이 그런 거를 함부로 말하지 말자, 힘도 없는데 무슨 그때 힘을 갖췄을 때 한칼에 만드는 게 혁명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직 활동을 좀 해보자, 모든 계급 계층을 망라해서.

이형진 ‘대동세상’이.

정성열 ‘대동세상’에 했던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그거예요.

이형진 농민 조직 활동 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됐고, 또 누구죠, 자꾸 제정구 선배가 했던 저쪽 그 철거민을 왔던 거기 어디예요, 신천리에. 거기도 자주 갔었어요. 그거라든가 모든 경험을 했던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광대에서 조직의 역량을 어디에 분배하는가, 둘이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조직원들 대부분이 활동가적 성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활동에 조직력을 소비해야 된다, 대중활동, 문화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간만 걸리고 비생산적이고 정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이게 무슨 결과적으로 문화선전대 역할, 선전, 선동대 역할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집중해야 된다, 정치 투쟁에 저는 쌍수 들고 반대한 거죠. 아, 그땐 정말 싫었어요. 그게 중요하다, 거기에 선택해서 집중할 정도의 우리 힘이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가고 그 힘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많은 조직원으로부터 부정당했고 뭐 좀 소외당했죠. 힘들었어요. 진짜 제일 격하게 부딪혔던 게 송성섭.

이형진 한광대는 정회원과 준 이렇게 나뉘져 있었어요?

정성열 준회원.

이형진 단원과 준회원.

정성열 준단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형진 단원은 그러면 아주 제한적인데.

정성열 5명.

이형진 원래 창립했던.

정성열 예, 예. 난 인문연이 만들어지면서 준단원들 다 올려주려고 그랬어요. 한 5명 정도, 아까 얘기한 선하나 그다음에 현주나. 또 현규, 창규, 제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슬쩍 언질을 줬던 아이들이에요.

이형진 어쨌건 정 선생님은 전문 기량을 일정하게 갖지 못하면.

정성열 안 쳐줘요. 아무리 정신무장해도 네가 그쪽으로 해, 문화, 그 위장하지만, 네가 거짓부렁으로 탈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다가 가면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문화의, 그러니까 뭐 탈춤이든 풍물이든 미술이든 어떤 예술 장르로서 접근하지만, 학습으로 가, 정신 교육으로 가, 왜 같잖은 거 갖고 덤빌려고 그래, 그래서 나 그건 극단적으로 한 건 아닌데 좀 멀리 하려고 했어요. 또 그렇게 늘 얘기했고.

이형진 그게 첨예하게 갈리는 시점이네요.

정성열 맞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었어요. 몰라요, 이렇게 지금부터 지

만 좀 독선적인 게 있어요, 제 생각을. 강요는 안 하지만 얘기를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설득하고, 그 와중에서 그런 것과 아까 정치 투쟁과 일반 조직 활동에 있어서의 그 역량을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 그런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형진 90년대 초반이었습니까?

정성열 그렇죠, 90년, 맞아, 얼마 안 있어서 6개월 이내로.

이형진 진통을 이렇게.

정성열 엄청 큰 진통을 겪게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좋은 건 하나든가 뭐 떠나든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저는 떠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형진 1년 만에?

정성열 1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 의장이 되고 1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떠났어요. 조용히 떠나고 한 8개월을 두문불출을 하게 되죠. 8개월 동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쪼들죠. 십 몇 킬로 쪼들었으니까 그때 받았던 설움이랄까, 어떤 상실감이랄까 그게 좀 컸어요. 근데 이면에는 아니다, 내가 10년 넘도록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라도 했으니까 뭐 조그만 힘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알량한 자부심도 좀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그만둬야 했던 게 그런 투쟁도 있었고, 또 좀 지쳤었어요. 지쳤었고, 또 사람들은 아이, 저 새끼 장가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뭐 나이가 꽤 됐죠. 그때도 서른둘인가. 하여튼 여성 혐오증이 있었어요. 활동할 때는.

이형진 경기간전 여학생들 상대로 수년 동안 작업도 하셨잖아요.

정성열 꽤 오랫동안.

이형진 근데 여성 혐오증이 있었다구요?

정성열 그 친구들은 너무 예뻐어요. 예뻐는데 어, 이렇게 사귀는 거에 대한 혐오증을, 사람으로 만나는 건 괜찮은데 남과 여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에 혐오가 있었어요. 이건 나 못 할 것 같다, 연애질은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청춘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연애담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한 교회의 예수전이라고 하는 마당극 지도하러 갔다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고 좀 사귀었어요.

이형진 예수전은 70년대 말에 나온 극이었나요?

정성열 82년도에, 82년 12월 24일 날. 그 교회에서 공연을, 교회 청년부가 예수전을 교회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연기도 해봤고 다른 데서 연출 비슷하게도 해봤기 때문에 혼자 다 지도를 할 수 있었어요. 전 과정을 다 한 게 아니라 중요 과정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형진 청년회를, 그러면 예수전을.

정성열 지도한 거죠. 거기서도 좋은 활동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예수 사랑하는 청년들이었는데 예수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범조인도 나오고.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결과가 안 좋았어요. 소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형진 인천에 있던 교회였습니까?

정성열 부친. 굉장히 큰 규모에, 어마어마한, 부친 제 1교회인가. 그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어요, 하하. 결과적으로는 인천교대에서 졸업해서 선생이 됐는데 한광대 강습을 하는데 온 거예요.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저를 기억하고, 막 풍물을 가르치고, 아이고, 참, 아무튼 그때 아마 계속 인문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계속 했다면 제 인생이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이형진 그랬겠죠.

정성열 그때 내려놓으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돈 버는 일에 열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시험도 보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실력도 없거니와 누가 추천을 받아서 건축 자재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일을 한 20년 정도 했죠. 그거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체도 꾸릴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했죠, 돈 버는 일도.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형진 90년대예요?

정성열 90년대? 2000년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 만나서 술 사주는 일, 술값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이형진 정 선생님 그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신 거는 2000년 언제쯤부터였습니까? 2010년경 인가요?

정성열 인천 떠난 게 9년, 14년 됐어요.

이형진 14년, 그러니까 2006년 정도겠네요.

정성열 그때 떠났다가 다시 인천 갔어요. 가서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다 정리하고 지리산 가게 된 게 지금부터 9년 전.

이형진 그 이후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

늘 얘기 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정 선배님이 소위 대동세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계 이렇게 전문적인 역량들과 교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세 분 정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의 인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종교 이렇게 해서 김근태 선생님에 대해서 그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추억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화로울까.

이형진 김근태 선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얼굴도 우울했어요. 하하.

정성열 하하, 압니다. 근데 저한테는 평화롭게 보이고 목소리가, 고통과, 암울했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당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렇게 제 눈에는 성자로 보였어요.

이형진 형님이라 그랬어요?

정성열 네.

이형진 존대 안 하셨어요?

정성열 안 했어요.

이형진 김근태 선배는 아무한테도 다 존대했어요.

정성열 아니요. 저한테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는 형수님도 만나서 그때 차만 마셨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언제 했냐면 제가 속초 갈 일이 생겼는데 고속

버스에서 또 만났어요.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많은 얘기가 나가고 그 형님, 나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강원 속초에서 강의하는 것까지 제가 참견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연이나 이런 데서는 그랬죠, 공적인 데서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YWCA에 야학할 때도 공적인 자리니까, 근데 좀 사적으로 알게 되고, 술은 안 먹어봤어요. 밥은 여러 번 먹었고 하여튼 저한테는 뭐 나중에 지리산 가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우리 동양학, 동양학을 위시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유추해 보면 그냥 성자다, 성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활동했던 거는 뭐 그런 인사연과 YWCA 그리고 뭐 사적으로 또 집에 같이 가자 해서 집에 가서 차 마셨던 거 하고, 차에서 진짜 우연히 만나가지고 당신 얘기 듣고 내 얘기 조언 구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계에 들어갔을 때는 뭐 전혀.

이형진 그 노동 쪽으로 유동우 선배님과 인연이 깊으셨죠.

정성열 깊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쪼만하신 분이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셨고, 아니, '어느 돌맹이의 외침'인가 그걸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까지 납니다. 근데 그 실물로 딱 영접했을 때는 좀 각쟁이 같은 생각이, 하하. 진짜 작은 돌맹이다. 그래서 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진 않는데 차돌 같은 사람이구나.

이형진 초반에 한참 어려울 때 노동운동을 실제로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 선생님이 같이 결합하셨으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정성열 제가 처음 뵈는 임명구 선배 통해서 그 안양 노동자회가 거

기에 민요하고, 마임, 공동체 놀이, 율동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가서 만나고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소위 종강날. 그 야학이 마지막 날 야유회를 갔어요. 그냥 기억이 생생하네. 수리산으로 왔어요. 수리산 계곡으로 갔는데 그때야 교통이 좋았지도 않고 외곽 도로 뭐 엄두도 없었고 그때는 걸어서 다 갔죠. 먹을 거 싸들고.

이형진 한 50명 갔어요?

정성열 네 꽤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갔어.

이형진 70년대 말?

정성열 아니죠. 80년대 초죠. 가서 거기서 껌안고 기도 뭐 하고, 음식 먹고, 소원 빌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가르쳤던 거 이렇게 함께 하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계곡이 집이 많았고 그 조그마한 계곡에서 가지를 누가 잔뜩 잡아와서 나뭇가지 꺾어서 짝 깨가지고 그 산에서 불 지펴서 이렇게 구우니까 보고 이렇게 걸어 먹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형진 그때도 또 놀이 문화를 전수하셨네요, 하하.

정성열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형진 마지막으로 호형호제 하시는 호인수 신부님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정성열 그래도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글에도 조심스러워요. 신부님에 대해서 그냥 글을 두세 번 썼어요.

이형진 진짜 호형호제 하신다면서요. ‘인수야’ 그러신다면서요.

정성열 아니야, ‘인수형’ 그랬지. 인수는, 띠동갑인데. 하여튼 신부님 덕에 정말 물질 토대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래서 신

부님 덕에 소위 성당에서 국악 미사를 하거든요. 부활절이나 미사를 국악으로 했어요.

이형진 창으로 했다고요?

정성열 악기, 오르간이나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성가 부를 때, 장구 치고, 팽과리 치고, 북치고 했어요.

이형진 그러면 성가는 어떻게 했어요?

정성열 성가하고.

이형진 창으로?

정성열 아니.

이형진 아, 성가는 하는데 반주는 이걸로(국악으로)?

정성열 그렇죠, 나는 모든 반주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음악을. 어떨 때는 악기도 2개 쳐가면서, 국악 미사가 최초였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형진 앞으로는 없을 거야, 근데.

정성열 아니, 지금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활성화돼서 어떤 신부님이 성가를 아예 국악 가락에 맞게, 국거리 장단에 뭐 세마치 장단에 이렇게 편곡으로 해가지고 뭐 부르기도 해요, 지금은. 국악 미사가 일반화 됐어요.

이형진 최초 한 게 몇 가지 돼요, 하하.

정성열 하하, 4월 초, 이 양반이 제물포 성당 있을 때인가, 그 위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성당 입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성당에다가. 자, 봐요. 신자들은 이게 뭘 짓거리여, 성스러운 교회에다가 무슨 불교 얘기하고, 말은 하고 싶어도 신부님이 했다고 하니까 속상했지. 근데

불자들이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와, 성당에서 부처님 축하하는 글을, 저 현수막을 걸었네, 거기 스님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스님이 왔어.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 절에다가,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화분을 보내온 거야. 호인수 신부가 이만한 거 받았더니 다음에 이만한 걸 보낸, 하하. 주머니 받거니 시간이 흐르니까 거기 불자나 가톨릭 신자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나, 이게 하늘 세상이다,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호인수 신부님은 대단하다. 초창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하다가 영세를 제가 90년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받았어요. 지금도 김포 계실 때 받았는데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이 술 마시면서 교리 문답하고, 네 이름 다 정했다, 네 대부 다 정했으니까 뭘 모일에 몇 시까지 와, 이 새끼야, 야, 교리 문답 좀 하자. 오답을 다 냈어요.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 신자 되기 위해서 여러 전례나 가톨릭 신자로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하는 시간인데 저도 엉터리로 했어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 그런데 정답을 알면서도 나는 오답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지만 그걸 다 받아 주시는 아량도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어떤 때는 그분 생각하면 좀 쩡해요. 우리 한광대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엄청 당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됐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나서 얼마나 고마워. 제 위신이 살잖아, 혼도 많이 났어요. 이를테면 저는 뭐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자 후배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절대 고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 예

의는, 아직은 아니니까 좀 지켜내자 대중들 앞에서 네가 만약 편다면 내 마음이 아플거다 이렇게 얘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안역 거기서 대포재 술을 먹는데 불을 낸 친구, 현주라는 아이가 예를 들면 신부님이 여기 앉아계시고 내가 여기 앉았어, 옆에 또 수발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현주란 아이가 맞은편에 앉은 거야, 이거 담배로 예쁘게 피고 있는 후 하고 이렇게(사람 피해서) 뻔으면 되는데 그렇게 아주 봐가지고, 엄마, 딱 보니까 그 연기가 신부님 얼굴로 다 나오네. 그거 성당 끌려갔어. 사제관으로. 너 이 놈의 새끼야, 문화 운동하는 놈의 새끼야, 기본이 안 됐잖아!, 담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래, 이 새끼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됐어, 이 새끼야, 이리 올라와, 식탁에 아주 양주를 꺼내가지고 컵에다가 쿵쿵쿵, 잘못했어요, 됐어, 이 새끼야!, 신부님하고의 기억, 추억이 너무 많아. 정평 사제단 대표 신부로 있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백령도로 간 적이 있어요. 쫓아갔어, 첫날. 백령도에.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부대 사람들, 면장, 뭐 이렇게 관계자들 쪽 와서 백령도에서 난 것 같은 흥어를 비롯해서 뭐 온갖 거리, 뭐 이렇게 먹고서, 나는 덕분에 거기 쫓고 신부님하고 둘이서 쫓래쫓래 진천 성당으로 걸어 올라가서 사제단 안에 들어갔는데 술상이 또 있더라고. 오실 거 생각하고 성당 측에서 마련한 거야, 근데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신부님하고 둘이서 또 술을 먹는데,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이 새끼야, 신나는 노래해, 이 새끼야, 장송곡 부르냐, 이 새끼야, 신부님이 해 봐! 그러면, 신부님 노래 했어. 누구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패티김의

초우를 노래하는데 아, 술도 좀 취했고 또 신부님 마음이 그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또 술 워낙 나도 많이 먹을 때고 지금은 못 먹지 뭐, 그 양반도 하루에도 몇 병씩 먹으니까 취하셨더라고. 처음 봤어.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저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진정해야지, 내가 뭘 한다고,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술 먹으면 돼,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진짜 주변 사람들은 애제자가 정성열이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난 아닌 것 같고 근데 제일 공홀히, 불쌍하게 여기는 집 나간 양,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니까 반겨주듯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신부님은 누구를 딱히 애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는, 그야 뭐 얼굴이 호랑이 상이잖아, 그래서 참 그분하고는 술도 많이 먹었고, 말도 많이 하고 내가 인생 굴곡 있고 힘들 거야, 근데 그 멘토, 나 힘들어 전화하면 목소리 듣고 알아요. 목소리 듣고 알아, 너 힘들구나, 뭐야, 됐어, 나 혼자 삭힐게, 이 새끼, 뭐하러 전화해, 끊어!, 이 새끼야, 아니, 한마디만 할게, 하하.

이형진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정성열 아무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신부님 덕분에 야학이라는 경험도 했고 국악 미사도 했고 또 박종철 추모 인천에서 행사 1주기를 해요. 가톨릭 회관 마당 성당에서 하게 되는데 인천 교구 모든 사제.

이형진 87년이에요?

정성열 그렇죠. 수녀님들 그리고 답동성당 신자를 비롯해서 그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신부님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인산인해에 이렇게 추모 행사에 못 들어오신 분들 회관 내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 1주기 추모 행사를 가톨릭 청년 문화패 노라파치 그 아이들이 하는데.

이형진 88년 1월이요.

정성열 그걸 주관할 못하니까 호신부님이 야, 네가 가서 봐줘라, 그런데 상여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상여 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의미가 맞지도 않고 그때는 문화적 표현 능력도 그렇게 짧고 해서 당시에 활동 같이 했던 후배죠, 1년 후배, 나무 박사 고기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그 놈한테 야 니가 좀 이렇게 알잖아 이 새끼 한번 써봐 그랬더니 A4용지 석 장인가, 계속 하게 한 손에 요령 들고 한 손에 그거 보면서. 팽과리 대신 요령으로. 요령 들고 상여 맨 뒤에서 있는 애들이 다 후렴 따라하고 난 또 선창하고 또 따라하고 이런 아, 그냥 막, 바로 올 일이 없어서 그때 인천에 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난 많이 알았어요. 그때 어느 순간이면 형제님, 나 신자도 아니었고 형제님 신부 되어 주세여, 신학교 가서, 신부들 믿다, 믿다, 그것도 했지만 또 구로에 프란치스코 수녀원 어딘가 아무튼 그 수녀님들 모여서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 1년 동안 또 춤 가르치러 왔어요. 1년 동안. 매주. 그것도 봉산 탈춤. 그 힘든 치마 입고 어떻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더운 바지, 땀이 나, 아유. 어떤 어느 날 무슨 기념일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수녀님들이 마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탈춤 공연을 했다. 관계자들 또 이렇게 사람들 막 가서 공연하는, 아, 나 눈물이 많아요. 너무 그

때 고마워서 그게 또 갑자기 거의 리타 수녀님.

이형진 그 대동 세상을 꿈꾼 우리 정성열 선생님,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에 맺힌 것은 많지만 오늘 얘기 풀어내는 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얘기는 이 정도 정리할까 합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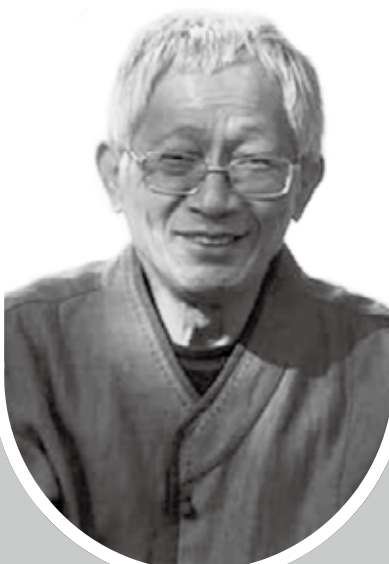
정성열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제일, 그 잘못된 선택이 대학 이과로 간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 문화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때 인문연 의장 시절에 그만 됴기로 해서 어떤 단절이 된, 그만 둔 그 선택이 또한 잘못됐다고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계속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 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더 많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다섯 번 강의나 강습을 나가는데 몸도 불편한데도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무엇이나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잘못된 선택 이후에 못다 한 내 역할을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빛 갚는 심정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들어가서 처음에 그 전부터 해왔지만 소위 그 마음 공부라고도 얘기하고 명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접하고 나서 많이 평온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울컥울컥, 뭐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엇그제도 저 마을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 기다리는데 바로 눈 옆이라서 내려가지고 눈을 보니까 그 벼이삭이 여물고 이렇게 있더라

고요. 그런데 아, 그때 저 놈의 새끼들이 벼이삭의 의미를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끝나고 집에 와서 글을 하나 썼죠. 오늘을 살며 그런 게 울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된 거 같아. 불뚝불뚝하는 거를 좀 죽이고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찾을 때 죽어야지, 아직은 죽어선 안 될 거 같아, 아직은 역할이 있지 않나, 누가 불러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애써준 물론 입장은 다르고 하늘마음으로 그득한 공동선으로 춤추는 이 아름다운 대동세상, 방법은 다르지만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 해왔던 많은 동지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단절했기 때문에 단지 70년대하고 80년대, 10년 관통하는 역할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실 그래요. 그 마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업보인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진 수고하셨습니다.



# 조용명



- 1952년 4월 인천 태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중등지부)
- 박문여고 해직
- 우신고등학교 부임
- 양양 설악고 정년퇴임

일 시 2022.3.30.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조용명

이형진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처음, 시작인데 조용명 선생님과 노미화 선생님. 교육 운동에 헌신하셨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시는 곳이 강원도에서 오늘은 강원도 이 자택으로 저희들이 출장 나왔습니다. 이우재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또 선생님 두 분이 같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용명 선생님이 1953년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노미화 선생님은 59년생입니다.

근데 우선 조용명 선생님부터, 53년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은 워낙 그 전후에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동네인데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로 이렇게 진학하는 과정까지 그 어린 시절 아주 어려웠을 때 인천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 했던 것들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거 또는 제물포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겪었던 뭐, 학창시절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죠. 그때 혹시 민족의식이 있으셨나요?

조용명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런 건 없었고, 음,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불평객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제 좀 사회에 불만이 많았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이형진 아, 예.

조용명 아버지는 유복자예요.

노미화 6.25 때.

조용명 네, 6.25 때 전사했어요.

이우재 그러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부모님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조용명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형진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명 그러면 이제 외숙모님, 외삼촌, 예, 집에서 그래서 생활에 불만이 많았죠. 원래 이제 엄마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상과부였는데 큰아버지가 가평에 살고 있었는데, 가평 설악에서 살다가.

노미화 피난을 내려왔지.

조용명 거기 너무 옛날에 어려우니까. 거기 사촌 형들이 공부를 집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어려서 신동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도 유복자였습니까?

조용명 그렇죠. 내가 유복자죠.

이형진 그니까, 그 혼자였다고.

조용명 예.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군대 나간 다음에 임신한 걸 아는거지.

이형진 아이구야.

조용명 그래 가지고 이제, 공부 시킨다고 이제 인천에 피난민들이 많고 그래서. 인천에 이제 오빠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이형진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조용명 인천에서 다니다가 이제 고2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지.

이우재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디 나오셨어요?

조용명 초등학교 송현, 그래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이형진 그 동네 어디서 사셨습니까.

조용명 화수동.

이형진 해안 가까이 사셨어요.

조용명 아니, 아니, 그, 대우 중공업 근처.

이형진 예, 그 앞에.

조용명 이쪽에 송현 초등학교 바로 그 뒷담 쪽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 윤형배 선생님이라고 사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

이우재 윤형배 선생님 나도 기억나.

조용명 막시즘 얘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말년에는, 저기, 옛날에 일수 놀이로 해서 이렇게 돈 빌려주는 그거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일수놀이로 깔아준 돈을 회수를 못 하는 거야. 받으려 갈 능력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엄마가 못 갚으니까 빚쟁이로 우리 집에 맨날 찾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말이 귀에 속 박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내가 기획한 게 아닌데 우연히 우리 죽은 친구가 있어요.

김석원이라고. 그 친구가 지휘를 하는데, 데모를 하는데 불러서 이제 들어갔지.

이우재 형 1학년 때?

조용명 2학년 때.

이우재 2학년 때에 우리 73년?

조용명 2학년 때가 아니라.

노미화 72학번일 때 아니야?

조용명 어, 2학년 때지.

노미화 73년이지.

조용명 어, 73년이지.

이우재 73년 가을이 됐구나.

조용명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우재 73년 10월.

조용명 데모를 하다가 이제 잡혀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야. 깡통인 거야. 이게 순수 문학 전공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검사가 막 물어보고 말하고 그러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 정치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구치소에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녹녹하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담배 달라고 그러고 왜 밥도 안 주냐 그러고 막 이렇게 맨날 항의를 하고 경찰한테 그러니까.

이형진 영등포 구치소였습니까?

조용명 아니지, 서울이지. 종로 3가.

이우재 아 그거 구치소가 아니라 유치장.

조용명 그러니까 유치장에 있다가 그래서 내가 유치장에서 계속 이러니까 다 내보내는데 나는 끝까지 안 내보낸 거야. 무슨 주동자인 줄 알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서대문 구치소로 갔어요.

이우재 아, 그래요? 2학년인데 구치소로 갔어요?

조용명 어, 그래서 진짜 경찰하고 맨날 싸우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래서 이제 서대문 구치소까지 갔어. 그래서 구치소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유신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했을 때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너무나 놀라 가지고 면회 금지자라고 그래서 이 빨간 딱지(명찰)를 붙였어. (왼쪽 가슴을 가르키며)여기다가 그래서 면회도 안 돼 그래가지고.

조용명 우리 외숙모랑 집 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면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노미화 집에서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지?

조용명 그래, 들어간 거야 알지. 집에를 안 가는데. 신문에도 나왔지.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 국문학과에 진학하시게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용명 국문학 하려고. 원래 문학을 좋아해서.

이형진 순수문학? 아,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학교 다닐 때 뭐 글을 잘 썼다면가.

조용명 아니 아니, 소설을 좋아했어. 소설을 좋아해서 국문학과 갔지.

이형진 예, 2학년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이우재 그건 전부 기소유예인가로 나왔을 텐데. 다 풀어줬어요, 주동자들.

조용명 기소유예로 나오고 학교에서는 제명이 됐다가 대통령령으로

다시 이제 그 복교가 됐어요.

이우재 그래요, 73년 9월부터 10월에 전국으로 데모가 퍼졌다가.

조용명 10월 3일.

이형진 유신 딱 1년 만이네요.

이우재 유신 최초의 대학교 시위가 된 거야, 그게.

조용명 그렇게 해서.

이우재 박정희가 잡아들였다가 그 없던 걸로 풀어줬어.

조용명 73년도에 그게 애네들이 이제 엮으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엮을 게 없는 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 무슨 데모를 주동한 사람도 내가 모르고 전혀 경찰서에서 지랄하는 것 밖에는 엮을 게 없으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엮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국문과에 아주 훌륭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사회 문제를 공부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형진 그러니까 학생 운동에 조금씩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조용명 김명호라고, 이제 황선진이랑 나랑 원래 이제 김도연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김도연은 이제 워낙 바빠서 빠지고.

이형진 황선진 선생님이 1년 선배.

조용명 그렇죠,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대학교 동기고 그래서 이제.

이형진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공부를 하시는.

조용명 그러면서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80년도까지는 막시즘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어. 이 운동권끼리도 그런 얘기는 못 했어요.

이형진 책도 별로 없어서, 일어책 같은 거.

조용명 책도 없어서 일본어 책하고 뭐 영어 책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 친구가 다 번역을 했어. 김명호라는 친구가 지금 서울대 교수로 이제 퇴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는 지금 열하일기 뭐 이런 거 해. 학자야.

이형진 이제 73년 그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김명호.

이우재 73년이 아니라 74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용명 그렇지, 74년에 그렇게 공부를 했다.

이형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당시에 인천에서 출퇴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용명 그렇지.

이형진 그러면 인천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용명 그때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동일방직에서 가까워요, 집이.

이형진 그렇죠, 화수동이니까.

조용명 그래서 동일방직, 사건이 언제지 그건. 한참 뒤인 것 같은데.

이형진 74년정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우재 아니, 그런데 바깥으로 터지기 시작한 건 76년도 무렵이지.

이형진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바뀌고, 73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소식들을 조금씩 들었으니까.

조용명 그래서 내가 그때 동일방직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내가 이제 공부하던 것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거 당시에는 또 이제 분위기가 그랬어요. 무슨 노동자들하고 모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친구 김성원이라는 애는 이제 사회학과니까 이해찬이랑 다 동기고 이러니까 깨네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뭐 야학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이우재 인천에서요?

조용명 인천에서. 호신부(호인수 신부)전에도 주안 5공단에 어떻게 소개를 해서 갔는지 조금.

이형진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박종승 선생이랑 전점석 예, 야학에 이름이 등장하시네요.

조용명 알았어, 어쨌든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저기 무슨 주안 5공단에 도화 5공단 쪽에서 이렇게 도화오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도화오거리 가까운 데 있는 무슨 사업장에 가서, 노조 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애, 정기적으로 가서 뭐 그 한글도 가르치고 또 글쓰기도 하고.

이형진 한글 가르쳤으면 야학을 하셨네.

조용명 그리고 부천에는 사업장이 아니고 무슨 방에서 야학을 했어, 방에서 노동자들 몇 앉고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때.

조용명 나는 뭐 국어. 국문학. 그래 갖고 그 우리나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동, 민주노총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때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그 당시에는 정해진 사람이 없어서 한 교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초등, 초졸이야. 그래서 이 일반 상식이 노동자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상식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우재 내가 잠깐 중간에 확인할 게 있어. 형님이 76년 2월에 졸업하셨을 거 아니요.

조용명 8월.

이우재 8월? 한 학기 늦게 졸업하셨나. 근데 그러면 75년도에 오돌돌 때 친구들 막 잘려나가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조용명 그때는 내가.

이우재 선진이 형 수배되고 도형이 형 수배되고 그때.

조용명 그제 저기였어. 그때. 아닌데, 76년 75년인가.

이우재 75년도 관악가자마자 오돌돌 때 제고(제물포고등학교) 선배들 왕창 잘렸잖아.

조용명 그때 하여튼 경찰이 우리 집에 계속 왔어.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우재 도연이 형하고 선진이 형이겠지.

조용명 어, 도망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석원이도 도망 다녔을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과 형사들이 나한테 계속 찾아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75년도에.

이우재 그런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오돌돌 때 형이 관여 안했어?

조용명 관여 안했지. 그때 김도연이 주로 관여를 했는데, 황선진하고 관여를 했는데 그 뒤 김명호하고 나를 쫓 뺐어.

이우재 74년도에 들어간 전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뺐나보다.

조용명 그런 것도 있고 김명호 개가 워낙 뛰어난 인재야.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개하고 나를 빼고 지네 둘이만 의논을 해서 들어갔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잡혀서 우리가 면회를 김명호랑 다녔는데 김명호랑 나랑 둘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이 압체들이 지들끼리만 하고 어떻게 우리 둘을 쫓 빼냐, 굉장히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줘.

이형진 김명호 선생님도 제고였나요?

조용명 김명호는 부산고등학교, 아, 부산 고등학교가 아니라 경남 고등학교.

이형진 그런데 이제 그 졸업하실 무렵에는 교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조용명 아니,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직과목을 들어둬라 그래 가지고 선배들이 그렇게 보내서 그냥 교직과목을 들은 거지, 선생이 되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늦게 졸업했지. 8월달에, 8월에 졸업했는데, 한 학기를 노는 동안은 75년, 75년 봄에 내가 놀았나 보다. 75년 1학기에 내가 놀았나.

이우재 그러니까 연락이 안 갔겠지. 그러니까 오돌돌 때 빠졌겠지.

조용명 그래가지고 놀아서 가평에 가 있었던 것 같아.

이우재 그러면 가을이예요, 봄이예요? 가을이면.

조용명 모르겠어. 1학기인 것 같아. 한 학기는 빠졌으니까.

노미화 폐결핵에 걸렸다면서.

조용명 아니, 결핵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내가 만 스무 살이 넘으면서 대학교 등록금이 면제가 됐었는데 늘, 군경 유자녀니까 만 스무 살이 넘으면서 그런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등록금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등록을 못했어. 돈이 갑자기 없어 가지고. 그 원래 등록금이 옛날에 내가 2000원만 냈어. 등록금이 없어. 그렇게 쫓 다니다가 만 20살이 넘는 바람에 등록금이 10만원으로 그때 또 막 올렸다는데 10만원을 어디서 준비 하냐고. 응, 맨날 2천 원만 등록금 내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등록을 못 하는 바람에 제적이 됐어요. 어, 그래서 한 학기가 늦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시골 가있었나 그래. 가평에 가있었나 그러는데 가평에 가 있는데 가평에서 잡혀서 서대문 경찰서까지 왔어.

이우재 그래서 왜 잡혔어요?

조용명 그래서 나를 왜 잡아왔냐 그랬더니 너 간첩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석원이랑 저기, 황선진을 찾다가 나를 잡아간 거야. 그래서 나는 황선진이랑 석원이 때문에 잡아가는 줄 알았어. 서대문경찰서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내가 죽은 걸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아니, 내가 왜 죽은 걸로 돼 있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옛날에는 호적 정리를 할 때 우리 큰아버지가 경찰이었거든. 그래서 배급을 많이 타게 하려고 여주에도 애가 있고, 가평에도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 가지고 한쪽 호적을 없애야 되는데 사망 처리를 한 거야. 애네들이 호적을 뒤지다가 사망한 애가, 사망한 애가 대학교까지 다니고 이랬으니까 이건 완전히 간첩인거지. 어, 그리고 출신도 이북 출신이고, 그 부모가, 그래 가지고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여기서 며칠 조사를 받았어. 그리고 풀려났어.

이형진 아버님 고향은 참 어디셨어요?

조용명 황해도.

이형진 황해도? 어머님도?

조용명 어머님도 황해도.

조용명 어, 그래, 그래 가지고 서대문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저기로 갔지. 가평으로. 가평으로 갔고 그게 연도가 확실치가 않네.

이형진 그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교직 이수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본격적으로 하신건가요?

조용명 선생님 되겠다는 건 안 한 거예요. 임시로 간 거예요. 취직을 해야 하니까.

이형진 취직, 76년에 졸업하셔가지고.

조용명 저 졸업을 하고 그 검사를 하는데 체력 검사를 하는데 선생 달라고 체력 검사를 했나봐. 뭐 때문에 체력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이야.

이형진 군대는?

조용명 군대는 73년도에 면제가 됐어요. 73년도에 특수한 그 학번(학적변동)이라고 그러잖아. 학번자들은 신체검사를 따로 할 수

가 없으니까 국군통합병원 가서 했어. 그래서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내가 눈이 워낙 나빠요. 엄청나게 눈이 나빠.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안경만 벗으면. 그래 가지고 그 안과 의사가 나 나오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은 군대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난 줄 알았지. 그래 가지고 이제 면제가 됐죠. 그 면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인천에서 이제 그 뭐야 뭐 때문에 또 서류를 떼어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군대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병무청에서 우리 국군통합병원 가기 전에 징집영장이 나와서 다 징집된 걸로 된 거야.

이우재 그게, 그래 어떤 사건이나 하면요, 73년 10월에 그때 문리대, 그걸로 들어간 사람들 박정희가 풀어주면서 다 군대로 끌고 갔거든? 그래서 형도 무조건 가는 건데 눈이 워낙 나빠 갖고.

조용명 남은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징집된 걸로 된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

이우재 아, 내가 오기 잘했다. 중간에 이렇게 자꾸 풀어야.

이형진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조용명 선생님 됐어요. 이제

이형진 76년,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졸업하시고.

조용명 이제 9월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그랬는데 이제 폐결핵이 걸려서 가평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폐결핵 치료를 했죠.

이형진 그러면 이제 학교 처음, 발령을 받은 거는 78년인가요?

조용명 78년, 우신고에 갔는데 거기서도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 났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교에서.

이형진 아, 우신은 사립고였죠.

조용명 네, 교장 교감하고 싸움이 계속 난 거예요. 보충수업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문제로도 계속 싸움이, 내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던 중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싸우던 중에 애네들이 이제 서류를 교육청에 올렸는데 내가 이제 그 이 기록이 좀 화려하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이 신분 보장을 안 해 주면 발령 승인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교장이 너가 맨날 싸우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신분 보장을 하나, 신원증명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발령 승인이 안 난 채로 2년 1개월을 선생을 했어요, 거기서.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발령이 안 나도 승인이 안 나도 그냥 교사를 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는. 진로 재단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2년 1개월 동안 발령 승인이 안 나는 채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독신이었으니까(이형진-뻑이있었으니까, 조용명-뻑이어뻑어뻑이라고 하는것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만나게 됐고.

노미화 그 사이에 만난 거야, 나를?

조용명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때 그만둘 때가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이우재 대통령 된 건 8월이지. 80년 8월.

조용명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그때 교육 개혁을 한다고 보충수업, 하여간 나간 적 있었어. 교육 개혁이 5월 30일이고 보충수업을 하라고 그랬어,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내가 왜 보충수업을 하나, 난 보충수업을 못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보충수업을 안 했는데 교감이 강제로 보충수업에다가 시간표를 짰 거야. 말도 안 되지, 선생이 승인을 안 했는데 보충수업을 짰으니까. 그래 가지고 교감이 그렇게 짜서 시간표를 다 돌린 거야 그래서 나는 한다고 그런 적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 수업에. 그래 가지고 보충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항의를 하러 온 거야, 나한테. 왜 수업인데 선생님 안 들어오냐 그래서 난 한다고 그런 적 없다. 그래서 그때, 그만됐죠. 그만됐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선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형진 80년 7, 8월쯤이었네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게.

조용명 80년 4월.

이형진 4월.

조용명 4월에 그만됐는데 전두환 반대 데모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월에 가평에 있다가 막 그 데모를 하러 왔어,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집회를 했잖아. 그래서 그 서울역 집회에서 5월 14일까지 막 거기 이제 데모를 하는데 다니다가 5월 14일 날 서울의 데모가 너무 커지니까 재학생 애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비상회의를 했는데 복학생들을 대학생 애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복학생 애들이 너네 이거 해체하면 안 된다, 해산하면 그러면 광주나 이런 애들 다 타격받는다 그래서 해산하지 말라 그랬는데 5월 14일에 거기서 해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학생은 막 군대에서 제대해 발언권이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해산을 하니까 할 수 없이 5월 15

일 날 이제 설악으로 갔는데.

이우재 아 그러면 형은 그때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도 그 대학생들과  
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조용명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차를 타는 거지, 이거  
마누라 데리고 이제 막 데모하러 다니고.

노미화 나 데리고 다니는 거는 그때가 아닌가봐.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은 59년생인데 서울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77년에 이제 서울교대에 진학을 하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서  
울에서 어린 시절 특히 성남 쪽에 이렇게 사셨던 기억이 있겠  
지요.

노미화 아니에요. 어린 시절 금호동 산동네에 살았어요.

이형진 아, 그리고 이제 교대 진학하고.

노미화 성남에 간 거는 고2때 금호동이 철거됐어요. 그때 박정희 시절  
인데 산동네가 집들이 거지같다고 지저분하다고 양성화 정책,  
그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서 보기 흉하다고 다 철  
거하라고 그래서 싹 철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최후까지  
버텼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성남시로 간 거예요.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노미화 육남매, 어, 저는 형제가 많죠. 엄마하고 다 인천.

이형진 뒤, 뒤쪽이었나요. 끝이었어요?

노미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남동생 개가 노광훈이라고 개가 이제 품  
물패 가 있고.

이형진 그러면 77년에 서울교대 진학하시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  
은 공을 보신 건 언제였어요?

노미화 그건 78년에. 친구가 친한 애가 이거 재밌다고 읽으라고 그랬  
어. 읽었는데 나 진짜 순진한.

이우재 뭔가 의도적으로 그걸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노미화 이제 골수 가톨릭 신자로서 나는 이제 맨날 수녀가 돼야 되겠  
다 맨날 기도하고, 이제 수녀가 돼야 되는데 성남시로 가고 응  
봉동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성남시에 있는 단대동 성  
당을 다녔어요. 성남시 상대원동 살았다고 내가. 이재명이 공  
장 생활하던 성남시.

이형진 되게 그때는 상태 안 좋을 텐데.

노미화 친구가 그 책을 줬는데 굉장히 힘들게 읽었어요, 내가.

이형진 성남 얘기예요, 그게.

노미화 너무 우리 집, 금호동의 빗물 새는 우리 집이 장면이 거기 있는  
난장이네 집하고 너무 똑같아.

이형진 앞에 나오는 연작 3개 정도는 성남 대단지 사건이에요.

노미화 어, 근데 그러니까 그 철거될 무렵 우리 집이 상태가 그런 모  
양이었다고. 그러니까 루팡이라고 그래서 기와도 아니고 슬레  
이트도 아닌 루팡이라는 거, 그게 이렇게 맨날 찢어지고 뭐 어  
떻게 해, 새는 걸. 맨날 새.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할머니가 맨  
날 밖에서 작은 비오고 집에서 큰비 온다고 다라이니 뭐니 갖  
다놓고, 그럼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고. 인천에서 이제 되게 잘  
살았대요, 만석동에서. 할아버지가 주물공장 하시고 엄청 잘  
살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망하고 망하고 해서 완전 망해서 서울에 왔을  
때 난 태어나서 부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몰랐고, 즐겁게 이제 산동네에서 아주 즐겁게 고무줄 놀이 하면서 놀 때 우리 큰언니 큰오빠는 작은 오빠까지는 인천에서 잘 살다가 박문초등 나오고 이리다가 이제 이렇게 와 가지고 너무 극과 극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게.

근데 이제 공부를 다 잘하니까 서울대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언니 오빠가 이제 옛날에는 왜 과외 공부를 집에 가서 살면서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부잣집에 가서 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 같애. 그걸로 나도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이형진 생활비도 됐어요, 그걸로 아주.

노미화 아버지는 빚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빚을 양산, 이 사위가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끝까지.

이형진 성남에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노미화 진명여고. 이제 제가 뽕뽕이 1세대인데 어쨌든 시험이 없어졌어, 고등학교 입시가.

이형진 네, 그래서 이제 예비고사로.

노미화 네, 대학교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서울교대를 간 거죠.

이형진 선생님이 되시려는 꿈이 있었습니까?

노미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수녀를 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애들 다 꿈이잖아, 그게. 중학교 가니까 막 중학교 선생님 되고 싶고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선생 못 되겠더라고,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수녀가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 난쏘공 책을 읽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가톨릭 반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부터 거기서 야학을 했어요. 가톨릭 반 애들이 성수동에 있는 무슨 공장 다니는.

이형진 성수동에 작은 공장들 많죠.

노미화 거기서 야학을 했어, 내가. 음악을 가르쳤어, 개네들 데리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난장이 가족하고 똑같은데 아버지만 달라. 우리 아버지는 난장이가 아니고 자식을 안 맥여 살려.

뭘 하긴 해. 맨날 멧 부리고 뭐 하러 다니는데 한 푼도 안 벌어. 자식들은 뼈 빠지게 굶고, 굶고 차비도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를 갔는데 차비가 많이 들었다고. 성남에서 진명여고 가려면 종점에서, 종점 가서 거기 어디야, 거기야, 거기서 내려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진명여고까지.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차비가 비쌌어. 성남에서 서울까지 가는 종점에서 종점 거리가 200원인가.

이형진 아니, 진학, 전학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노미화 학교가 없었어요. 성남에 고등학교가 그때 새로 생긴 데라 그냥 별판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완전 시골 지나면 우리 동네만 이렇게 있었어. 그게 꼭 난장이네 집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공장을 다녔어야 돼. 그럼 딱 됐어, 학교 가지 말고.

이형진 그러면 난쏘공을 보시고 나서 공장도 가셨어요?

노미화 그러니까 나는 공장을 안 다니는 바람에 여기는 좀 사는 애들

속에서 공부도 내가 잘했던 말이에요. 근데 너무 못 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책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그 굉장히 이상한 이중생활이라 그러나, 나는 학교와 동네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야학 선생을 하면서 개네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커진 거예요. 애네들을 내가 정말, 애네들을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싶다 이래가지고 공장을 간 거거든. 간 공장에 공원 모퉁이렇게 짝 붙어 있어. 벽에 초졸 뭐 이상. 그래서 이제 초졸로 써서 내니까 바로 되더라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겨울방학하는 날부터 다녔어요. 나는 공장을 다니면서 깜짝 놀랐지.

이형진 인형 만드는 공장 다니셨어요?

노미화 응, 그러니까.

이우재 1학년 겨울방학이에요,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노미화 2학년.

이우재 그럼, 그럼 그때 학업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때 2년제였잖아요.

노미화 학교 안 가고 꼭 그 졸업식 전날까지 다녔어. 그때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한 거야. 나 학교를 그만, 그냥 공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 공순이들하고 너무 친했어. 그 언니들하고 언니들이 너무 좋았어.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이우재 특별한 무슨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노미화 아무것도 없고, 다 고생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그 학교 다니는 게 사치야. 내가 보니까 나는 학교가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서 근데 애네들이 내가 학교 다니는

걸 모르잖아. 내가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미안해 갖고.

이형진 친구들 야학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고요?

노미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단대동 성당에 노동운동, 노동 뭐 하는 수녀님이 있었어. 노동 운동하는 그 수녀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 우리 그 공장 언니들하고 내가 친한 언니하고 또 옆에 일하는 애들하고 가서 소개도 하고 모임을 했어요. 수녀님 집에서 수녀님이 이렇게 좀 성당 근처에 집에 사시면서 노동자들 데리고 지오셰라는 모임을 그때 알아서 성남의 지오셰운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청계천에 무슨 지오셰 사무실이 있고 거기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고 해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런 곳에는 꼭 신부님 수녀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녀원을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수녀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그런 데가 마리아 수녀, 여보, 수녀원 까먹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 혜화동인데 머리에 청치마 입고 청 삼각수건 쓰고 좀 달라.

조용명 영보 수녀원 아니야? 그거를 우리 글쓰기 모임 한 데지, 이게 무슨.

노미화 하여튼 노동하거나 파출부를 했어요. 그때 수녀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제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수녀원이 있었어요, 혜화동에.

이형진 왜 거길 가셨어요?

노미화 거기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 옆집이 우리 이모네 집이었어. 너 무 잘 살아, 이모네가. 어려울 때 엄마가 먹을 거 없으면 나 꼭 데리고 이모네 갔어. 전차 타고 가면 이모네 가면 잔디밭이 있고 수영장이 가운데 있고, 완전 무슨 집이 내가 볼 때 성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랑 이모랑 수다 떨잖아요.

나는 거기서 완전히 그 빨간 머리 앤이야. 그 상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행복한 공주가 됐다가 집에 오는 게 나 너무 좋았어, 그 몇 시간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엄마 수다 떠느라고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거기 안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아한 내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모네가 사는데 거기에 강일원이 나랑 동갑이었어. 아들 중에 강일원이가 있었어, 헌법재판소장. 그렇게 잘 살던 이모네가 망했어.

이우재 그것도 희한하네. 아니, 그러면 같은 자매인데도 이모네는 그렇게 잘 살고 노미화 선생님 네는 그렇게 못살고.

노미화 엄마가 그, 신랑을 잘못 만났고 서로 친구예요, 우리 이모가.

이우재 70년대에 풀장이 있는 지금은 그거 상상도 못할건데, 그거.

노미화 그러니까 우리 이모부랑 우리 아버지가 절친인데 고등학교 때 댜, 신학대.

이형진 아버지가 한마디로 한량이셔서 그렇지요.

노미화 우리 엄마 집에 예쁜 딸들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미인이었고 그다음에 막내 이모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예뻐서 찍은 거죠. 그리고 이모부를 또 소개해서 이모랑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수녀원이 있었어요. 까르멜 수녀원인가 봐.

이형진 네, 점점 그 노동 현장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노미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서 이 사회가 되게 이상한 사회구나 그리고 우리 맨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공부 시간에 막 배워갔고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잘 살게 됐다, GNP가 얼마고 이게 이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구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죄악이구나 애네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이거 이 소득으로 굶아 먹어서 부자가 되는 이런 책을 하나도 안 읽었거든.

이우재 아니, 그러니까 그 저 아까 그 78년도 그때 그 연수가서 연설하고 얘기한 게 그 경험을 얘기한 거야.

노미화 그죠, 거기 가서 나도.

(사회과학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말을 하는데 착취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사장인가, 사장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로 돈을 벌어서 GNP가 올라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걸 선생님들 앞에서 열변을 토한 거야. 나도 몰라, 나 왜 그랬는지 미쳤나 봐.

이형진 79년에 처음 임용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이었어요.

노미화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도 그 공장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데 학교를 와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또 학교도 쉽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난 그 얘기를 갑자기 한 거야 선생님들 앞에서.

이형진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결심은 이제 졸업하시면서 하신건가요?

노미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그... 그래서 무슨 착한 목자회인가 성수동에 수녀원을 갔는데 거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생회를 또 했다고. 대학교 가서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 수사님이 있었어요. 전국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생겼어. 거기에 내가 총무가 됐어. 그게 뽐힌 게 아니고 막 꼬셔갖고 어느 날 막 이거 해라해서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없으니까 저기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수도원이 교육수사회였는데 거기서 모임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을 내 주셨어요. 거기 원장님이 엠마누엘 수사님이라고 멕시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소개해 준 거야, 대학교 때.

이우재 그 당시 대학교 때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전혀 그때 사회과학적인 의식 그런 거 안 했고.

노미화 그걸 좀 했어, 기도를 했지. 그게 뭐 우리가 뭐 가난으로 살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하고.

이우재 책을 읽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노미화 그럴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막 전국 성지 순례 이런 거 막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고 그랬는데 나 2년이니까 너무 짧았잖아.

이우재 78년도에 가톨릭이 그렇게 운동 대학생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80년도 들어가서, 넘어서면서 이후에.

이형진 그러면 79년, 이제 3월에 성내 초등학교(서울 성내동)를 가셨는데.

노미화 발령난 거예요, 네.

이형진 성내 국민학교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노미화 굉장히 큰 학교였죠, 팔십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반에 88명 90명.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일단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청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교실에서. 그래서 내가 6월달에 여기 갈 무렵은 목이 다 쉬어갔고 그 목소리가 나온 마이크에서 이상한, 걸걸걸걸, 막 내 친구들도 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이 힘들었어요. 일단 조용히 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형진 몇 학년 처음 수업 했습니까?

노미화 3학년. 엄청 떠들었어요. 애들이.

이형진 키가 노미화 선생님만 하기 시작할 텐데.

노미화 하하하, 아니 애들은 조그맣는데 3학년이니까 나보다 작았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주변이 맨날 명찰 안 달았다고 날 잡는 거야, 교문에서. 내가 선생인데.

이우재 하하하, 이게 무슨 코메디같은 소리야.

노미화 언니, 명찰! 막 이려고 그래서 신경질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현관에서 이제 신발 벗고 들어오면 거기 또 주변이 있어요. 거기서 막 청소하는 애들이 서 있어요. 인사보다 명찰 안 다나보다, 거기서도 잡히고 계속 잡혀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파마를 했어요. 파마하고 여기다가 노미화 선생님 이름을, 이름표를 달고 난 선생이다 이려고 다녀. 그래도 잡아. 어저께 잡은 애가 오늘도 내가 선생이라고 말했지 막 이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선생님 같지가 않았는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죽을 뻔했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나워진

거야.

이형진 사회에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하하.

노미화 미치겠다. 2부제 수업이고 교실 두 반이 같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 팔십몇 명 다 끌고 나오고 끌고 그 운동장에서 기다렸다가.

이형진 오전 오후로 수업하셨어요?

노미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다가 애들 끌고 짝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수업을 하여튼 그러다가 여기(연수원) 간 거야.

이형진 그래서 이제 79년에, 6월에 연수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두 분이 만나신 거죠.

노미화 거기서 이 연설을 하고 나도 모르게 준비 안 된 연설을 하고 이 사람이.

이형진 사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노미화 아니, 5분 스피치를 하루에 방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우리 방에 순서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기 싫으니까 아줌마들이 내가 이번에는 해라.

이형진 12분이나 하셨어요.

노미화 그러니까 5분 스피치인데 5분 되면 땅 중을 친다고. 왜 안 썼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뭘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긍지를 가진 교사가 되자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제목을 썼죠. 긍지를, 그러면 왜 긍지를 가져야 되냐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맨날 앞에 나와 갖고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친구들은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는데 난 선생이 돼 가지고 맨날 뭐 좀 이렇게 교사가 된 거에 대해서 전혀 감

흥이 없는, 딴 데 취직 못 하고 여기 온, 이런 얘기를 너무 해 갖고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 공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이제 긍지를 가르친 교사 이렇게 말하려고 대충 이런 스토리를 짰어. 그래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다가 흥분을 하는 거야, 내가.

이형진 공장 얘기 때 한번 흥분하셨어요.

노미화 그때 흥분을 해 갖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착취라는 말이 잘 나왔지, 그런 주장을 태어나서 처음 한 거야, 남 앞에서.

이형진 완전히 썰렁해지셨을 것 같은데.

노미화 아니, 막 웃었어, 그래서 나는. 유명 인사가 돼 갖고 내가 나가면 구름떼같이 몰려와서 선생님들이 이리와, 노미화! 이랬어요!

이우재 아니, 나는 궁금한 게, 그때, 그때 박정희 시대인데 그거 잘 못 하면 감옥가요. 아니면 안기부나 경찰서에 끌려가고 뒤통이 맞았을 텐데.

노미화 사람이 날 불러 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학을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뭐 성수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주의를 주더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막 그랬더니 뭐 안 된대 그래서.

이형진 이제 그게 인연이 된 거야.

노미화 거기서 본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이형진 근데 노미화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노미화 나는 그때 말했잖아. 나는 이래서 결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글썽 그래서 얼마나 껄뽀한지 속으로 내 말을 뿔로 들은 거냐고.

이형진 자, 이제 두 분이 만나는 거 79년.

노미화 복잡하다,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이형진 근데 이제 그 무렵 좀 지나면 그러니까 일 년이 채 안돼서 조용명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고.

노미화 그때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만두는 거 보고 그 전엔 매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봤는데, 진짜 말랐었어요. 이렇게 죄수복이라고 그래가고 파란 옷을 입었었어 우리, 거기.

이형진 가끔 동인천이나 이쪽에서 만나서가지고 이렇게 서점 답동 성당에도?

노미화 종로에서 만났죠, 종로서적.

이형진 ‘학교는 죽었다’ 건네주시고.

노미화 이거를 그, 첫 만남이 종로서적 뒤에 갈릴리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어. 거기서 만나자, 내가 아는 다방이 유일하게 그건데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책을 딱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뭘 봤지.

조용명 그다음에 ‘어느 돌멩이의 외침’.

노미화 유동우 씨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내가 그걸 읽다가 종점까지 간 거야, 너무 재밌어졌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디서 이런 책을 구했지 학교는 죽었다 그것도 어디서 이런 책을, 어떻게 나는 책 같은 걸 안 읽으니까 어디서 이런 게 나왔

지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썼다는 거예요. 김성원이 쓴 책이잖아, 번역. 그래서 자기 친구가 번역했대. 그래서 친구들이 참 훌륭한가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근데 매력은.

진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뭐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이랬어. 없대, 정말요? 없다. 그래서 그러면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니 혼자, 잘. 고아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농담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미안한 거야 나는 형제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미안해갖고 또 만났죠. 그다음 만나자고 그래서 싫다 소리를 못하고.

이형진 성내 초등학교에 계속 그 근무를 하셨어요? 그 교직원 노조 때까지 쪽?

노미화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가서.

이우재 잠깐만. 그러면 내가 중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80년 이제 광주로 이런 거 큰 거 터졌잖아요, 그때.

노미화 그때 만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종로서적 앞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난리, 데모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종로서적 앞에 보도블록이 다 떨어져나가고 신발이 엄청 많아요. 길 바닥에 깨네들이 한바탕 치르고 간 데를 가는데 막 길도 울퉁불퉁하고 난리가 났는데 겁도 나고 막 뭐 연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손을 잡고 뛰었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손을 안 잡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막 치마가, 이려고 나왔는데.

조용명 그, 며칠 했어. 14일이 아니고 5월 한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우재 데모로 그렇게 붙은 거는 5월 14일이야.

노미화 이 사람이 막 가보자 그러면서 막 내 손을 잡고 막 나를 끌고  
뭐 어느 뒷골목을 여기저기 하도 막 다니는 생각이 나.

이형진 데모 현장은 처음 가보신 거네.

노미화 그렇죠. 데모라는 거를 본 적이 없죠. 대학교 때도 어디서 데  
모한다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 학교에 그런 건 없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남을 계속하면서 우리 조 선생님은 그러  
니까 아직 그 우신고에 이제 저기. 있었고.

노미화 저는 이제 성내초.

이형진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특별히 뭐 시국은 뒤숭숭했는데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두 분 다 하시던 때는 아  
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 5월 지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제 점점 그러니까 뭔가 좀 전두환 정권  
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신 건가요? 운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조용명 계속 72년도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동운동  
같은 거나 야학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려고 있다가 80년  
도에 보충수업 문제도 있었지만 삼청교육대가 생겨서 학교마  
다 한 명씩 애들을 보내라고 막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어요. 학  
교에서 문제아를 삼청교육대에 그때 한 명씩 의무적으로 보내  
라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그거로 논란이 심했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나는 좀 열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이런 데서 선생하면 내  
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고 그러던 차야.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학교는 죽었  
다'라는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형진 김석원 씨.

조용명 네. 그래서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 토론회를 가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완전히 옛날에 이해찬이니 개네들이 하는 거니까 김석원이 사  
회학과 애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이형진 언제쯤이었죠.

조용명 그제 79년일 거야, 79년 말쯤 될 것 같은데.

노미화 그거 모임에 나오라고 나한테 편지 보내고.

조용명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착취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공산주의 책을 어디서 뭐 읽었나?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막  
그냥 겁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  
를 시킬 겸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는데 완전히 저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독실  
한 크리스천이야. 나 크리스천은 유물론자라서 아주 싫어하는  
데 그런데 어쨌든 학교는 죽었다 그게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  
고 그래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다 불법  
모임 아니야, 이게 걸릴까 봐 그랬는지 어땠는지 토론회가 갑자  
기 그날 취소가 됐어.

이형진 어디서 하기로 했나요?

노미화 홍사단. 홍사단에서 한다고 했어, 그 편지에.

조용명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기로 해서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석원이  
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거 취소됐다고.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으  
면서 학교 문제도 심각해서 선생으로서 이거 해야 될 일이 많

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가 좀 들더라고 학교는 죽었다를 읽는데. 근데 이제 그게 착한 것으로 생각이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뭐 어느 돌맹이의 외침 뭐 이런 거 뭐. 막 그때 읽고 그것도 저기 삼성문고에서 미국 노동운동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 다섯 권으로 된 문고본 책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형진 예, 예. 문고판. 얇은 거.

조용명 뭐 그리고 이제 막시즘도 읽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막 이래서 선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끝치 아픈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가평에 가서 뭐야, 저기, 1년 동안 선생을 그만두고 이제 놀다가 여기랑 이제 가까워지는 바람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또 뭐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우재 그때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조용명 그래서 인천으로 와서 박문여고하고.

이우재 82년도?

조용명 81년.

이형진 박문여고에서는 조 선생님을 받아 주신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경력만 보고도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우재 가톨릭재단이니까 조금 까다로울 텐데.

조용명 가톨릭재단이니까, 뭐.

이형진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냥.

조용명 모르겠어, 하여튼. 받아줬고, 김병상 신부가. 그리고 교육청에, 우리 고3 때 담임선생이 중등 과장인가 뭐 그랬어. 강양희 선

생이, 강양희 선생님 밑에 반 했던 애들이 다 우리 반 애들이 데모를 많이 했거든. 그 위하고 우리하고가. 그래 가지고 그 선생이 그 당시 중정인가 안기부인가에 많이 다니고 그랬어, 의심받은 거지.

이우재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조용명 그런 선생은 아닌데, 어, 담임 밑에서 다 우르르 나오니까 담임이 주입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어쨌든 우리를 잘 봐가지고 어쨌든 승인이 났어요.

이형진 그럼 81년에 이제 다시 박문여고로.

조용명 그래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승인이 났고,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서.

이형진 결혼은 몇월에?

조용명 10월달에. 10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사람.

노미화 우리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왔거든요.

조용명 아는 선생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 모임이 선생님들끼리 좀 모여보자고 그래가지고 철원에서 전국에 각 선생님들이 모였어. 그리고 작은 모임이지. 소모임. 교사 선생님들 교사 수양회라고 그래가지고.

이형진 그 이오덕 선생님이 하신.

조용명 이오덕 선생님 전이고, 이주영이라고 이호덕 선생님하고 연결은 돼 있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우재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으려면 조직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조용명 아니, 아니, 그냥 이오덕 선생님이 알음알음 편지를 주고받았

고.

노미화 그니까, 편지를 주고받다가 나도 이오덕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오덕 선생님이 서울에 이주영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오덕선생님은 반드시 답장을 했어. 그래서 그 연결,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 까 여러 명 되더라고요.

이우재 아니,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노미화 전 교사 수양회의 시작이에요.

조용명 아니야,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야.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선생, 경기도 선생, 우리 인천 선생, 그 다음에 뭐 경남 선생님도 있었나.

노미화 아, 그리고 서울교대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책을 읽었다. 처음으로 교대 졸업한 우리 반 친구들이 선생이 됐는데 그 맨날 갈릴리 다방 그 언저리에서 만나갖고 책을 읽었어요. 그게 전환 시대의 논리, 이상과 이성, 이런 걸 처음으로 읽으면서 다 눈을 뜬 거야. 이게 뭐야, 그래 가지고 이제 막 그런 찰나에 이 사람이 또 모임이 같이 오고 이런 거.

조용명 거기서 이제 신혼 때 다 추운 겨울인데 철원이 얼마나 추워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이형진 한 십여 명 됐나요?

조용명 몇 십 명? 아이, 스무 명이 넘었어. 30명가량 된 것 같아.

이형진 합숙모임을 한 거예요?

조용명 그렇죠. 각자 소개를 하는데 밤이 됐어. 왜냐하면 혼자서 그렇게 막 교장이랑 이런 저기랑 막 싸우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전국에 골치 아픈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이 맺힌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인사 소개를 했는데 밤이 됐어. 그래서 아침이 됐어. 인사 소개를 하다가.

노미화 최규진이 있었어?

조용명 최규진 없었어. 그래 가지고 그 모임에서 내가 인천 선생을 만나서 인천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인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우재 박문여고에 있는데도 인천 선생들하고 연결이 안 됐어?

조용명 그럼.

이형진 인천에 이주영 선생님.

조용명 아니, 인천에 이제 이정민 선생이라는 사람이 동국대 불교학과 불교 모임 불교 모임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와서 이제 만나게 됐지. 거기 선생님들이랑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오덕 선생님하고 또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죽은 황시백이라든가 여기 여기 충남 지부장 하던 최교진이라든가 지금 세종시 교육감 하지.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었어.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우리는 81년도에 모인 거니까 82년도에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교사 수양회를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83년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오덕 선생님 지침하에 모인 거야. 모여서 과천의 영보 수녀원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발기인 대회를 했어. 글쓰기 연구회를 만들자는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그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소모임을, 나는 이제 여기 YMCA에서 했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모임이 YMCA에도 생기기 시작했어. 교사들

소모임이.

이우재 인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조용명 전국에서. 글쓰기회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다 의논을 한 거야. 의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YMCA 교사회를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자 그리고 글쓰기 외에도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자, 각자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모임을 하나씩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인천에 와서 인천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쓴 거고. 서울에서는 이미 모임이 있었어. 그 이주영 선생이라는 사람이.

노미화 내 친구들 모임하고 합쳐갖고 그게 서울 YMCA 이사회가 된 거야.

조용명 서울 YMCA의 교사회가 초등교사회. 또 서울 YMCA는 중등교사가 있었어. 그게 이제 이수호 선생님이라든가 뭐 유상덕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YMCA가 광주에도 있었어. 광주는 윤희주 선생님이라든가 정의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나 이 많은 사람들이 광주 YMCA의 교사회를 만들어서 저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83년도 말부터 84년 초부터 교사 모임들이 막 만들어졌지.

이형진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도 하셨지만 책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조용명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형진 그거 보면서 그 국어 선생님들.

조용명 그거 보면서 선생님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죠.

이형진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YMCA는 이제

그 기독교 단체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활용하기 시작한 거.

조용명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인천도 그 인천 YMCA의 간사가 이영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다. 이영환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인성여고 교사야. 이우경이라고 그래서 누구야 이우경.

이형진 YMCA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이제 도와주고 지원했던 건가요?

조용명 지원했죠.

이우재 그건 어떤 데냐면, 그 당시 저 기독교 운동에 강하게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게 KSCF 출신들이 EYC를 강화할 거냐 YMCA를 강화할 거냐가 갈리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인천에서 EYC를 강화하자고 쪽으로 한 게 강우경 입장이고 YMCA를 강화하자고 한 게 서울대 사대 김성수 입장이야. 그게 그 82년도, 3년도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 기독교 운동 내부에. 그래서 Y, 이런 것들 운동을 막 하라고 그 막 저거 했던.

조용명 교사 모임이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84년도부터 그래서, 84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모임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마한 소식지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 모이려고 그랬죠.

이우재 그래도 조금 변한 게 83년 9월에 민청련이 만들어졌거든? 그리고 83년 12월에 소위 유학국면이라고 학원 자율화도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공간들이 좀 열렸던 때거든요, 83년도는.

이형진 그런데 이 활동을 이제 시작하실 무렵이 사실 신희 초였잖아요

요. 그리고 두 분은 또 학교가 완전히 달라서 그러니까 서로 활동 반경은 완전히 달랐는데.

노미화 소모임은 같이 했지. 지금 우리 집에서 모였으니까 주로 주말에.

이형진 YMCA 모임? 글쓰기 모임?

노미화 따로 인천에서 모였어요. 이정민을 중심으로 이정민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물포 단칸방이었는데 부엌 열고 들어가면 다 거기서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애들 얘기하고 되게 재미있게.

이형진 몇 분 정도 모였습니까?

노미화 처음에는 한 네 명인가 다섯.

이형진 소모임 방을 제공하고.

노미화 소모임을 한 거지, 우리 집에서. 그 모임이 이제 쪽 간 거죠.

이형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박문여고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명 아이들에 대해서.

이형진 그 수업하시면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용명 그렇죠, 했는데.

이형진 재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동을 걸거나 그러면... 이제 그전에 우신고 있을 때보다는 좀 사고 안 치셨나요?

조용명 아,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저기 뭐 선생님들이 교감이 거기는 교장이 아예 아래층에 있고, 수녀니까. 그래서 주로 학교 행정을 교감이 나와서 교장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감실

이 있었어. 거기는 그래서 교감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내가 늘 교감실에 불려가서 예를 들면 뭐 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자율학습에 참여 인원이 적다는 등 선생이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밖으로 보내냐는 등 자율학습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보내면 60명인데, 60명이 안 앉아 있고, 우리 반은 20명, 30명이 나간 거야. 한 30명만 이렇게 있고 이런 거야. 그냥 그런 걸로 교감이 불려들어서 막 쪼면 이게 자율학습인데 애가 싫다는데 보내야지 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슨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동원하라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걸로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못 싸워 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교감실에 들어가면 막 큰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내가 막 이제 뭐 책상도 팡팡치고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밖에서 야 오늘은 니 목소리가 더 컸어, 교감도 다혈질이야, 싸우고 이제 그러면 막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싸우면서 지냈어요.

이형진 제자들은 좀 어땠습니까, 선생님 편하게 말 들었어요?

노미화 되게 착했어요.

조용명 제자들은 좋아했지. 집에 가겠다는데 집에 보내주고, 뭐.

노미화 먼저 갔던 집, 개가 박문여고 졸업생이에요.

조용명 응, 그러니까 이제 개네들은 좋아했지. 근데 하여튼 맨날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사협의회에.

이형진 박문여고에서도 선생님들하고 모임 같은 걸 만드셨나요?

조용명 모임을 만들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모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기 내가 중간에 이게 실수라고 해야 되나, 남자 교사하고 여자 교사하고 옛날에 교무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교사 중에 아주 대가 센 여선생이 있어. 좋은, 그 사람이 이제 남자 교사들한테 그런 거 막 지적하고 못하게 하고 담배 너무 편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를 해서 그리고 짬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심하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교사의 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 완전히 죽일 놈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식당이 있는데 내가 그걸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 나 혼자.

이형진 남선생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셨네요.

조용명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갔다는 걸 얘기를 듣고 나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모임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자들하고 이 모임을 했는데 좀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면 또 도망가. 딴 데로 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왕따를 당했지.

노미화 그럼 산에 다니고 이런 건 언제야?

조용명 결혼하고 나서는 사이좋았지.

노미화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 교사들이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셨다니까. 화투치고 술 먹고, 산에 다닌 건 언제, 산에 언제야?

조용명 그 전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사 협의회를 만들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터져서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거의 이제 포기하고, 내가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 모임 바깥으로 막 다녀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은 성내초등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잖아요.

노미화 그래서 교대 친구들을 만난 거죠.

이형진 그래서 거기서도 또 모임 같은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줘.

노미화 그 친구들이 이제 Y, 그 교사수양회 할 때 데리고 갔어요. 이제 소모임이지,

이형진 그게 83년?

노미화 그 무렵인 거예요. 철원에 갈 때 같이 갔어요. 나한테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책 준 개가 YMCA에 초대 부회장을 맡았어. 그 다음에 내가 맡고 개가 이제 이주영이 회장, 애가 부회장. Y모임을 했어요.

이형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노미화 장은수.

이우재 결혼하고 인천에 살면서 직장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도 서울에서 하셨고?

노미화 나는 학교는 서울, Y모임도 서울이었고. 이 사람이 끌고 집에 오면 맨날 졸업생들이 오고 여교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처음에는 남교사들만 오더니 나중에는 여교사들만 오더라고. 여교사, 여자 제자, 밤새 수다 떨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선생님하고 막 대들고 썬박질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 대학교 가는 애들이 의식이 세져가지고 선생님 시원치 않는 거야, 그, 막, 샷대질하고.

이우재 대학교 분위기가 어땠는지, 허허.

노미화 피곤해 죽겠는데 맨날 커피 타고 옆에서 졸다가 뭐 하여튼 그런 생활이 꽤 오래됐어.

이형진 초등학교에서, 교사운동.

노미화 엄청 짜증나죠.

이형진 이 부분은 좀 어땠어요? 87년 이전입니다.

노미화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한테 하면 그렇게 화를 냈어. 바보 같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장이 똑같애. 애들은 죄가 없어, 애들은 떠들 수밖에 없고, 그, 하여튼 애들은 자유로워야 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애들한테 화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사탕발림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교사인 줄 알았어요.

이우재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만 한 거예요.

노미화 굉장히 학생을 잘 학생 편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선생님들과 싸우지를 못하잖아. 팔십 몇 명인데 내가 막내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시험 보면 그게 성적을 찍, 우리 반이 거의 꼴찌에서 몇째야. 그리고 폐품을 거뒀다 그러면 우리 반이 제일 적어, 뭐가. 하여튼 그거를 꼭 등수를 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교장이 이제 막 화내고 야단치면 이제 그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야.

조용명 나는 늘 꼴찌였는데.

노미화 아니, 그게 왜 네가 신경 쓰냐 네가 왜 1등 하려고 그러냐, 이

바보 같은 뭐 이런 욕만 안 했지 집에 엄청 창피해갖고 내가 이렇게 빙신 같은 선생인가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그래도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데, 학교를 그만둔대요. 왜 그랬더니 보충수업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 그래도 좀 고민하다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로 딱 그만뒀더라고. 그냥 교장실에 가서 나는 이제 학교 그만하겠습니다 이려고 딱 그만뒀어요. 얼마나 깔끔해. 그래서 학교를 저렇게 그만둘 수 있구나 갑자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이형진 80년.

노미화 그게 몇 년이냐고.

이우재 우신고도 그만 둔 게 언제예요?

노미화 우리 사귄 지 한 1년 채 안 됐을 무렵, 모르겠다.

조용명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80년도 초에.

이형진 다시 박문여고.

노미화 박문을 갔는데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시팔, 시팔 그러는 거예요. 막 얼굴 시빨게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러면서, 막 가방 집어 던지고, 막 씩씩 대고 이 개새끼가 막, 해서 왜 누군데, 그러면 교감이 뭐 어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나는. 어따 대고 교장한테,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해, 그냥 나는 팔 십 몇 명 있는데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교장이 망신을 주잖아요. 노미화 선생님 뭐 이렇게 뭐가 꼴찌고 어찌고저찌고 이러면 나는 눈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을 흘리기 싫은데 빙신같이. 맨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교장실에 불려가 그래서 막 야단맞아 그러면 막 울어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막 위로해줘.

그래 가지고 전교협 때 우리 학교가 후원금이 제일 많이 걷혔어요. 그 후원금 같은 걸 이제 거두거든. 그때 교사한테 협의회, 아니 내가 거두니까 내가 맨날 혼나고 야단맞고 울고.

병신 같은 애가 맨날 가갖고 그래도 저거 해보겠다고 애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많이 걷혀서 그래서 내가 부회장 된 거야. 거기 교사 모임 가면 내가 또 나이가 많은 축이야. 그때는 이제 좀 결혼하고 애들도 있고.

이형진 그래도 30대.

노미화 네, 그래도 다 젊었어요. 그때는 이주영하고 내가 제일 고참이고 다 내 후배들이라고.

이형진 이미 고참 선생님께서.

노미화 고참이 됐지.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이우재 그러니까 새로 그 교사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막 학교 들어오고.

노미화 다 젊은 싱싱한 선생님들이고 막 그러고 이제 막 이라는 애들이고 근데 나는 막 이런 걸 못 하는데 나이는 또 위야. 그러니까 내가 앞장을 서야 돼. 근데 내가 막 이 사람처럼 이 개새끼 소새끼 이런 걸 못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맨날 울어. 야단맞고.

이형진 그래서 교사들 내지 친구들과하고 모임 같은 걸 하셨어요?

노미화 성내에서 이제, 성내에 있다가 그다음 학교로 옮겼어요. 고척으로 거기서 데리고 후배 데리고 Y에 가서 같이 모임하고 그랬

어요.

이형진 고척초등학교 언제 가게 됐나요?

노미화 그러니까 성내에서 그걸 봤으니까, 몇 년도인가. 성내에서 4년 하고. 82,83,84, 거기서 4년 고등고척초등학교일 때 Y교사 모임도 하고 이제 교사 협의회가 생기면서 Y가 없어지고 모임이 커지니까 거기가 서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회가 있었거든요. 강서남부 교사협의회 창립할 때 제가 부회장 맡고 그랬죠. 중등교사가 회장하고 그 당시.

이형진 아까 말씀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이제 교사 협의회나 해직되는 과정은 그 처음에 학교가 아니었잖아요. 성내초가 아니었잖아요. 또 성내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노미화 아, 그러니까 고척에서 그랬다, 고척에서, 이렇게 Y모임을 했고 대방초등학교로 됐어요.

이형진 아, 또 옮기셨네.

노미화 여기서 강서남부 교사 협의회가 돼. 여기는 Y모임이었고 여기서 내가 부회장을 맡았고 이때 교장이 굉장했거든요.

이형진 대방초등학교는 언제부터?

노미화 그러니까 여기 4년이니까 언제냐.

이형진 87년 이 무렵이네요. 자 이제 87년 정도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노미화 여기서 이제 교사협회가 생겼어요.

이형진 교사협의회는 86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조용명 내가 이제 그때는 Y모임이 워낙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때

는 선생님들이 그런 모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모임 수가 없고 선생님들도 하나씩 다 찾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들면 선인고등학교 미술 선생인 허용철이나 뭐 동산고 이종구 이런 사람들은 그, 광야서점에서 거기 오는 선생님들이 누가 있냐, 박한왕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이형진 이종구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미술 쪽도 의식 있는 분들이 꽤 있었네요.

조용명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선인고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광야서점 박한왕한테 들어가서 선인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찾으니까, 하나 찾으니까 그때 미술 선생이 둘이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바꿔주면 여기서도 모르잖아, 누구를 둘 중에. 몰랐다가 다시 그다음에 전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준엽을 이제 찾아서 만났어. 그랬더니 전준엽이 이종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준엽이 자기는 대학교를 갈 거래. 그래서 이제 이종구를 만났더니 이종구가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바빠서 교사 모임은 못 하겠대. 그래서 이제 허용철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허용철이 또 선인고등학교 미술 선생이더라고. 그런 정도로 서로 몰라. 왜냐면 허용철 선생한테 갔더니 이미 노동자들 플래카드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이런 배경 그림 이런 거를 그리고 작업하는, 저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우재 학교 때 그 당시에 민미협이 있었거든.

조용명 그러니까 서로 허용철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선인 고등학

교 같은 미술 선생인 전준엽이 몰라. 서로 그렇게 비밀로 하는 거야. 그런 정도로 엄정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게 허용철 선생님을 만났더니 나를 데리고 자기 작업실로 가는데 벌써 그림 이랑 뭐 그런 거 그리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 그래서 교사 모임에 끌어들이 수가 없더라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그거 못 끌어들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최교진 선생님이 충남 지부장 얘기했잖아요. 거기 공주사대거든 공주사대에서 쿠사(KUSA)하던 애가 그 인천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제 이종태 선생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종태 선생님 만나러 가서 교사 모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미화 혼자 안 가.

조용명 이영환 선생님이 이우경이라든가 여기 뭐 이우길이라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개인 개인 소개로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던 거지.

이형진 87년이 됩니다.

조용명 그래서 87년이 된 거지.

이형진 87년에 이제 물론, 그, 교사 협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번 9월 이에요. 87년 상황은 86년에 인천의 5.3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7년에 인천도 민주화 투쟁을 하고 7,8월달 노동자 투쟁도 있고 이런 완전히 격변기였거든요. 아마 학교에서도 이 영향을 몸소 느끼시기 시작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교사운동이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돼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조용명 그제 이제 8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86년도 통계인가

87년도 통계인가 모르겠는데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YMCA나 글쓰기 위해 이런 거 하던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국 YMCA 교사회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모여서 연수회를 했거든. 거기서 100명씩 이렇게 죽는데, 더 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단다 그 사전 조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어. 선언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다 연명으로 해가지고 100명이나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육이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서명을 해서 교육민주화 선언을 했어요.

이형진 인천에 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조용명 기억이 안 나오네.

이형진 100명 넘었습니까?

조용명 아니, 100명 못 하지. 그때 YMCA가 15명 이 정도.

이형진 50명 넘는 것 같아요?

조용명 아니, 안 넘었어. 15명 정도야. 그러니까는 각 지방별로 대개 한 열다섯에서 스물 정도.

이우재 6월 항쟁 이전이죠?

조용명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해서 전국에 한 그래도 한 이, 삼백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게 이제 교육청에 완전히 핫 이슈가 돼가지고 교사들 탄압을 막 받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교육 문제가 이슈화가 됐어요. 교사 조직에 관한 얘기가. 그러고서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확 불어난 거야. 그 YMCA 교사회가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난 거지.

교육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탄압 받아야 사람이 늘어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련 탈퇴 운동을 벌이는 거야.

이형진 86년 5월입니다.

조용명 아니, 그때부터 탄압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슈가 돼서 87항쟁이 막 벌어지고 이러면서 교사들이 이제 교련 탈퇴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교련 탈퇴가, 교사들은요, 의무적으로, 원래 의무가 아닌데 강제로 교육연합회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 조항이 없거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퇴하겠다고 막, 탈퇴를 해야 이제 다른 조직에 가입을 할 거니까 그래서 탈퇴를 하는데 엄청난 저항 반대를 받았죠. 인천에서는 그 탈퇴 강연회를 주안5동 호인수 신부님 성당에서 한 거지.

이형진 본격적인 탈퇴 운동이 그러면 7.8 항쟁이 지나고 나서?

조용명 그럴 걸요, 아마. 7.8월 항쟁 지나고 나서.

이형진 9월에, 9월 20일에 인천 주안 5동 성당에서 교육 공청회를 합니다.

조용명 탈퇴에 관한 공청회.

이형진 근데 그날 여기 봉쇄를 해가지고.

노미화 신부님은 실려가고.

조용명 그래서 경찰, 교육청, 관리, 교장들 다 모였어요.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도 붙잡혀서 끌려가셨을 것 같은데.

조용명 나는 붙잡혀서 끌려가지는 않고.

노미화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조용명 거기 앞에서 계속 싸웠고, 나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어디 갔다가, 저녁에 어디 갔다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시간에 성당에 도착했어. 신부님이 그냥 막 샷대질하고 싸우니까 애네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신부님을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갔다 버렸어.

이형진 그날 그런데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노미화 신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갔거든요. 퇴근해갔고 나는 이제 인천 사람이 아니잖아.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선생님들.

이형진 주안역 뒤입니다.

노미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막 삼삼오오 오는데 이제 그, 뭐, 각 학교에 무슨 교무, 교장, 교감,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 오기 시작하면 이 건너편끼리 짝 서 있는 거야. 양복입고 딱 봐도 알겠어. 교육 관료들이 멋진 신사복 입고 짝 있고, 형사는 좀 달라. 형사들은 이제 정문 쪽에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오다가 가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 선생들이고 내가 왜 가요 이럴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안타깝게 있는데 이 속 안에 들어간 원종찬이었나 하여튼 몇 명은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러 준비팀이 와서 있어서 성당에 설치하고 개네는 그 속에서 못 나오고 바깥에서는 못 들어오고, 이제 교문 앞에 막 점점점점 모이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캄캄해져. 이게 신부님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막 신부님 뒤에 숨어서 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끌려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점 교문 앞에 모이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안 가고 그게 이영규. 그때 끝까지 버틴 게 이영

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인천에 소모임이. 초등,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무식하게 싸우더라고. 개가 막 살 떨리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막 이러면서 이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거야. 여기 교육 관료들 짝 지켜보는데 그랬더니 아주 양복을 입은 경찰의 그 우두머리가 아니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뭐 하여튼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우스운, 뭐라 그러나, 너무 하찮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너네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이 뭐냐 너무 아무리 봐도 니네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은 정말 쓰잘데 없는 교육이다, 니네 같은 애들이 무슨 학생을 교육할 자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논리적으로 하는데 이 개새끼들 이러니까 진짜 쌍놈 같아.

애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저 사람 잡아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들이 알겠습니까 하면서 애를 잡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왜 내가 옆에 가가지고 너무 알미운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은 재네들이고 애는 좋은 놈인데 겉으로 딱 보면 진짜 후레자식이고 저기는 점잖은 신사 분이고 애네는 다 침묵이야, 지켜보고 있어.

이우재 눈에 독을 넣으면 당연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노미화 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다 젊어. 그러니까 다 떨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막 모르고 가야 되는데 도망가자니 그렇고 여기 있자니 죽겠고 막 이려고 있는데 갑자기 신자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는 신자였거든요. 주안성당도 그들이 이렇게 둘러싸더니 막, 막, 기도하고 막 하늘에 막 기도하고 막 성가를 부르는 거야.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야. 뭐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투쟁 이런 건 아니지만 막 기도를 하나까 경찰들이 막 야지 놓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막, 이 어디서 쓰레기 같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휴 뭐 저런 인간들이 무슨 선생이야, 다, 막, 이러는데 신자들이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깊어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산을 했어. 그 장면을 내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미사를 갔어요. 주일 미사인데 호신부님이 강연을 하면서 엇그제 우리 성당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냐, 그래서 그날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짬새들이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자였거든. 그때 조용명 선생 프란치스코 선생님께서 나서서 너무 멋있게 묘사를 하는 거야. 완전 그지 같았거든. 씨발놈, 이렇게 안 하고 완전히 신자들 우리 조용명 선생님께서 그 사람 당당하게 막 얘기를 했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연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신부님 좀 보셨나? 우리 신부님이 참 좋게 말씀해 주시네.

조용명 그 신부님 별로 보지도 못했어.

노미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성당 문 앞에서 신부님은 오자마자 싸워서 바로 끌려가는데 성당, 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

야. 우리 조용명 선생님께서 나서서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좋게 얘기를 하셔서 신자들이 뭐 감명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강론을.

이형진 87년에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련 탈퇴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탈퇴 집회를 했다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25일 날 전교사 협의회 창립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도 사실 주안 5동 성당으로 원래 하는 건데 바뀌었죠.

노미화 일부러 그렇지 일부러. 제2, 제3 다 만들어 놨지, 그다음부터는.

조용명 그래서 원미동 성당에서 했었거든. 원미동 성당에서.

이형진 부천에 있는 원미동성당이었죠.

조용명 네, 그리고 거기 원미동서 했는데 나는 못 갔어요. 교문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못 가고 우리 그 사무장 했던 분이 지내는 흑시 이준영 선생님.

이형진 그 신부님, 성당 신부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노동자 학생들이 지금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혼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노미화 왜 이제 하나고 이런 거를 그랬대. 멋있었어요. 이 신부님이 되게 멋있는 신부님이셨어. 어떻게 연결이 됐지. 거기 신부님이 허락을 해야 하거든.

이형진 교사협의회가 창립되고 그리고 이제 87년에 그러니까 교협이 이제 십정동 성당에 황상근 신부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때 해직이 되신 것은 아니었잖아

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노미화 퇴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모였죠.

이형진 그리고 이제 신문도 발간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죠. 상근자는 아무도 없었나요?

노미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명 그러니까는 그때가 엄청 힘들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늘 들어 갔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고 선생님들 만나고 뭐 모임하고 다음 모임 준비하고 그러면 늘 새벽 2시나 3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말에는 집회해야 되니까 또 못 쉬고 이래가지고 한 2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89년도에 해직이 됐잖아요. 우리 대구에 경북 회장으로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황상근 신부님이랑 신학교 동기야. 그런데 이제 그분은 신부가 안 되고 선생이 된 분인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 해직이 안 됐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교사들이 과로사로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게 해직시켜준 게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이우재 하하,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얘기를.

조용명 2년 동안, 나도 2년 동안 거의 새벽 2시, 3시에 그런, 그랬으니까.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도 고등학교니까 고2, 고3들 수업도 하셨었겠네요.

조용명 수업하고.

노미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막차가 없고, 농치기 때문에 버스가 차가 없어요. 그럼 영등포에서 총알 택시라고 있어요. 그냥 인

천까지 맨날 탔어, 그거. 월급의 일부는 난 택시비였어. 거다. 용돈이 다. 그래갖고 오면 이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이미 다 자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이제 대충 씻고 이려고 좀 오면 내가 왜 이렇게 늦게오냐고 막.

이형진 첫 아이가 언제였죠?

노미화 83년생이니까.

이형진 그리고 둘째는?

조용명 86년이야.

노미화 아기들이 막 이럴 때니까 어린 시절에.

이우재 한참 손 많이 갈 때 아니에요?

노미화 손을 하나도 못 찼다고 애들한테.

조용명 할머니가, 집에 노할머니가 있고 그냥 이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노미화 애들을 잘 봐주셨는데 엄마의 자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지금까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없어.

조용명 첫째는 그래도 노할머니가 그 애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애는 노할머니를 잘 따라가지고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둘째 애는 노할머니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만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서 살림하면서 애를 보는 게 힘들었는지 애는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엄마를 붙잡고 우는 거야. 애가 고집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하도 크고 이래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울어. 애는 달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으면 뒤로 확 넘어가.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

에 어떻게 안을 수도 없어. 그리고 막 애는 성질나면 막 벽에다가 대가리를 막 가서 박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야 전쟁이.

노미화 불만이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나. 그런데 큰애는 그런 애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순하고 그런데 커서 엄마하고 말을 안 해요.

이형진 87년부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전교조가 창립되는데 89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은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준비했던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조직들도 확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전교조가 창립되자마자 해직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두 분한테는 제일 힘들고 바빴을 때 같거든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노미화 선생님 어땠어요? 서울에서 일하시면서.

노미화 서울에서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가 인천으로 옮겼어요, 학교를.

이형진 몇 년이었습니까?

노미화 교협하다가. 그러니까 해직되기 전 해.

이형진 아, 그러면 88년에?

노미화 그래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파면 당한거야. 맨 처음에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조용명 파면이야, 해직이야?

노미화 처음에, 처음에 파면이었어.

이형진 인천 어디?

노미화 석정초등학교. 반년 딱 다니고 3월에 발령 받아서 그때부터 8

월에 해직됐으니까 그럼 8월이지 우리가 똑같이.

이형진 그럼 89년이네요.

노미화 1년 반 했구나, 내가. 1년 한 번 가르치고 그다음 2학년 맡아서 정말 재밌게 재밌게 했어요, 애네들은, 정말. 집 앞에 학교였고 딱 반 년 만에 그만됐죠.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교사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미화 서울, 인천에서는 못 했고 그냥 기존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했죠.

이형진 인천은 그때 87년 투쟁 이후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이것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아직 조합원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상이, 학교별로 모임들이 많이.

노미화 후원회는 컸어요.

조용명 인천이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리한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이 다 그러면은 경북대 사대가 있잖아.

이형진 예, 그것만 잡으면 다 되죠.

조용명 그 경북대 사대의 운동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잘 돼. 근데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오히려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인천은 그게 없어. 그레가지고 전국의 대학교의 전시장이야, 인천은, 선생들이 그래서.

이형진 아, 인하대.

조용명 인하대가 사대가 없어. 그리고 국립이 아니라서 선생으로 발

량이 안 나오. 그러니까는 인천의 한 학교의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 출신이 같은 학교 출신인 사람이 한두 사람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인천의 한 학교의 선생들을 보면 서울대 나오는 애도 있고, 저기 뭐야, 공주사대 나오는 애들이 있고 경북대 사대 나오는 애도 있고 충북대 사대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래.

이형진 모임 만들기도 쉽지 않아.

조용명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결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형진 사대 출신으로 보자면 어느 학교가 제일 활발했나요?

조용명 공주사대. 당연 공주사대지.

노미화 제일 확실하고 열심히 이종태하고.

이형진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공주사대가, 공주에서 해서 인천으로 다 올라오신 건가요?

조용명 공주사대가 대학, 대학들 중에서 운동권이 제일 많았어. 아니, 물론 서울에서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다 있지만 서울대는 빼 놓고 나머지는 인근 지역에서는 공주사대만큼 운동권이 활성화된 데가 없었지.

이형진 공주사대는 사범대로 단과대학을?

조용명 그랬죠

김명길 요새는 공주대는 종합대학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공주 사대였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알아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형진 그러겠네요.

노미화 맞아, 서로.

홍경란 알기는 하는데 사실은 공주사대 출신들 중에서 그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연극 모임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여기저기 퍼져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종태 같은 경우는 서로 몰랐는데 인천에 와서 알게 된 경우가 맞아. 그냥 몇몇이 그럴 뿐이지, 사실은.

노미화 그런가, 근데 인천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공주사대.

조용명 다른 데는 아예 없어, 공주사대만큼.

이형진 자, 89년에 그러니까 그 전교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정부 당국이탄압해서 제대로 한 번 못 해보고 바로 해직 당하잖아요. 여름방학쯤. 그때부터 이제 고난에 처한 해직 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 그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갈렸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노미화 근데 이 사람은 늦게 해직됐어요.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부터 그러면.

노미화 나는 출근투쟁을 할 수가 없었지.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일이 많아 갖고.

이형진 석정초등학교에서 해고 통지 받고. 그러고 방학이 끝나가지고.

노미화 그냥 딴 담임이 이미 내 자리를 했으니까 거기들, 뭐.

이형진 학생들은 어떻게?

노미화 애들 어리잖아. 2학년이잖아, 사실.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게 놀러 갔죠. 애들이 다 몰려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형진 안 되겠더라고?

노미화 네, 다른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래서 다음에는 안 갔죠.

이형진 석정초에서는 혼자 해직 되었다는?

노미화 네, 혼자했죠, 뭐. 혼자 좀 반년이었고 각서 쓰라고 온갖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나한테 제발 각서 쓰라고, 우리와 함께 섰다 하자고, 탈퇴 각서 쓰라고. 근데 안 쓰고, 교감도 맨날 전화 걸고, 교감 친구도 나한테 전화 걸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그만 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죠.

이형진 아이들이 보고 싶었을텐데?

노미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보러 한 번 가는데 애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막 이제 이러니까 담임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요. 저 담임이 또 무슨 죄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죠. 근데 이제 그때 만나던 학부모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했고 그때 우리 반 했던 아이가 그때 경향신문인가 칼럼을 썼더라고 요. 그 무슨 얼마 몇 년 전인가 내가 여기 학교 선생님 하는데 담임을 노미화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노미화 선생님이 이러면서 학교를 그만두셨다 그거를 한 장면을 딱 써갖고 그때 무슨 노조가 뭘로 되면서 사무실 없어질 게 뭐지? 노조가 바뀌었잖아. 교원노조,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법외노조로 바뀐 게 몇 년도야?

홍경란 그게 박근혜 때.

김명길 박근혜 때문이야.

노미화 박근혜가 그래서 전교조 사무실이 갑자기 못 잡게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사실을 썼더라고요.

이형진 그때 꽤 읽혔는데. 본 것 같은데.

노미화 그거를 여기 강원지부에서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담임 이름을 개가 썼더라고. 그래서 개를 만났죠 그 엄마랑도 통화하고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 개가 인하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문집을 냈는데 매달 냈었어요.

개가 아주 암전하고 공부 1등하는 애야 암전하고 그런데 개가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지. 워낙 암전한 애니까. 근데 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선생님이 대해서 기억하는 걸 썼고 법외노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고 개가 인하대 국문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지. 인천에 가서.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은 곧바로 해직은 안 되셨어요? 89년.

노미화 제일 늦게 됐어요.

조용명 되게 늦게 됐어요.

이형진 사립 들어간 덕을 좀 보셨네.

조용명 김병상 신부님. 김병상 신부님이 못 가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를 폐쇄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신부님들이 얘기하고 그랬대요.

이형진 학교를 폐쇄한다?

이우재 인천 신부님들이 강력했어요.

조용명 허가를 교육부에서 정 그러면 학교를 폐교시키겠다 협박을 했나 봐요, 재단에다가, 인천재단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최후의 소명여고하고 박문여고만 남은거야, 저기서 아직 못 차른 데가. 소명여고는 이사장이 김수환 추기경이야. 그리고 박문여고는 이사장이, 징계위원장이 김병상 신부님이야. 그래서 징

계위원장이 못 자르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명여고에 서는 다 해직이 되고 나니까 교육부의 집중 탄압이 소명여고 하고 박문여고로 집중되잖아요. 너네만 안 했다, 너네만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명여고에서 잘랐어요, 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문여고만 남아서 박문여고에 3명이, 박문 재단에 3명이 남았어요.

노미화 박문초등학교.

조용명 초등학교에는 김정심 선생님이 남고 중학교에는 이영길 선생님이 남고 이제 고등학교에는 내가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교육부에서 저기 뭐야 이 학교를 폐교시키겠다, 재단 취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모였나 봐. 인천 신부님들이 강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폐쇄하자 그랬대. 그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신부들이 어떻게 학교를 폐쇄하나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났나 봐.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계속 징계를 안 하고 있다가 겨울방학 때 코너에 몰려 가지고 징계를 했어.

이형진 89년 겨울방학 때?

조용명 그래서 이게 이제 나를 1개월 정직을.

홍경란 하하, 완전히 면피성.

조용명 겨울방학 때 1개월 정직을 줬어. 그리고 그걸로 넘어가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걸로 넘어갈 수가 있냐구.

노미화 야, 안 돼.

조용명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신부님이 셋을 모아놓고 너네들을 다 자를 수가 없으니 하나만 잘리자, 너네 둘은 사표 써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노미화 탈퇴가 없었어.

조용명 다 저기 탈퇴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탈퇴 각서 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징계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썼지. 그리고 이제 나만, 나만.

노미화 이 분만 잘린 거야.

조용명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다 걸면요, 바로 복직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절차가.

이형진 그러면 초등학교 김정심 선생님과 중등에 이영길 선생님은 탈퇴하고 다시 복귀를 하셨고, 조용명 선생님은 거부해서 퇴직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함께 해직이 되셨네요.

노미화 좀 늦게 됐죠. 나보다 몇 달.

조용명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법적 절차랑 안 맞는 거야. 이게 일사부재리에도 안 맞고 징계 한 번 했는데 또 징계를 하나고, 탈퇴를 하라고.

이형진 근데 교원노조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 부부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해직된 케이스가.

노미화 있긴 있더라고요.

이형진 두 분 그러면 실제로 그 애가 둘이었잖아요. 당장 생계 문제가 닦쳤을 텐데.

노미화 그래서 되게 못 살았어요.

조용명 근데 퇴직금. 퇴직금 양쪽 받고.

이형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노미화 그런데 그걸로 집을 옮기는 바람에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노인

네 세 분에다 애들이 이제 커지니까 방을 한 방에 다 쓸 수가 없잖아.

이형진 노인 세 분은?

노미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또 할머니 계셨었고 그때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1천만 원인가 받아서 그걸 옮겼어요, 아파트를. 조금 괜찮은 데로, 학익동. 전교조 덕분에 목돈 생겨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10만 원씩 썼어요. 그치? 지부에서 후원금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1인당 10만 원씩 그럼 우리 20 받았어? 합쳐갖고?

이우재 뭐, 그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서?

노미화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 있는 선생님 각서 쓰고 들어간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별로 후원회, 후원위원장이 있었어. 그래서 매달 또 그걸 모아왔다고.

이형진 인천은 전체로 몇 분 정도 해직되셨죠? 44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상근자가 생긴 셈이잖아요.

노미화 그렇죠.

이형진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직원 노조 일을 이제 전담하시다시피 하셨잖아요.

노미화 그럼요.

이형진 상당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역할들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텐데. 조용명 선생님은 그때 이제 초대지부장을 하면서?

조용명 초대지부장은 신맹순 선생님이 했지. 나는 사립지회장.

이형진 예, 근데 이제 신맹순 선생님도 같이 해직 되셨잖아요.

조용명 그래, 뭐. 주말마다 행사가 있었어요. 주말마다 행사가 거의 있었고.

노미화 그리고 전단지를 그렇게 뿌렸어. 신맹순 선생님은 매일 이만큼씩 전단지를 해서 주고 가서 뿌려야 돼, 우리 다. 나 그때 이청연 선생님이 뭐였지, 사무장인가 그런데 나는 아기들이 좀 어렸어요. 근데 조금만 늦으면 너 학교 다녔으면 지금 출근 시간이지 왜 안 나와! 이래가지고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해직 됐는데 아침마다 나 사무실 갔다니까. 땡 치면 애네들은 어디 있었어, 그 해직됐어도 그러니까 나는 애네들 클 때까지 진짜로 얼마 노릇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월급이 10만 원이니까 반찬이 하나였다고. 김치만 먹었다니까. 김치, 김치찌개, 김치, 김치찌개. 나 그러면서 평원이야 학교를 1학년 들어갔어. 근데 전부 집에 있고 애 하나 학교 가는 거야, 우리도 다 해직이고. 우글우글 있는데 거기서 애 하나 이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이형진 전교협 사무실이 그때, 그래서 처음에 해직 때 어디서 시작을 하셨죠?

노미화 답동.

이형진 답동성당?

노미화 아니요. 답동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우리가 돈 모아서, 예. 답동 사거리에 뭐였지, 무슨.

이형진 굴비 수익사업 같은 걸 거기서 이제.

노미화 거기 2층에, 전체를, 이제 밑에는 무슨 대리점이 있었고, 위에 올라가면 2층, 3층에 주인이 살았는데 옛날에 거기가 무슨 병원이었대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무실로 쓴 거죠. 터서 넓게, 화

장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40명이 너무 오글오글오글 앉아 가지고 점심을 맨날 해 먹었어, 거기서. 500원씩 걷어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이제 오늘 내가 당번이면 내가 이제 500원씩 걷어. 그래서 그걸로 옆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 신포. 거기 가지고 이제 어묵 같은 거 사갖고 이만큼 끓여서 밥 먹고, 남들, 다 몸이 안 좋아. 약 먹을 물 다 약을 이렇게 먹더라고. 자, 약 먹는 시간 그러면 이제 약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나가서.

이형진 해직 기간에 학부모들하고 모임이 하셨던 같아요?

노미화 그런 게 많았죠.

이형진 그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전교조 선생님 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특히 해직되신 분들하고.

노미화 인천은 그 주안 5동 성당 사무장님이 회장이었어요. 김홍수하고 또 오성자라고 무슨 교회지, 사모님이예요.

조용명 무슨 교회더라, 성결교회.

노미화 주안성결교회인데? 좀 시골스러운 교회예요. 거기서 고등학생 들 싸움(싸움을 지원?) 많이 지원해줬지. 갈 데 없는 고등학생 은 거기서 모임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집회 준비하고 거기서 맨 날 밥 먹여주시고 우리도 먹여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교회를 많이 써먹었어.

이형진 그러면 학부모와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지지 하는 학생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되어갔나요?

노미화 그래서 학부모회가 또 전국적으로 조직됐거든요. 그래서 인천 도 인천 참교육 학부모 해가지고 제법 모임이 컸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다 뽑고 그 모임이 내가 이제 전교조에서는 제가

연대 사업 담당해서 모임에 나가고 그다음에 공부방이 인천에 는 많았거든요. 송림동 저쪽에 빈민운동하는 여자 선생님들, 목사님, 조인영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또 연대 사업 거기서 교육부를 맡았어요. 인천 공부방을 만들어서. 교육부를 만들고 어린이 사업하고 애들 가르칠 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걸 제가 되게 바빴어요.

하여튼 거기를 많이 갔어, 내가, 공부방을. 이 큰 애 들쳐 업고 그 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 교육운동다운 교육을 한 게 나는 이 연대 사업 같아요. 학부모하고 그 지역 공부방 연합회가 그래서 이제 5월 5일에는 인천시 전체 공부방,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부방 연합회 어린이 마당을 펼쳤는데 그게 지금의 어린이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 5월 5일마다 하는 거 있어요. 그 행사의 전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일찍이 했어요. 인천대, 인하대에서 했고 나중에는 인천교대에서 인천 교대생하고 공부방 연합회가 연합해서 학부모 행사를 할 때 몇 천 명이 왔어.

이형진 인천 교대생들 하고도요?

노미화 교대 학생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공부방 연합회 이 사람들하고 인천교대 학생회 전교조 같이 해가지고 인천 전체 애들을 모집을 하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2천명이었나. 그래서 인천 교대가 제법 넓거든요. 그때 위키토키가 있었어요. 그 앞에 교문 앞에 있는 애하고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애가 위키토키를 찍 으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막 조를 짜서 올려보내면 이제 한 여 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곳곳에서 한 군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위키토키로 막 하면서 애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개네들이 나중에 졸업하면서 전교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88 학번. 미친 88이라고 그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지금 왜 학교 교장 하는 전교조 있어요. 뭐지 그건 무슨 교장.

이형진 교장 공모제?

노미화 그런 거 하는 애들이 그 학생회 출신이야. 김진규 같은 학생 회장이었는데 개네들은 졸업하면 자진해서 왔어요. 전교조 가입하겠다고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씩씩하게 잘 와서 개네들이 많은 힘이 됐지.

이형진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기성 교원과 전교조를 도외시했던 상당히 많은 그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젊은 교사들과 전교조 운동을 했던 분들이 해직되고, 바깥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해직 교사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학부모회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그 교육계에, 어, 큰 충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노미화 보이지 않게 저는 분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 밖, 뭐라 그러냐. 교육 활동을 잘 진행하지 않았나, 소외된 아이들이거든요.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좀 소외되고 공부도 못하고 못 살고 그런 애들을 이제 이 빈민운동 차원에서 하던 것이, 교육 운동이라는 좀 내용이 좀 달라졌죠. 우리가 그 교육안을 짰거든요, 주제하고. 이렇게 해서 전교조에서 나오는 온갖 그 노래. 테이프. 모든 자료는 제가 가서 다

뿌렸으니까 각 교육받고 공부방 연합회에 그걸 줬는데 그렇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공부방 선생님들이 전교조에서 나온 교육 자료를 굉장히.

이형진 인천은 교육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교사운동이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노미화 그게 컸어요. 그거 하고 학부모회하고 그러면 학부모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네들이 이제 어린이날 행사한다면 그런 애들이 공부방에서 오고 학부모에서도 오고 선생님들은 또 교실에서 애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게 크더라고. 해마다 그게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좀 다르게 하고 여름에 5월 5일은 그렇게 하고 또 방학 때는 이제 풀벌레 우는 교실 그냥 캠프, 캠프를 많이 했죠. 그런 준비를. 그리고 노동자 자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연대 사업이니까 공장에 가면 그 학부모들이야, 그 노동자가.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전교조가 필요한지 우리는 뭘 왜 교사 노조를 만들었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여주세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거기 자녀가 있을 거 아니야, 개네들을 캠프를 했죠, 제가, 방학 때. 그 자녀들 데리고 소규모로 1박 2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그때 무슨 노조 위원장 애들.

이우재 교육 운동을 학교 안에서 하지 못하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거야.

노미화 그때가 진짜 교육운동 같아. 나는 교실에서 해봤자 교실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애네들은 그 한계가 없는 거에

요. 그래서 뭐 학부모 캠프 무슨 캠프 이런 거 이제 다 해직 여 교사들 모아놓고 같이 했죠. 나는 주로 기획하고 같이 댈 게 강성숙이니 뭐 이런 저기 선생님들이 가서 같이 발로 뛰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중등 해직 여교사들은 영어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 가서 가르쳤어요, 야학처럼.

이우재 그게 인천에 공부방이 주민, 반민운동의 마지막 피크예요. 그리고 다 그냥 그런 거 급속히 급속히 다 해체돼 버리죠. 그게 마지막 피크예요.

노미화 복직되면서 이제 좀.

이형진 89년에 해직됐다가 이제 5년 만에 복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94년인데 그러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

노미화 근데 이제 제가 연대 전국연대 사업부 회의가 있어요. 전교조에 가면은 우리 같은 활동을 하는 데가 없어.

이우재 어, 그랬어요?

노미화 공부방 사업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요 되게 특이한 경우여서.

이형진 지역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한 부분은 좀 특징이?

노미화 다른 데도 지역 시민운동하고 손잡고 했는데 주로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이런 공부방 이런 게 아니었고.

이형진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들이 많아서 교육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노미화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 자녀들 또 그 학부모들 또 공부방이라는 빈민 이쪽에 많았잖아.

이형진 그걸 착안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눈을 돌린

건가요?

노미화 그게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형진 그럴 계기가 있었나요?

노미화 공부방을 제가 서울로.

이형진 원래 난쏘공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노미화 난쏘공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기 엄마가 되다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런 게 필요하겠단 이런 게 보이잖아. 근데 내가 지원할 수 있어. 전교조의 좋은 자료가 많아. 노래 테이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걸 주면 거기 담당 선생님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애들 그냥 모아놓고 뭘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밥 해 먹고 데리고 놀고 뭐 그러다가 내가 이런 거 주고 같이 모여서 이번 테마를 잡고 이번 달에는 애들하고 이런 거 해 봐요 꼭 국어 수학 말고 숙제 지도 이거 말고 그러면 그런 걸 애들하고 활동하면 그거 일 년에 한 번 모여서 전시회를 열어요.

이형진 공부방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수용했어요?

노미화 했어요. 그래서 그 문집도 내고 그게 또 자료가 다 있어요. 그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럼 부평 1동 성당 같은 데는 빌려주잖아. 그럼 전시회를 열어. 그럼 공부방 모임이 다 모여. 굉장히 많아. 그러면 저 아주 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개네들 작품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전시하고 애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런 걸 매년 했었어요.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함)

이형진 3부인데 이제 좀 치열했던 전교조 활동을 지나서 복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두 분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지금 교직원 노조나 이런 상황들도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참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두 분의 활동은 그러니까 그 교사들의 지위 끌어 올리는 문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인천 지역이었고, 교육 환경이 대단히 안 좋은 곳이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강화에서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오서가지고 여기서 교직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의 소회나 이런 걸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교조 활동으로 교직원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해적이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거거든요.

노미화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었고 또 기쁨도 있었죠, 그거하면서.

이형진 즐거웠던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시죠.

노미화 안 그러면 안 했겠지, 도망갔겠지.

이형진 그러니까 뭐 굴비팔아서 이제 같이 생계를 찾았죠. 에피소드나 이런 걸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직을 하실 무렵에서 실제로 이제 강단으로, 교단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텐데 그래서 그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노미화 네, 복직 전에 엄청 걱정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형진 그러니까 독일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연구나 이런 것도 하셨는데.

노미화 네, 그래서 스위스도 갔다 오고. 끌려갔지만.

이형진 네, 그런 부분들 경험이 좀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노미화 근데 저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늦게 복직을 해갖고 또 제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형진 인천 사무실에서?

노미화 네, 특히 이종태가 그랬어. 자기는 인격이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라고 그런 얘기. 공립지회장하고 그랬던 공주사대 출신인데 페인같이 자기는 인격이 아주. 아니. 뭐 무슨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 그걸 막 걱정했어요. 그래,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격을, 우리 좀 어디 잘 해보자, 맨날 싸움만 했으니까. 나가서 투쟁 투쟁 투쟁 이런 것만 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선생님들 조직하기 위해서 만나고 맨날 뭐 그런 거 짜고 만나고 저녁에 하는 일이 그런 거였거든요.

선생님들 퇴근하고 돌아가고 사무실로 모이잖아요. 다 지회별로. 뭐 그럼 이제 고3들 모아서 뭐 하고 맨날 이런 것만 짚지 아이들하고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못 했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종태가 역시 제일 잘 지내는 것 같아.

이형진 과목이 뭐였죠?

노미화 이종태 국어했지.

홍경란 도덕.

노미화 아, 도덕이었어요? 그 도덕적으로 자기 되게 피폐해져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공모제의 교장이거든요. 아주 학생들을 교문에서부터 정말 기쁘게 맞이하면서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애들이 막 교장실 너무 막 찾아오고 드나들고 막 이러는 게 지 폐복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종태 선생님도 열심히 꿈꾸던 일 하고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형진 그, 스위스의 발도로프 교육.

노미화 그건 제가 이제 가기 복직 전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이형진 느낀 게 있었습니까?

노미화 그 당시에 이제 뭐 발도로프 교육이 막, 줌, 붐이 일어난 때였고,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스위스에, 거기는 슈타이너 교육이라고 그래요. 발도르프 교육 창시자가 슈타이너거든요. 슈타이너가 죽은 데가 스위스예요. 바질이라는 곳에 가서 13일인가 연수를 하고 오면서 이제 지부에서 같이 갔죠, 초등 선생님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초중고를 보면서 충격도 많이 받고.

이형진 어땠습니까? 충격이?

노미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완전히 발달 중심으로, 인간 발달. 그리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한 담임이 맡아요. 내가 애를 맡으면 애를, 인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사 하나가 완전히.

이우재 1학년 때 들어오면 개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노미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그 발도로프 유치원 같은 데는 태어나자마자 짬 하더라고요. 그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마을에 보니까 그래서 들어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여기를 미리, 많이 안 받으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딱 분위기가 가면 너무 평화롭고 너무 뭐라 그러나, 포근한 집? 유치원이. 그런 곳이고 아이들이 발달이 지금은 새 이빨이 나오는 시기라서 왕성한 시기고 그때가 입학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되게 저는 뭐라 그러나. 되게 좋게, 그만큼 또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하나하나가 나이가 많더라고, 잦더니. 교사들이 그리고 교무실에 가면 뭐 이렇게 독일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어요. 계속 끝없이 자기가 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실 상황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없어. 교육청이 있는데 그 발도로프 자체에도 우리하고 전혀 다른 뭐 공문 내려 보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교사들이 알아서 계속 의논하고. 그리고 연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학교 환경이 일단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반만 돼도 우리 선생님들 너무 행복하게 애들 가르치겠다, 그 가르치는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이런 걸 확인했어요, 제가.

그 강당이라든지 연극,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연극을 할 수 있는, 넓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 공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학교가. 그리고 애들이 이제 뭐 뒤집어쓰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갖춰 있고 바느질을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1학년서부터 수공예만 쪽. 이제 1학년 때부터 쪽 있어, 6학년 때쯤 인형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애들마다 자기 바느질 바구니가 있잖

아. 예를 들면 내가 하던 거, 그게 이제 그 수예 선생님 방에 이렇게 애들마다 자기 바구니가 있고 수예 선생님은 그것만 가르치지. 수공예 선생님 한 머리가 허연 노처녀 선생님이시던 데 그분이 수공예를 가르친다, 예를 들면 수공예 하나만 봐도 목공. 그러면 목공실에 목공 선생님이 있어요. 그것도 1학년서 부터.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끈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묶어서 이렇게 돌리면 막 소리 나. 아주 단순한 도구를 만들어서 놀잇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조각 품까지 쪽 나가는 의자도 만들고 뭐도 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할 수 있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목공실이. 너무 아름다워, 목공실이. 목공실 하나만 예술이야, 내가 봤을 때. 도구 하나서부터 그런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거기서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발표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발도로프 한 사람들이 그 스위스에서 솜을 수입을 해서 그 솜으로 인형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어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개네들이 가르치는 동화가 있어. 동화를 많이 읽히지, 주로. 그쪽 동화 그거를 사다가 뭐 개네들이 하는 공책을 사다가 해, 발도로프 학교에서. 귀족 학교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하거든요, 모든 소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여치집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밀 때, 보리 때 그런데 강화에 내가 학교 했는데 보리가 이제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베어다가 그거 말려서 애들하고 이렇게 여치집을 만드는 그게 반짝반짝해, 보리 때가. 아 뭐 그런 수업을 제가 그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복직해갖고 강화에 조산초등학교 그때였던 것 같아.

이형진 95년인가요?

노미화 94년에 복직했죠. 인천에서 한 2년 했나요? 언제 이사 왔지?

이형진 정확치가 않아요. 복직하고 나서 조 선생님이 강화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게 언제 96년?

이우재 아들, 아들, 몇 살 때? 큰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노미화 평원이 6학년이니까.

홍경란 6학년이면 몇 살이야?

노미화 6학년이면 12살.

홍경란 12살 정도 됐을 때잖아요.

조용명 13살.

노미화 96년? 그러니까 인천에서 한 복직해서 2년인가.

이우재 그럼 맞네요. 94년부터 해서 2년 있다가 그러면 96년 맞겠네.

이형진 96년의 강화로. 학교는?

노미화 제일 첫 번째 학교가 생각이 안 나네. 명신?

조용명 조산초등학교 아니야?

노미화 명신초등학교, 처음에는, 저기. 당신이 나 태우고 다녔잖아, 조산은 나중에.

조용명 조산이 나중에야?

노미화 그럼.

이형진 조 선생님은 그때 강화로 그러면 전근을 가신 건가요?

노미화 아니 그냥, 복직이 안됐어.

조용명 지부장이었지.

노미화 상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우재 복직이 안 된 게 아니라 안하신거죠?

조용명 안했어, 응. 탈퇴 각서를 그때도 형식적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부장마다 다 안 쓰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노미화 상근자가 남았죠. 근데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이형진 10년 만에 복직하셨어요? 89년에 이제 해직돼서 십년 만에 복직했으면 99년인 거 같아요. 99년에나 2000년쯤 되는 거 같은데요?

조용명 네, 그때 복직을 하려고 그러다가 1년이 더 미뤄졌어요. 내가 또 폐결핵에 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이 더 미뤄졌는데 그게 99년인지 2000년인지 모르겠네.

이형진 복직하면서 그러면 강화에 있는 고등학교로?

조용명 강화 고등학교.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은 강화고등학교에서 다시 국어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감회가?

노미화 되게 실망했어요.

조용명 되게 실망했죠.

노미화 누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

이형진 인천하고도 또 많이 다르죠?

조용명 그런데 이제 인천도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애들하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저기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교사들이 들어가는 통로는 중앙에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내가 그런 통로들을 잘 이용 안하고 이렇게 학생들 다니는 데를 내가 잘 다녀요. 그런데 그 학생들 다니는 통로로 들어가면요, 가래침 냄새가 확 나. 애들이 그 땅바닥에 그 복도 이런데다가 그 가래침을 그렇게 뱉어가지고 그 냄새부터가 확 나.

이우재 고등학생은 담배도 피우니까 담배 냄새도 확 나지.

조용명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바로 그 앞에서도 가래침을 뱉어.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애들한테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지.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건데 그 사실 10년 동안, 왜냐하면 옛날 애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또 여학교에 있었으니까 박문여고 애들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우재 무슨 시대가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함부로 뱉으면 안되지. 그건 상식이지.

조용명 아니,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지적질을 해가지고 첫해에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우재 끈대소리 엄청 들었겠네.

조용명 그래, 이제 반장 애가 굉장히 모범생이야. 반장, 반장 애는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야. 애는, 애는, 애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애야. 애들 생활 태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싸우다가 그다음에부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애들을 받아들였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난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심도중학교를 갔는데.

이형진 한 2년 정도 하시고.

조용명 한 2년인가 꽤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심도중학교를 갔는데 거기 애들은 순박해.

이우재 그게 또 동네 시골이니까.

조용명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여기 이제 강원도로 와서 삼척 중학교를 갔는데 삼척 중학교 한 1년, 2년 한 2년 동안은 내 교육 생활에서 가장 악몽 같은 세월이었어요. 말을 안 들어.

이형진 삼척중학교 오신 게?

이우재 아니, 요새 중3이 나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나이예요.

이형진 2005, 6년 정도 되셨나요?

조용명 그 정도. 2006년이라고, 이 정도. 그래가지고 수업으로 일단 들어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노미화 그때는 양양으로 오고서, 발령나고서.

조용명 수업,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막 떠들고 이 수업시간에도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들끼리 막 싸움하고 그래.

이우재 돈 안 줘서 싸움하고 있다며. 선생은 앞에서 가르치는데.

조용명 선생님들은 무슨 점수 깎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점수 깎는 걸 애들 하나씩 걸릴 때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한 거야. 치사한 것 같아. 그랬더니 뭐 통제가 안 돼서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는 삼척은요. 또 학부모들 입김이 워낙 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내 생각에는 이해찬 씨가 교육부장관 하면서 그 학부모들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렇게 개입을 하게 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부작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애들을 손을 댈 수가 없어.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우재 아니 내 동생들이 다 명퇴한 게, 서울 애들은 때려때려 그랬대.

조용명 삼척도 그래.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게 이게 통제 완전 불능이야. 그래가지고 그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한 2년을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잘 해서 때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악고등학교 속초로 왔어요. 2년인가 하고, 삼척에서 2년인가 하고 재수가 좋아서 거기 그 학교에 학급이 줄어들어서 바람에 티오가 줄어 삼척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이 속초로 지원을 해서 이제 속초로 온 거야. 그래서 속초를 왔는데 설악고등학교를 왔는데 거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예요. 옛날에 속초상고야, 거기야.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가 한 몇 명 돼요.

개네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네들이 책이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서너 명이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다 자고 떠들고 그래도 공부를 가르치잖아. 그러면 애들이요, 개네들 책을 다 훑쳐가지고 다 어디다 버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애들이. 그 공부 이제 하던 서너 명의 애들이 책이 점점 없어져

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명이 맞아 책이 없어서 그러면 개가  
떨거나 있는 거야. 그니까 책이 있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우재 뭘 소리야, 이게 기가 막히네.

노미화 학교 붕괴지.

이형진 2000년대의 학교 풍경이.

조용명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뭐 좀 전교조 학부모들이 여기 참여  
한 것도 전교조의 사실은 그 역할인 거고, 학생들이 체벌을 없  
애고 학생들의 자유를 막 얘기한 것도 전교조거든. 그게 전교  
조 바람대로 되긴 된 건데 와, 나, 이거 나 못 받아들이겠더라  
고.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최근의 한국과 미국 등의 교육현실을 이야기 한 부분은 생략했음)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은 강화에서 아이들을 계속 상대하셨잖아요, 지  
금까지.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강화나 이렇게 이제 인  
천이 서울, 인천, 그리고 강화로 옮기면서 이제 많이 다른 것들  
을 접하셨을 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노미화 저는 교육 환경이 우선 서울하고 인천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  
랬는데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어요. 옛  
날에, 옛날 사람이야, 석탄 뿔거든요, 교실에서.

이형진 지금은 그렇지 않죠.

노미화 인천에 오니까 연탄이더라고요. 그리고 연탄을 수위아저씨가  
갈아줘. 교사가 안 만져. 우리는 석탄을 내가 집어넣고 당번이  
갖고 오면 그 애들 가고 나면 그거 꺼내서 그거 하는 게 일이

였거든요, 맨날 맨날.

그러다가 왔어요. 그랬는데 강화를 갔더니 석유야. 석유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완전 천장 깨끗하고 천만 원 나와서  
1학년 교실 또 짝 뜯어고치고 교육청에서 뭘 뺄 뺄 안 하잖  
아, 소위. 일체 뭐 그 모든 걸 현장에 투자하니까 진보 교육감  
이니까. 그 예산을 다 내려 보내니까 선생님들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교실을 막 최신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내가 스위스 갔  
을 때 갔던 학교 부럽지가 않더라고, 운동장도 깨끗하고 인조  
잔디였는데 그냥 잔디로 짝 같고 전체를 너무 좋아요. 이 시골  
학교 가보면 시설도 좋고 학습 자료 다 가득, 가득이야.

이우재 시골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미화 우리 딸이 여기서 이제 1학년부터 다녔잖아요. 막내가 여기 있  
는 조그만 학교 다녔거든, 육 학급. 그런데 1학년서부터 바이  
올린 전교생 방과 후를 해야 돼. 방과 후 비용이 나와, 그럼. 가  
르쳐야 되잖아. 그 몇몇 안 돼, 뭘 가르쳐. 바이올린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바이올린을 사야 돼, 그 강사 불러야 돼, 제가 그  
런 거 담당이었거든요. 방과 후, 담당. 엄청 바빴어요. 월급 계  
산하느라고. 근데 애들한테는 정말 좋더라고요.

노미화 강화에 처음 발령 난 명신학교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는 완전 극과 극으로 간 거야. 갑자기 도시 학교에 있다가 서  
울에서. 그런데 10명을 가르치는데 딱 세상이야, 딱 세상. 막  
숨바꼭질하는데 못 찾겠더라고, 운동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좁혀서 놓고. 너무 넓어서. 애들이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막 우리 땅 여기까지, 여기서만 놀지 막 거꾸

로. 그래서 되게 교육 환경이 좋구나, 시골이. 그런 거 서울 선  
생님들의 노동 강도가 똑같이 교육 노동자라고 치면 몇 배에  
요. 그거를 나는 절감했어.

이우재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중간에 끼지만, 서울, 시골일수  
록 요새 저렇게 교육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꼭 이게 교육의 어  
떤 척도는 아니지만 서울대나 뭐 이렇게 해서 명문대학교 들어  
가는 거 전부 지금 강남 아니야, 강남. 지금 거의 강남이지 뭐.

노미화 근데 초등은 모르겠어요, 초등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서울에  
도 공부 못하는 애,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80이면 이만큼 잘  
하고 나머지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0명이니까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초등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

이우재 애들한테, 아무래도 80명 상대하는 거고, 10명 상대하는 거  
고, 다 그러니까.

노미화 너무 좋아서 이제 다 자식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를 옮겼  
거든요. 명신 집 앞에 있는 조산초등학교. 동네인데, 계명원이  
인천에서 글로 왔어. 반대를 무릅쓰고 계명원이 옮기면서, 그  
게 6.25때 생긴 고아원이었는데, 계명원이 이제 조산초등학교  
옆으로 이사 오면서 아주 시설 좋게 잘해놨거든. 개네들이 이  
제 학교에 구성원이 되면서 내가 이제 개네들을 가르치잖아요.

이형진 계명원은 그러니까 지금도 고아들이?

노미화 그냥 있는데 보낸, 키울 수가 없어서 보내거나, 고아이기도 하  
고. 어디서 엄마 아빠 잊어 버려서 길에서 주워온 애도 있고  
다양해요. 고아도 많아. 그랬는데 그 애들이 이제 섞인 시골

학교였는데 한 열 몇 명이었는데 그때가 나는 그러니까 발도  
로프 교육을 실천했다고 그러냐? 그거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애들이 이만큼이니까.

1학년이니까 그게 순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1학년이  
니까. 그럼 첫 시간이면 예를 들면 발도로프는 굉장히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를 애네들이 하는 식, 수채화를 할 수  
있는 도화지가 있어요. 되게 좋아. 그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  
여, 개네는 안 움직이게.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 가운데 한 줄  
긋기가 한 시간이야. 근데 나는 이게 테이프까지는 아니고 내  
가 이렇게 놔줄 수 있잖아, 책상에.

이형진 그리고 이제 하나씩 시키는 거?

노미화 한 가지 색만 골라.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 쥐고 같이 가운  
데가 어떨까 근데 진짜 한 시간 걸리더라고. 여기서 가운데가  
어딘지 애들이 점 찍는데 너무 긴장을 하는 게, 1학년이라서.  
그래갖고 하나 긋는데 한 명씩 나와서 그어보라 그랬어. 똑바  
로. 괜히 똑바로가 안 돼. 약간씩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이름 써서 한 명씩 다 긋고 들어가고 다시 그어보고 이러  
게 하는데 한 시간이더라고. 정말로 가운데줄 하나 긋는데. 그  
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선 그리기라고 해갖고 1학년은 통합 과목이 많았거든, 슬기로  
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러니까 내 나뉠대로 구성을 해서 수업  
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백 프로는 아니  
지만 어쨌든 미술은 선 긋기로부터 시작해서 색채도 세 가지  
색만 나눠주고, 그다음에 좀 넓혀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중에는 애들이 이름 안 써도 누구 그런지 다 알아, 다. 그 색채가 개가 고른 색이 있어. 개가 그리는 선은 달라. 똑같이 그었는데. 그걸 애들이 다 발견하니까 애들이 뭐라는, 굉장히 섬세한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학교에 오는 길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뭐 하나만 딱 따 갖고 와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걸, 잘, 말을 잘 들어. 민들레 하나 이런 걸 따 갖고 와. 굉장히 소중한 거야, 1학년이니까. 그럼 그걸 모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애네들을 만났구나,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가르치는데 계명원 애들은, 계명원 선생님이 학부모보다 너무 잘해와. 숙제랑 준비물을. 그 처녀 선생님이 이 엄마들은 좀 개판이다 시골 엄마들은 숙제 내줘도 잘 안 봐주고, 준비물도 안 해 와. 그럼 계명원 애들은 다 해서 보내면 이제 그걸로 나눠줘. 많이 보내기도 하고. 어디서 또 뭐가 들어왔는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좋은 거, 왜 이상한 초콜릿 같은 거 많이 갖고 오면 다 나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명원 선생님들하고 또 내가 되게 친해지면서 개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설날에는 세배도 하고 우리 집에서 떡국도 끓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 애들이니까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가르치면 너무 열심히 글씨를 써 갖고, 글씨를 이제 시작할 때도 이 발도로프는 1학년은 선생님만 쳐다보는데 애들이 그대로, 진짜 그래. 1학년은 나만 따라 해. 2학년 되잖아. 내가 여기다 머리 뺀 꽃으면 자기도 여기다 꽃고. 근데 3

학년부터는 안 그래. 그게 다 이제 이게 발달 단계를 너무 섬세하게 알아 갖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네들이 너무 따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애네를 너무 데리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2학년 때도 계속 가르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다 바꾸잖아, 교장 마음대로.

그래서 개네들 2학년까지 가르쳤나, 어떻게 했지? 1, 2학년을 가르쳐, 그래서 개네들하고 헤어졌는데 내가 3월 한 달을 너무 안타까워서 그 복도에 가서 개네들을 보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너무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선 그리기 이런 거 안 하잖아, 답임이. 2학년 때부터는 색이 좀 다양해지고 더 폭넓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개네들을 되게 예뻐서, 내가 애네를 너무 예뻐해서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나는 셋째가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이우재 아이씨,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노미화 하여튼 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개네들이 자식 같아서 나는 우리 자식은 다 컸으니까 애네를 자식처럼 키워야지, 이런 욕망을, 또 욕심을 가진 거지.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우재 아니, 그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노미화 그 김중미 씨가 인천에서 기차길 그리로 이사 가면서 애네들이 거기를 다닌 거야. 김중미가, 공부방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공부방 비슷하게 김중미가 거기 이사 와서 살아요. 그래서 뭐 책 팔아가지고 뭐 1억인가 그걸로 집을 샀어, 좋은데. 그래 갖고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애네들이 간 거야, 계명원 애들

이. 부모도 없고 이러니까 개네들이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 내가 한 애들이 가서 내 얘기를 그렇게 했나 봐, 김중미 앞에서.

노미화 선생님이 이거 했고, 노미화 선생님이 이거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공깃돌을 만들어서 막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번에 그, 너무 웃겨. 그 칼럼 쓴 애, 정, 정, 정지은이야. 정지은을 만나러 인천을 갔는데 거기 공부방에서 기차길 공연을 하더라고. 거기에 내가 가르친, 선생님 이렇게 또 써도 돼요? 이런 애가 있어, 글씨 열심히 쓰고 이런 애. 개네 둘이 거기 있더라고, 삼촌이 돼갖고. 삼촌이 돼갖고, 그 기차길에 이런 거 개가 만든 거예요.

이우재 아이고, 야.

노미화 성수. 개를, 내가 미소를, 선 그리기 할 때 진짜 열심히 한 애가 있어, 성수라고. 다른 애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개는 이제 글씨도 처음. 배운 거야, 애들이. 기억을 쓰면, 나랑 똑같이, 시작! 하면 숨 멈춰 시작!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글씨를 가르쳤어, 글씨를 잘 썼어요, 애들이. 예쁘게.

그리고 글씨를 재밌게 배우고 그리고 일기를 썼는데 집에 갈 때 성수가 선생님 일기 또 써봐도 돼요? 뭐 이러는 애야. 그러면 애들이 일기를 써와. 그럼 너무 예뻐, 내 생각에. 그래서 맨날 칭찬만 한 거야, 애네들한테. 어쩔 이렇게 잘해, 어쩔 이렇게, 공부 시간에 내가 맨날 놀래. 그리고 애들이 뭘 이렇게 따갖고 와. 그러면 너무 예뻐. 그럼 내가 어머니, 어머니 이 소리

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아기가 생긴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나이도 많은데. 아 니, 45세, 45세에 낳았다고.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건 그랬고 그래서 개네들이 예뻐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휴직을 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이 나이에 아기가 생긴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비밀로 하다가 배는 점점 불러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막 난리를 쳐갖고 뭐 부족한 게 왜 애를 낳았냐고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강화 산부인과에서. 되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신체 검사하는 날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왜 엑스레이 찍었냐고 종합 검진하는데 교사들 임신했을 수 있는데 왜 엑스레이 찍었냐는데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2001년생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쉬면서 학교에 안 가게 됐죠. 한 3년 휴직했다. 하여튼 그때 휴직 제도가 생겨가지고, 3년이 최대여서, 난 이제 3년을, 그래서 그때 애 키우면서 이 사람은 심도중학교에서 티코 타고 학교 다니고, 나는 막 아기 키우면서 남편 막 이렇게 기다리고 이걸 진짜, 진짜 행복한 아기 엄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지 처음 안 거예요. 애랑 이런 행복한 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애네들은 없어, 이런 세계가. 공감, 그러니까 막내는 지금도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이 자랑스럽고 모든 일이 기쁘고 애는 막 그 중학교 설악여중인데 전교조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쳤대요, 중1 때가, 허은숙? 애가 막 복도로 나

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전교조예요 이랬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선생님이 전교조 지회장인가, 뭐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애를 처음 봤대. 자기 엄마가 전교조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려고.

개가 아기였을 때 이제 내가 휴직 중이니까, 이제 글씨 모르는 계명원 애들이 와서 글씨를 배웠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럼 옆에, 엄마 옆에 무릎에 앉아서 열심히, 그 오빠 언니들하고 놀고, 개네들이 되게 예뻐해 주고 하여튼 그리고 동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사 왔잖아 이영준이. 그 애들이 또, 자식들이 우리, 내가 맡아서 가르쳤어요, 1학년 때. 이영규 아들, 있어, 우리 전교조 조합원의 아기가 커서 1학년이 돼서 그다음에 나는 주로 1학년을 맡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1학년으로 퇴직을 했는데 1학년 담당 비슷하게 돼갖고 그냥 개네들 1, 2학년 가르쳤나? 그래서 개네들까지 하고 아기를 낳고 휴직하고, 지금 언제 이런 거지? 하여튼 애가 여섯 살인가, 휴직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갔죠, 다시. 조산초등학교로 가기로 약속했는데 글로 발령이 안 나고, 또 이제 어디로 가냐? 강남에, 강남, 뭐지? 그 전등사 밑에 있는 학교로 복직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일로 오게 된 거예요.

이형진 여기 온 게, 이제 2006년.

노미화 네,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막 거기서 만난 게 없냐, 강화 다리에서 몇 년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지.

이형진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교직을 그러니까 계속 하시다가 마무리

를 하시잖아요?

노미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무리를 할 줄 알았죠. 애가 크면 나는 조산의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뼈를 묻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계명원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줄 알았지, 내가. 그리고 우리 큰 애들은 다 친구야 계명원 애들. 왜 친구가 있어. 우리 아들은 제일 친했던 애가 자살을 했어, 근데. 고3 때인지 언제인지.

그런 불행이 있고 오건이는 되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 배석이라고. 배석아! 이 기집애는 지가 좋으면 조용히 좋아해야 되잖아. 대석을 너무 좋아해가고 대석이 오건이만 보면 막 뛰고 그런 생각이 나요. 개를 되게 좋아했어. 아주 축구도 잘하고, 빠릿빠릿한 계명원 남자애였어. 근데 개도 중학교 때인가, 엄마를 만났는데 병을 얻어서 암으로, 갔어. 그래서 막 개 병원에 가서 하여튼 그런.

이우재 어린 애가, 대석이라는 애가? (배석인지, 대석인지)

노미화 응, 그래서 개는 갔어, 하늘나라로. 그니까 참 불행해. 개 불행한 환경의 친구들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평원이는 지금도 거기 계명원 출신 아이가 할머니랑 살다가 이제 계명원에 온, 한글도 모르고 왔던 애가 똑심 있는 남자애가 지금 계명원에서 뭐 해요. 복지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아기를 셋 낳았어.

강화 가면 꼭 그 집에서 자. 평원이 절친이지, 말하자면. 평원이의 세계는 좀 그래, 친구 관계가. 그리고 오건이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그 아기 낳고 키우던 그 2년? 내 인생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예요. 너무 행복했어, 하루하루가 다. 아기가 너무 예쁘고 아기 기저귀 빨아서 이렇게 짹 널잖아, 하얗게. 햇빛에 그거 참 널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동네 여자들 보면서 어머 이 여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집에서 지냈는데 나는 뻘 뻘하게 학교에서 그러고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왜냐하면 엄마가 같이 살았어요. 친정엄마가 건강하셨고 아버지는 속 썩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왔다 갔다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생활비가 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이형진 2006년에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노미화 아니야, 첫째는 휴직했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거야.

이형진 변화된 교육 환경을 보셨는데 노미화 선생님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노미화 왔는데 여기도 여전히 시골 학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교장, 교감들이 나를 너무 색안경을 쓰고 봐가지고 첫 학교가 조산이에요. 똑같이 조산이었어요, 이름이. 거기도 학교도 예쁘고 애들도 막 열 몇 명 정도, 예뻐거든요. 데리고 나가서 수업하면 막 방송해, 노미화 선생님 교무실로 오세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나는 발령 났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중에 불러서 지금 무슨 시간인데 왜 운

동하면서 놀고 있냐고. 즐생이야, 즐생. 즐거운 생활 시간인데요? 그러면 즐거운 생활 시간인데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 이제 운동장에서 뭐 하다가 애들 철봉을 하길래 내가 철봉 옆에서 애들하고, 이려고 이제 막 오래. 그래서 깜짝 놀라 갖고 뛰어 들어오면 이렇게 도서실로 들어오라고 문을 탁 잠가. 이 사람의 특징.

꼭 문을 쳐. 대방국민학교 교장이 꼭 잠그거든. 나를 교장실에 부르면 꼭 잠그고, 앉히고 얘기를 하면 내가 되게 무서워할 줄 아나 봐. 그냥 내가 속으로 저거 열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러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문을 잠그더라고. 선생님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막 이래. 그래서 즐생인데요. 그래서 그 즐생이면 맨날 저렇게 나가서 하는 겁니까 뭐 이래.

이우재 참 무식한 놈이다.

노미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서 철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수학도 가르치세요 뭐 이래, 가르치죠. 국어도 가르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자가, 내가 수학을, 진짜, 1학년 수학 실물로, 얼마나 열심히 하지 가르치는데, 그냥 발도로프 식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국어도 진짜 글씨 한 글자도 내가, 나 어이가 없어서.

이우재 종이를 추상적으로 가르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노미화 일을 그러고 애들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하자, 교실에서. 숨바꼭질은 반드시 교장이 와, 무슨 시간이. 그럼 나 나중에 내 교실이 2층인데 교장실이 저 옆에 옆에요. 그럼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 또 교장이 오지 않을까 뭐, 영락없이 서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퇴직했어요. 난 정말 온몸에 병을 얻고.

이형진 강원도 와서?

노미화 나 진짜 선생 안 하나까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날 왜 그랬는지 지금도 수수께끼야. 나만 그랬나 봐, 아니, 다른 선생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형진 전교조 선생님이라고 찍어 놓고.

노미화 찍어가지고, 아주 고리타분한 교장하고, 내 아주 천적 같은 사람하고만 계속. 서울에서도 그렇게 나를 미워해, 교장이. 근데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랬어요. 여기 와서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불행이 항상 행복하면 불행이 오는구나를 그때 알았어.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불행할 것 같잖아? 불행해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행복하더라고. 또, 또 행복해서 막 날뛰잖아? 꼭 불행이 와. 그래서 이제는 불행이 오면 그런가 보다. 이게 정점이 있으면 반드시. 요새 좀 행복해서 걱정이야.

이형진 70년대 말, 두 분이 만나셨을 무렵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실 87년까지 이제 그런 소모임과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네요.

노미화 그렇죠.

이형진 하다가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직원 노조 운동에 그러니까 몰두하셨고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그 해직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제 교직원 노조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섰죠. 해직 이후에 다시 복귀하시고 또 이제 선생님이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으로 따지면 뭐 30년 이상을 세태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 생각나는 혹시 뭐 아픈 기억이나 일화, 또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실에서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용명 선생님은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이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단지 주입식 교육은 아니었던 거고.

노미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형진 그런 부분에 이제 뭐 균형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전교조 후배들,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언하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조용명 전교조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전교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좀 양분됐어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가장 사실은 전교조 사람들이 말하기 싫은 거일 거 같은데 양분돼서 그 한쪽이 다수가 되면 대의원 대회에서 다른 쪽이 협조를 안 해. 그리고 탄지를 걸어.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초창기 몇 년을 빼고는 사업을 일치단결해서 전개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한쪽에서 전개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고 계속 반대를 해서 힘이 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초창기 몇 년 빼고는 사실은 전교조가 뭘 해도 전체 힘이 실리

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반대에 부딪혀서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민한테 신뢰를 잃게 되거든.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전교조가 잘 안 된 가장 큰,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가 참교육 운동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한쪽에서는 조직 운동을 앞세워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뭐 하나를 좀 이렇게 화끈하게 합치해서 해야 무슨 국민적인 여파나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잘 안됐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통일이 안 되고 이재명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놈들하고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당에는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만 보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에서 참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뿔뿔해서 그런가. 끝까지 그 신념을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사실은. 윤석열 당선되면 윤석열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운동권이나 사람들 윤석열 인정 안 하잖아, 끝까지.

그런 것처럼 그 국론 분열이야,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분열이야. 근데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 자기 편이 다수가 안 됐어도 늘 굽히고 협조해야 되는 거를 못 했던 거 같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교조 말고 또 뭐 나는 이제, 선생 그만두고 들었어요. 다른 조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였고, 왜 그럴까.

노미화 다 훌륭했어.

조용명 옛날에 보수적인 교육에서 우리가 그런 보수적인 교육을 너무

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나, 사실은 좋은 점을 우리가 옛날 교육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 지금도 여전히 옛날 교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나 자체가.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거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독일이나 선진국에서 또 개네들은 개인주의 교육의 폐해를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니까, 개네들이 한국 교육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자기네 교육하고 통합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한국은 옛날에 교육의 질곡이 너무 심했어. 독재 교육, 주입식 교육이 심했는데 그게 보수적인 전통하고도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다 버릴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뭘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암기식 교육이 과연 나쁜가, 사실은 그 미국의 할렘가에서 한 교육이 일종의 암기식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그, 흑인 할렘가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부모들까지 다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암기식 교육이 과연 나쁜가,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가 아닌 개인주의를 가리킨 거 아닌가.

이우재 자유에는 문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지.

조용명 우리 전교조나 진보 세대가 자꾸 자유를 얘기하면서 서구식 개인주의를 자유라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거로 만들어서 교육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서양은 지금 그

서양식 개인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공동체 정신 같은 거를 굉장히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금 모으기라든가, 저기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가, 촛불 집회라든가. 이게 우리라는 개념 하에서 길러진 거라서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 게 오히려 이런, 그런 게 범죄도 없게 만들고 서로 돕는 것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는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를 너무 이렇게 째뽕시켜서 동일시하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 성남에서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렇게 일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운동 이런 부분들과 함께 쪽 이어오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좀 소회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노미화 이게 중등 교육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초등은, 상황이.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보거든. 전교조 덕분에 학습 자료 이런 거는 너무 넘쳐나는 정도로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그런 건 잘 된 것 같고, 그런 어떤 지원보다는 진짜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종류의 어떤 노력을 선생님들이 같이 좀 모색하고 이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형진 인구 절벽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었던 말입니다.

노미화 그것도 걱정이예요.

이형진 선생님들이 가르칠 아이들은 더 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세밀한 교육이 구현될 수 있죠.

노미화 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우재 근데 꼭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지. 명문대만 나와야지 사람 구실하고, 그러지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하고. 명문대는 돈 있는 놈만 들어가고 이런 거 바뀌지 않고서야, 그게 초등학교 때 잘 올라가도 중학교 때부터 빼놓아지기 시작하는데.

노미화 그니까.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를 잘해야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우리 동네 애들 예뻐 죽겠는데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암담해요. 애네들 사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면, 애네 막 짱돌 던지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형진 자, 그 두 분이 80년에 결혼하셔서 가지고 지금 이제.

조용명 81년.

이형진 81년, 아, 81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21년, 그동안에 많은.

조용명 41년, 41년.

이형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인이신 우리 홍경란 선생님과 김명길 선생님도 같이 얘기를 듣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종류에 그러니까 이 모임 이제 구술 과정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면 옆에서 보시면서.

노미화 계속 같이 있으니깐 글쓰기서부터.

조용명 여기도 글쓰기 회도 같이 하고.

노미화 계속 같이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경기지부에, 학교가 경기도  
였으니깐.

홍경란 부천에 있다가, 부천에서 해직돼 가지고 부천 교사협의회, 부천  
지회 사무실에 나가다가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그 계기도 바  
로 그 전교조의 분열. 여기서 엔엘과 피디싸움이.

이우재 아이고, 그 왜 얘기를 해.

홍경란 너무 끔찍했어요. 경기도가 심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똑똑하고 말 잘  
하는 게 저는 참 싫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진짜 그 논리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셨던 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을 되게 좋아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뭐 다 두 분  
이 얘기하셨으니.

이형진 김명길 선생님하고.

김명길 저는 됐습니다, 하하.

이형진 이 동네에서 함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용명 여기는 왔다 갔다 해요. 인천에도 있어서. 인천에서 혹시 전교  
조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인천에 갔을 때 물어보세요.

이형진 오늘 우리 모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활동가

일 시 2022.6.3.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하인호

이형진 오늘 2022년 6월 3일입니다. 주안 미디어센터에서 하인호 선생님을 모시고 80년대의 교육운동 그리고 전교조 결성과 투쟁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인호 예, 반갑습니다. 하인호입니다.

이형진 지난주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인호 좋습니다.

이형진 하인호 선생님은 1954년 전북 무주 출신이십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이거든요. 그리고 62년에 신안성초등학교에 입학하셨고, 그리고 졸업은 (전북 완주군) 봉성초등학교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이사를 가신 모양입니다.

하인호 무주 안성이라는 데가 흔히 무진장, 무진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주에서 덕유산 자락 중에 하나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촌(명천 부락)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6·25 때 전상을 입으셔가지고.

이형진 부상을 당하셨습니까?

하인호 상이 용사로 계셨는데, 그때 일자리가 나가지고, 전북 완주군, 전주 인근 그곳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학교를 옮겨서,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형진 혹시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건 아니고 일을 하셨습니까?

하인호 농사지으시다가 군대 가서서 부상 입고 오셔서 어쨌든 농사를 지으실 정도는 됐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농사도 많지 않았

고 소농이었죠.

이형진 그러면 전주 서중학교에 입학하시고,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를 71년에 입학하시는데 그러면 전주고등학교 전주에서 계속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신 거죠?

하인호 예, 처음에는 그 당시에 어쨌든 제 또래에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노동(생산) 현장에 가든가 아니면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현장에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특히 공고 가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업계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쨌든 뭐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일반계고등학교 보내라'고 말씀들 하셔서 일반계를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보다는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보다는 노동(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부한다고 앉았으면서도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 어쨌든 보는 시험마다 계속 떨어지고, 그 당시에 재수가 유행처럼, 뭐 (제가 다닌)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명문 학교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의 특성이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울대 몇 명 보냈다, 연고대 몇 명 보냈다, 이게 어쨌든 학교 평가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명문대학을 보내려거나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학에 갔다가도 재수해서 자기 전공 찾아가고

이러는 친구들도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인 경우 재수 삼수가 거의 뭐 유행처럼,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험이 안 돼서 재수 아닌 삼수 뭐 대학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형편이, 대학 가려면 서울 와서 종합반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전주와 (고향인) 무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1학기 때는 공부한다고 뭐 하고 있다가 2학기 들어서 서울에 와서 단과반 조금 다니고 그러다가 시험 보고 이걸 몇 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재수도 해보고 삼수도 했던 경험들이 내가 좀 겸손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진 선생님, 경영학을 전공하러 대학을 가시게 됩니다.

하인호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자연계였어요. 자연계였는데 보니까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 하면 또 과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뭐 만들고 뭐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내 적성에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고 그럴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막판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게 된 거죠. 그것도 야간대학에서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갔더니 선후배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후배가 선배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몇 년 된 선배들도 거기가 있고 그래서 어울려서 학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술 많이 마셨죠. 전주가 또 술 마시기 좋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민주

화운동 분위기도 있고.

이형진 77년이니까요. 박정희 정권 후반부 말기로 접어드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분위기가, 뭐 또 교생 실습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주시겠어요?

하인호 대학 들어가서 어울려서 지내는 데, 그때 사학 비리 대학도 척결하자, 거기다가 학내 민주화운동 이게 막 일어났고 제가 다니는 학교도 일어났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집중이 됐고 3, 4학년 때. 그러면서 4학년 때 교생 실습 사실은 뭐 경영학과니까 부전공으로 교생 실습을 한 거죠.

이형진 부전공으로 이렇게?

하인호 남들이 하나씩 해두는 게 좋겠다고 하긴 했죠. 부전공도 턱걸이로 이렇게 났죠. 교생 실습 나가야 한다고 해서 교생 실습 나간 학교가 또 재단 내 학교였고, 그래서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정문에 배치돼 있고 그러면서 또 학내민주화같이 했던 친구가 보안사 수배를 학교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해서 학내 비리를 척결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그걸로 몰아버린 거죠. 그래서 보안사가 어쨌든 수배 내리고 저희 자취방에 제가 그때 전주역 부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 있었죠. 저는 교생 실습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도 지켜봤고, 그래서 바로 광주 소식을 접하게 됐죠. 역 주변에 어쨌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모는 이런 전단이 매일 뿌려지다시피 했고 또 여기저기서 광주에 대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이러면서 교생 실습을 마쳤던 거죠. 근데 사실은 교직에 가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버님께서 완주 쪽으로 오시면서 학교

고용원, 그 당시는 소사라고 그랬죠. 그걸로 계시면서 학교 돌아가는, 학교 뭐 어쨌든 아버님 출장 가시면 학교 문 잠그는 거랄지, 이런 것도 하고 선생님들의 모습이랄지 학교 안에 이런 모습을 어린 나이였지만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선생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 볼 기회는 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 물론 그때는 아버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교직에 가지 않고 은행 시험을 좀 봐야 하겠다, 은행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또 안 됐더라고요.

이형진 하하, 선생님은 시험에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인호 그래서 선생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취업들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교직에 가는 친구들 많지 않았고 또, 전북에서도 한 호봉 더 줄 테니까 오라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랬는데 서울은 졸업하자마자 못 가겠고, 인천에 갈 만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인천 갔다가 어쨌든 서울로 입성을 하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천에 사립학교에 오게 됐던 거죠.

이형진 상업 선생님이 교직을 시작하신 거잖습니까? 근데 사실 81년에 졸업하고 곧바로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80년, 4학년 계실 때 친구 일도 있었고, 그리고 광주의 비극적인 상황들도 접하게 되셨는데 당시에 아직 되게 젊을 때 아니었습니까. 스물다섯 좀 지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느끼셨을 수 있었는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감).

하인호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었지만, 생생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얘기를 듣게 되면서 학교에 와서 교사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도 그게 뭐였지, 하고 그때 어쨌든 함께하지 못했다는, 전주하고 광주는 굉장히 인근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군인), 그것도 보고 학생들이 시내에서 시위하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진실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픔도 있고, 학교에 오자마자 그런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접한 게 ‘말’지(민주언론운동협의회 발행 잡지)였어요. 아, 그게 다행히 선생님 중에 천주교 다니는 분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열심히 구독하고, 5.18 비디오투도 좀 보게 되고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이분들로 인해서 내가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하지 못했던 꿈 쫓던 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렴풋이나마 그런 부채 의식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봐야죠.

이형진 선생님 혹시 가까운 친지분이시나 아니면 친구, 그 전주에 계실 때 이렇게 알던 사람들 중에 광주나 그 투쟁에 연관됐던 분들이?

하인호 (직접) 연관됐던 분들은 없었어요.

이형진 소식을 접하는 거였군요. 사실 81년에 인천으로 오신 건 스물여섯 살 때였습니다. 경인여상(현 인천보건고등학교)이라는 학교로 오셨는데 상업계 그것도 여학생들이 주로 있는 학교였는데요. 학교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한 십여 명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어요.

하인호 예, 발령이라기보다 재단에서 채용을 한 거죠, 사립학교니까.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뭐 돈을 좀 기부를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목포, 전남 목포 쪽 분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분들 지역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어울렸고 또 같이 들어간 이런 교사들도 많았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죠.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규 교사들이 오기도 했고,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젊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어쨌든 관심이 많았고 주목 대상이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저 감시를, 제가 서울 풍납동이라는 데서 인천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모님 댁에서 다니다가 너무 멀어서 석남동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또 같이 왔던 몇 분들이 그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어울릴 시간도 많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회가,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뭐 하고 지내나 이걸 좀 보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형진 따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하인호 따르기보다 학교 측에서는 감시를 한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전에 학생하고 교사 사이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근데 제가 한창 미모를 뽐낼 때고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오셨다고, 또 거기다가 그때 이모님 댁에서 편직을 했어요, 분홍색 빛이 나는 조끼를 입어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해서 (주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같이 막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보냈어요, 한 3년 정도는. 교직원도 투철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을 어

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선배 교사들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한 손에 회초리 들고 그냥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체벌이 일상화돼 있었고 그래서 체벌 안 하는 것보다 체벌이라도 해서 어쨌든 가르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조차도 강압적인 사회에 익숙했고 좋은 선생님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게 좋은 선생님인지조차 스스로 정립이 안 된 상태. 적어도 나쁜 선생님은 되지 말자 뭐 이 정도 해서 그 당시 수업이 한 (1주일에) 24시간 정도 됐어요.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한 2, 3년은 굉장히 재밌게 보냈죠. 그러다가 제가 5년 정도 되면 서울로 이렇게 가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서울 일신여상이라는 데서 자리가 났다고 옮겨 볼래 하는 게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학교에 너무 정이 들고 학생들하고도 점심시간 되면 탁구치고 굉장히 재미있게 나름대로 보내고 있던 터였고, 또 그 당시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실업계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좀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80년대 초반만 해도(많았고), 그래서 수업도 진찰할 만했고, 오히려 일반계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간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는 고르죠.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서울은) ‘나중에 갈래’, 하고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학교(경인

여상)에 계속 있게 됐던 거죠.

이형진 몇 년 근무를 하시면서 고3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인호 예.

이형진 그러면 취업지도 같은 것도 해보셨을 텐데 학생들 취업시키고 하는 과정들은 괜찮았습니까, 잘 되는 편이었습니까?

하인호 취업 잘 됐죠. 80년대 IMF 전, 80년대 초반 해도 취업 잘 됐고 특히 여성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있으면 금융기관도 갔고 일반 회사들 경리직이나 이런 데로 많이 취업이 잘 됐었죠, 그때 IMF 이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업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산업체에 계시다가 학교로 오시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긴 했었죠.

이형진 선생님 85년경에 경인여상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임 같은 걸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하인호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2, 3년 차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광주에 대한 부채,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제대로 좀 교육에 반영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들면서도,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도 처음에는 학생들 욕하고 교장·교감 욕

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어쨌든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 술 마시던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우리 한 번 친목 비슷하게 모임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술'이라는 모임,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에서 '술'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형진 몇 분이 시작하셨습니까?

하인호 그때 11명 정도 됐죠. 처음에는 이제 9명에서 시작해서 11명 정도 됐는데.

이형진 과목도 다양했습니까?

하인호 그중에는 뭐 진짜 대학 다닐 때 의식화, 교육은 전무 했고요, 하다못해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은 안 계셨고 주로 상업 선생님, 교련 선생님, 생물 선생님 이런 분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불평불만들 얘기를 하다가 모임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공식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보충수업 문제, 수업도 24시간이나 하는데 거기다가 새벽같이 보충수업 해서 아침에 수업을 하게 했고, 그 당시에 자격증이 중요했었죠. 주산, 부기, 타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그것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자 해서 제1교시 전에 0교시 또는 방과 후에 보충수업으로 해서 주산, 부기, 타자를 집중해서 했고,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부기를 가르쳤거든요. 회계 쪽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학원 수업하고 학교 수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산이

나 타자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굳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래서 어쨌든 회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휩쓸려 가지는 않았는데, 주산하고 타자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거기(학원)에 많이 비교했고 또 학원 수업처럼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보충수업 문제 가지고 갈등이 많았죠. 특히 회계 선생님들 같은 경우 '우리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계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갈등도 보충수업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각종 성미니, 성금이니 그걸 그렇게 많이 거뒀어요. 근데 목적도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 교사를 비상 소집에 함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인데도 예비군 훈련은 훈련대로 가는데 비상 소집이라고 다 나오라고 그 문제 제기를 했죠.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리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하자마자 바로 비상 소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명이 거부를 했어요. (비상 소집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말서 쓰라고 막 오라 가라 하고 그래서 시말서도 거부했죠. 그때부터 집단행동이, 저희들도 안 해본 거 하면서 엄청 긴장(했죠), 학교하고 팽팽한 긴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6년부터 89년까지가 그 당시에 전두환 치하니까요.

이형진 86년에 전두환 정권 말기였고요, 87년.

하인호 그렇군요.

이형진 선생님 그 대목에서 그 모임, '술' 모임이 주로 고흥 식당이라는 데서.

하인호 네, 학교 앞에 (있던 식당입니다).

이형진 식사하시면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상당히 주도하시는 편이었습니까?

하인호 그랬다고 봐야죠.

이형진 연세가 있었나요? 아니면.

하인호 나이는 중간 정도였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니까 제 생각 나름대로 경험도 있지도 않고 누구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딪혀 본 거죠.

이형진 다른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신 것 같습니다.

하인호 같이 어차피 다 모르고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함께 했고 그래서 감시받고 학교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고 86년 때 제가 새마을과라는 데 있었는데, 새마을과가 학교에도 있었어요.

이형진 하는 일이 뭐였죠?

하인호 그러니까 학교 청소, 주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했죠. 주로 청소에 해당하는 거죠, 환경. 주요한 업무는 안 주고, 지금은 부장 교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주임 교사라고 그러는데 그거(주임 교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앉혀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앉히고 그런데 새마을과에 있었는데 그때 86년도에 인천 교육, 지금 교육청인데 그때는 교육위원회였어요. 교육위원회 지정으로 '학교 정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어

요. 그래서 정화, 전두환이 앞세웠던 그런 정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죠. 그런데 지정돼 있는데 그 업무가 정화라는 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새마을과로 배정이 된 거예요, 주무 부서가. 그러면서 그 담당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정화 담당을, 시범학교 담당을.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해본 경험이 학교 내에 아무도 없어요. 교사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그걸 맡으면서 나쁜 거지만 학교 안에서 (시범 사업을) 활용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을 하면서. 기획위원회라고 교장·교감하고 부장교사들이 하는 회의가 매주 열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시범학교 담당교사)로 해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의 사항을 꼭 모아서 거기다(기획위원회) 갖다 들이미는 거죠. 계속 거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바꿀 건 좀 바꾸고, 사적 모임, '술'이라는 교사 모임을 만들어서도 부딪혀 봤고 그런 공적인 공간 내에서도 뭔가 학교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 무렵에 제물포역 부근에 있는 '만두리 서점', 사회과학 서점에 들락날락 하면서 교사 신문, '인천교사신문'(인천교사협의회 발행)을 가지고 왔었어요. 읽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 나오기에 한번은, 매월 저희도 ('술' 모임) 월례를 했거든요. 월례 모임을,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좀 알아보고 여기저기 심정동에 교사협의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랬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바로 실행에 못 옮겼죠. 그 뒤에 조금 있다가 88년도죠, 5월 중순에 4명의 교사가 (인천교

사협의회(이하 '인교협')를 방문을 했어요.

이형진 선생님 조금 다시 돌이켜서 85, 86년에 학교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깥세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86년에 인천에 인천5.3민주항쟁이 있었어요. 그 소식도 접하셨죠?

하인호 그때 소식을 접했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은 거기 현장에 갔다 온 분들도 있었고.

이형진 전해 들었습니까?

하인호 네,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소식은 접했었고 어렵듯이, 그 정도였었죠.

이형진 그리고 87년이 되면 겨울 지나면서 1월달에 박종철 사건이 나고 신문에 나기 시작했고 87년 6월 항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석남동 일대에서도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하인호 그런 소식을 주로 말지 통해서 접하고 그다음에 교사 신문 통해서 보기도 하고 특히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때는 가좌동 쪽에 공단 쪽에서 노동자들의 함성 소리도 수업 중에 들려왔었죠, 학교가 위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감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 앞에서 자취, 석남동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출퇴근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많았을 텐데 그건 좀 적었었어요. 작심하고 나가지 않는 한은, 그냥 그 시기가 흘러갔던 거죠.

이형진 선생님 결혼은 84년에 하신 겁니까?

하인호 84년에 2월 19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

부인의 친구.

이형진 그럼 전주에서 올라 오셔가지고.

하인호 그 친구가 부친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해서, 소개 비슷하게 해서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도 원래는 2월 19일 그 전 주에 토요일인데, 그 전 주에 그때 담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 주에 원래 결혼식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사일정이 미뤄지면서 일주일 방학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일주일 늦췄죠, 어쨌든 종업식까지 좀 마쳐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첫 살림은 부친 역곡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형진 그럼 87년 당시에는 신혼이고, 학교생활에 좀 몰두해 있었을 당시였겠습니까. 88년에 '술' 모임의 회원들하고 같이 인교협 사무실을 가서 이렇게 처음 (교사협의회) 교사들을 접하게 되는.

하인호 그때가 삼십 대니까요. 그 무렵만 해도 전교조 직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일부 젊은 교사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교조도 '일부 의식화된 젊은 교사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십정동에 천주교 안에 '인교협'이 만들어지고, 처음 찾아갔는데 조용명 선생을 만났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은 삼십 대, 다 30대 후반이었죠, 4명이 이렇게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가자마자 (인교협에) 가입을 했죠. 4명이 가입하고, 그러면서부터 막 급속하게 정신없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동안 못해온 것들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것들을 지침 비슷한 것도 봤고, 자료 가져오고 이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당시에 지금은 교총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대한교련. 교

육의 어용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련에서 회비를 열심히, 무조건 그냥 자동 가입이었죠. 5월에 (인교협에) 갔다 오고 나서 7월에 교련을 탈퇴하자! 결의를 했죠. 학교장 찾아가서 교장한테 '우리 교련 탈퇴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교 교련의 분회장이 거의 교장 선생님들이 맡았거든요, 학교장들이.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야, 사실은 행정실에 '다음 달부터 (교련) 회비 떼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실 가서 얘기하면 '교장한테 가라'고, 교장한테 갔더니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은 좀 괜찮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재단 사람이 아니었고, 교감이 재단 사람이었는데 원래 교장 선생님이 학생부장을 할 때, 교감 선생님이 교감일 때 이 학생부장 선생님이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뭐 인품은 그냥 후덕하시고 좋은데 재단 사람은 아니었고 교감은 인품은 좀 거칠었지만 어쨌든 재단 사람이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봤을 때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더욱이나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게 매일 교육청에 보고될 때였으니까요. 9명이 탈퇴한다고 하니까 '좀 미뤄봐라' 뭐 '불만 사항이 뭐냐' 이러다가 '다 들어주겠다' 어찌고 하다가 조금 미뤘다가 어쨌든 다음에 또 가서 또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뭐 '정 안 되면 좀 나눠서 하면 어찌겠냐' 한꺼번에 한다니까 하여간 하소연하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밤잠을 못 잔다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안 좋게 보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5명, 4명 이렇게 나눠서 이제 탈퇴했고, 그 선생님

들은 전부 '술 모임' 동지였으니까 그러면서 학교 하고 팽팽했죠. 우리가 완전 감시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모임하고 나면 다음 날 우리가 뭐 하는지를 뭐 거의 알 정도였죠. 우리 안에서 새어나가고 어쨌든 첩보 활동이 굉장히, 만나고 나면 다음 날 오면 그쪽 교사들까지, 그쪽 교사들도 사실은 재단 쪽 교사들도 교사 모임하고 전교조 전에는 같이 술 먹고 굉장히 진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짝 갈라진 거죠, 학교 안에서도.

이형진 재단과와 재단 소속 아닌 선생님들하고.

하인호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편을 갈라서 대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결정된 게 9월에 평교사협의회를 창립했죠. 이때 인천의 여러 학교 사립학교들 이쪽에서 교사협의회가 막 만들어질 때고 그러면서 우리도 아마 성현고등학교하고 몇 학교, 다음에 저희 학교가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88년 한 해를 보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된 게 88년 11월 정도일 텐데 그 당시에 '민주교육법 쟁취'라는, 교육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리본을 달기 시작했어요, 전국 교사들이. 교사협의회 차원에서 하자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걸 달게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손석희 아나운서가 뉴스에 리본 달고 나와서 전국적인 파장이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이걸 달고 교실에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면 꼭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달지 않은 분들한테 '선생님 그거 왜 안 다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사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참교육 배지를 다는 거죠. 참교육 배지를 다니까 학

생들이 그 당시에는 교문 지도에서 학생들과 교사하고 해서 교문에서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참교육 선생, 아닌 선생님 이런 정도로, 학생들끼리도 구분이 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에 의해서 했지만, 동료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선생님은 왜 안 다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선생님 왜 달았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런 얘기들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분위기가 긴장감이 돌고 팽팽했었죠.

이형진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스스로없이 많이 하시는 편이었습니까?

하인호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계 수업을 하는데 회계 중에도 공업부기 지금 원가 회계라고 하죠. 원가 계산하고 뭐 하는 거라서 수업에 1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하나 주어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얘기하다가 여차하면 좀 새어 나와서 딴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리본 달고 배지 달고 그런 거 물어보면 그 얘기 쪽 하고 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그런 걸로 빠져나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업이 가능한 것은 원가 계산 중에서 무슨 재료비, 노무비 계산해서 노무비 계산할 때 노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거의 진도가 한두 달 늦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그 얘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해서 그전에는 뭐 연애 시절 얘기 이런

신변잡기 얘기했다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참교육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형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필요한 만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선생님 88, 89년에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전교조 결성까지 가는 과정에 일상적인 투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학교 내에 있던 원래 소모임, 그리고 거기 같이 동조하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인호 예, 그렇죠.

이형진 근데 꾸준히 그 모임이 유지를 했던 건가요?

하인호 그게 88년까지 그랬고, 89년에 들어서 팽팽한 것이 폭발했던 게 탄압이 좀 들어온 거죠. 어쨌든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전태일. 이름도 전태일인데 그 선생님이 연수 대상자 일정(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그게 보통.

이형진 전태일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하인호 네, 이게 2급 정교사로 시작해서 1급 정교사 연수를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연수받아서 1급 정교사가 되면 한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년이, 저도 10년 만에 갔거든요. 8년, 9년 때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재단 입장에서는 한 호봉 더 올려줘서 급여를 더 줄 이유가 없거든요. 안 보내준다. 이분이 연수 대상자가 됐는데 각서를 요구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형진 각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인호 교사협의회 관련한 활동 안 하면 연수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분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자보를 붙이자 해서 대자보라는 거, 그때는 대자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없었고 대자보를 3장을 써서 (출입문) 창에다 붙였어요.

이형진 교실 창에요?

하인호 아니, 저기 복도 현관 입구에다가. 학생들이 들락거리니까, (학교가 발각) 뒤집어진 거죠. 저희들도 뭐 보통 긴장감이 아니었고 와서 잡아 찢고 막, 하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런 실랑이들이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정도까지 갔고.

이형진 각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까?

하인호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우리 요구사항.

이형진 불합리했던?

하인호 우리의 요구사항 해서 그것도 하나죠. 이 빌미가 됐던 거고요.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 해결 안 된 것들을 거기다 써서 요구를 했던 거죠.

이형진 그때까지는 아직 참교육 문제나 학생들 문제를 제기하신 건 아니었네요?

하인호 그때도 많이 했죠. 학생회 직선제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주로 학생과가 주도해서 했는데 축제도 어쨌든 학생들 학생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금, 성미 모으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죠).

이형진 성미는 쌀을 모았다는 얘기죠?

하인호 예, 폐지도 모으고, 뭐 모으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징계(해직교사 원상회복 관련 징계요구서) 한 거에 보면 그거에 협조 안 했다는 걸 이렇게 표시 다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명확하지 않은 건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거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사진, 소풍이나 수학여행 갔다 오면 사진사가 기사님을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귀할 때죠. 가서 찍으면 1천 원이다. 그러면은 사진 한 장에 천원이다 하면, 한 400원 정도는 교사한테 준 것 같아요. 한 장당 얼마.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학생 관계도 있고 뭐 숙직 문제도 있었죠. 일숙직 문제도 그 당시에 여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일직을 하고, 숙직은 (남)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사님들하고 같이하고 그랬는데 강당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남) 교사들한테 일직까지 하케끔 하고 그것도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일숙직 문제도 있었고 교실에 커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튼 뭐 하여간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 시기에 87, 89년 그 시기에 학교 자잘한 문제를. 교사협의회 창립할 무렵에 14개 항목을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었어요. 제시를 했더니 바로 그날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형진 선생님들한테요?

하인호 그러니까 우리 대표들하고 어쨌든 부장 교사들 해가지고 이틀 후엔가 정리돼서 발표하기도 하고, 개선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참교육과 연결돼서 학교의 민주화운동이 진짜 들불처럼 일

어난 시기였죠. 전교조 (창립) 직전까지가.

이형진 선생님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학생들과 교류는 어땠습니까?

하인호 아까 제가 교직에 대한, 또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좀 때려서라도 잘 가르치겠다고 실제로 체벌도 했어요. 그 '사랑의 매'니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교협' 사무실, 교사협의회 사무실 갔다 온 이후로 그 자료 제가 진짜 자료를 닦치는 대로 모았어요. 자료가 없으면 복사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기억할 정도로 거의 수집광처럼 그걸 모아가지고 학교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계속 들리면서, 그 무렵 전교조 직전까지가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례들도 막 나오고 어쨌든 진짜 빨대처럼 빨아드렸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실천으로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한테 바로 선언한 게 '체벌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체벌을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약속을 하고 선언을, 그거 두 가지죠. 그거 하고 촛지. 촛지 안 받는 거. 그전에는 촛지를 주면 안 받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안 받는 것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심한 경우는 어쨌든 거절은, 그 당시 분위기에는 거절하면 좀 적은 가 보다 하고 더 없어서 오는 정도였으니까요.

이형진 상업학교도 그랬습니까?

하인호 왜냐하면 상업학교에서도 좀 잘 사는 분도 계셨으니까요. 특히 석남동 그 시기가 석남동 일대 가좌동 이쪽에 개발붐이 막 붙어서 갑자기 땅값 올라서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줄부'라

고 하죠. 그렇게 된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어쨌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랬고 피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촛지 거부하기 전에는 그걸 받아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물 형태로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짹짹한. 그래서 이제 아예 학기 초에 편지를 써서 저는 촛지 이것을 받지 않겠다 아예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 해서 보냈었죠.

이형진 그럼 '체벌하지 않겠다'와 '촛지 받지 않겠다'를 학생들 앞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인호 선언하고 학부모님들한테는 내가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편지글로 써서 학기 초마다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뭐 내놓으라고 할 때는 제가 학기 초에 이렇게 편지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꼭 그럴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식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하더라도 사서 주신다든가 그런 거면 몰라도 저한테 주는 거(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체벌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강압적, 폭압적인 사회에서, 체벌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건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는 게 쉽지 않고 두렵기도 하고 참 어려웠어요. 다짐을 했지만 체벌은 안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말이 거칠어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정도 분위기였고, 또 주변에서 그걸 같이 실천했던 교사도 학기 초에 그랬다가 2학기 정도 들어가면 못 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참교육하면서 교사들 중에 학급 운영이라든가 학생 지도에 실패한 사례가 바로 그 부

분이예요. 흔히 그때 분위기는 ‘학기 초에, 학생들 학기 초에 휘어잡아야, 수업도 휘어잡아야 1년이 편하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학기 초부터 첫 시간부터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참교육이고 그걸 내세워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2학기 정도 접어들어서 그걸 못 견뎌내고 다시 원래 상태로, 학생들 입장에서 ‘거봐라’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이형진 선생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인호 저는 어쨌든 잘 견뎠어요, 그래도.

이형진 매가 손에 이렇게 올라갈 정도까지?

하인호 처음에는 그랬죠.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학기 초에 약속했던 것들을 학기 말까지 지켜나가는, 그리고 참교육을 만나기 전하고 후를 좀 비교해 보면 참교육 전에는 반장이나 학급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교사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특히 반장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제가 지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뽑기도 하고 그 무렵에 참교육 만나기 전에는 부장 학생들까지 해서 학기 초는 꼭 집으로 오게 해서 (부천시) 역곡 살 때도 역곡까지 매년 오게 했어요. 그래서 라면, 떡볶이, 뭐 해서 같이 좀 지내고 하다가. 저희 반려자분께서 라면, 떡볶이 많이 끓였죠. 그러다가 참교육을 접하면서는 형태를 바꿔서 모둠 활동을 했죠. 모둠별로 그래서 학급에서 소모임 모둠 형태로 해서 첫 번째 모둠이 총무 파트를 맡는 식이죠. 두 번째 모둠이 환경 파트. 그전에는 총무부장이 있고 부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둠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모둠이 부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던 반장하고 부반장이 소외되는 거죠. 나는 담임으로서 모둠 단위로 해서 모둠 일기도 계속 쓰고, 써서 가져오면 거기에다 답글도 쓰기도 하고 또 모둠 단위로 해서 상담하고 또 모둠 단위로 해서 (저희) 집에 오게 했어요.

이형진 그러면 반장이나 부반장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그룹 형태로.

하인호 학생들이 별로 할 일이 없죠.

이형진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직접 소통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참교육 이전과 이후로 확실하게 바뀌는 건가요? 그 질서가 좀 바뀌는 건가요?

하인호 확 바뀌었죠.

이형진 사실은 반장하고 그 부반장 학생들이 대표성을 갖는다고보다는.

하인호 대표성은 갖되 담임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이런 역할 정도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이 안 했던 실험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학생들이 미팅을 많이 했어요, 개별적인.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집단 미팅을 한번 해보자.

이형진 남학생들하고요?

하인호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먼저 그 당시에 소풍도 확 바뀌었죠. 소풍을 미리, 그때 ‘소풍 놀이’ 강좌 해서 놀이 자체도 교육에 접목하면서 집단성을 가진.

이형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하인호 이전의 놀이가 놀러 가는 거였다면 이제 준비된 집단이 집단화된 형태로서 놀 수 있는, 그게 오징어 게임에 보시면 줄다리기하잖아요. 줄다리기는 집단성이 있잖아요. 모여서 작전도 짜고 뭐 이렇게 집단성이 있는데 그다음 단계가 구슬,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개별화되는 거예요. 개별 간의 경쟁이에요, 집단성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 놀이는 집단성을 가진 놀이. 그걸 회복시키자 해서 풍물도 많이 했고, 강강술래하고 접목된 '소풍 놀이' 강좌가 교사협의회 시절부터 '밝은터'라고 문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소풍 강좌'가 있으면 학생들과 같이 가서 놀이를 배우고 그 놀이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하면 몸 다리기(몸으로하는 줄다리기)해서 뒤에서 꼭 껴안고 몸과 몸 이렇게 해서 3개 모듬이 같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개별적인 놀이가 아닌 집단성을 가진, 나중에는 강강술래 형태로 쪽 가는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배운 상태에서 남자 학교를 컨택해가지고 거기 학교.

이형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였습니까?

하인호 그 당시에 인하부고와 했었는데, 그때 향토반 담당 선생이고, 저도 향토에 관심이 있어서 인천 향토 답사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해서 양쪽 대표를 먼저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대표들이 준비를 하게 해서 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같이 모듬을 한 모듬을 짜는 거죠, 남녀 학생이.

이형진 몇 명 정도였습니까?

하인호 두 개 반이 합쳐서 모듬을 편성하는 거죠.

이형진 그러면 한 5, 6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하인호 송도 지금 사격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훈련장이 아녀서 공간이 널찍널찍, 그래서 대동놀이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 가서 하루 같이 모듬별로 식사 준비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걸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니라 집단 간에 그래서 그걸 또 느낌을 뭐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형진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인호 반응, 어쨌든 새로운 경험들이죠.

이형진 소풍 대신에 그걸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인호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지만 좀 개별화되는 이런 것들이 점차 많이 보일 때였잖아요. 특히 90, IMF 이후로 쪽 오면서 그래서 집단적인 놀이에서부터 그래서 풍물반도 맡았고 또 경인여상에서도 축제 때 '우리가 뭐 좀 해보자' 해가지고 풍물이 학교에 있었고.

이형진 선생님도 풍물을 직접 치셨어요?

하인호 선생님들이 풍물 교육을 받아서 축제 때 학생들과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풍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축제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형진 선생님 전교조를 결성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쪽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인천 사립교사협의회가 창립됩니다. 89년 4월 달이에요. 여기서 황진도 선생님이 대표를 하시고, 그리고 하인호 선생님께서 부대표 부회장님을 하시게 됩니다.

하인호 제가 88년도 5월에 '인교협'을 방문한 이후에 나이도 많고 이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학창 시절에) 반장, 부반장도 안 해봤는데 필 처음에는 사무국장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진짜 첫발 내디뎌서 뭔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판인데.

이형진 사실 서른다섯 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인호 근데 인천에서는 중견이었죠. 교사협의회 내에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배워보려고 그동안 술값으로 나갔던 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러는 판에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89년 들어서 부터 사립교사협의회를 만들자 해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사립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꾸렸어요. 준비위원회 사무실이 이(인터뷰 장소 인 인천민주화운동 센터 사무실) 부근이죠, 인사련(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그 당시 황선진 씨가 했던 인사련 사무실 월세가 25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사립준비위원회가, 사립교사협의회준비위원회가 거기서 한 방 한 칸을 십만 원씩 내고서 살림을 시작을 한 거죠, 준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몇몇 선생님들이, 사립학교 몇몇 분들이 모여서, 나이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투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위원장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가 어쨌든 앞장을 서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 버린 거죠. 투표까지 해서 ‘너 하라’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옆에서 같이 했던 분들 지금 옆에 안 계세요, 그분들은. 만나기도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사립준비위원회 운영비가 한 15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준비팀이 좀 모으기도 하고, 또 일일 찾집 하고 집기들은 개인적으로 좀 내기도 하고 사립교사준비위원회, 4월 4일 날이 사립교사협의회

창립이 됐는데 그때는 준비까지는 했는데, 제 의식의 발전, 이런 거 봤을 때는 공식적 회장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혼자만 못한다, 그래서 황진도 선생님이 사립교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제가 부회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던 게, 선인학원 그 당시에 선인학원교사협의회,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큰 규모였고 든든한, 어쨌든 그것도 있고, 전후 사정 살펴보니 제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발뺌을 했는데, 그 뒤에 황진도 선생이 사립, 전교조(창립)하면서 전교조로 저는 그 생각은 전혀 못 했죠. 사립지회로 넘어가면서 사립지회장 하면서. 신맹순 선생님 구속되고 해직까지 쫓 가게 됐는데, 그래서 준비위원장 하다가 대개 회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황진도 선생 볼 때마다 참 죄송하다는 그 짐을, 5.18에 가졌던 짐, 이후에 또 다른 또 그런 미안함이 있다, 황 선생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선인재단(교사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전교조에 서는 벌써 그 당시에 자주적 교섭단체나 교사노조냐 이런 토론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토론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온 신경이 그냥 교사협의회 만드는 데 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특히 사립재단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학교 운영 이런걸. 근데 저희들이 모임 만들고 이러면서 어떤 학교들은 사학 비리 척결하고, 더군다나 성현고 사태 터지고 하면서 ‘다음에는 경인여상이다.’ 할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다 해결되고 또 교

실에서도 어쨌든 참교육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전교조 직전까지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사학민주화와 교사협의회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정도였죠. 그런데 이미 전남, 전북 이쪽은 불길처럼 확산됐을 때고요, 그러니까 전교조 딱 또 자마자 전교협 정도 안 하면 부끄러울 정도 분위기였으니까, 그쪽만 해도. 그런데 인천은 이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주적 교섭단체로 갈 거냐 하는데 그냥 교사노조로 확 옮겨가면서 막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인천 지역에서는 노조보다는 교사협의회 그러면 선인재단교사협의회도 어렵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급속하게 교원노조로 바뀌고 이게 뭐지 하는 정도.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 교사가 노동자고 노동자라는 게 뭐고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속하게 거기로 교원노조 쪽으로 전개가 됐던 거죠.

이형진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그러니까 사립교사협의회에서 전교조라는 노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노동자다. 이런 정도.

하인호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거 들어본 바도 없고.

이형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 생각은?

하인호 그렇죠, 교사로서 교사협의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다. 여태까지 없었던 거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학교를 바뀌어낼 수 있을까 제가 학교 안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모임을 (통해)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인천 시내 전체 사립학교가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쪽 뽑아서 하면 학교는 꿈쩍 못 하죠. 웬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정도였었죠. 왜냐하면 재단 쪽이나 그쪽에서는 서로 재단들끼리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더 그쪽이, 더 정보가 활발한 교류가 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해결이 다 이루어지고 그럴 정도, 상황에서 갑자기 교원노조로 간다니까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혹 휩쓸려 간 거죠. 해야 된다고 진짜 참교육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쪽 그냥 간 거죠.

이형진 89년 7월 전교조 인천지부 그리고 거기에 사립지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출범한 게 된 거죠.

하인호 6월 10일 전국적으로는 전교조가 5월 28일에 결성이 되고 인천지부는 6월 10일 결성이 된 거죠.

이형진 그런데 당시에 노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없었지만, 참교육이나 그리고 교사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은 형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곧바로 탄압이 닥치고.

하인호 그리고 나서 저희가 7월 28일 일건데 그날 조합원 명단을 한겨레 신문에 공개를 했죠. 7월 28일 공개를 했는데 경인여상에서 7명이 명단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들어왔고 그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탄압이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죠. 5월 28일에 결성되고 나서 어쨌든 지도부들이 탄압을 받고 바로 명동성당으로 집결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저한테도 명동성당 감시다.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갔나 보다였지. 저는

학교에서 바로 명단 공개되자마자 탄압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그건 우리하고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대한 권력하고 교사 개인하고도 맞부딪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교사협의회를 통해서 참교육을 만난 지 거의 1년, 뭔가 좀 긴가민가할 때 그걸 다 만나면서 전교조가 뭔지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없는 상태에서 개별화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건널 만큼 견뎌봤죠. 근데 가족까지 친척까지 동원해가지고 집까지, 역곡에 있는 집까지 그 당시에 부모님은 저 전북 완주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와서 우리 경인 교사 7명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게 논의가 안 이루어질 정도로 완전히 개별화됐던 거죠. 그러면서 각개격파가 된 거죠.

이형진 시골에서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까?

하인호 예, 오셨죠.

이형진 그래서 설득하셨어요?

하인호 지금 생각하면 심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퇴 각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힘들었죠.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형진 선생님은 그때 그러면은 부회장이었지 않습니까?

하인호 그건 사립교사협의회고요.

이형진 네, 사립교사협의회 부회장이었고 전교조로 바뀌었을 때는 전교조 지부장은 신맹순 선생님이셨고.

하인호 그렇죠, 예.

이형진 하인호 선생님은 그때 그러면은.

하인호 직책은 없었어요.

이형진 직책은 없었는데.

하인호 교사협의회 부회장.

이형진 그런데 탈퇴 문제에서는 일단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하인호 어떻게 보면 명동에 가신 분들하고 분리가 된 거죠. 분리되고 학교 안에서도 개별화되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정권하고 맞닥뜨리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니까 개인적인 의지나 결단에...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했죠.

이형진 경인여상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일단 탈퇴를 하시게 된 건가요?

하인호 그렇죠, 그게 명신여상, 성현고 이런 데만 해도 어쨌든 모여서 같이 논의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그냥 걸어서 징계해버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화 돼 버린 거죠.

이형진 훗날을 도모하자고 결의를 하신 건 아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다들 버티기 힘들었던 상황인 거네요.

하인호 그렇죠, 거의 비슷했죠.

이형진 그때 좌절감 같은 게 좀 있었겠습니다.

하인호 크죠. 그러면서 빙빙 돌다가.

이형진 다시 추스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하인호 5월, 5, 6, 7, 8, 이게 항상 교사에 대한 탄압은 방학 때 이루어지거든요.

하인호 개학 시기, 학교 나갈 시기의 초에 있더라도 그냥 됐다 방학 무렵에 학생들을, 의식을 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방학마다 그랬는데 그때도 뭐 방학 무렵에 그랬고, 9월부터 한번 모이자 해서 사무실도 못 가고, 사무실 주변에 커피숍에 모여서 그때 ‘인사회’라고 9월 무렵에 처음 한 번 모였죠.

이형진 인천. 그러니까 사립학교 모임 이런.

하인호 이쪽으로 어쨌든, 그때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해직된 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이형진 사무실도 못 가고 근처에서 이렇게?

하인호 예예. 그렇게 해서 추스르고 어쨌든 ‘인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정체성에 관해 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당분간 지부 조직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걸 후원은 하되 지금 그동안 전교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들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번지고 있는 학내 민주화운동 이런 정보 교류들이 막 싸이틀 때였거든요. 활성화돼 있고 그 상황에서 성헌교 문제 터졌죠. 대경여상, 또 5월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학내 민주화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같은 사립이다 보니까 또 대책위 꾸려서 같이 결합해서 하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인사회’ 차원에서 좀 해결해 나가자 해서 그 모임을 쪽 하면서 어쨌든 사립지회를 복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복구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쪽 만나면서 지속해 나갔던 거죠.

이형진 선생님 그 대목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형진 선생님 87년 사회적으로도 격변기였습니다. 선생님들 투쟁 그러니까 교원노조, 전교조로 가는 과정에 여러 투쟁이 있었는데 대경여상에서 있었던 87년에, 사립 실업계 학교 투쟁은 조금 특이한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학교가 해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기록으로도 이렇게 남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말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인호 89년 6월 10일에 전교조 인천지부가 창립되고 그 무렵에 대경여상에 학생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죠. 학급비 문제도 있고 자격증과 관련한 것도 있고.

이형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학급비라고 하면.

하인호 학급비 건어서 원래 학생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건어서 쓰게 되는 건데, 그걸 공식적으로 건어서 학교가 착복했다기보다, 학교 운영비로 당연히 써야 할 것을 그런 걸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자격증이 중요할 때니까 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비공인) 자격시험을 보게 해서 그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가 학생들한테 거의 착취 비슷한 각종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갈취한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학생회가 중심이 됐고 거기에 김윤수 선생이라고, 김윤수 선생님이 같이하면서 파면이 됐고 학생들은 학

생회장하고 부회장이 구속되고, 학생이 학내 문제로 해서 구속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악랄했다고 봐야죠. 그 과정에서 반발하고 문제 제기한 학생들과 함께했던 김상필 선생님, 차창훈 선생님 이 두 분도 구속이 됐는데 차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임시킨 상태에서 임금이나 이런 거 못 받은 거 받으러오라고 학교로 오라고 해 놓고는 경찰 대기시키고 있다 가 구속되기도 하고.

이형진 그 학생들은 당시에 실업계였는데 야간 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인호 다 야간이죠. 야간인데 거기가 사회교육 시설인데요. 정규 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거기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상급학교 진학하든 뭐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게, 낮에 일하고 밤에 그야말로 주경야독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시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그 학교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형진 주간에는 회사에 다니고 취업을 전제로 해서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하인호 그야말로 노동과 학습을 병행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는 노동운동하고 연관된 학생들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민주화 투쟁, 학내민주화 투쟁 이것과 또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런 게 결합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형진 회사에 가서 노동운동하는 언니들을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하인호 그렇죠, 그런 게 컸었죠. 그러니까 탄압도 심하게 받았지만 그

걸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쨌든 그런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이런 교육운동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팽팽하게 부딪히게 됐던 거죠. 그걸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 사립 쪽에서 활동했던 황진도 선생, 저, 도성훈 선생,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학교) 교장을 고발했죠. 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니 출두가 날아와서 난생처음 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갔었죠. 갔더니 담당 검사가 이덕모라는 사람인데 그 이전에 빨갱이 잡는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예요. 이 검사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 고발했다’고 그래서 그런 실랑이도 하고 조사받고 어쨌든 사회 문제화 되고, 저희도 적극 결합을 했고, 이제 이겼죠. 승리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학교 문 닫아버렸죠.

이형진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하인호 갈 데도 없는 거죠. 학생들은 끝인 거죠. 그 이후에 산업체 특별학급 해가지고 동일여상, 동일방직 안에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동일여상이라는데 동일방직 분들 있었고 인천여상에도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복직해 갔는데 인천여상의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컹컹하는 못 했고 두 번째 해는 자원을 했어요, 야간이니까. 수업 자원해서 주간 교사들이 그 수업을 했는데 대경여상 그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죠. 대부분이 힘들어하죠. 낮에 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중에 한 두세 명은 또릿 또릿한, 오히려 주간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함께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

이형진 선생님은 그러니까 실업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또는 현장에서 겪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인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교사들 중에는 산업체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산업체에) 있다가 교직에 온 분들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취업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지도하고 취업지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가서 무슨 일 하고 있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던 차에 노동자 통일운동이 활발할 때 인천에서 ‘노동자 통일대 백두’라고, 거기에 전교조가 교육지대로 함께 했었어요.

이형진 90년대 이후이죠?

하인호 예, 그전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 통일대 백두’에서) 만났던 일반 노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학교에 실업계고에 있다니까 ‘학교에서 노동과 노동법이나 노동 삼권이나 이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실업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해직되고 나서 바로 또 (원상회복)추진위원장 한 다음에 바로 (전교조인천)지부장을 또 하게 됐었죠. 그 무렵이 93년.

이형진 선생님 그러면 그 시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89년에 인천 사립 학교 모임 ‘인사회’ 이걸 구성하게 되는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 1차 전교조 출범 과정에서 해직이 이루어지고 사립 교사 모임을 다시 재건하면서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90년까지 쪽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셨지 않

습니까?

하인호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형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인호 ‘인사회’ 활동하면서 어쨌든 지회를 복원하자 해가지고 92년도에 사립지회장인데요, 제가. 전교조 인천지부 사립지회가 복원돼서 그때는 급별로, 그 당시 지부장은 조용명 선생.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공립, 저는 사립, 사립지회장을 하게 됐는데 92, 93년 이때가 권력 재편기죠. 92년 12월에 대선이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는데 전교조 투쟁 목표가 전교조 자체를 인정받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을 향해서는 교육 대개혁 이 세 가지를 내걸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해직교사 원상복직’하고 “교육 대개혁” 두 가지를 걸고서 이 권력 재편 시기에 어떻게 투쟁을 할 건가 이걸 92년 초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공투’라고 해서 지회를 공개하는, 그러니까 전교조 조합원임을 내걸어서 해직되고 그랬듯이 다시 복원된 것을 전국에 있는 지회장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다른 전술을 쓸 거냐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회장 공개 투쟁을 나오다가 그건 조금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교육 대개혁’하고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걸고서 지부, 지회별로 그걸 추진하는 추진 기구를 꾸리자 그래서 그게 쪽 꾸러지게 되죠.

그런데 꾸러지기 직전에 먼저 해직교사들이 해단투라고 해서 해직교사 단결 투쟁, 앞서서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현장 교사

들이 그것을 받아서 ‘교육 대개혁’하고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목소리를 내는 추진위(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  
한 인천교사추진위원회)를 건설하면서 추진위원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회장들이 자연스럽게 그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립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인천 추  
진위원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배로나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인천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아  
까 말씀드린 대로 5.18에 대한 잠재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황진  
도 선생님 지회장 교사협의회 회장 무렵에 안타까움도 있고, 1  
년 정도 단련이 됐고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도 생겼  
고, 사실은 해직교사들은 해직교사들대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  
만, 밖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후원  
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건데 진짜 그 기간 동안 92년까지, 89년  
부터 92년까지 매일 서명하고 선언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  
면 방학 때마다 징계 운운하는, 경고장 수없이 날아오는 거죠.  
경고장, ‘징계 출두하라’, ‘징계하겠다’. 방학 때마다. 학기 중에  
그런 거 이루어졌던 걸 모아뒀다가 방학 때 경고장 날리고 경  
고장을 봤냐, 안 봤냐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장실 내려오  
라 하면 안 내려가고 교장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  
전달해야 하니까 그렇게 계속 지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힘  
든 상황에서 이제 뭐 해도 되겠다 해서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  
고 그러면서 사실은 해직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죠, 그 현실 자  
체가. 그래서 ‘이왕 각오했으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전

사를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이왕  
저희들 각오가 다 그랬죠. 전국의 시도 추진위원장들이 치열  
하게 싸우고 우리 하나의, 그냥 전교조의 어떤 사업을 하나 수  
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싸우자, 우리는 그렇  
게 생각했지만, 전교조 차원에서는 그런 전략전술 속에서 이  
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직되더라도 그런 문제들  
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치열하  
게 싸워나갔고, 그 뒤에 서명도 이루어지고 일반 시민, 국민들  
까지 나서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구, 시도는 됐고 시군구 추  
진위원장을 공개하는 전술을 썼죠, 그 해에. 그래서 인천도 초  
등 둘, 공립·중등 둘, 사립 둘, 사립은 저 포함해서 이렇게 6명  
이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장 공개 선언을 하고.

이형진 곧바로 징계가 들어왔습니까?

하인호 징계 들어왔죠. 들어왔고 저는 이미 해직 상태인 거고.

이형진 그러면 92년, 그것도 방학이었습니까. 7월 29일에 인천에서 징  
계 요구서를 받아서 징계위원회가.

하인호 재단(신호학원)도 사실은 (징계를) 처음 하는 거고, 저도 처음  
이고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 나왔는데 어쨌든 출두를 안 했  
죠. 안 했고 재단 사무실에서 했는데, 경인여상에 나와 있으니  
까 경찰이 1개 중대가 배치됐는데 저는 출두를, 같은 날 학교  
대표자 결의대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출두 안 하고 거기 갔었  
고, 1차는 어쨌든 징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직위해제도 안 하고 그 징계를 하나’, 원래 순서가 내가 범법을  
저질렀다면 담임이든 뭐든 이것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 절차

상으로.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직위해제  
도 안 시키고 징계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직위해제를 또 그 뒤  
에 했더라고요. 1차 징계(위원회) 하고 나서 직위해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2차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이걸 막자 해가지  
고 그때 한 50여 명 모여서 추진위원, 졸업생들, 그다음에 교  
대·사대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가서 무산시켰죠. 그랬  
더니 세 번째 징계위원회는 아예 통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여의도 음식점에 서 모여서 결정을 해버렸더라고요.

이형진 경인여상에서는 한 분, 선생님은 해직되었습니다.

하인호 그렇죠. 아니 경인여상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국적으로 시도별  
로 한 명씩 해직된 거죠, 한 명씩. 그런데 유일하게 해직이 안  
된 데가 경기 같은 경우는 부친 소명여고. 거기 추진위원장님  
같은 경우가 가톨릭 재단이어서 재단이 징계를 안 한 거죠. 그  
래서 거기는 해직이 안 됐죠.

이형진 조용명 선생님이(해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인호 조용명 선생님도 나중에 할 수 없이 (징계를) 하기는 했지만,  
가톨릭 재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거부했었죠. 그래서 8월  
24일 날에 개학인데 아직 출두요구서 징계 결정됐다는 건 구  
두로는 교무부장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안 날아왔  
죠. 통보를 받지 않았다, 통보했더라도 마찬가지로, 통보 안 했으  
니까 출근하듯이 학교 간 거죠. 갔더니 교문 큰문은 다 걸어  
잠그고 쪽문으로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소지품  
도 챙겨야 되고 학생들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못 들어가게 막 실랑이를 했고, 그 당시에, 기사 분들, 용원 분

들이 네 분이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경비하시는 분, 나머지  
세 분은 용원 분들인데 나머지 세 분은 저하고도 술도 잘 마  
시고 굉장히 친했던 분이 같이 숙직도하고 그랬었죠. 근데 경  
비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군 출신이에요. 저를 완전히 빨갱이  
로, 그렇게 빨갱이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양반은  
혼자서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학  
생들은 또 영문도 모른 채 등교하고 있고, 개학 날이면 청소하  
고 조회하고 그랬는데 청소도 안 하고 방송으로 나중에 들으  
니까 뭐 교장이 ‘하인호 선생님은 말렸는데 교직을 버리고 위  
원장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라고  
요. 나는 계속 교문 밖에 서 있고.

이형진 선생님 반의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하인호 담임 반 학생들은 소식 듣고는 교문, 제가 있는 쪽으로 20여  
명이 막 쫓아내려 오니까 학생부에서 급해가지고 차 몰고 교  
문 쪽으로 달려와 가지고, 경비실하고 함께 학생들 막 쫓아내  
고 조금 있다가 본관(건물), 담임 반은 본관에 있고 저쪽에 또  
신관(건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1학년 애들이 막 쫓아 나오  
니까 개들을 또 막고, 애들이 점심시간에 감시 피해서 내려오  
다가 학생과 교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또 쫓겨 들어가고 그런  
실랑이를 했죠. 그날은 종일 있었죠, 학교 밖 (교문)에. 그런데  
퇴근 시간 무렵에 퇴근하는 교사들, ‘같이 함께 못해서 미안하  
다 뭐’ 이런 얘기, 학생들도 ‘내일 또 봐요.’ 어쨌든 그런 얘기하  
고 첫날은 지나가고, 첫날은 교장도 미안한 표정도 짓고 그랬  
었어요. 하기는 뭐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나도 뭐 학

교하고 뭐 이렇게 원한 살 일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학생들하고 마지막 인사는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정도로 했고 그다음 날 또 학교 앞으로 갔죠. 그래서 그날은 편지글로 학생들한테 ‘나는 정든 학교 또는 사랑하는 아이들 곁에서 떠날 수 없다’ 이런 편지글을 준비해서 학교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선생님들도 받아 가고 교장도 어쨌든 받아 가면서 ‘미안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정도였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수위실 인터폰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거친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원장답게 행동을 해라, 줄개 노릇 하지 말라’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길래 그런 정도 안 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전날 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따지려고 밀치고 들어갔죠. 학교 안으로 쪽문을 밀치고 들어가니까 기사, 다른 기사 분들은 소극적이지만 경비분은 저를 빨갱이로 알았으니까, 아주 반공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어요.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저 위에서 창밖으로 애들이 보고 막 함성 소리 나고 이래서 밀려서 다시 수위실까지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장이 와서 제 혁대를 잡고 경비하고 질질 끌어냈어요, 저를. 제가 ‘이런 학교는 없다 학생들하고 인사는 하고, 수업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줄줄이 끌려 나왔죠. 그래서 교문 밖에서 하루 종일 지냈고 그다음 날에, 세 번째 날은 그때 경찰들 출동돼 있고 정보과 형사들 계속 나와 있고 교문 앞에서 그야말로 ‘닫힌 교문을 열며’죠. 그 무렵에 영화 중에 ‘닫힌 교문을 열며’ 상영하는 무렵이었으니까요. 그게 세 번째

날은 비가 오는데 침묵시위를 했죠. ‘정든 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피켓 들고 하고 그런데 교무실에서 그날 회의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교사들이 ‘인사는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니까 교장이 마이크 뺏고 사진 찍고 뭐 어쨌든 실랑이들이 쭉 있었고,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계속했죠. 그러면서 (전 교조) 사무실에 일 있으면 와서 또 일도 보고.

이형진 어쨌건 출근 투쟁을 한 거네요.

하인호 네, 출근 투쟁을 한 20여 일 했어요. 그 사이에 학생, 졸업생들 해서 탄원서 조직해서 졸업생들, 교사들 이렇게 탄원서도 내고 농성도 하고 또 집회 있으면 거기 가고 그러면서 한 20여 일 계속 투쟁을 하다가 19일 차, 20일 다 돼서 그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차마 헤어질 수 없는 아이들’하고 편지를 써 가지고 아침에 배부하고 종료를 했고, 그다음 날 잠깐 들렀다가 22일째, 10월 그때가 10월 달로 넘어왔는데 10월 며칠인데 그때 보험 문제도 있고 도장도 챙겨야 되고 좀 들어가자, 20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행정 서무과장이 서무실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내려와서 20일 넘어서 같이 들어가 봤더니 내 책상은 한쪽으로 빼놓고 거기서 소지품 챙기고 선생님들하고 담소 좀 나누고 종료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임시 담임, 담임은 중간에 바뀐 거니까 담임을 놓고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조금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하고 아픔을 같이한다’ 그러면서 아침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이 인사도 안 하고 거부하니까 저녁때 종례

후에 마지막 시간 내서 토론해서 해서 주고받고 얘기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표 쓸 거다,’ 학생들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사표 쓴다는 것 때문에, 사표 쓸 일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교육부에 재심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면 재단 쪽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소명 자료, 제가 한 행적, 쉽게 얘기해서 제 범죄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든요, 내용들을. 재심을 추진위원장들이 다 같이 했으니까 그걸(소명 자료를) 쪽 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웃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학교가, 재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엄청 많고, 제가 뿌렸던 유인물 이런 거 다 사본으로 또 뭐 성급, 성미 모은 것을 누가(학급) 몇 번 내고, 저(담임반)는 거의 없는 거죠. 어쨌든 불성실하고 법을 안 지키는 교사로 몰아서 재심에서도 행정소송까지 쪽 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됐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파트를 이어 받아 가지고, 시군구 인천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사립 이분들이 그래 나도 한 번 잘라봐라 하고서 이분들도 선언을 전국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형진 그러면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탄압에 맞서서 거의 옥쇄 투쟁을 하신 겁니까.

하인호 그렇죠.

이형진 차례차례 공개하면서 잘리고 사회적인 쟁점화 시켰던 거죠.

하인호 그래서 그분들 중에 공립 중등 박영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안타깝게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해직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해직이 안 됐는데. 그분들은 해직을 받았는데 바로 그 해의 재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고, 정직 1개월, 칼날이 무더진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감봉. 정직,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직, 감봉 받았고 사립의 선생님은 박문중학 교여서 거기는 또 징계를 안 받고 칼날이 굉장히 무더진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교사들이 국회에다 이름을 걸고 청원하기도 하고, 또 신문 광고, 각종 단체, 학부모 단체, 이런 단체들이 광고 내고 하니까 관 쪽에서는 그걸 대응하는 사립재단이나 어머니회 이런 보수단체들의 광고를 내면서 맞불을 내면서, 전선이 형성되면서 해직교사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인 쟁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선 시기에 해직교사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공개하면서 해직까지 됐지만, 원상 복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 대개혁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선거 앞두고 쟁점화 시키는 데까지는 갔고 사회적인 관심 그러면서 92년 10월경에 대선을 얼마 앞두고서 102만 명 국민 청원 서명을 했죠. 그러면서 전교조 같은 경우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교사들이 정치 계절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해서 시군구 단위로 조직이 꾸려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정선거 감시단, ‘공감단’이라고 하죠. 특히 농민 농촌 지역의 같은 경우는 농민회나 이런 데 공감단이 꾸려갈,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사회적인 연대나 이런 것들이

복원되고 전교조의 역할이 그 무렵에 굉장히 커졌죠. 저도 인천에서 '공감단' 함께 했던 경험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형진 그때는 민주당으로 공정선거 감시 이런 것들을 활발히 했지요.

하인호 김대중, 김영삼, 현대 정주영 이렇게 후보로 나왔을 때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졌죠. 김영삼 씨가 보수 쪽에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김영삼 정부에서도 해직교사 문제를 어떻게든 과제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만들어간 거죠.

이형진 그러면 전교조 초기 해직교사들 그리고 나중에 해직되신 우리 하인호 선생님이란 해서 일괄해서 이렇게 94년 말에 추진위원장에서 해직되신 건가요?

하인호 추진위원장 해직되고 나서 대개 12월에 선거를 하거든요. 지부장, 부지부장 선거를 12월에 하게 되는데 이 대선 때문에 선거를 미뤘어요, 93년 2월 달로. 그러면서 93년 2월에 제가 (전교조인천)지부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부장 할 만한 사람 몇 사람 저 포함, 저, 조용명 그때 이청연 이렇게 골방에서 토론 하고 안 되니까 골방에 다 넣어가지고.

이형진 결정될 때까지?

하인호 네, 그래서 그때는 쉽게 됐죠. 왜냐하면 저도 이미 추진위원장 했고 지부장 좋다 해서 어쨌든 제가 지부장하고 도성훈 부지부장으로 단독 출마해서 93년 지부장 하면서, 93년이 김영삼 정부 출범해서 해직교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초부터 해직교사들이 다시 투쟁 시작하고 이러면서 정부하고 그 당시에 정해숙 위원장님하고 전남 출신의 오병문 (교육부장관), 그분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발표가 전교조 탈퇴 각서를 쓰면 복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찬반이 엄청나게 오고 갔죠. 그리고 그 당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 하면 다음 날 동아일보 일면에 우리가 한 얘기가 다 새 나가는 거죠. 다음에 그게 보도가 되고 복직 문제 가지고 전교조 내에서 뜨겁고, 탈퇴 각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찬반 논란이 힘든 상황에서 정해숙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복직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탈퇴하되 탈퇴 각서를 전교조 위원장한테 내는 식으로 해서 합의를 봐서 추진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지부장이니까.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인천교육청에) 갔죠. 그때 신맹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끝내 거부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해서 94년에 복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부장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또다시 조용명이나 하인호나 뭐 이것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개 지부장은 보통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복직하고 조용명 선생이 또 남게 되는. 그래서 황진도 선생에 대한, 조용명 선생에 대한 빛, 지금까지도 안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복직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중학교로 다 발령 났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 과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지부장이고 저한테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장학관이. 중학교 가서 수학을 가르치니 어찌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거의 협박을 하고, 그때 좌우지간 수학 가르치는 꿈까지 꺾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했어요.

고등학교 발령 내는 문제 포함해서 어째서 거기다 또 지부장 이고 대표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접수 과정에서도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다 내놓으라고 '우리 안 할란다'고 '그냥 가져가겠다'고 협박도 하고 면접 과정에서도 실랑이를 하고, (저에게) '중학교에 가서 수학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만 고등학교, 인천여상으로 (발령받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제일 약한 교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형진 선생님은 그러면 92년 말에 해직돼서 만 2년 정도를.

하인호 1년 반이죠, 정확히.

이형진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경인여상이 아닌 인천여상으로.

하인호 당연히 사립으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사립재단들이 안 받죠.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한 건데 다 나자빠져 버리니까. 원래 학교로 복직한 교사는 없죠. 다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공립으로 가게 됐고.

(3부)

이형진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93년 10월 15일 일괄해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뭐 복직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시 학생들이 있는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사립재단이 아닌 공립 인천여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혹시 다른 점들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실업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죠.

하인호 공립학교 인천여상 가서 보니까 우선 사립 분위기하고, 사립은 좋건 싫건 몇십 년 같이 근무하니까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내 학교다' 그런 게 있는데 공립에 와서 보니까 두 층이더라고요.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승진) 접수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접수 얘기, 어떻게 하면 몇 점이고 논문 어찌고 대학원이 어찌고. 그다음에 승진에 관심 없는 교사는 또 마음에 안 들면 떠나지, 뭐 그냥 저는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하지요, '왜 떠나냐, 고쳐야지, 고쳐서 써야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옮기게 돼 있는데, '있으면서 좀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학교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또 학생들도 보니까 그때 첫 느낌이 그랬어요. 야, 자식 낳아서 공립학교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천여상 학생들이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인데 보니까 학생들이 잘해서 하는 거지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서가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애도 그냥 뒤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인여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천여상 학생들이 가진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은 실업계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으쓱, 내가 그래도 인천여상인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해서는 또 이렇게(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고개를 왔다 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사정없이 깨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려면 담임을 해야 돼, 담임을 안 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담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담임 하겠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안 주고, 복직해서 갔는데 어느 자리에 앉히냐면 교감선생이 딱 가운데 있고, 가운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교감 딱 보이고 교감 건너편에 시계가 있고 교감이 딱 뒤통수를 보는 자리에 앉혔더라고요. 감시하기 좋게. 그때는 일일보고 했거든요. 해직 교사, 복직 교사에 대해서. 하는가보다 말라면 말고 뭐 어쨌든 신경 안 쓰고 지냈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가 누구였냐면 이한열 열사 누님, 누님 자리였더라고요.

이형진 인천여상에 이한열 열사 누님이 계셨습니까?

하인호 누님이 영어 교사로 있었어요. 여기서(인천여상) 해직됐었죠. 그 자리에 딱, 그때도 감시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혔더라고요. 거기에 전교조 후원했던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교사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그때는 매일 직원회의가 있었어요. 그럼 뭐 있으면 발언을 하죠, 일어나서. 그게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산회’라고 테니스 치고 등산하는 교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테니스는 안치고 이 사람들하고 뭘 해보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산도 가고 그러다 처음에는 경인(여상)에서처럼 이거(직원회의시 발언)에 대해서 바로 1번 누구 순서를 정했어요. 발언 1번 누구, 2번 누구, 제가 1번으로 해서 얘기하고 두세 번까지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나오죠, 발언

할 기회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더라고요. 이제 준비된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은 즉흥적으로 했지만(일주일이면) 준비된 얘기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오늘 가서 또 이게 진짜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그 한쪽 귀통이에 조용히 있었던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얘기를 했죠. 순서 정해서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그냥 계속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일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면 또 작심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학교였어요, 인천여상이.

이형진 숨통이 트이는가 봅니다.

하인호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 출마해서 당선됐죠. 들어가서, 이렇게 교사 위원으로 뽑혀서 발언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회의를 하는데 계속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똑같은 위원인데 ‘교장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운영위원, 학교 운영을 운영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건데 교장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회의 때까지 그러지 말고 누구누구 위원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하자’, 그때 누구도 시비는 안 거는데 그러자고 하고,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호칭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술자리마다 교장이 씩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보고 말이야, 위원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많은 노력을 시범학교 때부터 했고 그다음에 교장 초빙제, 또 교

장 (초빙제) 초기에 시범학교가 또 됐어요. 초빙제 교장 과정에서도 교장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재심을 요구해서 재심까지도 또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도 안 주고 부장은 물론이고 부서도 어디에 앉혔나 하면 그때도 새마을과에 있었어요. 새마을과 한쪽에 앉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서도 원로교사들 조차도 그랬어요. 잘한다고 토닥거리주고 왜냐하면 워낙 교장·교감이 잘못했거든요. 인천에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어서, 원로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내놓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담임 주라고 압박하고 하니까 첫 담임을 맡았어요.

이형진 95년이에요?

하인호 94년, 95년, 96년인가 보네. 96년인가 첫 담임을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 소풍, 수학여행 갈 때 사진인데 전에는 이만했거든요. 더 커졌더라고요.

이형진 사진값이 또 올랐네.

하인호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을 쥐서 현상하면 600원이면 그 정도 크기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진은 그 사진대로 있고, 또 학년 부장 통해서 그 사진을 사실은 그 명목이 뭐냐 하면 앨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갈 때마다 이 기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서 수학여행 가면 같이 교사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어쨌든 한 형제처럼 지내요. 그것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학급별로 오면 뒤에다가 이름을 붙여

서 학생들이 체크해서 반장이 건으면 담임선생님이 학년 부장한테 넘겨주면 그 숫자에 따라서 교사한테 돈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반보다는 적지만 몇 명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학년 부장이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받겠다, 나 이거 안 한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하고, 회의 때 계속 발언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교장실에 결재하러 갔더니 다른 학교로 가래. 그래서 '제가 왜 갑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발령 났으니까 여기 다 채우고 갑니다,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학교 교장이 둘 이어서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간다'고 팽팽했죠. 결제할 일이 있어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찍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려고 그런 식으로 수학여행 바꿔내고 그때 집중했던 게 학생들은 대동놀이 또 집단상담, 집단상담 꼭 했어요. 모둠 활동하고, 집단 상담은 모둠별로 해서 학교 숙직실에서 저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네다섯, 서너 시간 정도 해요. 같이 자기 속마음을 툭 털어놓고 학기 초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숙직실에서 하고.

이형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인호 많지 않죠. 그럴 때는 숙직실에 방바닥에 쪽 둘러앉아서 모둠 단위로 며칠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참 하고 있는데 교감이 술 마시고는 그 장소에 왔어요. '이놈이 뭐 하나'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와서 뭐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놀이나 이런 걸 통

해서 학급운영을 쭉 진행하고 여행이나 소풍 가기 전에는 또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학급운영도 하고. 잠깐 짬 내서 5.18 무렵 되면 5.18 비디오.

이형진 학생들한테?

하인호 네, 과학실을 빌려서 비디오를 틀 교실이 없으니까 빌려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 교사가, 경인여상에서도 한 명 있었고, 인천여상에도 있었어요. 근데 인천(여상)에서 그 선배 교사가 부장 교사였는데 승진을 앞둔 사람이었죠. 이걸 보고는 교장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전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화해서는 하인호 선생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불순한 비디오 보여주면서 하니까, 집에서는 복직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는 그 선생님 있는 방에 갔죠. 가서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들이받았죠. '선배면 선배답게 굴라, 어떻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배를 직접 불러서 이런 거니까 조심하라던가 해야 될 일이지 썩 하니 교장한테 일러바치고 말이야, 앞으로 이딴 식으로 하면 내 선배 대접은 커녕, 선배 교사로서 대접 안 하겠다'고 막 들이받아 버렸죠. 그랬더니 그걸 교장한테 또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 덕은 그만두고... 학교 안에서 쭉 지내면서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취업 관련한 공문을 쭉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들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 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공문에 '용모 단정'하면서 괄호 열고 키 160cm 이상, 몸무게 53kg 이하 숫자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형진 공문에는?

하인호 네, 전교조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93년도 지부장 할 때 전교조 안에 '참교육실천위원회'라는데 안에 실업교육분과 실업교사 모임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은 안 됐지만 그걸 주도했던 분이 '선생님 지부장 그만두시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94년도에 복직하면서 (실업교육)분과장을 맡게 됐죠. 그래서 분과장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문은 이렇더라, 이걸 심각하다 그래서 각 학교 공문을 다 취합했죠. 다 현직이니까 다 상업 선생들이고 또 공업 선생님도 있지만 공고는 그게 없는데 상고가 그게 유난히 심하더라고요.

이형진 공고는 남학생들이니까.

하인호 예, 그래서 서울 쪽, 주로 인천 쪽 선생님들이었으니까 광범위하게 모으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전교조 안을 들여다봐도 비밀 언덕이 없어요. 전교조 안에서도 실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적고, 그래서 전교조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던 여성 민우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걸 함께 해보자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근로기준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서 44개 대기업들, 그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용모단정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어떤 데는 키, 어떤 데는 몸무게, 업무하고는 상관없는데도. 44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니까 뭐 난리 뒤집히고 근데 불안하기는 했던 게, 저희 교사들이 다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학생들한테 취업이 안 되면 어쩌나 어쨌든 걱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야 된다 해서 했죠.

이형진 학생들하고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하인호 학생들하고는 얘기를 못 하고요, 그 사례들, 그 당시 사례 보면 어떤 서울 학교에서는 학생이 취업 의뢰가 오면 자기 이름을 들고서 교장실 한 바퀴 뺨 돌고 오고 교장이 낙점하는, 용모를 그렇게 따졌어요. 애들이 키 키우겠다고 잡아 늘이는가 하면 취업 추천 대장에 성적, 키, 몸무게, 자격증 딱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무렵에 뭐가 있었나면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있었어요. 우 조교의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차별 이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어떤 회사들은 학교까지 찾아와서 공문을 회수해 가기도 하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키 따지고 몸무게 따지는 거 없어졌는데 용모단정이라는 거 조금 남아 있다가 그것조차도 없어지고 학교에다 전화해서 관찮은 애들 보내달라 그러면 그 학교가 알아서 하는 정도로 바뀌었죠.

이형진 근데 어쨌건 참 큰일을 하셨네요.

하인호 그때부터 언론에 타기 시작해서 (KBS) ‘아침마당’도 출연하고,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속 언론에 본의 아니게 나가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거 지속하면서도 사회 문제화 돼서 해결되고, 이 문제 해결이야 저희는 계속 실업교육분과 회의에서는 실업계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 문제나 소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죠.

이형진 선생님 더 나가서 학교에서 실업계 학생들 물론이고 일반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하인호 네, 그래서 그 뒤에 97년 IMF 터지면서 IMF 이전과 이후는, IMF 뒤에는 어쨌든 기존에 취업했던 학생들도, 해고 1순위가 고졸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랬고 아예 또 쫓겨나는 거, 한쪽에서는 쫓겨나고 한쪽에서는 아예 취업을 의뢰가 오지 않는. 금융기관이랄지 뭐 이런데. 대기업은 거의 취업 의뢰가 오지 않게 되고 실업계 학생 대량 미달 사태, 98년 되면 거의 대량 미달 사태 나오고 학교 붕괴 얘기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모임이 안 되는 거죠. 학생들도 희망이 사라진 거죠. 학교에 점심때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 거의 안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인천에서도 그 무렵에 대량 미달 사태가 나니까 교사들이 대비를 하자 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어쨌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2000년도 들어서 ‘인천실업교사협의회’, 98, 99, 20년도까지 (신입생) 대량 미달 사태가 나니까 인천 실업계 교사들이 한 번 모이자 해서 교육청에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교사들이 (인천)교육청 강당에 교육청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때만 해도 동력이 살아 있었죠, 실업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이형진 실업교육을 좀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하인호 예, 서울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이하 ‘전교조 실업위’)가 창립되고 인천도,

전교조는 그 뒤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인천실업교육위원회(이하 ‘인천실업위)’가 전교조 안에, 인천지부 안에 창립이 됐죠.

이형진 교육 운동 내에서도 이렇게, 실업계 그리고 실업교육 내지는 노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전교조 설립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

하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주로 뭐 했냐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보낼 때 진로지도라고도 볼 수 없고 일종의 진학 지도인데 성적에 따라서 너는 뭐, 너는 인천여상, 너는 중앙 여상 이렇게 (성적 순으로) 딱딱딱 끊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업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고, 처음에 시도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었어요. 공업계, 상업계 첫째는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공업계, 상업계, 일반계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해서 진로 강좌를 지부 실업위(인천실업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자료도 만들고 2000년까지는 그런 일들을 쭉 하다가 2002년도에 참교육 실천 강령이라는 게 (제정 되고), 전교조 안에 참교육 실천 강령이 참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자고, 그 강령 항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자’ 참교육 실천 강령에 그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강령에만 있지, 그걸 실천하지는 못했지요. 조직적인 실천을 하자고 한 건데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해에 ‘참교육실천보고대회’라고 그동안 각 교사들이 실천했던 것을 한곳에 모여서 한 1천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분과를 나눠서 자기가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첫 번째가 2002년 1월에 방학 중에 대전 목원대에서 처음 열렸는데, 그때 정식으로 실업교육위원회가 그 기간 중에 창립이 됐어요,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초대 위원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참실대회 ‘노동실업교육 분과’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실업교육 분과가 아니라 노동·실업교육 분과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니 노동은 왜 실업에서만 하나 전교조 참교육 실천 강령에 대해서 전교조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실기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에 했다고. 노동 실업교육분과로 ‘노동·실업교육분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장을 하면서 실업교육위원장이 됐고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노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함께한 아이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첫째 공업은 상업이라는 교과는 원래 사용자의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교과를 배우게 되는 건데 ‘공업입문’이라는 교과의 개론서죠. 거기에 한 단원이 노동법 관련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근로 기준, 노동을 가르쳤다고 사례가 발표되고, 두 번째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뭐 좀 하자 해서 두 번째는 마침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동북부 쪽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노동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좀 듣고, 그다음에는 노무사분한테 노동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교사, 청소년 노동법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전공 교사라는 속성이 그때만 해도, 속성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교육을 한다. 이거 바깥에 있을 때니까, 다시 또 노동법을 공부해야 (하나), 지금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법까지 또 공부를, 거기다 법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운명처럼 다가온 게 2004년이네요. 2004년도에 인권운동사랑방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배경내 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실업교육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사가 ‘노동과 관련한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이거다 그래서 청소년+노동+인권 이걸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1년 정도 계획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해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죠.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2005년도에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라는 책이 나오고, 그때 저희 전교조 실업위,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노동당, 청소년 단체 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책을 만들고 출판 기념 워크숍 해서 전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워크숍하고, 워크숍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토대를 만들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자 해서 물론 책을 펴내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청노넷’)’라는 단체 이름으로 낸 거죠. 그래서 그 단체 창립식이니 뭐니, 이것도 없이 바로 시작이 된 거죠.

이형진 선생님께서 그 활동, 그러니까 교직에 계시면서 이걸 또 새로운 일을 해내신 겁니다.

하인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문학정보고, 인천여상에서 문학정보고로 발령이 났는데 인천여상에서 계시던 선생님이

교감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저하고 이게 잘 맞았어요. 그분이 제가 복직했을 때 야간 산특(산업체특별학급)에 교사로 계셨는데 저처럼 ‘벌떡 교사’였죠. 그분도 산업체특별학급 야간 학생들 거기 교사였는데, 그분이 늦게 교감이 돼서 문학정보고 교감으로 먼저 가 있고, 제가 그쪽으로 발령받아 갔더니 저보고 실업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장이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 관련한 것도 있고 실업교육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부장이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부장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이미 계시던 분들 어떻게 하나? 1차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삼고초려라도 해서 당신 시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거절하고 그 뒤에 또 하고 해서 승낙했는데 이건 다른 교사들, 승진 앞둔 교사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은 교육부에 있다가 중국에 파견교사로 가 있다가 인천에 오셔서 교장으로 발령받은 분인데 나름대로 소신 있는 분이예요. 제가 딱 갔더니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형진 선생님께서 여태까지는 탄압만 받다가 이제 제대로.

하인호 날개 단 거죠. 실업부장 딱 하면서 제가 그거 하려고 했던 거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안에서 펼칠, 이미 워크숍까지 하고 그래서 이걸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할 건가? 혼자 실천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일단 그때 부서(실업부)의 교사, 신규 교사들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같이 노동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한 게 교사 대상 교육,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 잡아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적인 내

용 가지고, 우리가 학교 (차원으로)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교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연수해서 학교 예산으로 딱 잡아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좋다고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교감 선생님이야 뭐 좋다고 그러고, 교사들 연수를 외부에서 '청노넷' 활동가를 강사로 모셔서 이틀하고, 첫해하고 두 번째 하고 그러면서 교육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교육)하자', 이걸 통해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또 학생도 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 예산으로 해서 실습실에다 딱 세팅해놓고 와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게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새로운 거죠. 여러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프로그램 같이하고 역할도 같이 하고 하니까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는 마침 그때 교사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교사연구회)를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연구회'라는 걸 교육청 공모사업에다 냈어요. 그게 돼서 2007. 8, 9년을 계속 문학정보고에 있으면서 그걸 했죠. 그래서 연구회 이름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 교육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이 또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첫해에는 문학정보고만 했다가 다음에는 문학정보고, 선화여상, 인천여상이 같이 연구회 꾸리고 점차 그들이 가는 데마다 넓혀 나간 거죠. 노동인권교육을 확산하는 데 계기가 됐던 게 아마 2006년 같은데요. 2006년에 그때만 해도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뜨거

운 감자거든요. 거기다가 '노동'하면 빨갱이, '인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니까 빨갱이인데 이런 빨갱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서 예산 따서 뭐 좀 해보려고 공모사업을 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근로인지교육' '근로의식교육', 그때 노동청에서, 노동부에서는 '근로인지교육'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강조했는데, 2006년도에 그 당시 민주노동당 시절에 단병호 국회의원 중심으로 노동과 관련한 국회의원 모임(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하고 '청노넷'하고 준비해서 노동인권교육을 좀 확산시키자(는 의미를 담아), '국회의원 노동인권 일일 교사 되다' 해서 전국의 7개 실업계 학교를 실업위원회에서 컨택을 해서 갔어요. 인천은 제가 있던 문학정보고, 그다음에 배다리에 있는 정보산업고, 서울은 서울북공고, 서울북공고에故 노회찬 의원님이 가셨고, 단병호 의원님은 정보산업고, 저희 문학정보고에 최순영 의원이 오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안기부 뜨고 교육청에서 장학관까지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노동인권 일일 교사' 한다고 하니까 발각 뒤집힐 일 이죠. 첫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체험해보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은 최순영 의원하고 교사들하고 간담회 하는 시간도 갖고,故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북공고가 학생들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강의 하시는데, 학생들이 노회찬을 알겠어요, 하하. 그러니까 보좌관 말에 의하면 땀만 뻘뻘 흘리다 내려오셨다고. 또 여기 단병호 의원님 오셨던 데는 체육관

에 (단 의원님을) 앉혀놓고 그분을 활용해서 (참여형)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 보도되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노동인권’이란 용어를 정착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저희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교에 안착시키는 역할도 했고, 인천에서는 2008년도에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인천청노넷’)'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단위들이 많이 결합해서 왔는데, 인천은 네트워크 창립하기 전에 간담회도 했는데, 민주노총도 두드려보고 했지만, 반응이 없더라구요. 어쨌든 다른 지역하고 특이하게 인천은 교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교사들의 활동이 먼저 있었으니까, 네트워크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쭉 하니 활동을 해왔죠.

이형진 선생님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정년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계속 활동들을, 그러니까 문학정보고 이후엔 다시 또 그 인천여상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년 때까지 계속 실업 관련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들에 매진하셨습니다.

하인호 정년 앞두고서 인천여상에서 또 2010년도에 중부고용노동청이 ‘안심알바신고센터(이하 ‘알바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한다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전문교육부장을 했어요. 그때 또 교장 선생님이 문학정보고에 교감 선생님이로 계셨던, 그분이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걸 붙들었죠. ‘바로 이거다.’ 그동안 우리가 (노동인권) 상담 쪽에는 좀 취약했는데,

제도적으로 좀 풀자 이걸 딱 잡았죠. 그래서 알바신고센터를 학교 안에서 개소식을 했어요. 팻말도 학교에다 붙이고 교장 선생님이 위촉장을 주게끔 했고, (상담) 사례가 많이 나왔죠. 그게 장점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사실은 노동청까지 찾아가서 때인 임금 받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그걸 받아서 팩스로 노동청에 보내면 노동청에서 기본 조사를 하고 안 되면 학교로 와요. 학교로 오면 제가 학생 불러서 같이 학교 안에서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하니깐 굉장하, 그래서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그게 소문나니까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방송 타고 또 때때로는 점심시간에 캠페인 활동하고, (학교) 축제 때 ‘노동인권 부스’ 만들어지고, 다른 학교하고 연합해서 부평 문화의 거리에 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퇴임 학교인 인천비즈니스 고등학교(전 ‘선화여상’)에 와서도 취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후배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해주면서 그 안에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했죠.

이형진 다른 실업계 학교에서도 다 벤치마킹을 했겠네요?

하인호 그걸 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 사업이면 학교가 하는데, (노동부 사업이다 보니)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고 헌신적인 교사 아니면 하기 힘들었어요. 그걸 바꿔내려고 교육부도 끌어들이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인천여상 정도 몇몇 관심 있는 학교에서만 사례가 나오고 하니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

든 비즈니스고에 가서도 끝까지 그걸 붙들고서 퇴임할 때까지 상당하고 노동청을 상대로 해서 노동청도 사실은 바뀌었죠. 처음에는, 안 움직이려고 해서 그 앞(중부고용노동청)에 가서 집회도 하고, 노동청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해서 퇴임할 때까지 그것은 붙들고 계속하고, 퇴임을 앞두고서 내가 퇴임하고 낙향할 것도 아니고 계속 그동안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 안과 밖에 일을 했는데 나는 퇴임식을 하지 않겠다, 학교에다가도 얘기를 해버렸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교조에서도 퇴임식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합원 퇴임식을.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좀 뭔가 다르게 전교조와 퇴임식을 준비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문학정보고와 인천여상에서 같이 했던 이 후배 교사들, 노동인권교육을 같이 했던 교사들이 '좀 의미 있는 퇴임식을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함께했던 공부방(청학동 늘푸른교실), 그다음에 시민단체인 인천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노동자 교육기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학정보고, 인천여상 이렇게 준비팀을 꾸려서 퇴임식을 했어요. '하인호 정년하다', 정을 있다는 의미에서 저와 노동인권, 시민운동 이런 거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돈도 제 돈 냈죠. 그런 퇴임식을 하고 나서 8월, 2016년 8월에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2017년도 1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좀 쉬겠다, 어디 절이라도 가든 뭐 어쨌든 하겠다 하고 있는데, 1월에 전주에서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자살사고가 딱 터진 거죠. 그것도 저희 고향이고 거기다가 그동안 현장실습생이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망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살까지 이른다, 자살은 사실 묻혀버리거든요. 이걸 심각하다 그래서 바로 대책위 논의를 좀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휴가도 접고, 바로 LG유플러스 현장실습대책위가 전주에서 꾸린 다음에 바로 3일 후에 서울에서 현장실습대책위를 꾸렸죠. 그러니까 전주는 그 현안 해결에 방점을 맞췄고,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었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현장실습 관련해서는 1960년대부터 그때만 해도 학교 시설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시설을, 현장에 체험 형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교육적으로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거의 1년 단위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게 2005년도부터 '청노넷'이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를 준비하고 이럴 때니까 그때부터 주의 깊게 봤고, 현장실습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해가지고 (현장실습 시기를) 시기를 3학년 2학기 이후로 미루는 저희는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 그래서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가 (했)고, 그때도 사실은 폐지하자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등 해가지고,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정상화되는 듯싶었는데 바로 이명박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걸(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해부터 또 사망 사건, 광주 기아자동차 사고가 났죠.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사

고 나자마자 바로 기아차 자동차의 노동조합이 협조해 주고 해서 광주는 광주대로 대책위를 꾸리고 서울은 서울대로 대책위 꾸렸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 생각해서 이러려면 전교조 본부가 나서고, 저는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나가서 한국노총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갔어요.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못하고, 대책위만 양쪽에 꾸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2017년 LG유플러스 사고 나고 나서 대책위가 꾸려지고, 이번에는 좀 해결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전교조 본부도 참여하고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한국노총까지는 참여를 못 시켰는데 이렇게 대책기구를 꾸리고, 어쨌든 뭔가 해결되고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 그해 11월에 제주 생수 업체에서 또 실습생이 협착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대책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현장실습 폐지'를 내세워서, 폐지를 전면내 내세우고 하게 됐죠. 전선이 형성되니까, 문제는 원래 교육 정책은 중학생이 들어오면 3년 후를 내다보고서 그 학생부터 반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급하니까 현재 고 3학년 학생한테 적용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학생들은 다 취업을 전제로 조기에 나가는 걸 전제로 (실업고에 입학)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 학생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부가 그 뒤로 숨고, 학생들이 나서게 되고.

이형진 이상하게 역효과가 났네요.

하인호 그 전선이 또 다른 형성이, 교육부는 뒤로 숨어버리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 대부분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취업이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취업을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교사들조차도 그랬죠. 그래서 현장실습 폐지를 전면 내 걸으니까 조합원 중에도 저한테 항의한 분들이 있었어요. 인천에서도 함께 했던 분 중에도 그 학교가 또 마침 잘 나가는 학교, 3학년 담임하면서 이러이런 데 취업도 시키고, 이런 데 진학도 시키고, 학생들 만족도가 높는데 점진적인 개선은 몰라도, 왜 폐지를 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엉뚱한 전선이 형성되면서 교육부는 그 뒤로 숨어버리고, 정치권도 당사자들 목소리 어찌고 운운하면서 그 뒤로 숨어버리고, 학생을 전면내 내세우고 그분들이 단체(특성화고관리연합회) 만들고.

이형진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문제가 잠재된 상태로 가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 또 21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과정은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취업 과정의 현장실습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걸쳐지는데요. 얘기를 하려면 한없이 많은 거여서 꼭 필요한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오늘 오랜 기간에 걸친 전교조 운동 그 이후에 노동인권, 청소년들 문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번 더 이렇게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전교조 초기에 탈퇴 각서를 쓴 거 그것도 나중에 한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후에 해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 없이 싸우셨습

니다.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하인호 일단 강압적인 사회, 폭압적인 사회 속에서 반공교육을 받고 성장기를 보냈고 별생각 없이 교직에 일단 들어왔죠. 그게 결국에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 푸는 것을 잘 못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자산이 없는 상태죠. 쉽게 보면 비빌 언덕도 없고 학연, 지연에 더욱이나 그런 지역으로부터 떠나서 인천에 그냥 와 있다 보니까 또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책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책을 잔뜩 사봤지만 볼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동현장에 가는 그 친구들, 학창 시절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그런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노동자 통일운동이나 시민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났던 그 현장 노동자들을 보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체득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 연결해 주는, 안 되면 뭉쳐서, 뭉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심 있는 것끼리 뭉쳐서 더 큰 효과를 내는, 이런 네트워킹을 굉장히 몸으로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흔들릴 때마다 5.18에 대한 또는 전교조에 대한 부채감이 붙들어주게 되고 처음에는 노동도 사실은 어쨌든 교사의 노동으로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청소년이 노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청소년☒노동☒인권을 만나면서 청소년을 알아야 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을 학

생으로 대하는 거 하고 청소년으로 대하는 거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게 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도 몸으로 부딪쳐가면서 공부하게 된 거고, 그러려면 이들을 만나려면 인권적인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한다, 인권 소양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흔히 ‘암묵지’라고 그러죠. 몸으로 체득한 게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몸으로 체득하고,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연결하고, 나 스스로 연결하려고 해도 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노동운동도, 청소년에 대한 노동으로 해서, 청소년 쪽 사람도 만나고, 노동도 만나고 인권도, 어떤 관심 분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익혀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처음에 나를 있게 했던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 이런 말 씬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그분들은 의식화돼 있는 거예요. 의식이 정리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딱 어떤 안을 가지고서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것 하고 이렇게, 또 떠나기도 하고, 특히 실업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또 자본주의의 모순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실업계고등학교고 그게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표출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지쳐서 그냥 가버리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령 지고 깨지고 하더

라도 이걸 해야 돼, 그러려면 같이 할 사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활동하는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그 이후의 활동이나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또 몇 가지 얘기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인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허용철



- 1958년 강원도 양양 출생
- 1986년 여름-88년 12월 현장미술패 갯꽃 대표
- 1989년 전교조 가입 건으로 해직, 1994년 복직
- 199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문화위원장 겸 부지부장
- 1999년 인천민족미술인 협회 대표
- 2005년 (사)인천문화재단 이사

일 시 2022.11.4.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허용철

이형진 오늘 2022년 11월 4일입니다. 허용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허용철 선생님은 84년 이래로 인천에서 선인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서 지역에서 문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전교조 창립하는 과정에서 교육 운동까지 해서 문화 운동과 교육 운동, 어려운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창립에도 역할을 하셨고 이후에는 교사로서 문화운동가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허용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허용철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진 제가 오늘은 소개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워낙 미술과 문화 영역이라는 게 민주화 운동에서는 좀 생소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도 역할도 있었고 해서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1959년 1월에 강원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허용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양 쪽에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와서.

이형진 보통 우리가 민주화 운동 기록을 하게 되면 초중고 학창 시절 얘기를 잠깐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 그러니까 뭐 이사 다니고 학교 들어가시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정도는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용철 제가 초등학교 이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양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두 살 때 대구로 왔답니다. 제 아버지 고향인 대구고 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상도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인천으로 교사하러 온 거죠.

이형진 선생님, 미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것은 영등포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라고 하셨는데.

허용철 아, 네,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만화는 만화고 그림은 그림인데 그래서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도 미술대회에 몇 번 나갔었어요. 나갈 때마다 다 떨어졌죠. 입상도 못 하고. 그래서 나는 미술에 재주가 없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미술부를 모집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뭐 미술을 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집에 좀 합법적으로 늦게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미술부가 (눈에)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미술부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미술을 전공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 학교 미술부가 되게 억압적인 미술부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일주일에 석 장씩 수채화를 갖다 그리게 하고 매주 토요일 날 평가를 해가지고 지난주보다 실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뺏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냥 몽둥이를 때리니까 못 견디겠다 싶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형진 너무 맞을까 싶어서요?

허용철 아니, 그러니까 미술부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부를 나가려고 하면 물뺏다 100대를 맞고 나간다, 이게 그 미술 규칙이에요. 물뺏다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실내 이젤이 큰 게

있어요. 높은 게 있는데 그 실내 이젤의 뒷다리, 한 이만해요. 이런 걸 갖다가 하니까 밖에서 물을 담으면 밖에서 일주일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물을 먹죠. 그걸로 때려서 그래서 물뺏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갖다 100대를 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 나갔죠, 하하.

이형진 그런데 그림이 그때 고등학교 74년이거든요. 그런데 좀 재미있었던가요?

허용철 아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석 장씩 강제로 그릴 수밖에 없었고 또 매주 일요일에는 뭐 경복궁 그때는 비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하루 그림 그리러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넉 장을 그리는 거예요.

이형진 수채화를?

허용철 네, 수채화만 했어요, 그 미술부는. 근데 그렇게 한 반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강제로 했더라도 그렇게 한 반년을 계속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로 친구들한테 경쟁의식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고, 뭐 그렇다고 운동도 남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미술을 하고 나서는 같은 미술 동기 들끼리 야 내가 재보다 좀 더 잘 그리고 싶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미술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이형진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계셨죠?

허용철 그 학교 미술은 독특했는데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거의 미술실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선후배로 한 거예요.

이형진 아, 그러면 2학년 선배들이.

허용철 3학년 선배가 가끔 봐주고 2학년이 주로 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형진 두들겨 패기만 한 건 아니고 좀 그림을 봐주긴 했나요?

허용철 봐주기는 하죠. 아무래도 제 1년 선배들도 그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

이형진 독특한 전통이 있었네요.

허용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사실 영등포 일대에서 깡패학교로 소문이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뽕뽕이 처음이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기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박지만이 때문에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그때 뽕뽕이를 돌렸어요. 추첨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군별로 학교를 이렇게 구슬 막 돌려서 구슬 나오면 그걸로 배정을 했는데 다들 저 학교만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학교가 제가 떨어진 영등포 고등학교였어요. 학교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그 학교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데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끼리 단결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죠.

이형진 선생님, 2학년 정도까지 해서 그림을 그리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허용철 아니, 그러니까 미술 활동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미술대회 나가면 실제로 상을 좀 많이 타왔어요. 하하. 1년에 대회를 갔다가 한 7개, 8개 나갔던 것 같은데 그 학교 미술

부가 워낙 실력은 좋아가지고 나가면 입선까지 안 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문제는 최고상을 타나 못 타나 이거 정도였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미술실의 상장이 되게, 집에 잘 안 가져갔어요. 상장이 키만큼 쌓였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전국대회 중에서 좀 권위 있는 전국대회에서의 특선 이상은 각자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안 가져가는 약간 시건방진 분위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상장 가지고 불쏘시개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경희대학교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그거 나와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 받은 고3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시험을 또 봤어요. 거기서 특대생을 뽑은 거죠.

이형진 경희대학교에서?

허용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뽑혀가지고.

이형진 장학금 받으셨습니까?

허용철 네, 그런 식으로 그래봤죠.

이형진 대학 생활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77년이면 사실 유신 정권 말기로 가는 과정이.

허용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전혀 몰랐었고요. 1학년 때 그때 일주일간,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병영 입소하는 게 있었어요. 입소해서 군사 훈련을 받는 게 있었는데 교련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그때 누가 한 명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신 반대 뼈라를 갖다 뿌리고 몇 분 만에 붙잡혀 갔죠. 그래서 막 서로 그걸 뼈라 떨어진 거 다 압수해 가는데 슬쩍 그냥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보긴 봤죠. 그래서 유신 반

대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뭐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런 걸 몰랐었고 저렇게 자기 붙잡혀 가면서 까지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했었죠. 그리고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고요.

이형진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허용철 군대 생활은 임진강, 애기봉이 있어요. 애기봉은 다 아시는데 애기봉이 그러니까 제 옆 부대였어요. 애기봉 있는 부대가 13대대였고 그전에 15대대였어요. 그런데 14대대는 4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대가 없었고 13대대, 15대대. 저는 거기 15대대 애기봉 옆에서 근무했죠. 그러다가 해군 본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대를 했고요.

이형진 그러면 제대하신 것은.

허용철 82년.

이형진 그리고 다시 복학하신 거죠.

허용철 네. 82년도에 3월에 복학해 가지고 83, 4학년 마치고.

이형진 학교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었습니까?

허용철 학교 분위기는 4학년 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3년도였죠. 그때 학도호국단 체제에서 학생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미술과는 뭐 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문리과 대학 그다음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화학과였으니까 그럼 그게 무슨 대학이죠?

이형진 자연과학대학교.

허용철 아, 그쪽인가요? 하여간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학생회를 갖다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제가 신뢰

하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거기서 잠깐 학생회 만드는데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을 했죠. 근데 뭐 제 의식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하니까 아, 그래, 뭐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맞지, 뭐 그런 정도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이형진 82년, 3년을 복학하셔가지고 3학년, 4학년을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까지 마치고 나서 그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정립돼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잡으셨을 것 같아요.

허용철 그런 건, 저는 3학년 때부터 추상미술을 시작했고 보통 복학하면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사 징계도 받았었는데, 학점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1학기 때 받은 A가 지난 2년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거의 뭐 다 올 A 받을 정도로. 군대 갔다 오니까 그렇게 학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미술대는 실기실이 있으니까 대개 실기실에 학생들이 몰래 냄비 뭐 난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요. 식당까지 나갔다 오기도 멀지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방학 때도 뭐 거의 학교 나갔고 거의 학교 실기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하고 나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었어요. 대학원 가서 한 2년만 더 하면 작가로서의 기틀을 갖다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택도 없던 생각인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 얘기를 했

죠. 어떻게 대학원은 대학원 2년만 좀 학비를 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집에서는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그래, 뭐 대학원은 그럼 다음에 내가 벌어서 가지, 했는데 그럼 일단 취직을 해야겠는데 그때 인천 선인재단에 있는 선배 한 분이 우리 재단에서 미술 교사를 뽑으니까 너가 오겠냐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한 2, 3년 돈 벌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갔죠.

이형진 미술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학교를 다니신 건 아니네요, 사실.

허용철 그렇죠, 저는 그냥 작가 생각밖에 없었죠. 교사는 뭐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를 취직할 때도 그러니까 돈 벌러 간 거지.

이형진 호구지책이었네요.

허용철 호구지책이지.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실 전혀 없었죠.

이형진 84년 3월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제물포역에 내리셨을 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허용철 글썄요, 저는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으로 오는 것이 웬지 좀 낙오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렇지 않던데요. 그게 뭐 상관일까? 저는 뭐 그런 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 떨어져 나와서 집에서 나오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제물포 바로 거기다가 학교 재단 건물 밑에다가 작업실을 하나 얻어놓고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작업실 겸 방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죠.

이형진 자취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허용철 그렇죠, 자취를 한 거죠.

이형진 학교는 선인재단에 어느 학교였습니까?

허용철 선인고등학교요.

이형진 선인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을 하신 거네요. 첫째 학교 다니시면서 선생님이 작업하시면서 또 학교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허용철 그때 제가 선인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유가 그때는 선인재단이 관선이사라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개 모집으로 뽑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대개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선인재단 그 재단이 상당히 좀 억압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술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옛날 백인엽 인가요? 백선엽 인가요? 백인엽 인가요. 그 사람이 군대 지프차를 타고 재단, 학교마다 이렇게 순찰도 돌고 그랬대요. 그러면 교사들은 군대에 위병처럼 수통을 차고 현관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이형진 선생님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허용철 저는 관선이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관선이사라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요.

이형진 이세영 선생님이나 원학운 선생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겪었다고.

허용철 저도 그때 저보다 조금 위에 선배들을 보러 오면 이게 뭐 학교

가 그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좀 황당한 일이 많았었죠. 근데 제가 실제 겪은 일이 아니어서.

이형진 담임을 하셨습니까, 혹시?

허용철 첫째 1년 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저한테 담임을 안 맡기던데요. 하하.

이형진 하하.

허용철 그러니까 첫째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형진 선인고등학교는 인문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학 진학하고 관계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과 별로 상관없는 과목이기도 하죠.

허용철 그래서 제가 덕을 본 측면이 있죠.

이형진 그러면 자취방 작업실에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셨던 거죠?

허용철 네.

이형진 선생님은 그런데 초반에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던데요.

허용철 아, 84년도에는 저는 그때 하던 작업이 추상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양식, 영어로 따지면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표현 그래서 그때 그림이 이런 거였어요. 가령 뭐 저 한 칸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크기에 시커멓게 칠해놓고 송곳 같은 걸로 한쪽 귀퉁이를 갖다가 살짝 긁어 놓는 정도. 저는 그게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게 송곳을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힘으로, 어떤 지점에 얼마큼 긁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고 형식적인 실험을 했던 거죠. 그런 미술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인천에 그런 현대미술을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현대미술사랑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현대미술사랑에 저도 아니까 당연히 가입을 했죠. 그래서 84년도부터 전시회에 함께 했어요. 그랬는데, 84년 말인지, 85년 초인지 그때 현대미술사랑이 대구에 있는 '수' 화랑이라고, 그 당시 대구 수화랑이 꽤 큰 화랑이었거든요. 그 화랑 초대전을 샀어요. 저도 작품 몇 점 해가지고 대구 내려갔는데 제 고향인 대구고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그 이모님을 갖다가 어머니처럼 생각했었죠. 그래서 대구 수화랑의 큰 화랑의 초대전을 받아가니까 제가 꼭 마치 금의환향하는 기분도 좀 들고 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구가 전시하면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대구에서 전시를 한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한 김에 이모님한테 그림 한 점 드리고 갈 테니까 와서 내 그림도 전시도 볼 겸 그림 하나 골라가라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 안내해가지고 쪽 설명을 했는데 이모님이 제 그림을 보고 나서도 뭐 그림을 달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이 보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또 계속 물어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모 집에는 이거 중에서 이것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모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나중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애, 그런 그림 말고 어디 풍경 같은 거 하나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풍경 하면 그림이 아

니었거든요. 취미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그림을 못 드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서 이게 아니고 일종의 저한테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술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이 내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이모한테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모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긴 뭐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커먼 걸 집에다 걸어놓는다는 거, 이거 뭐 귀신 나오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요걸 내가 해결 못하면 앞으로 작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작업과 대중이 좋아하는 작업을 좀 일치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동안 못 그렸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만 많이 먹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계기가 된 것이 선인재단 바로 앞에 미술학원이 하나 생겼어요. 84년도에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여학생 한 명이 거기다 미술학원을 차렸어요. 거기 동네가 이제 워낙 아니까 그 친구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미술학원 생겼길래 어, 미술학원 생겼네, 어떤 데인가 하고 가봤죠. 갔다가 인사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민화반을 갖다 처음 만든 친구였어요. 운동권 친구였죠.

이형진 81학번 정도 되겠습니까.

허용철 81학번인가요. 그 친구가 몇 학번이었지?

이형진 84년이었습니다. 85년.

허용철 이름이 성효숙이라고, 강효숙이라고 이름이 성만 다르죠. 성효

숙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민화반 만든 친구인데.

이형진 성효숙 작가, 지금 인천에 있는 성효숙?

허용철 아, 강효숙. 강효숙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강효숙?

이형진 이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허용철 그 친구 보면 서울대 민화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때 그 친구 집에 수배자가 한 명 왔었어요. 그러니까 피신하러 온 거죠.

이형진 그 화실에?

허용철 아마 그쪽 경로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술 마시고 또 그 당시 노동운동 쪽에서 나온 문건도 저한테 주기도 하고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형진 남학생이었죠?

허용철 네. 남자애.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 중퇴하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이형진 선생님하고 나이가 비슷했겠습니까.

허용철 네. 저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어디 개인 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통해서 처음으로 운동권이 라는 사람을 처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령' 얘기도 뭐 그런 정보는 그쪽이 더 있었으니까 두령 전시한다고 창립전을 그때 했었던요.

이형진 애오개에서 했었던 두령 창립전.

허용철 네. 창립전.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죠. 그런데 가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 내가 했던 그 고민, 그 고민을 풀어줄 단서가 이

런 쪽으로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더 큰 고민이 된 것이 내가 그쪽으로 가려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추상미술 이쪽은 전면적으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갈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버린다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이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결론을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추상미술은 극우 쪽, 한국 추상미술은 극우예요. 그리고 한국의 노동 현장 쪽의 미술은 극좌라고 본다면 극좌와 극우는 통하죠. 하하.

이형진 하하.

허용철 그러니까 추상미술을 버리고 나니까 전시장에서 하는 미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시대에, 오직 현장 미술만이 미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투에 나가본 것이, 저 혼자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형진 8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허용철 그게 5·3입니다. 5·3 때 시위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따로 조직이 없으니까. 그런데 5·3은 알았던 말이에요.

이형진 강호숙 씨 의대 친구를 통해서?

허용철 아니요, 그쪽은 아니었고요. 하여간 뭐 저 혼자 나갔어요. 그냥 처음으로 주안 시민회관, 옛날 시민회관 가투 나가 최루탄 냄새도 처음 맡아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미

술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오래돼서 기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이형진 선생님 그 전에 그러면 두령전을 보고 사실 그게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이었을 텐데요. 두령전을 통해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허용철 제가 그런 종류의 미술을 처음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 보니까 외국에서 유행이 오니까 아,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모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거지 그런 종류의 그림을 처음 본 건 아니죠.

이형진 출전했던 분들하고 그러면 그때 혹시 수인사라도 나누고 그래서 관계가 생기진 않았던 건가요, 아직은?

허용철 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장진영 씨도 그때 알았고 그다음에 정정엽 그다음에 문현금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 친구 뭐 하여간 그렇게 몇 명 인사는 했죠. 근데 그냥 뭐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 친하게 지낸 건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인천에서 '갯꽃' 활동하면서 친하게 된 경우고요. 그때는 그냥 저는 혼자 가서 그림 보고 왔었죠. 그 정도였고 근데 5·3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보니까 현장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동 선교하는 그쪽 교회 청년회 출신이었어요.

이형진 민중교회 출신?

허용철 그분이, 네, 인천에 문화선전대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몇 사람 더 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얘가 한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저

는 그 팀에 끼었죠. 그래서 그분 주도로 학습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 팀에 들어왔던 사람이 미술 쪽으로는 저 말고 김말숙 씨, 안영근 씨 부인, 그분은 미술 전공자는 아니었죠. 근데 미술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노래패 출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풍물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운동 쪽에 관심 있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하고 동갑 얘기해가지고 황해문학 편집도 하고 있던 친구데 그러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 황해문학 편집하다가 지금은 편집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름은 나오던데, 황해문학에. 이용식, 이용식. 용식이. 그래서 그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학습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만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깨진 이유가 이분은 빨리 학습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을 갖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문화선전대로서 상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하고는 그 지점에서 의견이 좀 안 맞았죠. 그래서 결국 갈라섰어요. 갈라서고 나서 우리끼리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하다가 3개월 있으면 됐지, 될 더 하나,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각자 나가서 자기 전공대로 모임을 만들자. 그리고 가서 함께 뭐 필요하면 협업하면 될 거 아니냐, 나는 나가서 미술을 만들고, 또 노래는 노래패 만들고, 풍물은 가서 풍물패 만들고, 그때 풍물패도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찢어졌죠.

이형진 86년 말 정도네요.

허용철 말, 말은 아니고요. 한 86년 가을쯤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리고 저는 그러고 나서 학습 모임 깨지는 거 하고 비슷하게 또 이사를 잤어요. 이사 간 데가 경인교대 그때 인천 교육대였나 경인 교대였나 이름이 하여간.

이형진 경인교대가 지금 제물포 쪽에 있었습니까?

허용철 네. 그쪽에 있었죠. 교대가 지금 부평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쪽에 있었는데 근처 골목길에 이사를 잤어요.

이형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업실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허용철 저는 작업이 중심이니까 작업실을 먼저 얻고 그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이부자리에 깔면 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뭐 아마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요구들을 갖다가 제가 시각 이미지 요구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연결해서 그런 작업으로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허용철 이끌어 준 사람 아니 없었는데요. 제가 혼자 있는데

이형진 가끔 와서 그냥 이런 거 부탁하는 식이었습니까?

허용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이런저런 무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들어오면 제 걸로만 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좀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제 작업실이 거기 경인교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선인고등학교 제자를 만났네요. 제가 첫해에 담임을 했는데 그때 담임할 때 그때 반장 했던 애였어요. 그 앞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하면서 만났는데 개가 보니까 경인교대 미술과를 다니고 있던만요. 경인교대는 대학 들어가면 선택하는

거라 미술이라고 해도 뭐 전공 뭐 실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미술과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자기 학교 옆에 내가 있고 하니까 가끔 놀러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들 몇명 같이 데리고 오더니 그때 교대도 학내 민주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교대도 민주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그때는 미술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였죠. 미술과 중에 한 명이 뭐 총학생회 회장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선거 운동을 하면 되고 뭐 그래서 저는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제가 도와주죠. 근데 저는 그때 도와주면 딱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애들은 미술과 학생이니까 이렇게 민주 학생들이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도 애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애들이 미술과니까. 야, 여기 이렇게 칠해, 칠해, 또 이런 걸 그려주고, 좀 확대해서 그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나 혼자 솔직히 감당하기가 잘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시키려고 그랬었죠.

이형진 그때 이미 주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이미지 생산.

허용철 저는 제가 이 시각 이미지 생산자로 제 역할을 정했던 거죠, 그때.

이형진 선생님, 시각 이미지 생산자라는 게 그림 그린다는 말씀이죠.

허용철 네.

이형진 본격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주문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허용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그때가 뭐.

이형진 사실 그 시점은 아주 공개적인 노동 운동이나 지역 사회 운동이 활발하던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엄밀한 방식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익숙해졌다면 전화 같은 게 있었을.

허용철 전화는 없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한다면 밑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그걸 보내고 밑그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걸리면 뭐 큰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때는 알고 있는 작업이었으니까.

이형진 사실은 그 과정도 비밀스럽게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주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단됐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허용철 아마 저한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형진 혹시 했던 작업 중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허용철 초기 작업이 뭐가 있었지. 그때는 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삽화가 들어오면 삽화를 그려주고 깃발 요구가 들어오면 깃발을 그려주고 걸개요구가 들어오면 걸개를 그려주고. 걸개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작업이었겠네요. 네 걸개 하니까 뭐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가령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때 노동자 웅변 대잔치 뭐 이런 거 있던데요. 보니까 포스터를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목판화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들

어서 한 몇십 장 찍어서 나가고.

이형진 선생님은 그때 판화를 그러면 익히셨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회화였잖아요.

허용철 그런데 뭐 그게 말이죠. 그림하고 판화는 통합입니다. 그림하고 디자인은 안 통하는데 그림하고 판화는 통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모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담아 갖고 왔죠. 이거 그래서 그 친구들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 오니까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 통해서가 아니구나. 또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서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 하고 싶은데 그동안 조건이 안 돼서 미대를 못 가고 혼자서 스스로 하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경인교대 학생 몇 명, 그 다음에 성인 몇 명, 해가지고 함께 작업을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이 친구들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기능을 갖다가 좀 가르쳐야 내가 좀 잘 써먹겠다. 하하. 그래서 학습도 시킬 겸 그래서 가능한 어떤 모임 틀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이름을 붙였죠. 조직 모임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죠. 그게 그림패 ‘갯꽃’이라고.

이형진 그림패 갯꽃?

허용철 갯벌의 꽃. 처음에는 갯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야 좀 투쟁적인 느낌이라서 근데 갯돌을 짓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목포에 갯돌이라고 하는 문화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치는 바람에 그래서 갯꽃이라고 바꿨죠

이형진 갯꽃은 87년 초인가요?

허용철 86년 말일 겁니다.

이형진 갯꽃이 공식적인 전시회나.

허용철 아니면 전시회는 안 했죠.

이형진 작업은.

허용철 그러니까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그림패 갯꽃이라고 명칭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딱 갯꽃 이름으로 내보냈죠. 갯꽃으로 다 내보냈고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주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제 작업실이 함숙소 비슷하게 돼 있죠. 늘 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니까 대개 작업은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림 대개 새벽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림 거기서 자고 하니 그랬죠.

이형진 시각 이미지 생산을 위한 공장이 됐습니다.

허용철 그렇죠,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뭐 밤에 작업할 때는 창문을 두꺼운 담요 같은 걸로 다 가리고 그러기도 했죠.

이형진 몇 명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허용철 그거 뭐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저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두세 명 여섯 명 할 때도 있고.

이형진 그 시점에서는 주요한 작품들 그러니까 작업이 어떤 종류들이었습니까?

허용철 87년도에 그때는 아마 갯발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천에서 그때 답동성당에서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인가요?

이형진 예, 출범했죠. 답동성당에서.

허용철 그때 갯발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다 갯꽃에서 만들어 내보낸 거예요. 그게 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는 실크 스크린으로 찍

었거든요. 천에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크 스크린, 실크 스크린 혹시 아시나요.

이형진 압니다.

허용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 다 닫고 불빛 안 나오게 밤새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가만히 있어 봐라, 하여간 뭐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형진 선생님, 87년 6월 항쟁, 7, 8월 투쟁을 그 깃발 활동을 하시면서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과 이후에 노동 현장에서 주문들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생각이 좀 드시나요? 87년 7월 8월.

허용철 그 이전에는 주로 시민단체 쪽 요구였어요. 그 이전에는 주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희가 아까 제가 현장에 나갔죠. 오히려 그래서 노조 준비라든가 노조에 가서 노보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깃발을 만드는 방법. 깃발에다 그림 그리는 방법. 뭐 붓 사용하고 물감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깃발의 모양이 좋으려면 깃털을 달아야 되는데 깃털을 만들어서 다는 방법 해가지고 뭐 관화도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 문화 학교던가요?

이형진 예, 노동자 문화학교.

허용철 그런 거도 하고 노동자 관화 교실, 청년 관화 교실에서 관화 교실도 만들었고 그때 호인수 신부님이 주안5동 성당에 있을 때였는데요, 주안5동 성당에서는 노동자 문화학교라고 하는 것도 기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장에 가서 직접 노조 사무실에서 교육을 그때는 좀 많이 했었어요.

이형진 공장 그러니까 노조 사무실에 간 것 중에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데가 있나요? 여성 사업장이었나요?

허용철 네, 여성 사업장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저는 그때 공장을 갔다가 누가 요구해서 가고 그랬었는데 뭘 해달라고 그러면 가고 그랬었는데 그 때 주로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친구가 그러니까 확출인데 그 여성 지금은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 부친인가 거기서 환경 운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던데. 지금 그거 하고 있던데 키가 좀 작고.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독특해, 이름도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는데. 노동 현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노동 현장에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주로 그 친구가 저한테 요구를 주로 많이 했고 그쪽으로 필요하면 그럼 제가 그 친구 요구를 받아서 거기 갔었죠.

이형진 선생님 공동 작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제자들.

허용철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이형진 뭐 밤을 같이 새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7년 7, 8 투쟁 이후였으면 아마 노동 현장에 요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걸리고 하는 것들 가서 또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허용철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네, 행사 때마다 깃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깃발을 갖다가 해서 내보내고 나면 이게 좀 일회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개 요만했던 것 같거든요. 요만한 걸 갖다가 한 색깔별로 천에다가

티시천에다가 했으니까 쪽 분위기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깃발을 갖다가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길이가 한 3m 폭이 한 이 정도.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행사장 양쪽에다 세워놓게. 그래서 아주 이거는 정성들여 만들, 그랬죠. 정성들이면 그림은 누가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이걸 빌려주면 되겠다. 만들어서 처음에는 빌려갔다가 돌아오면 또 다른 데 빌려주고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빌려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연락해 봤어요. 야 그거 왜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 아 우리 행사장에 딴 팀이 와서 보고는 야 우리 며칠 있다가 우리 행사인데 우리가 쓰고 우리가 거기 갖다 줄게 바로 간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상관없지. 근데 왜 또 안 와 연락해 봤더니 또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돌다가 저도 하도 일이 바쁘니까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게 어디로 가버렸는지가 행방이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그거는 누가 사진을 찍었는 것 같은가 해서 그 당시 서울에 서울 민미협이 있었는데 거기 달력을 만들었을 때 88년도 달력, 88년도 달력이죠. 그의 1월 달에 그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걸 누가 사진 찍어봤구나 라고 하는 그때 알았죠.

이형진 선생님, 그때도 학교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허용철 퇴근하고 나서 일한 거죠.

이형진 근데 또 학교에서는 또 교직원 운동도 약간 나오던 무렵이거든요.

허용철 아뇨. 제가 있는 학교는 뭐 교육운동에는 무풍지대였고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술 교육 과정이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 84년도 5년도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교사로서는 부끄러운 시간이었죠. 제가 배운 게 없거든요. 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애들 때리기도 많이 하고 억압, 강압적이고 그러! 그리고 기술을 얘기하고 뭐 잘 그리는 거 그러다가 애들 뭐 내가 한 번 손을 확 해주면 확 다르죠. 애들이 우리 선생님 잘 그리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술 교육이 아니죠. 근데 제가 배운 거라고는 고등학교 때 몽둥이 맞으면서 배운 거 그때 저를 미술사에 가르친 선생님은 석고상 갖다 놓고 그려, 하고 말았고 대학에서도 그런 걸 따로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생각이 바뀌니까 미학관이 바뀌니까 미술 교육 과정도 새로 다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학습으로 한 것이 철학의 역사인가, 동녘 출판사가 좋은 문고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형진 철학의 역사도 있고 노동의 역사도 있고.

허용철 아, 철학의 역사. 그거 아주 문고판 조그마한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나니까 미술사 연대가 잡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저는 그 서양 미술사를 갖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암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암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암기할 뿐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문고판 책을 읽으니까 맞춰 계보가 착 잡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교육 과정을 갖다가 86년도 겨울에 새로 다 짰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은 어떻게 하고 뭐 해서 완전히 새롭게 짰어요.

이형진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또 해보겠습니다.

허용철 학교에서 바로 했죠. 그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 그러니까 인문계 덕을 본 것이 미술은 진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들 상관없잖아요. 제가 아마 입시 과목 같았으면 그렇게 못 했겠죠. 그래도 미술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학교 선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인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억압적인 선생한테 뭐 뭐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미술 재미가 없고, 근데 학생들한테 가장 민주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수업 뭐 애들이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인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학생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와요. 1학년에 참 말쑥 꾸러기 애가 있는데 애는 참 머리도 좋고 하는데 도대체가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학생부 불러서 뭐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당신이 좋다니니까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래 했더

니 개하고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처음에는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누가 나가서 라면도 하나 사 먹고 뭐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 없이 맨날 사 먹으면서 이렇게 잡담이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우리 풍물을 한번 해볼까, 우리 풍물패를 만들어볼까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제안을 한 게 80년 초에 제가 방황하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풍물을 배웠었어요. 미술을 해야 되는데 미술을 못하니까 막 방황하다가 이 풍물을 갖다가 배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풍물 배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물 배울 때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서울에서대문 쪽에 풍물패 ‘터올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그 터올림이 그때 그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풍물을 배웠었죠.

이형진 인천에도 사실 알아봤으면 있었을 텐데.

허용철 인천에는 그때 없었을 걸요. 인천에는 없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아마.

이형진 정성열 씨.

허용철 정성열은 그다음이었고요. 정성열은 그 풍물패는 그다음에 강습을 시작했고 그전에는 풍물패가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가락도 안 맞았어요. 성열이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얘기가 좀 막 섞이는데 그 당시 삼채를 갖다가 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비슷하긴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성열이가

쳐보니까 같이 치는데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소리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의 풍물 가락 수준이라는 것이 삼채도 정확하게 못 치는 수준이었어요.

이형진 그래서 학생들하고 풍물을.

허용철 그래서 제가 우리 풍물을 해볼까 라고 해서 그래서 어디서 연습을 했지. 처음에는 뭐야 종이 박스 갖다 놓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책만 그러서 했어요.

이형진 장고도 없이?

허용철 네. 그러다가 하여간 어떻게 마련하게 됐지, 하여간 한 개씩 한 개씩 마련했어요. 악기를 한 개씩 한 개씩 마련하고. 그리고 제가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안 되더만요.

이형진 그렇죠.

허용철 그래서 터올림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일 년 만 다시 가지고 이체를 막 배워와요. 돌리면 일주일에 두 번이거든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거고. 그러면 제가 와서 애들한테 이체를 가르쳐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틀 동안 삼채 가서 막 배워와 가지고 또 삼채 가르치고. 그래서 우도 장단이었는데 우도 장단 가지고 판굿을 짤 정도까진 했어요.

이형진 선생님 미술반을 만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허용철 그 아이들이 미술은 아니었거든요. 미술반은 있었어요. 미술반은 있었고 제가 관계를 했지만 미술반 애들은 잘 그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미대 갈 애들이었으니까.

이형진 그건 연습을 시키셨습니까?

허용철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개네들은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요. 그러면 재는 미술과 애들한테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 애들은 따로 그래서, 그래서 그 해 가을에 학교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애들이 옷까지 갖춰 입고 나와 가지고 판굿을 짰어요. 그 아이들 처음에는 한 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뭉 한 뭉 열 명 정도가 됐고 그래서 판굿을 짜서 공연을 했는데 별로 그때는 그런 게 많지 않았는지, 우리 전통이잖아요. 전통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 풍물패가 인정이 되고 예산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롭게 했는데 풍물패를 갖다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여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인천여고 졸업하고 이대 그 해 졸업했던가. 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인천 여고에 있던 미술하는 선배, 제가 그 여자 친구와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야 너 그 친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 그래서 그 여자 친구를 그 선배님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천 여고에서 가르치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무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칭찬을 대단하더라고. 야 너 혹시 애인 없으면 잘해 봐 그랬으니까요. 그 여자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학생 운동을 해보고 싶대요,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됐다, 이거. 애들하고 맨 날 풍물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자 우리 둘이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그 여자 친구가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런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한 시간은 저하고 풍물 치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형진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함께 했던 풍물패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허용철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그다음에 학생, 학교를 바꾸겠다고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사실 권한이 없잖아요. 학교하고 싸우다가 학교를 다 자퇴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맡았던 풍물패 상좌였던 애는 지금까지도 만나고요. 그때 풍물패 애들은 계속 인연이 있죠.

이형진 선생님 세 가지 역할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시각 이미지 생산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미술 선생님인데 또 풍물패까지 만들어서.

허용철 그때 몇 년은 참 열심히 살았죠. 그때 하도 바빠서 수업 시간에 비는 시간에는 깜빡 즐기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약속을 해야 되는데 비는 시간 비면 그때 약속을 잡아가지고 선인재단 앞에서 얼른 만나고 들어오고.

이형진 학교에서 미술 교육을 했던 과정 그 점이 선생님이 스스로 바뀐 후에 그 교과 과정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땠습니까?

허용철 애들 다 좋아했죠.

이형진 그림을 그려서 좋아했습니까?

허용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기술을 봤지만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아니까 이제 뭐 잘 그려도 좋고 못 그려도 좋다. 못 그리면 이렇게 화장실 낙서처럼

해도 괜찮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항상 주제를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한 너 생각이 뭐냐 그걸 하면 된다 저는 자기 작품 들고 나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전까지 미술이라고 하면 많은 거 뭐 물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풍경 인물 그리는 거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가지고 뭐 이렇게 짧은 영상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때 참 한국 미술사 공부도 했어요. 그 모임도 있었구나. 개뿔 하면서 미술 교사 모임도 했어요. 몇 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술 교사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그게 한국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막막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미술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한국 미술사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공부는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몇 명 후배들하고 모여가지고 한국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모인 후배들이 다 또 미술 교사들이었고. 전국에서 인미협 그러니까 민미협에 미술 교사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이 미술 교사가 특별하게 많아요. 그때 미술 교사 매년 모여가지고 미술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형진 따로 이렇게 지도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허용철 우리끼리 책잡고 해서 읽어보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봉고차 같은 하나 빌려서 답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다 같이 미술 교사들이니까 무슨 수업을 하나 수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미술 교과에 대한 그런 틀을 갖다가 쪽 만들어 갔었죠. 그게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전교조에 서 하는 미술 교육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퇴직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때 했던 작업들이 전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이형진 그럼 답사를 하면서도 그러면 한국의 미술 한국 과정들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는 거예요?

허용철 한국 미술사 답사 다니면서 한국 미술사 공부를 하는데 미술 교사들이니까 미술 기획에 대한 얘기는 함께 나온 거죠.

이형진 선생님 조용명 선생님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허용철 그게 인천의 지평 그룹이라고 있어요. 아까 현대 미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모더니즘 쪽 미술이었고 그거보다 좀 늦게 80, 그게 6년.

이형진 88년 지평전.

허용철 지평이 아마 86년인가 7년인가 창립됐을 거예요. 그거는 리얼리즘 회화죠. 저는 현대미술서 빠지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수봉산에 그때 미술 전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전시하고 있는데 조용명 선생님 찾아왔죠.

이형진 지평전도 그러니까 화가들이죠. 선생님들은 아니고 화가들이죠. 인천의 기성 화가들의 전시회.

허용철 기성 화가들 중에서 리얼리즘 회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때 이종구 선생님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왔는데 거기 조용명 선생도 저를 찾아왔어요. 뭐 얘기 들은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찾아와서 그때는 그냥

뭐 같이 얘기만 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뭐 전시장에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가 인천 경기 합쳐서 경인교사협의회라고 그랬거든요. 경인교협에 조직위를 만든 지 1년 되고 1년 되고 나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문화부를 만들었대요. 근데 문화부를 만들었더니 여선생들이 문화부를 신청을 대거 했는데 근데 우리 만나서 뭐 하나 뭐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문화부장이 필요하다, 당신이 와서 해주라, 그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갯꽃 이것만 해도 내가 정신이 없는데 못한다 하다가 그래도 내가 또 교사인데 그래 뭐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회의 가보니까 다 여선생들이고 한 열댓 명 한 열네 분 있었나 그래 보니까 뭐 다 젊은 여선생들인데 문화부가 될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이제 뭘 하자라고 하고 했는데.

이형진 선생님도 사실 그때 좀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허용철 그때 저도 이미 경험이 조금 더 쌓여서요. 제가 이전에 연극 해봤던 경험도 있고 두루두루, 풍물도 쳐봤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몇 개월, 한 3개월 해봤더니 진전이 없었어요. 이게 회의만 해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8년 말에 한 12월이나 됐을 거예요. 갯꽃에다가 양해를 구했죠. 내가 저기 가서 한 일 년만 있다 오겠다. 일 년만 좀 틀을 잡고 다시 올게, 갯꽃에서는 다 반대했죠. 가면 못 온다. 왜 못 와, 내가 미술인데 이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때가 89년도 초였고 노조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노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노조가.

이형진 89년 5월.

허용철 그래서 문화부 그거 하면서 그 팀들 데리고 한 두세 번 발표회를 했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 있다고 그래서 노래를 내세우고 뒤에 뭐 장단 북으로 장단 맞춰 가면서 그림도 그려서 뒤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 협의회 행사 때 한 두세 번 공연도 했죠.

이형진 선생님은 공연 기획을 하셨습니까? 사실 여기 대목에서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선생님께서 연극을 하셨다는 부분.

허용철 그게 그건 제가 복학을 83년도에 했거든요. 복학했는데 그때 같은 같은 과 여학생 한 명이 자기 연극하는데 나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연극 그래 재밌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연극 하고 싶어 따라갔는지 여학생이 이빠서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어디였는지도 모르겠네. 거기 어디 뭐 지하방 가가지고 거기가 연습실이에요.

이형진 서울에 있는 대학로 정도였던 것 같습니까?

허용철 대학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뭐 주택가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연습실이었죠. 아마 값이 싼 데 얻었겠죠. 거기서 갔더니 그때 연극 지도하는 사람이 주강현 씨라고.

이형진 문화 연구가 주강현.

허용철 그 사람이 그때 연극 연출했어요. 그분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

래서 저는 그냥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코 꿰어가자고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매일 같이 가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삼일로 창고극장 명동에 있는 거기서 공연을 띄웠어요. 그때 그 내용이 제목이 ‘흠흠땅땅’이라고 해서 그 당시 신문에 농촌 처녀들이 무작정 상정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언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당극 형식으로 그래서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처녀가 도시로 와서 공장 다니다가 버스, 옛날에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버스 차장 하다가 결국 술집으로 가서 윤간 당하고 술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여자 한 명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역할이 다양하죠. 저도 공장에 갔던 노동자였다가 술집 손님이었다가 윤간할 때 내가 또 강간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짜리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무대를 갖다 처음 한번 경험해 봤죠. 그때 무대에 꼭 찻았어요. 저는 삼일로 사실 조그만 극장이거든요. 그리고 객석의 의자가 네모난 상자를 갖다가 계속 포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쪽에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쪽만 객석이 되고 나눠서 사 놓으면 뺑 돌리면서 객석이 되는. 근데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객석까지 부족한 거예요. 배우가 공연에서 무대까지 사람들에게 두 줄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처음에 칸막이 열 줄 딱 들어왔더니 제가 공연해야 될 무대가 원래는 요거 한 반만 했는데 갔더니 요 한 반으로 좁혀 있는 거예요.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연습한 걸 갖다가 반복하

는 거니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객 눈도 좀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공연은 잘 됐어요. 근데 공연은 잘 됐는데 공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갑자기 할 일은 없어서 버린 거 같아. 한 달 동안 계속 너무 빨리 달려왔는데. 연극 배우가 그런다더라고요. 종파티 하고 나면 너무 할 게 없어서 또 연극 시작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허전해하고 있는데 그때 연극을 본 연출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실험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왔죠. 그게 비원 옆에 공간사랑이라고 있었어요. 공간사랑 거기에 무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실험극을 하는 젊은 연출가한테 무료로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이분이 그걸 하나 따와 가지고 그때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분 따라가서 그래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세상에 1인극이에요. 예? 1인극이라뇨. 거기서 뭘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미술인이라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관 여기에다가 간격을 향해서 그리기도 하고 관객한테 욱하든지 말든지 한 시간 동안 니 혼자 지랄 발광하다 나오면 된다.

이형진 주인공인데.

허용철 네. 1인극이니까. 물감은 주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세상에 한 달밖에 안 된 신인한테 1인극을 맡기는 연출가도 나 참 황당하지만 하여간 뭐 하긴 했어요.

이형진 유리판에다가 뭔가 그렸습니까?

허용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혼자서 땡굴기도 하고 관객들하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하나 여기 뭐 볼 게 있어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자서 뭘 물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여간 한 시간 동안 뭘 해도 좋다. 준비는 이거 주고 있으니까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기 그 사람 연출가 그게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 번 공연했다 그날 그걸로 끝이었죠. 근데 하고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형진 재미를 느끼셨어요?

허용철 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느라고 제가 복학을, 복학하기 전에는 이젠 죽어라고 미술만 해야지, 미술을 하나도 못 했네요. 그래서 야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떡 하나 근데 세상에 한 10년 가까이 했던 미술보다도 연극이 더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참에 아예 배우로 나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막 고민을 하다가 죽을 때 내가 후회 안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결론이 또 쉽게 나는 거예요. 다시 미술로 가야죠. 그래서 연극에 조금 더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을 탁 떠난 거죠. 다시 학교 실기실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실기실에서 살았됐죠. 그런 경험도 있고.

이형진 다시 8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문화부를 하시면서 사실 기획을 하고 그리고 문화부 선생님들과 함께 공연 그러니까 이걸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선생님 스스로, 여러 가지 문화 영역들을 이렇게 섭렵하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기획력이 그러니까 뒷받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부장

으로 직함을 가지고 전교조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갈등 그리고 해직되는 과정까지, 예.

허용철 그러니까 문화부장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맡은 게 한 89년도 초일 거예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저는 좀 내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동안, 뭐 제가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학교로 형사가 몇 번 찾아오기도 했고, 제 담당 형사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물포 그쪽에 형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이번에 새로 당신을 맡은, 내가 담당, 그러니까 내가 새로 너를 맡았다.

이형진 동부경찰서 정보과였던 형사인가요?

허용철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형사 성이 자기도 허 씨래요. 우리 종씨끼리 잘 해보자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붙잡혀 들어간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경찰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경찰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다 아는 모양이에요.

이형진 사실은 선생님은 뭐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보면 학교 학생들과 관계도 좋았고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미술 선생님 이긴 했지만 좀 인정받는 그런 정도까지 가신 거 아닌가요?

허용철 교사들한테는 땡이었죠.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형진 근데 감시받는다라는 것은 그걸 본인 스스로도.

허용철 네, 그래서 늘 깃꽃에서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증거를 안 남기고, 하여간. 뭐 회의하고 나면 회의 자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태우고,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작업을 했던 과정들을 다 붙태워 없애고 정리를 했죠. 실제로 털리기도 했고 한 번.

이형진 잡혀갔다는 것은 무슨 계기였습니까?

허용철 어떻게 잡혀갔지? 한 번은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와서 나를 잡아갔어요.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그래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거기서.

이형진 동부경찰서였습니까?

허용철 거기가 어디 경찰서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 서류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다음 날, 너 학교에서 언제 들어서 무슨 말 했던 거 이런 게 이만큼 데가 쪽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가 경찰한테까지 다 오고 있구나. 그리고 학교로 정보과 형사가 교장실에서 나를 부르기도 했고요 한번 교실인데 교장실에 부르네요. 그래서 갔더니 웬 사람이 또 앉아 있는데 교장은 이렇게 앉아 있고 웬 떡대, 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교장 선생님 인사를 시켰는데 형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아, 교장은 학교 책임자인데 교장이라는 사람이 죄지은 사람처럼 이려고 앉아 있고 형사는 교장실에 이려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막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형사인데 왜 교장실에 나를 부르냐,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교무실로 와라, 앞으로 이런 짓 하면 나 절대 여기 안 온다, 이걸로 당신 계속 할 얘기 있으면 나와라,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형사가 교장실로 와서 나를 부르고 뭐 그런 거 할 정도니까 하여튼 그런 게 다 익숙했죠.

이형진 경인교사협의회 활동 때부터는 거의 요주의 선생님이 되신 거

네요.

허용철 깃꽃 활동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뭐 한국 역사 얘기도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그대로 경찰서에 가더라고요. 어떤 경로로 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진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했는데 바로 노조로 갔어요. 노조로 가니까 그때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결성식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문화부 여선생님들 데리고 한양대를 갔더니 경찰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갔어요. 저, 뒤, 산길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더니 여기서 안 하고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았으면 택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맞아서 기절해서 나갔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큰 강당에 여선생도 많고 하는데 뭐 백골단하고 뭘 싸우겠어요. 단지 끌려나가지 않겠다고 스크림을 짜고 이렇게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백골단에 들어와서 뭐야, 모자 있잖아요. 그거 뭐죠. 하마를 벗어나서 나를 갖다 뒤통수를 때린 모양이에요.

이형진 기절했습니까?

허용철 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안 끌려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언제 맞는지 기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앞에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확 밀치고 나가려고 했더니 다 경찰이고 우리 끌려 나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내 양옆으로 경찰이, 이렇게 내가 기절해 있으니까 양쪽으로 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요. 바로 또 잡혀 가지고 또 맞고 다시 끌려갔죠.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전부터도 그랬고 터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방학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해직이 됐고.

이형진 해직은 그러면 89년 그러면.

허용철 8월달에.

이형진 8월달. 방학하면서.

허용철 네.

이형진 선인재단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 선인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허용철 선생님만 해고되신 거네요.

허용철 네. 그리고 인화여고에서 황진도 선생님 한 명. 선인 재단에서 두 명이 해직 됐습니다. 저는 그때 황진도 선생님 누군지 몰랐어요. 해직되고 나서 사무실 가서 봤죠.

이형진 그러면 선생님은 문화부 선생님들하고 주로 친교가 있었네요.

허용철 네. 그리고 경인교협의 집행부 몇 분하고 그렇게 있었죠.

이형진 해직되고 그 여름 방학을 지나고 그리고 혹시 학교로 가셨습니까? 학생들과 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허용철 아니요. 제가 해직될 때 특히 풍물반 애들이 시위를 갖다가 조직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못하게 말렸는데요. 사실 저는 해직 된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하. 이거 가정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 해직 된 게 너무 좋았어요. 뭐 학교 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겠다.

이형진 그동안 너무 업무에 시달렸군요. 하하.

허용철 네. 너무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해직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

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늘 노조 지원만 했는데 이젠 내가 노조 아니에요. 내가 노조, 꿈에 그리던 노조 문화부장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하. 그래 가지고 오히려 애들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형진 풍물반 학생들이 고2?

허용철 그때가 고3, 고2, 고1 다 있었어요.

이형진 그러네요.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애들 뭐 울고 불고 난리 났을 텐데요.

허용철 그랬죠.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남자애들이랑 뭐 그렇게 뭐 울거나 그런, 여학교도 아니고 남자애들은 뭐.

이형진 곳곳하게 버텨습니까?

허용철 야, 뭐 그런 걸 하나, 괜히 다치니까, 어차피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왜 또 뭐 가치 있는

이형진 하하, 선생님, 이 대목에서 잠깐 쉬도록 하시죠.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2부

허용철 저기 아까 89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갯꽃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제가 뽑아온 게 있는데 덜한 게 있어 갖고요. 그전에 갯꽃 정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갯꽃이 추구하고자 했던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갯꽃은 현장 미술패였고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아마 그걸 했던 것 같고요. 갯꽃이 된 뜻이나, 라

고 했을 때 갯벌에 피는 꽃이다, 그래서 염분과 소금과 바닷바람을 건디면서 갯벌에 피는 꽃이 있거든요. 그런 꽃을 닮아가자, 인천 미술패로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갯꽃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꽃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너무 유아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인천교육대학 미술교육 전공 학생이었는데 4, 5명이었고요. 근데 기능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87년도에 미술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결합했어요. 그 가운데 신혜원, 백창흠, 그다음에 이은홍, 이은홍은 그 당시 서울 노조 신문에 강순이 연재에서 국보로도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있었죠.

이형진 만화 그렸죠.

허용철 네, 만화 그렸죠. 이은홍. 그 친구가 갯꽃에 같이 함께 했었고요. 그때 신혜원, 백창흠은 계속 같이 있었고 이은홍은 그때 연성수 그 선배가 잠시 파견했던 거예요, 인천에다가. 인천에 파견해가지고 그때 같이 했었구요. 그때 이은홍하고 그때 같이 했던 작업이 지금은 그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부평5동 성당에서 전두환 박정희 암살.

이형진 이후에. 10·26부터네요.

허용철 그때부터 해서 그때까지 87년, 역사를 갖다가 전지 10장에다가 만화를 짝 그렸어요. 칼라 칠해가지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죠. 근데 모조전지라는 약한 종이에다 했고, 그날 부평5동 성당에서 하면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게 사진도 안 찍었어, 사진 찍어 놓을 일도 없었는데 그게 다 없어서 버렸

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거  
그린다고 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대본 잡고 그림을 그렸거든  
요. 근데 그게 참 아깝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반기에 정  
정이 없이 지금 여성 화가로 아주 활동 많이 하고 있죠. 그때  
이경희, 이승강 이런 친구가 80년대 후반에는 갯꽃이 함께 들  
어왔어요. 같이 했고.

이형진 집단 창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술가, 특히 미술가들 같은 경  
우도 사실은 화가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지극히 개  
인적인 행동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단 창작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수차 시험을 해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용철 그게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가령 영화는 감독 작품이라고 하  
잖아요. 미술은 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아무리 여러 사람이  
협업하더라도 결국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한 1년 동안 같이 공동 작업 후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  
서 처음에는 막 서로 의견을 모으고 막 했는데 시각 이미지는  
아무래도 한눈에 봤을 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런 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세밀함, 켈  
리티가 좀 다른 측면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작  
업을 하면 그 작업에 한해서 주 필자를 뒀어요. 그 사람이 쪽  
밑그림하고 전반적인 거 하고 나머지는 그 작업에 한해서는 그  
사람 말 따라서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협동작업을 그  
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했어요. 서로 논쟁이 많았었는데 최  
종적으로는.

이형진 그러니까 영화로 비교하면 감독이 있고 그리고 배우들이 있는

그런 식이었네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가끔은 혼자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그 당시에는 없으셨나요?

허용철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 바로  
내 작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노동 현장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했던 일이 영정을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만장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역할 분담한 것이 그림, 영정은 후배들이 주로 했  
고 저는 주로 만장을 썼어요.

이형진 만장은 글씨 쓰는 거죠?

허용철 네. 글 쓰는 거죠.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래서 며칠 동안은 계속 만장만 계속 하루 종일 가서 만장만  
쓰는 거죠. 제가 글씨를 좀 썼거든요. 하하. 그때는 또 뭐 지  
금 이런 현수막 같은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인천에서 무  
슨 행사하면 주로 제가 많이 썼습니다. 제목. 그래서 전지 하나  
에 한 글자씩 쓰면 대강당도 이렇게 쪽 붙이면 될 만한 정도였  
고 그래서 했었죠.

이형진 주로 페인트로 작업하셨습니까?

허용철 그때 저는 물감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제가 물감이 익숙했어  
요. 물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페인트도 했었나. 페인트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을 갖다가 제가 여덟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이형진 아, 예. 말씀해 주시죠.

허용철 노동자 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노보 편집자를 위한 편집 및 만화교육, 인노협과 함께 진행했고 노조의 깃발과 걸개 그림을 제작, 그다음에 시위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제작, 그림 깃발, 그림 스티커 같은 거, 교육용 만화 제작, 교육용 만화도 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중교회 천정화도 하나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교육대 학생운동을 갖다가 지원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도 있었고 인하대 그때 인하대 동아리에 판화 동아리도 만들어졌어요. 그거 지도하는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편을 늘리기 위해서 리얼리즘 작가였던 지평 그룹 작가를 갖다가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갯꽃 이름으로 참여도 했고 그래서 크게 한 8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이형진 천정화를 그렸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교회의 장식용이었습니까?

허용철 그게 말이죠. 며칠 전에 장기수 어르신들이 강화에 놀러 오셨어요.

이형진 최근에?

허용철 며칠 전어요. 근데 장기수 할아버지가 지원하는 모임이 감리 교회에 고난을 함께하는 이들인가?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강화 한 바퀴 돌고 저녁에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했는데 처음에 각자 소개를 꼭 했죠. 그러다가 저도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참 고난을 함께 하는 이들 참 훌륭하다, 30년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존경한다, 근데 고난을 함

게 하는 이는 나도 한 삼 년 전에 인연이 조금 있다, 그 당시 교회에다가 감리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 천정화를 하나 그려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인데, 어쩐지 허용철씨 라고 그래서 제가 익숙한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봤지, 했더니 그때 우리 교회 천정화 그리신 분이군요, 그래서 30년 만에 거기서 만났어요.

이형진 어느 교회였습니까?

허용철 문수산성 교회라고 그러니까 강화에서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김포대학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꺾여지기 바로 전에. 오른쪽으로 교회가 하나, 문수산성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천정화는 지금 어딴냐 그랬더니 지금은 떼어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송림동 거기도 민중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가정집 같은. 일반 집이었는데.

이형진 송림동 교회, 박종열 목사님 계셨던 교회인가요?

허용철 그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집 벽화도 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벽화도 여기저기 했었죠.

이형진 벽화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허용철 문수산성 교회는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깡촌이여가지고, 거기가. 농촌의 사계절을 갖다가 농민들이 일하고 추수하고 하는 그걸 그렸었고 그다음에 거기는 산동네, 달동네였으니까, 달동네 주민들 아이들, 이렇게 그렸죠.

이형진 산마루 교회 아니었나요?

허용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형진 송림동에 있는 사랑방 교회거나 아니면 산마루교회였던 것 같아요.

허용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문이 있었거든요. 가정집 대문. 그리고 그 안에 옛날 집이 보통 가정집인데 그걸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입, 대문 바로 그 옆에다가 아이가 하나, 손에 뭘 들고 있었나. 아이 하나 제가 그림 기억은 나거든요.

이형진 자, 그러면 다시 전교조 운동으로 해직됐던 89년 7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속으로 신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직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허용철 한 4년 좀, 한 4년 반?

이형진 93년에 복직하셨으니까 4년 정도인데,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사실 그때는 생계가 만만치 않았을 때거든요. 다른 선생님보다 좀 늦게 복직하신 것 같아요.

허용철 아니요. 저는.

이형진 황진도 선생님.

허용철 같이 복직했습니다. 황진도 선생님 어려우셨죠.

이형진 황선생님은 서점하셨습니다.

허용철 네. 결혼해서 그때 생계 수단으로 하셨고 저는 뭐 그때 혼자 살았거든요. 결혼 안 했고 그래서 뭐 생계를 전혀 걱정해본 적은 없고요. 하하. 해직되고 나서 한 몇 개월은 계속 투쟁을 했죠. 거리 시위에 나갔었죠. 여기저기 당연히 뭐 거쳐야 되는 싸움이니깐. 그럼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글썩요, 한 가을쯤 됐죠. 그때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가는 것이 뭐 그렇고 그래서 다시 조직을 갖다가 추슬러야겠죠. 일단 저는 문화 쪽으로 사

고를 한 건데 사실 그때는 해직된 사람하고 일반 교사들하고의 거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사들은 같이 함께 해직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해직자라 해봐야 인천의 오십몇 명인데 덩그러니 여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 판이고.

이형진 답동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하셨습니까, 일단?

허용철 네. 처음에는 거기서. 거기서 매일 도시락을 사갖고 가서 거기서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뭐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뭐 신문 같은 거 거리 나가서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 같이 있던 여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교사 들어온 지 1년, 2년? 2년도 안 된 여교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형진 노미화 선생님 말고?

허용철 네. 선생님 몇 분 그중에 하나가 젊은, 전교조가 뭐예요? ...하하. 무려 해직까지 당했는데.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방학이라 탈퇴서를 썼다고 그랬나, 안 썼다고 그랬나, 하여간 자기는 뭐 아무 상관없어가지고 전라도 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교장이나 교장 같은 이 사람들이 문제야. 탈퇴서 써, 학교에서 쫓겨나, 했으면 썼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탈퇴 안 한다 이리고. 여선생은 뭐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학 때 돼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해직 돼 있는 거야. 여교사도 황당하죠. 그런데 여교사가 해직되고 나서 피세일을 나가고 하면서 투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차도 별로 많이 나지도 않는데 너

무 기특해 보여 가지고 그 친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 하나 그렸죠. 그래서 전교조 신문 들고 거리에 나가는 여선생 하나 그려가지고 그 작품이 그래도 꽤 인기 있었는데. 전교조 달력에도 나오고, 뭐도 나와 가지고 상품으로 나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을쯤 돼 가지고는 다시 그러니까 현장의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방법으로 푼 것이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였죠. 저는 이게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천이 이거 굉장히 잘했어요. 전국의 모범이었습시다, 이거. 그래서 교육 문화 공간 ‘발돋움터’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종구 선생님 그림을 두 점 받았어요. 그래서 한 점은 최원식 선생님한테 팔았고 최원식 선생님은 공간 만든다고 한다는 소리야? 아, 그림 내가 하나 받아줄게, 이려고 샀고 한 점을 얼마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백만 원씩 팔고 사백만 원에다가 제 퇴직금 넣고 해가지고 문화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이형진 발돋움터가 어디였습니까?

허용철 선인재단을 등 뒤에 두고 오른쪽으로 쪽 가면, 거기 무슨.

이형진 송림 로타리 못 미쳐서.

허용철 박문여고로 좀 지나서 가면 거기에 운동장 가기 전에 사거리가 하나 있죠. 왼쪽에 시장이 있고, 그 오른쪽 골목길에서 처음에. 그러다 그다음에 용현동으로 이사를 갔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거기다 얻었는데 거기서 풍물패가 있었거든요. 교사 풍물패. ‘달래꽃’이라고 있었고. 그래서 전국 강습 나

가면 이 달래꽃 사람들이 상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노래패 ‘햇살’이라고 있었어요. 햇살 공연하면 꼭 나왔었죠, 그때는 노래패가 인기가 있을 때였고. 그다음에 미술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놀이패’라고 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에 요구가 많았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뭐 하고 노냐 말이죠. 그랬을 때 놀이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전수해 주는 거. 이게 나중에 연극도 하게 됩니다, 이 놀이패가.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4개 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돋움터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4개 패에 연달아 가면서 날짜를 바꿔가지고 계속 돌아갔었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하여간 전국 문화부장 회의가 있었어요, 전교조의. 주로 대전 쪽에서 많이 만났는데. 가서 인천 사례를 이야기하면 다들 놀랐어요. 이야, 그렇게도 했어, 뭐 그래서 늘 교사 대상으로 풍물 강습 늘리고 있고, 달래꽃 연습도 하고 있고, 여름마다 풍물 연수를 가고 놀이패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놀이 연습하고 행사에서 늘 나가서 공연했고. 놀이패도 늘 연수를 했죠. 가령 신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로 만날 거냐, 그다음에 소풍 갈 때는 소풍 가서 무슨 놀이를 할 거냐. 놀이 강습 그런 걸 쪽 해왔었죠.

이형진 현장 교사들과 결합을 이루어냈네요. 발돋움터를 통해서.

허용철 네. 그래서 뭐 잘 됐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하여간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이형진 근데 공간, 발돋움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생계 문제도 해결하셨어야 하잖아요.

허용철 아니요. 그 당시 교사를 갖다가 등급을 나눴어요. 몇 등급이  
있나, 하여간 저는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이형진 그러니까 어려운 수준으로?

허용철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높은 등급인 거죠. 저  
같이 결혼을 안 한.

이형진 하하. 혼자?

허용철 아, 제가 최하위에서 두 번째네요. 저보다 아래 등급도 있습니  
다. 제일 아래 등급은 뭔가 하면, 저는 혼자 살면 밑에서 두 번  
째 등급이고, 저보다 더 아래 등급은 혼자 사는데 부모님 집  
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보다 한 단계 아래  
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  
았을 거예요. 15만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만 했는데 일주일 내  
내 발돋움터에 나와 있잖아요. 발돋움터는 늘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끝나면 그때는 늘 뒤편이 갔고 늘 뒤편이 하면 술값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해직 교사가 술값 내, 확, 이려고 하여간  
뒤편이 가면 저는 제 돈 내고 먹은 적이 그때는 한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해직 교사가 뭘 그러니까 막 서로 사주고  
싶어 했으니까. 저는 15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했  
거든요, 저 혼자니까. 제가 뭐 옷 사입거나 뭐 그런 걸 좋아하  
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사실  
걱정을 안 했는데 결혼할 때는 좀 걸리긴 하더만. 하하.

이형진 선생님 말씀 나오신 김에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허용철 그러니까 92년도에 했습니다.

이형진 해직 기간 중이었습니까?

허용철 네.

이형진 아. 해직 교사라고 했는데 결혼할 용기를 가진 여성이 있었나  
요? 하하.

허용철 아내가 교대 출신이에요. 서울교대 했는데 거기서 학생회를 했  
고 그러니까 교대는 일반 대학보다 학생회가 좀 늦었어요. 그  
때 1기 학생회예요. 그러면서 졸업이 늦었어요, 징계를 받으면  
서. 그래가지고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전교조에 가입하고 서  
울 문화패에 풍물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국 풍물패 연수를 했거든요. 거기서 봤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이 저를 좀 보자  
고 그러세요. 장모님 집 근처를 갔죠. 어떤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났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장모님이 들어오시더  
니 여보게, 내가 먼저 얘기 좀 하겠네, 이래 말씀하시더니 네  
가 내 딸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쪽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첫째 나이가 너무 많다. 제가 그때 서른다섯 살이었거든  
요.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10년 나이가 적었고.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니까. 당신 진짜 나이가 너무 많다. 나도 내가 내 남편  
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사는데,  
남편 혼자 보내고 일찍 사는데 내 딸까지 그럴 수는 없다. 그다  
음에 내 딸이 학생 운동한다고 맨날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지  
겨워 죽겠는데 사위 데려다 놓으면 그거보다 한 술 더 뜬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하. 어떻게 자네 내 심정 이해하겠지? 아, 예.  
그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가겠네, 하하. 그래서 야 이거 허락

받고 결혼하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남은 방법은 여자를 꼬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살 구슬렸죠. 일단 가출을 해라. 애 낳고 살면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애 낳고 애 들고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이형진 그런데 신혼집이 있었습니까?

허용철 아니, 아니. 그래서 나오기로 했어요. 나오기로 다 했는데 장모님이 눈치를 채신 모양이에요. 다시 한 번 보자고, 다시 한 번 봤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 결혼하게, 그래서 결혼했죠. 방 하나가 얻어서 살림 차렸죠.

이형진 92년도에 그러면.

허용철 제가 93년도에 복직했으니 92년도에 결혼했네요.

이형진 그 부인은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해직 교사 등급으로는 또 네 번째로 내려가겠습니까. 하하.

허용철 그랬죠.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내려갔을 거야. 기억은 안 나네.

이형진 그다음에 복직을 하시는 거예요? 선인고등학교로 복직을.

허용철 아니요. 복직은 거기가 남인천 여자중학교로 복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직될 때는 선인재단 사립이었어요. 선인재단 민주화하기 전이었으니까. 시립화되기 전이었으니까. 사립이었는데 공립으로 들어간 거니까 빈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남인천에서 남인천 여자중학교에서 2년 있다가 그때 강화도가 행정구역이 인천으로 넘어왔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원래는 시골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연애할 때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여보, 나 나이가, 아, 그때 여보라고 안 했

졌구나, 나 나이가 들면 시골 가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도 나도 그랬다고,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 이러면서. 근데 어느 아파트에 있는데 그때 결혼하고 나서 만수동 아파트, 주공 아파트 살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다 아파트가 짝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 층수였으니까. 이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는데 그날따라 주변에 아파트로 확 막혀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야,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바로 내신을 냈어요.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때는 뭐 초기라 도시에서 시골로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바로 강화로 났죠.

이형진 남인천 여중에서는 그전까지는 남자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계셨다가 여중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셨고 거기서도 전교조 해직 교사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중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들과 미술 교육은 어땠습니까?

허용철 복직하니까 해직될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복직은 또 복직대로 좋더만요. 그러니까 해직되고 나니까 아이들하고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형진 그렇죠. 굉장한 괴로움이었죠.

허용철 아니요. 아니요. 괴로움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같이 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행사를 만들어 봐도 애들이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준비해서 애들하고 막 재미있게 뭔가 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고 싶은 애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학

교에 가 봤더니 월급까지 주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갖다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깔린 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종치고 하면 교실로 가잖아요. 잠시 문 열기 전에 웃음을 좀 참고, 웃고 들어가면 애들이 벌써 분위기가 막 엉망이 돼 버리니까 엄격한 척하고 들어가려고 웃음을 참고 문 열고 들어갔죠. 좋았었어요. 그리고 선인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해 봤지만 또 해직 기간 동안에 또 미술교사 모임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다듬어지고 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사실 미술 수업은 남자애들은 별 재미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열심히 해요. 미술은 하여간 여학생들이 훨씬 낫습니다. 하하. 그래서 여중생 애들하고 참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때 애들이 만든 작품들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거 없구나. 다 없어졌구나. 그때 애들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슬라이드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대본 짜고 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이형진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허용철 슬라이드니까 한 장 한 장이 대본을 쓰고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그것만 찍는 거죠. 슬라이더로 착착착 하면서 애들이 발표를 하는 거죠. 자기 대본을 갖다가 이렇게 감정 넣어서 옛날에 무성 영화 하듯이.

이형진 무성 영화네요.

허용철 네. 무성 영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이야기들. 왕따 시킨 이야기들. 뭐 부모하고 갈등. 뭐 그런 애기를 다 영화로 만드는 거죠.

이형진 애들이 직접 발표했어요?

허용철 네. 그럼요. 애들이 다 대본 쓰고,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나면 애들 또 제가 1년 지나면 평가서를 애들한테 받는데 평가서에 애들이 아, 그 영화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늘 그 얘기 해.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이형진 담임 선생님 하셨습니다?

허용철 아뇨. 담임 선생님은 별로, 1년 내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형진 2년간 여중 생활을 끝내고 그 전에 잠깐 또 짚을 것. 해직 기간 동안에도 인천 내 사회운동 내지는 노동조합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생산. 이런 일들은 계속 하셨습니까? 문화 운동으로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허용철 저는 그때 문화운동 쪽으로 주로 했고요.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네요. 깃꽃은 제가 그쪽으로 가고 나서 그다음에 해체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주제로 작품을 개인적으로 만들었고요. 그거 갖고 전 개인전 한번 했네요. 학교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문화 운동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뭐 행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화패 꾸리고 문화패 연수하고 강습하고 공연하고 연출하고. 그래서 그때 선인재단 민주화 싸움할 때 그때 큰 행사 연출은 제가 했었습니다.

이형진 기획 역량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허용철 네. 연출하고 그런 거 저였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연출,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총기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자연스럽던가요? 본인 스스로.

허용철 재미있고 좋았어요.

이형진 큰 행사로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허용철 선인재단 그때. 운동장에서 인천대, 인하대 학생도 왔고, 인하대 학생회장도 왔고, 인천대 학생회장도 왔고, 시민단체들도 왔고, 그때 가수로는 대표적으로 정태춘씨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안을 쭉 짜는 거죠. 시간까지 해가지고 동선까지 다 짜고 하는데. 학생회장 인사말, 3분, 그리고 따로 얘기해요. 너희들 말이야, 아무리 해도 5분 넘어가면 마이크 꺼버린다, 협박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만요. 진짜 끝 수는 없잖아요. 이놈의 학생회 회장들 하여간 말 지독하게 안 들어. 그래 가지고 정태춘 씨는 차를 타고 와서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애네들이. 마이크 잡으면 한 20분씩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끝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정태춘 씨, 참 미안하다고. 아이고, 집회가 다 그렇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서 공연비로 봉투를 하나 넣었어요. 되게 적죠. 정태춘 씨가 딴 데 불러 다니는 거에 비하면 뭐 몇 분의, 10분의 일 밖에 안 되는 돈인데 봉투를 하나 드렸어요.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드렸더니 정태춘 씨가 봉투를 받더니 주머니에 넣지 않고 열어서 돈을 꺼내서, 꺼내보는 거예요. 아, 참 민망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적게 했는데 돈 들고 가야지 왜 또

돈까지 세어보냐,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은 30만 원 넣었던 것 같아요. 하더니 1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20만원 돈을 봉투에 넣었더니 민주화 운동에 보태 쓰라고 도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부터 정태춘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하.

이형진 선생님 9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허용철 그다음에 계양산 살리기 그때 또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도였지? 그때 계양 살리기에 그때는 해바라기를 불렀는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있잖아요. 해바라기를 불렀어요.

이형진 네. 계양산에서 공연했었어요.

허용철 네. 계양산에서. 그것도 제가 연출했었고. 그게 뭐 대학교에서 한 것도 몇 개 있고 아니면 뭐 이래저래.

이형진 연출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셨네요.

허용철 연출이라기보다는 그냥 행사를 진행한 거죠, 뭐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리고 전교조 쪽은 뭐 당연히 발돋움터가 다 했고. 전교조 관련, 교사 관련 다 했고.

이형진 혹시 선생님 그림들 중에, 이미지들 중에 기억나는,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노동자 웅변대회에도 있구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80년대 생산했던 시각 이미지들, 잠깐씩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철 그때 걸개그림도 꽤 많이 그렸거든요. 어떨 때는 큰 넓은 미술학원을 빌려서 3개를 4, 5m짜리 3개를 한꺼번에 그린 적도 있고 했는데 사실 그걸 이미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래서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걸려 갖고 나온 건데 그때 걸개그림보다도 갯수로는 더 많이 그랬던 게 깃발이었어요. 이거는 국민운동 인천본부 답동성당에서 할 때 그때 깃발로 쪽 덮었었는데 이거 다 갯꽃에서 한 거고요. 이런 식 깃발을 많이 나갔었죠. 한 개씩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들. 이렇게 나갔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모적이어서 그래서 좀 오래 가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여기 깃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찍은 겁니다. 이거 실제 깃발을 찍은 게 아니구요. 밑그림 그린 거 그걸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민자를 쓰고 이십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 우리 해동 매가 뱀 잡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독수리, 민중이 지켜보고 있고 여기 잡는 모습이고 이거 민자 평화로운 세상,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거 백기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십이. 상징이었구요. 이렇게 이런 깃발들을 주로 많이 했구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으로 처음에는 요구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 이렇게 판화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걸려면 걸고 아니면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를 갖다 이렇게 판화로 찍어줬어요. 요렇게 한 여러 개, 요구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해줬습니다.

이형진 근데 어렵지 않게 그랬습니까? 시간은.

허용철 시간은 글썄요. 이 정도 이렇게 찍어서 하려면 하루 정도면 하죠. 이렇게 이게 수백 장 찍어내는 게 아니고 몇 장만 찍어내는 거니까. 이게 또 목판이 아니고요. 목판으로 시간 걸리는데

이건 고무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이형진 선생님과 제자들이 같이 협업을?

허용철 주로 제가 했습니다. 하하.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요. 소책자. 그러면 소책자에 들어간 삽화도 이렇게 제가 집어넣고요. 이거 아마 인사연, 인천사회운동연합, 인사연에서 제작한 책자에 제가 삽화를 갖다 이렇게 주제에 맞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갖다가 안내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에 내용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형진 그렇죠.

허용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고 퍼면 이렇게 나오게 내용도 적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했구요. 그다음에 87년 대선 때 노태우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당선된 직후에 실크 스크린으로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것이 이런 크기로 실크 스크린 찍어서 내보냈고요.

이형진 각각 낱장이죠? 4장.

허용철 네. 그러니까 낱장이죠.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이 이 정도 크기니까 여러 장 넣고 찍어내고 나중에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밑그림은 요렇게 요 정도 좀 크고요. 요렇게 커가지고 했죠. 아까 나왔던 게 이게 크기는 이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요. 이런 것도 저희가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

니까 제대로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거죠.

이형진 당시에는 작업하자마자 바로 불태웠으니까.

허용철 네, 근데 어떻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한 거죠. 만  
일 한 번 더 털렸으면 또 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  
니다.

이형진 혹시 저런 작업 때문에 구속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허용철 작업 때문에 구속된 건 없어요.

이형진 사무실이 털린 적 있다고 들었는데.

허용철 전교조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문화부를 맡으면  
서 그때 전국 돌면서 영화를 상영한 게 있어요.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천대학교에서 상영을 했었거든  
요. 당연히 행사 주최는 전교조인데 주관은 문화부가 했던 거  
겠죠. 그래서 아마 그 행사를 제가 진행하는 바람에 제가 수  
배가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부 수배가. 그리고 그해 여름에  
풍물패가 장봉도로 연수를 갔어요. 장봉도로 연수를 가는데  
배를 타기 전에 뭐야, 신원 명세서를 작성하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그럴 때 쓰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거든  
요. 딴 거 하나. 근데 그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는 거예요. 배는 빨리 타야 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러다  
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장봉도까  
지 가는데 웬 사복 남자 두 명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신원을  
검사하면서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불길한 해감이 들었죠. 뭐  
야, 혹시 나 아니야, 그러니까 저를 겨냥하고 온거더라구요. 그  
래가지고 풍물패는 장봉도 내리고 저는 혼자 내리지 못하고

들어와 가지고 인천 경찰서에 수감이 됐어요. 제가 수배된 줄  
몰랐으니까. 그러가지고 바로 수감이 됐는데 그게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신원명세서 작성한 그걸 갖다가 아마 경찰서 어  
디서 쪽 점검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상 없나. 그러다가 수배자  
한 명 나오니까 야, 그 배에 수배자 탔어, 얼른 잡아하고 보냈  
겠죠. 이쪽 담당하는 경찰이. 근데 경찰이 보내고 나서 보니까  
허용철? 가만히 있어,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해 보  
니까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인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자기 고등학교 때 미술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미술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배에서 내리는데 왜 경찰 한 명이 제 옆에 바짝  
오더니 제 팔짱을 한다 세게 꼭 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 도망갈까 봐 그런 줄 생각하고 야, 됐다, 나 도망 안 갈 테니  
까 이리 잡지 마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선생님! 그러는 거예  
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만나 싶  
어서 확인하러 나온 건데 진짜 맞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  
생님을 잡으라고 자기가 무전을 친 거니까 죄책감을 느낀 거예  
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위로를 했죠. 야, 인마, 너는 니 일 한  
거지, 인마, 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감된 거 보고 이 친구가  
먹을 거 하나 넣어주고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죠.

이형진 구속은 아니셨죠?

허용철 네.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때. 그게 뭐 그러니까 진짜 구속될  
정도로 수배가 된 것였으면 아마 내부 수배 정도가 아니었겠죠.

이형진 선생님, 93년에 복직해서 그러니까 남인천 여중에서는 2년 하  
시고 그리고 강화로 가십니다. 96년이었던거든요.

허용철 아니요. 그런가. 가만 있자.

이형진 예, 복직은 93년 맞고.

허용철 93, 94, 가만 있자, 그럼 내가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라. 복직이 거의 3년이었나. 제가 2년 있고 그다음에 강화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9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남인천에서 3년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닌데. 남인천에서 2년을 있었는데. 1년이, 1년이 차이가 나네요. 하하. 94년도 2월달에 복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형진 예 그건 나중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면 그러니까 89년, 90, 91, 92, 93년까지 하면 했수로 5년입니다.

허용철 아, 94년도 복직한 게 맞네.

이형진 그래서 94년이면 2년간 남인천 여중에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도회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강화로 가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화로 간 이후에 생활 그러니까 퇴직하시기까지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시다. 그러니까 2019년에 퇴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 교직 생활도 강화해서 더 오래 하신 거거든요. 강화의 삶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도 바쁘셨습니까?

허용철 강화간 것이 처음에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직을 하면서 그전에 연극과 미술 중에서 선택을 미술 쪽으로 했듯이 복직할 때는 다시 또 고민을 했어요. 교육 문화 운동 쪽에는 워낙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 운동 쪽으

로 할까, 이것이 사실 성과도 금방금방 나오고, 보람도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미술은 개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 갈래 중에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역시 다시 미술로 갔죠.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인천에 있으니까 너무 여기저기 가봐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빠져나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가서 했고 그래서 강화 가서 거기서 전교조 강화지회를 만들었어요.

이형진 아, 강화 지회를 거기서 처음 만드신 겁니까?

허용철 네,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강화가 인기가 없으니까 신규 교사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가 하나 그때 강화로 들어온 사람이 제 동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한두명 더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전교조 조합원이었고 그래서 후배들 그런데 신규, 처음에 학교로 들어온 신규 교사가 보기에 전교조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선배로 보이는 거죠. 배우고 싶은 선배. 그래서 쉽게 우리 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 데리고 전교조 강화지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전교조 강화지회 만들었고.

이형진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허용철 그래서 초기에 그때 강화 교육청에서 했는데 몇 명이나 왔지.

이형진 50명 넘었습니까?

허용철 아니요. 50명 안 왔습니다.

이형진 한 30명 됐습니까?

허용철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좀 적었나. 왜냐하면 그때 강화에 그런 전교조 동조하는 분들도 여러분 오셔서 강당이 한 반

은 찾는데 그런데 그게 다 교사는 아니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형진 그것은 그러니까 강화지회의 출범은 97년, 8년 정도 됐습니까?

허용철 아마 그랬을까, 96년 아니면 7년일 겁니다. 바로 가던 해에 바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96년도 말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고 보니까 제가 제일 선배더라고요. 강화 그룹 중에서는, 제 동기 하나 있고요. 제 동기가 지회장을 맡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맡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는 오히려 그때 몸은 인천 떠났는데 일은 인천에 계속 있었어요. 인천민예총을 그때 만들었었고요. 인천민예총은 제 동기 3명이 있어요. 박영근. 그다음에 송동수 이렇게 저 이렇게 3명이 중심이 돼서 민예총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민예총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95년도인가 그때는 인천민미협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민미협은 이제 이종구 선생님이 대표를 맡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죠. 그러니까 일이 몸은 강화에 가 있는데 일은 또 인천에 또.

이형진 일을 피해서 다시 강화에 갔는데.

허용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게 됐죠. 그다음에 민미협 대표, 제가 민미협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또 대표도 맡았고 그다음에 인천민예총 대표도 그다음에 또 맡았고 그다음에 인천문화재단 이사도 맡았고 그러니까 그게 꽤 시간이 더 길었어요. 인천민예총 대표까지 하고 나서 제가 강화에다가도 또 민미협을 만들었습니다. 강화 민미

협 만들었고 강화 민미협 만들고 나서부터는 인천에서는 민예총 지회장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사는 맡고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겨왔는데 그 기간이 좀, 인천 떠나왔으면 한 10년 가까이는 더 인천에 계속 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이형진 2005년 6년 정도까지는 인천에서 일을 같이 진행을 하셨군요. 작업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도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허용철 작업을 언제나 작업하고 싶은 마음은.

이형진 그러면 개인적인 미술 작업은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하셨습니까?

허용철 계속 했죠. 그리고 복직하고 나서 그전에 해직 기간 동안에 했던, 그랬던 학교 현장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학교 주제로 개인전을 했고요.

이형진 아, 그건 인천에서 하셨습니까?

허용철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인천, 강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게 작품은요, 이게 대도시 더구나 서울 중심이라 서울에서 안 하면 어떻게 뭐 미술 평론가들이나 미술 잡지에 회자가 안 돼요. 우리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전시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인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천에서 했고 그때는 또 강화 또 그러니까 강화에서도 했고 그래서 세 군데에서 전시를 했죠.

이형진 그게 몇 년도였죠?

허용철 99년도요.

이형진 그걸로 전교조 활동 그러니까 학교의 미술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허용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강화 주제로 작업을 했고요. 강화 사는 중에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두 번째 이사간 집, 두 번째 이사간 집이 한매리라고 마을 가운데 집이 있었어요. 그때 강화 사는 사람 중에서 성공회 신부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하고 술 친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성당에 나오는 신자 집 중에서 깨끗하게 비어진 집이 있다고, 나보고 거기로 이사 오면 된다고. 처음에는 아주 낡아가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아휴 살고 싶은 만큼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을 했죠. 정리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좀 꾸며보고 싶어서 거기다 벽화를 갖다 그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벽화 운동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그 후배를 불렀어요. 그 집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집 마당, 대문, 아, 마당에 대문 벽, 벽화를 쪽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는 좀 유명했는데 우연히 어떤 사진작가 전시회에 갔더니 우리 집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벽화를 보고. 그다음에 또 면사무소 가서 뭔가 우리 집 위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설명했어요. 뭐 동네 시골길이니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참 막 설명했더니 면사무소에서 듣고 있다가 그 벽화집이요? 그래요, 벽화집. 그렇게 설명했으면 알아들었을 걸, 근데 그래서 하여간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벽화 그려놓은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은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면서 왜 이런 풍경은 안 그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 왜 이런 동네

를 갖다가 또 사람이며, 이걸 갖다가 자꾸만 소재로 삼아볼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강화가 제 작품 주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형진 그 집에 지금 살고 겁니까?

허용철 아니, 그 집은 아닙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집을 빌려준 그 집 가족 내부 문제가 복잡하게 돼서 재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뭐 2년 만에 쫓겨나왔지.

이형진 그 집 벽화로 남아있나요?

허용철 아니요. 그 집 허물었어요. 형제간에 좀 이렇게 재산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허물어졌어요. 아깝죠. 그래서 제 작품 제목이 진경산수 강화입니다.

이형진 아, 그 주제로 계속 작업을.

허용철 네, 사람들. 그래서 부제로 생명, 상생, 평화, 세 가지를 가치를 갖다가 강화의 진경산수를 통해서, 산수라고 하지만 사랑까지 들어가는 진경산수, 세 가지 가치를 갖다가 강화의 진경산수를 통해서 보인다,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진 선생님, 오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교조 활동 그리고 인천 사회운동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90년대, 96년 이후로 이주하셔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84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보면 약 12년간 사실은 선생님의 청년기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 직

후부터 결혼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이렇게 성과를 보게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허용철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기가 한 86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가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형진 27부터죠? 그러니까.

허용철 그렇던가요? 그렇게 나이가 되나요? 거의 잠잘 시간까지도 그 야말로 아껴가면서 어떨 때는 걸개그림 몇 개를 함께 완성하려고 동시에 완성하려고 하면 한 며칠은 밤을 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학교를 가면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은 그때부터 자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그 친구는 기운 차리고 있고 다시 잡기 시작하고 며칠, 젊어서 아마 그런 일들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 또 그리고 쉽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이념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학습이 아주 제대로 된 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쳐 있었다. 다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대화가 뭐 그런 쪽이고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 헌

신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우리 이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급격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이형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 분 정도는 물어보겠습니다. 박영근 시인은 어땠습니까?

허용철 저는 영근이는 효숙이 통해서 알았어요. 효숙이는 미술이니까. 인미연 만들면서 효숙이는 그때 같이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숙이는 그때 노동운동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효숙이 남편이 영근이었는데 영근이하고 만나면서는 영근이하고 또 친해졌죠. 아무래도 또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영근이하고는 뭐 나이 동갑이고 그래서 많이 친했어요. 근데 제가 영근이한테 많이 놀랐죠.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문학인데 미술도 어느 때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세한 이론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미술관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많이 감동 받았습시다. 감탄했죠. 참 정말 독특하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신동엽 기금상을 받았어요. 그때 식당에 같이 갔었는데 식 끝나고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이 친구는 뭐야, 야, 용철아, 나 역사에 남았어, 잘했어, 새끼야, 야, 너는 뭐 하냐, 하하. 그래서 그래, 할 말 없다.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 친구 한 몇 년 동안 뭐 강화 간 다음에는 또 강화도 자주 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택시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 내놓으라 그러고 그럼 또 한 며칠 막 술 먹다 가고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를 그렇게 해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 당시에는 좀 지겨울 때도 있고 하, 짜식, 하면서 욕도 했는데 죽기 바로 얼마 직전까지도 강화에 왔었어요. 오늘 전화 왔는지 모르고 동막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뭐 소금만 있고 일반 방에서 그냥 대취해가지고 그냥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예술가의 기행 같은 모습을 내가 당대에 볼 수 있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래, 이 세상에 그런 친구 하나쯤 있는 거 괜찮지 싶었고. 그래서 또 그 친구 워낙 이렇게 시각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제가 두 번째 개인전 할 때 그 친구한테 팜플렛에 들어갈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작업을 아니까 작업 위해서 쪽 평론을 써줬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단절과 분화, 그래가지고 허용철은 이미지를 갖다가 하나 나눈다, 나누고 다시 찾는다, 다시 찾아서 그러니까 집적을 한다, 나누고 집적하는 과정, 나누고 집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갖다 드러내려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함축하는 어떤 걸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저는 그때까지 제 작업이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그를 보고 그래, 맞아,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알게 됐죠. 하여간 뭐.

이형진 그 평론, 박영근 시인이었군요.

허용철 네.

이형진 앞으로도 시각 이미지 생산을 계속하실 거죠. 그리고 강화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허용철 저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하는 의무로서 최소한의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작가로서 하는 것은 제 작업인 거고 제가 지역민으로서 의무를,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강화 시선이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내가 지역에 대한 의무는 그걸 갖다가 떠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형진 지금도 만족하시는 거죠?

허용철 제 작업에 대해서는 만족이 잘 안 되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제 성향이 너무 게을러요.

이형진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부지런하신데.

허용철 한때는 부지런한 적도 있었는데 밀려서 했고 제 생각으로 제가 너무 게을러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뭔가를 갖다 움직이는 좀 스타일이고 그래서 게으른 거 참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참 제 병폐인데 이렇게 작품도 더 신경의 안테나를 더 세워서 더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래 뭐 이 정도 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는 게 좀 있어요. 더 작품을 더 치밀하고 밀도 있게 더 진전시켜내지 못하고 그것까지 가려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 앞

으로 얼마나 더 작업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이라는 것이 머리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머리 쓰는 걸 감당할 만한 육체적인 함량도 좀 나름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아봐야지 싶은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교조와 이렇게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후배 선생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철 저는 사실 인천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인천 전교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교조가 결성될 때 여러 지역 분들의 정말 큰 도움이 있었죠. 아마 그 도움이 없으면 전교조는 무너졌을 거예요. 동료 교사들의 응원도 있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도움이 지역사회로부터 있었죠. 그런데 전교조는 그런 지점에서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자기네들, 교사 집단의 내부로 지금 좀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의 문제를 좀 자기 문제로 끌어안는 그리고 실제로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은 이해가 돼요. 바쁘거든요. 이게 잘 하려고 하는 교사일수록 바빠요. 교사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편한데 하려고 하면 또 한 없는 것이 아이들의 관계가 하면 교사 일이라 사실 부지런한 교사들 보면 학교가 수업 열심히 해야죠. 또 교육 과정도 짜야죠. 그다음에 비워서 아이들하고 만나고 휴일 날은 또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사실 부지런한 좋은 교사는 부지런하고 또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내부로 묻히기가 쉽죠. 또 요구도 그런 쪽으로 요구가 많은 거고 근데 교사 개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조직으로서는 지역의 문제 지역사회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게 은혜 갚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전교조가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겠어요. 전교조 어느 인생에 또 함께 또 해가야죠.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교조가 조금 더 지역사회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용철 고맙습니다.

이형진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진도



- 1952년 경상북도 영천 출생
- 인화여고 교사
-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부지부장
-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 민주주의실현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일 시 2022.4.20.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황진도

이형진 오늘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주안 미디어센터인데요. 오늘은 80년대 전교조 운동, 우리 사회의 교육 운동에 헌신하셨던 황진도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했던 전교조 투쟁의 역사와 80년대 교육 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황진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황진도 반갑습니다.

이형진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황진도 선생님은 1952년에 경북 영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나중에 서울에 **하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그 과정부터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진도 네, 저는 경북 영천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영천시인데 경주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이고 이제 그쪽에서 불린 이름은 지경이라고 그래요. 경계지점이라고 그래서 지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58년도에 이제 원래 만 6세가 이제 입학이니까 제가 생일이 이제 음력 삼월 팔일로 돼 있어요. 양력은 사월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제 해방된 지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학제가 이제 그때는 4월 학기가 시작됐었어요. 제가 기억에는 그래서 원래는.

이형진 집 나이로 일곱 살이었나요?

황진도 네, 일곱 살. 일곱 살에 이제 그 입학을 하게 됐는데 만 이제 생일이 3월 생일이니까 3월 8일이니까 그 해에 이제 입학해서 보통 보면 우리 친구들이 다 나보다 형 누나들. 그렇게 이제 국민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북안초등학교.

이형진 북안초등학교?

황진도 예, 북안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급학교로 진학은 영천중학교 가는 친구들이 소수고 대부분 경주의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경주로 중학교 진학을 하고 주로 기차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64년도에 이제 경주중학교 입학해서 통학 거리가 머니까 우리 외가가 경주하고 영천 사이에 건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네 우리 외가에서 3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라는 게 뭘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학교 진학을 학교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고 계통이 취업 잘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구공고를 뭐 한 번 그 쳐보라고 해서 시험 치고서 발표를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떨어졌는지 뭐 붙었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하여튼 공부라는 게 뭘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식이 부모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부모님 원망하지 말라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썼어요.

이형진 중학교 졸업한 애한테 각서를 쓰게 했다고요? 허허.

황진도 부모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한 게 아니고 너 의지대로 한 거니까 나중에 부모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안 하겠다는 각서를, 각서를 썼어. 그리고 한 2년 동안 제 시골에서 농사 일 거들다가 나보다 위에 형이 국민학교 나온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5급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밤에 램프를 불 켜놓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는 그래도 중학교를 나왔는데 저 형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보겠다는 그 뜻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산림보호직 공무원 시험 그 책을 사서 공부를 해서.

이형진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황진도 네, 그래서 나이가 안 되는데 만 18세가 되어야지 공부도 아니고 그게 생기는데 만 16세에 한 번 시험 보러 그 출생년도 고쳐가지고 시험을 한 번 봤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배워야지 알아야지 뭐 농사도 제대로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2년 놀다가 도시처럼 무슨 학원 다니면서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우리 친구들 또 외삼촌 그때 시험 본 거 2년치를 모아다 놓고 그걸 분석하고서 뭘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고서 대구농고를 진학하게 됐어요.

이형진 대구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황진도 네, 대구농림고등학교인데 거기 진학해서 대구에서 3년 동안 자취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학창 생활을 보내고.

이형진 그때쯤에 이제 제 나이로 이렇게 다니셨겠습니까.

황진도 그렇죠,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2년 후배들하고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다가 대학은 어쨌든 일어일문학과를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이유는 우리 그 어머니의 언니 이모님이 재일교포로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종 사촌들이 한국에 그 당시에 그 모국 방문 이렇게 왔을 때 만나면 얼굴 보고서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취미로, 그 일본어를 혼자 독학을 하다가 일본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대학 일어일문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형진 7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일교포 친척이 한국 방문을, 그때?

황진도 여름 방학 때 되면.

이형진 (재일교포 한국방문이)그렇게 사건이었는데

황진도 그것도 일종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문화 정책 내지는 후세 2세 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계 학교라고 해서 재일교포 학생들 교육시키고 또 구경시켜주고 친척들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만나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무슨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글씨 그런 계기로 해서 일본어를 독학하다가 그럼 기왕이면 일본어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국제대학 일어일문학과를 진학했어요.

이형진 선생님 그런데 학창 시절 중에 특히 대학 71년에 진학하셨는데.

황진도 72년.

이형진 72년에 진학하셨는데 졸업은 굉장히 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과정에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까?

황진도 입학해서 한 친구랑 같이 자취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숙도 하다가 한 3학년까지 이렇게 마치고 건강도 안 좋고.

이형진 서울 어디였습니까?

황진도 처음에는 서대문 거기 그 동네가, 지금 이름으로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금화터널 빠져나오면은 이쪽 사직터널 가기 전에 거기서 하숙을 한 달 동안 하다가 나중에 저 미아리 쪽에 우리 친구 고등학교 친구네가 거기 살아서 그 친구네 가서 또 한 일 년 동안 있다가 또 이제 다른 친구랑 강남 그때 개발되기

전인데 거기서 친구랑 같이 자취 또 한 일 년 하다가 3학년 때는 하숙 생활을 하다가 건강도 안 좋고 또 학비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낙향을 했어요, 75년도에.

이형진 휴학을 하신 거예요?

황진도 휴학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시골 내려가서 또 뭐 할 거 없으니까 우리 뒤에 마을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외갓집 산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씀 드려서 그 개간을 좀 하겠다. 그래서 한 3천 평 정도를 개간을 했어요. 개간하고 거기다 사과나무를 한 육백 주 정도 심어서 사과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죠.

이형진 건강은 회복이 좀 되셨습니까?

황진도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형진 군대 간 건?

황진도 76년. 그리고 79년 1월에 제대를 하고 뭐 그냥 농사짓고 살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도 3년 동안 다녔는데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하고 간 것이 선인학원.

이형진 80년 2월에 대학 졸업을 하신 거예요?

황진도 네, 그래서 그때는 79년 졸업을 앞두고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시해 사건 나고 1.21나고 하여튼 그런 격동기였어요. 원래는 일반 관광통역 안내원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일본 관광객이 일체 안 들어오고 국내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다니는 여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뭐 채용하겠다 그러다가 그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 같이 취소돼버리고 그러다가 신문 광고

보고서 지금 동화약품. 부채표 활명수를 만드는 그 동화약품에 원서를 내서 면접 보러 오라 그런 날 면접 보고서 사장 면접까지 마치고 보수는 어느 정도면 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된 상태에서 출신 대학의 우리 선배, 1회 선배이기도 한 분 만나러 갔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갑자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인천에 인화여고 교사 모집이 있는데 거기 좀 가면 어떻겠느냐, 점심 먹을 동안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는 등 마는 등 고민하다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인학원을 왔죠.

이형진 선인학원에 있는 인화여고는 아셨을 텐데.

황진도 인화여고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일본어 교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의뢰를 해서 하여튼 거기 응시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선인학원 백인엽 재단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인천은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고.

이형진 와서 또 인천에서도 그럼 면접을 하셨습니다.

황진도 네, 그때 처음 와서 선인재단 정문을 걸어서 올라가다 하나가 지금은 인화여고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첫 학교였는데 그때는 지금이 도화기계공고, 이런 요즘 또 바뀌었는데 그 자리로. 지금 선인 중학교 자리에 거기가 이제 인화여고였어요.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뭐 그게 예비군복 입고 뭐 수통 차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인화여고가 어디냐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분이 다 선생님들이었어요. 보초서고 있는 분들이.

이형진 선생님들이 예비군복 입고 수통 차고 근무를 하면서 보초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황진도 네, 네. 방학 동안인데 그리고 나중에 하여튼 학교 정식으로 발령 받아 갖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런 날 돌아가면서 일찍 근무를 하게 되면 와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습이, 그 나중에 내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인학원 자체가 군대 병영처럼 그렇게 백인엽 씨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백인엽 씨는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자기는 상무이사 자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전체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형진 백인엽이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처음.

황진도 입사 시험은 전부 다 모여서 지금도 거기가 인천대학하고 캠퍼스로 남아 있는지 전문대학 자리예요. 거기에 모여서 1차 시험은 국민 현장 외워 쓰기예요. 그러니까 제대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국민교육현장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던 시절이라서 그걸 쓰고 2차 면접은 백인엽 씨 상무이사실에 가서 직접 면접을 봤죠. 그래서 면접을 보니까 이게 하는 얘기가 뭐라,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군대 제대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군기가 들어 있어서 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어로 뭐 단풍을 일본어로 뭐냐는 등 뭐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했더니 나중에 일본에 작문을 하라 그러면서 수양버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나무꾼다 일본어로 해보래요. 그래서 그 하늘하늘 이런 것들은 의태어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안 하죠. 야나기노 뭐 어찌고저찌고 하다가 했더니 거기다 멈추니까 하는 얘

기가 거봐, 자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인  
업 씨를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났죠. 면접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인화여고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었죠.

이형진 여고에서 처음 학생들과 담임 같은 걸 맡고 이렇게 바로 일  
을 하셨습니까?

황진도 네, 그 당시에는 교사 채용이 수시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면 학교 분위기가 이거 뭐 보통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  
니예요. 너무 하여튼 억압된 그런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또 수  
업 시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관두는 선  
생님들이 많아요. 우리도 같이 들어오는 여선생님 중에 뭐 한,  
한 달 있다가 관둬버리고 그럼 또 새로 채용하고 수시로 이러  
게 채용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담임을 주죠. 그래서 그  
때 담임을 처음 맡아서 내가 그때 1학년 때, 1학년 8반을 담임  
했는데 이제 그 반 편성 명단이 이제 다 죽 있어요. 그러면 아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짝짝 돼 있으니깐 1  
번부터 그때 63번까지 있었는데 그거 하루 이틀 동안은 다 번  
호하고 이름하고 다 외우죠, 아이들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형진 그걸 다 외우셨다고요?

황진도 가나다순으로 돼 있으니깐 그렇게 해서 첫 이렇게 만나고서  
한명씩 얼굴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담임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그 할 작정인데 학급 운  
영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담임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써  
내라 그랬더니 써서 낸 것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여  
기 원하지 않는 학교에 왔다,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선인학원

은 악명이 높았으니까 배정 받고 뭐 자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뭐 그렇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런 학교였구  
나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를 왔던가, 이런 학교 분위기도 모르  
고 왔던가 하는 좀 잠깐 동안 후회도 있었어요. 차라리 제약  
사를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 만나는 그때  
부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니네들이 여기 들  
어올 때 울고 들어왔지만 나갈 땐 웃게 웃으면서 나가도록 해  
주겠다 그런 다짐을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애들이 졸업  
해서 나갈 때는 다들 웃고 나갔어요.

이형진 80년, 81년, 82년, 3년 보냈겠네요?

황진도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대학에 이제 83학번들인데 거기 아까  
하여튼 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불만들 섭섭  
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애들이 가  
사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가사 실습비를 제대로 지  
원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교장실로 올라가  
서 교장한테 따졌어요. 당연히 실습비 줘야 되는 건데 왜 안  
줘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교장은, 그 인화여고 교장이 그  
나마 선인학원 교장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  
까 인화여고 교장 외에 나머지 교장들은 다 백인엽한테 쫓인  
트 까인 사람들이예요. 그런데도 이 양반도 백인엽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녹을 먹고 있다 보  
니까 여기 와서 따지니까 같이 막 성질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려와서 나도 젊은 혈기에 하여튼 애들의

편에 서서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무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 지 떠나겠다는,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교장한테도 가서 따지고 그런 게 했는데 그런 일이 학생들하고 관계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1, 82학번들은 외국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점수가 배점이 50점이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하든 일본어, 제2 외국어를 선택하든 똑같았어요. 제 2외국어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1학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82학번 때부터 이제 외국어 시험 보겠다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형진 일어로?

황진도 예, 일어로. 그래서 영어로 시험 보는데 비해서 학력고사 전체 성적이 10점에서 한 뼘 15점 이렇게 차이나는,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더 점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학을 선택한 점수로 가니까 자기가 영어를 선택했을 때 뭐 B라는 학교 갈 성적이면 일본어를 선택해서 성적이 더 나오니까 그 위에 레벨에, 학교가 어쨌든 서열화 돼 있었으니까 갈 수 있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화여고가 입시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결국은 그 애들이 졸업할 때 다들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웃으면서 가는 약속을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이형진 선생님도 좀 인정을 받으셨겠습니까.

황진도 그런 거 하고 상관없고 수업 시간도 하여튼 학생들하고 재밌

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했죠.

이형진 선생님 처음 교직을 시작하신 해가 80년입니다.

황진도 예.

이형진 80년 5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 81년, 80년 이렇게, 되게 엄혹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고등학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학교 생활하면서 사회에 대한, 그때 선생님도 이제 30 갓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황진도 29살이었죠.

이형진 월기왕성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면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혹시 하신 게?

황진도 하여튼 80년, 이제 3월부터인데 실제로는 학교에 출근한 거는 2월 이십, 며칠부터 나갔어요. 나가고서 했는데 그리고 두 달 반 정도 됐을 때 5.18이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5.18 그날 우리 선인학원보면 대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으로 뭐야 동원 훈련 소집이 떨어졌다고 운동장에서 추리닝 입고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동원 훈련 들어갔어요. 제대하고서 만 삼십 세까지는 동원 훈련 대상이에요.

이형진 5년간?

황진도 그때 5년간에 하여튼 그래서 막 서울 삼성리 쪽에 거의 야산에 가서 군용 텐트 치고서 일주일을 거기서 동원 훈련 마치고 그리고 오니까 5.18이 나고 한 며칠 지나서 우리 그거 했는데

5.18이 진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학교 교문 앞에 장갑차가 주둔해 있고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딱 나자마자 일일이 검문하고.

이형진 아니, 고등학교인 데도요?

황진도 전체 울타리가 대학도 안에 있으니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 운봉공고, 운산기공 그 다음에 향도 실고 이런 애들이 재단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깐 학내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개네들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재단에 다니면서 시위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학교니까 개들이 그 유리창을 1, 2층 다니면서 유리창이란 유리창 다 깨버렸어. 애들 수업하기도 전에 막 깨니까 애 비명 지르고 난리 났었어. 그랬는데 애네들이 전문대 앞에 가서 전문대들이 시위 안 나오니까 전문대 라는데 시위 나와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대 애들하고 고등학교 애들하고 거의 패싸움이 이제 벌어져 갖고 애들 머리 다치고 막 해 갖고 피투성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형진 진압이 됐나요?

황진도 자기들끼리 그냥 나중에 끝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학교 안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학교 안에 있으면서 5.18 그렇게 겪으면서 5.18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고 더구나 나이가 동문 예비군이니까 예비군 훈련 갔다 오니까. 그렇게 학교 안에 움직임은 따로 없었어요. 5.18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고 나중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86년 인천 5.3 때

도 우리 학교 수업하고 버스가 주안역 앞쪽을 남쪽을 지나가지 않고 저 뒤쪽으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퇴근해서 가는 길에 보니까 최루탄 냄새는 맡았는데 5.3이 그렇게 치열하게 했을 줄은 그날 저녁에 뉴스 방송 보고서 알 정도이고 그런 시위에 직접 뛰어들거나 그럴 용기들은 없었죠. 우리는 그러고서 이제 87년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다 선인학원은 특히 이제 그런 상태였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87년에 이제 전국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88년도 이게 인천 교사협회에 가입을 해요.

이형진 그러면 교사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조직 활동이 뛰어드신 건가요?

황진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없고 우리 학교 교사 중에 누가 하나 서울 교사에 비해 서교협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입했다고 누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 그게 뭔가 잘 모르고 성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때는 수능으로 바뀌었죠.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수능 감독을 이제 옆에 동인천 고등학교로 갔어요. 동인천 고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인화여고 인수해서 인화여고로 바뀌었는데 동인천 저 쪽으로 만수동으로 이사 가고 그 학교를 가서, 이제 대기실에서 시험 감독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인천 교사 신문을 거기다 갖다 댔더라고요.

이형진 87년이었습니다.

황진도 예, 87년 11월이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인천교사협회 신문을 갖다 댔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한교련, 지금은 이제 한국교총인데 전신 대한교육연합회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뀌었어요. 전교조 이후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련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사 임금보다 더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전국교사협의회에서는 대한교련 탈퇴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인데 대한교련에는 교사들 단체인데 전부 위에 뭐 국가 시책에 고분고분하고 다른 방학책 팔아먹고 그 다음에 국회 교육상임위 돛자리 뭐 로비하고 이런 것들 하는 단체인데다가 우리들이 낸 회비 이런 거 갖고 지들이 더 누리고 산다 그래서, 탈퇴를 해야지 다음에 다른 교섭단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전개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그 다음 날 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 이거 탈퇴하자 그래 갖고 행정, 그 당시에는 서무과에 요즘 행정실이라고 그러는데, 서무과 가서 그 자리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형진 그렇게 몇 분 같이 하신 거예요?

황진도 예, 교련탈퇴 운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왔더니 12월 10일 날 인가 뭐 언젠지 그 당시 인천교사협의회가 십정동 성당 거기 지하에 공간 하나 얻어갖고 있을 텐데 그날 뭐 야 밤에 야간에 실내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몇 명이 갔어요, 세 명이.

이형진 그럼 그때 처음 이제 조직적으로?

황진도 응.

이형진 만남을 하신 거네요.

황진도 처음에 그날 가서 누가 보고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꺼리고 세 명이 같이 갔어요.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려고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날 처음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노래 부르는데 남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도 부르고 그래서 좀 낯설

죠, 우리하고는.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근데 아 교사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거기서 회원 가입서가 노란색으로 된 딱딱한 거였는데 거기다 가입 쓰고서 회원가입하고 거기다 놓고 나왔어요.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전교협에서는 뭘했느냐면 교사 공무원, 그 당시 6급도 노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운동을 할 시기였어요. 지금 시민회관, 옛날 시민회관 그 앞에 그 공간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 왔다가 이종구 선생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서 있어서.

이형진 그럼 그전에 선인학원에 있을 때부터 소식이 없었어요?

황진도 그때 선인학원은 교사회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날 하여튼 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주안역까지 가서 동인천 때까지 가는데 거기서 따라갔어요.

이형진 그건 87년 말이 아니고?

황진도 88년 12월.

이형진 88년 몇 월이요?

황진도 12월. 12월 1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집회를 참석해서 같이 동인천역에 내려서 답동성당까지 아마 행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러면 잠깐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게 인천 교사 신문을 보시고 이렇게 처음 알게 된 거는 87년 말이었고요.

황진도 아니요, 88년.

이형진 아, 그럼 맞습니다. 88년.

황진도 87년에 전국교사협회가 하반기에 만들어지고 인천교사협의

회도 연결이 안 됐죠.

이형진 동인천고에서 홍보물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입 원서도 쓰시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신 게 88년 12월.

황진도 그러니까 11월 달 한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 기존에 먼저 교사협의회에 가입했던 친구들이 허용철 선생. 그다음에 운산기공에 이준용이라고 있었어요. 선인학원 안에서 거기다가 이제 원학운 선생님 이런 양반들은 인천교사협의회 아마 만들어질 때 참여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있으니까 아까 거기 명단들 있어요. 거기 이준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광노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만나자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와서 방학 동안에 수시로 만나서 우리 선인학원도 연합 교사협의회 좀 만들자 방학 동안에 계속 만나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만나고 이렇게 누구는 집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때 선인 중학교, 운봉공고 광노철, 선인 중학교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사협의회 만들기로 계획들을 세우고 주로 그걸 방학 동안 하면서 보냈어요. 보내고 계약하고서 연합, 그 교사협의회 만들고 각 학교별로 교사협의회 만들자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2월 달부터 진행이 됐죠. 개학하고서 3월달, 신학기 되면서 우리가 재단에다가 교사들이 설문조사 받아서 공동대표 여섯 명을 뽑아가시고 선인학원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항목별로 쪽 적어서 갔다가 실질적인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의 분위기가 교사 협의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전 교조도 뜰 것 같으니까 재단도 옛날 그런 재단은 아니고 관선

이사 체제였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형진 교섭을 요구했을 때 주요한 요구 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황진도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일직 숙직 문제라든가 그런 거 포함해서 갖다 제출하고 많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형진 교사들의 기본권?

황진도 네, 재단 분위기 이런 것들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중에 우리 학교도 교사협의회 만들자고 그래서 우리 그때 교사가 오십 한 45명 정도 됐어요. 55명 정도 됐는데 교사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사람 가입서 받아서 한 게 36명이었어요. 다른 학교들도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전체 선인학원 연합 교수협의회 회원 수가 320명이었어요. 320명인데 그 당시 인천교사협의회 회원 수가 200명 정도 됐나. 전체 선인학원 뺀 나머지 전체 교사 회원보다 선인학원 덩치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교사협회에서 선인학원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서 같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인천 교협에서 급별로 교사협의회 만들자 그런 결정이 돼서 하인호 선생님이 사립교사 하여튼 협의회 추진 위원장인가 뭐 그걸 그렇게 맡아서 준비하고 사립학교 대표자들 모임을 그때 어디서 했느냐면 황선진 씨가 그 의장으로 있던, 시민공동회죠. 거기 이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 썩사리 끼어서 사립학교 준비위원회가 거기 있었고 그걸 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에 보면 사립교사협의회 사진, 교사협의회 창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진인데 지금 날짜는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인천교사 인천지법 교육운동사에 보면 거기 날

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선인학원 교사협의회 창립을 했어요, 3월 달에. 그러면서 저는 사립교사협의회 회장이죠.

이형진 회장 하셨어요?

황진도 응. 교사협의회 회장을 하고서 인천교사협의회는 저쪽 신흥동, 신흥국민학교 건너편에 대우전자 2층이었는데 조금 한 스물 몇 평 거기로 이사를 와서 거기를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하게 돼서 있는데 3월에 선인학원 교사협의회 만들고, 4월에 사립학교 교사협의회 만들었는데 공립은 5월 달, 초등도 5월 달, 5월 초에 그렇게 사립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근데 그걸 교사회 만들고 하는 과정에 얘기 들어봤더니 전교협에서는 2월 대원대회에서 5월 달에 전교조 결성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협의회 겨우 만드는데 다른 데는 이미 저쪽에 다 결정된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선인학원 내에서 뱀새가 황새 따라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대로 교사 협의회로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노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조합 하면 다 빨갱이 낙인찍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형진 교사협의회까지는 아직 노조라고 볼 수는 없었죠.

황진도 예, 그건 노조가 아니죠.

이형진 그러면 부담을 갖게 되겠죠.

황진도 5월 초에 하는 중에 인천교사협의회, 인교협에서 교원노조, 준비위원회를 급작스럽게 꾸렸어요. 거기에서 신맹순 선생님이 추진위원장, 준비위원장, 나는 부위원장. 그렇게 만나서 답동성당에서 준비위원을 꾸리고서 5월, 하여튼 번갯불에 콩 구워먹

듯이 진행된 거예요. 5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준비위원회 집회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전교조 출범하고. 전교조 출범한다고 그러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 정부 11개 기구가 모여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서 노조 만들지만 하면 다 자르겠다 처음에는 주요 간부들만 자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무조건 조합원은 다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가입서를 누가 한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교원 노조 가입서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가입 원서를 제출 안 하고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때 우리 학교 14명인가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정직 정도는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결의 수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직을 박탈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가입 원서는 안 내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선인학원 전체에서 노조로 가느니 마느니 모여서 토론하고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그러는 중에 방학 동안에 허용철 선생하고 나하고 둘은 직권면직을 당한 거죠. 정식 뭐 징계 위원회에 출석한 것도 아니고 그 직권면직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사립학교는.

이형진 강제 사직을 시킨거죠?

황진도 네, 그러니까 해보라고 할 수 없고. 뭐 7월 하반기 말에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명동성당에서 한 6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단식 투쟁하고 거기 참여하고 그래서 5월 28일 날 결성대회 연세대학교 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 지도부들이 그 당시 민주당사 들어가서 농성 단식 농성을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했나 그러고 인천에서 신맹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청연 선

생이 사무국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거기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이청연 선생님은 이제 사무국장이니까 준비위원장 맡고 이랬으니까 나오면서 바로 구속됐어요.

이형진 단식 풀고 나오면서?

황진도 전교조 1호 구속이에요. 첫 번째 구속이 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지금도 신맹순 선생님은 기억나는 게 1호, 1호 구속자라서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신맹순 선생님이 재판정에 입장할 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수갑 찬 속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사진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크게 보도되다 보니까 신맹순 선생을 전국에 있는 전교조 동지들이 다 알게 되죠.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전교조 결성됐으니 각 지부 결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인천지부도 결성이 빨리 된 편이에요.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한 데가 전국에 한 세 군데 정도 될 텐데.

이형진 그러면 신맹순 선생님은 옥중에 계셨는데.

황진도 예, 제가 부지부장 하면서.

이형진 그리고 사무국장은?

황진도 사무국장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그렇게 인천대학 대학원, 인문대학 대학원 강당에서 이제 주로 거기서 우리 행사들을 다 했죠.

이형진 선생님 잠깐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87년에 이제 사회적 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88년 12월경에 사실 선생님은 처음 집회를 참석하면서 전교조 초기에 준비하는 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일 년이 채 안 돼서 곧바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중책을

맡게 되시고 바로 해직까지 가버리셨어요.

황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은, 그때 당시 전교조가 제일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광주 전남이거든요. 거기는 나이 많은 사십대 이상 되는 분들도 많고 분위기가 전교조 가입 안 하면 좀 왕따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데 인천 이쪽이나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열악하죠.

이형진 30대 중반이셨어요?

황진도 우리 나이로 38이었거든요. 30대 중반 이상이 없었어요. 신맹순 선생님이 사십대 유일하게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거든요. 제가 신맹순 선생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어요. 조용명 선생이 나보다 한 해 아래고 이청연 선생이 나하고 동갑이고.

이형진 원학운 선생님은?

황진도 원학운 선생님 그때는 가입 안 했으니까. 89년에는 그러니까 선인학원에서 전교조 회원이 둘밖에 없어요, 89년에는. 해직된 사람 둘밖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해직되고 난 다음에 조직 복원하느라고 후원회원 모집하고, 전교조 가입은 안 하고 후원회를 주로 많이 했죠.

이형진 교사협의회, 후원회 이런 거였나요?

황진도 전교조 후원이죠. 그러니까 가입하면 또 해고 시키니까 가입은 못 하고 후원회비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형진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때? 예상 못 했을 것 같은데.

황진도 아니요. 그때는 내가 학교 안에 있으면 뭐 좀 외롭고 이런데 나가보면 인천에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가서 집

회 나가고 그럼 힘을 얻고 오죠. 기운 얻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해직되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또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89년 그 해에 담임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유난히 좀 자율적으로 살자, 자유를 많이 강조했어요. 자유를 그러면서 옳은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애들은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해직됐거든요. 이놈들이 꼭 8월 10일자로 해직을 시켰으니까 방학 끝나고 어쨌든 애들이랑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형진 예, 학교를 가셨습니까?

황진도 네, 학교로 마지막 인사를 가니까 또 교무부장 뭐 이런 양반들이 와서 교실에 들어와서 뭐 애들 선동을 하지 않느냐 감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편지도, 해직되기 전에, 해직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시켰으니까. 애들도(인화여고 학생들) 탈퇴 각서 쓰고 자기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형진 고3이었습니까?

황진도 아니, 고2. 그러니까 참교육을 하는데 해직되고서 자기들을 떠나서 무슨 참교육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고 언젠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거고 평가는 나중에 받을 거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형진 학생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황진도 울고불고 했죠.

이형진 교실이 울음바다가 됐겠어요.

황진도 그리고 막 졸업생들 중에 학교 가서 운동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그때 어떤 분이었는데 자기 모교에 어쨌든 전교조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형진 아, 대학 가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황진도 네,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톨릭 회관 거기 지하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형진 그쪽에서 교사들 모임을 했었죠.

황진도 하여튼 거기에서 어느 날 황진도 선생님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 모였는데 그걸 학교에 있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알아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졸업생들한테도 난리를 치고 한 거예요. 졸업생과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런 모임들도 있었고, 저는 애들한테 부끄럽잖아요. 의식이 잠들어 있던 시절에 그 친구들은 나가서 그래도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했던 아이들이니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에 내가 서점을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형진 자, 어제 시점에서 해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해서 하루 가서 학생들을 보고 나왔고 떠나오셔서 해직 상태니까 서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황진도 그거는 8월에 해직되고 나니까 퇴직금 정산해서 받은 게 1천3백 한 90만원 정도 됐어요.

이형진 만 8년이 됐는데요.

황진도 만 8년 10년 차였죠, 그 해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다가 또 원래 그전에 우리 아버님이 89년도에 회갑이셨는데, 1928년생이니까 그전에 88년도 회갑인데 회갑 잔치는 거의 안 좋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해직된 상태에서 또 그 1400중에 한 100만 원 털어갖고 아버님 회갑 잔치해 드리고 이미 해직됐는데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니까 이렇게 까먹으면 뭐 한 1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비라고 그래서 뭐 한 20만원 줬나 뭐 20만원도 안 줬을 거예요. 미혼들은 10만원 주고, 기혼자들은 20만원 준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건디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길게 갈 싸움인데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90년 1월 달에 학교 앞에 갔다가, 거기 부동산 갔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부동산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형진 제물포역 옆이에요?

황진도 아니, 선인학원 정문 딱 건너편.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서점을 해야겠다 해직교사 중에 몇 군데 서점 하는 해직 동지들이 있었어요. 서울 잠실여고 앞에, 서울대 후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 화곡동 쪽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서점을 냈다고 전교조 신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책방하면 애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니까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달에 학교 앞에 갔다가 부동산 할아버지 혹시 이 부분에 가게 난 거 없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서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서점을 하기로 시작이 된 거죠. 그거 전에 9월, 한 10월, 11

월 이때쯤 됐는데 집사람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자기가 뭘 좀 해야 된다고 나 모르게 동인천 지하철 맨 끄트머리 어디 가게를 나한테 얘기도 없이 계약금을 10만원인지 주고서 가게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두면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지는 않는데 가게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 날 가서 돈 돌려달라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20만원을,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1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20만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2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현직에 있으면 뭐 별거 아닌데 집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나무랄 일도 아니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생각에 미쳐서 한 거니까 하여튼 서점은 그렇게 하는 계기가 돼서 했어요.

(2부 시작)

이형진 전반부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점을 하시게 됐을 때는 결혼하셔서 사모님께서는 다른 일을 찾아보고 계셨다는데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황진도 결혼은 81년.

이형진 그러면 이제 선인학원 인화여고 교사 2년 차 때.

황진도 그렇죠, 2년 차 11월 4일 날 했어요.

이형진 서른 살 때였습니까?

황진도 우리 나이로 30살.

이형진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도 어떻게 되시죠?

황진도 근데 1남 2녀인데 큰 애가 82년 12월생이고 그 밑에 84년 7월 생이 있고 그다음에 늦둥이가 95년 12월생이 있어요.

이형진 그러면 해직될 당시에는 둘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사실 연세가 그때 많으시지는 않았지만 30대 후반이었는데 눈 앞이 깜깜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황진도 그때는 혼자면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전국에 수많은 동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었고.

이형진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는 특별히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 시점까지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황진도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나이 젊은 선생님들이 이십대, 이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장들이 그냥 젊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하니깐 그나마 삼십대 후반이니까 인천에서는 그래서 나이 많은 축에 속하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교사협의회, 인천 교사협의회, 젊은 동지들이 그 삼십대 후반에 있는 게 너무 그 반가운 거죠. 그리고 저는 학교 안에서는 주로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했고, 옛날 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69년도잖아요. 그때 대구 수성천에 70년, 69년에 입학했는데 70년에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삼선개헌반대인지 그 투쟁이 있었는데 수성천 거기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그 연설하러 그 당시 민주당 그때는 당수라고 그랬던가, 정확히 대통령 선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점이, 그 무렵에 김영삼, 김대중.

이형진 김대중 후보가 내려와서 수성천 변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어

요.

황진도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걸 들었어요.

이형진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손에 같이 갔었어요.

황진도 그래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학교 안에서 인화여고 안에서,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사들 모임은 맨날 교장도 비판하고 백인엽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조직화해서 같이 싸우고 그럴 생각들은 못하죠. 못하고 그다음에 88년인가 그때 운봉공고 교장이 악명이 높았어요. 인화여고 교장이 정년퇴임해서 나가고 후임으로 운봉공고 교장이 온다고 그래서 야 오면 우리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그때 좀 모여서 얘기들 좀 하고 만약에 거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집단 행동을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억눌려 살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억압된 분위기 속에 그런 것들에서 6월 항쟁도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항쟁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했던 것들이고 우리는 늦게 깨어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다보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지 뭐 그 날 새는 줄을 모른다고.

이형진 어쨌건 90년 1월부터 서점을 시작하셨고 해직 교사로서 첫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인화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선임 재단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학교 바로 앞에 제물포역에서 선생님들이 내렸으니까 찾아오고 이러면서 얘기들이 됐을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황진도 처음에 서점을 하겠다고 문 여니까 교장들이 보이지 않게 사찰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을 접촉하는 거를 그런 것들도 아마 경계를 했을 텐데 어떤, 같이 선일학원 연합교사회 했던 사람들은 가끔씩 가다가 서점에 들러서 또 거기 교사 신문도 선생님 돈을 갖고 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서 했는데 처음에 서점 내니까 총판에서 주로 거기 책이 참고서잖아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대상이니까 참고서 총판에서 책을 안 주는 거예요. 인천의 서작상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총판이나 소매점들이 다 같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입도 바로 안 시켜주고 서로 누가 하나 더 들어오면 자기들 나눠 먹는 게 되니까. 서점 서가를 짜놓고 이렇게 있는데 책은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거기서 눈물 짜고 했어요. 서러워서.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선일학원 선생님들한테 총판에서 책을 안 준다 그런 건 어쨌든 참고서 채택을 하잖아요. 그거 갖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총판에다가 얘기를 좀 해라 선생님들이 총판에서 채택해달라고 오면 처음에 책 안 주면서 채택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니까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다음 나머지가 다 무너졌는데.

이형진 초롱책방.

황진도 초록책방. 그래서 맨 처음 준 총판이 두산동아. 거기 전연승 씨라고, 그 분이 옛날 교육위원 할 때 교육위원회 의장도 하고 서구청장도 했어요. 그 양반이 동아야, 두산동아. 그때 총판

지사장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 주기 시작하고 나머지 뭐.

이형진 교학사,

황진도 교학사, 지학사가 나중에 줘서 지학사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주고 그다음에 신학기 끝나고 나니까 개네들이 가입을 시켜줬어요, 서적상. 가입비가 얼마지 모르는데 한 오십만 원 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개업할 때 선생님들이 장식품들 시계도, 운봉공고에서 시계도 그 '축 발전' 그런 거 갖다 주고 그때는 방명록도 비치하고 온 사람들 쓰고 이런 것들도 했는데 방명록이 지금 어디 갔지, 없고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참석노트에다가 언제 졸업했고 현재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 노트에 있었는데 그건 사진 찍어놓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전화번호 다 바뀌어서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들 연락은 잘 안 되는 쪽이고 그러면서 담당 형사가 있었어요, 저기 동부경찰서. 그 친구가 가끔 와서 유인물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사전도 하나 사갖고 가고 정보과에 넣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교조 인천지부 해직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들러서 책 읽고 가기도 하고 거기서 책 뽑아서 한가할 때는 읽고 가고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다음에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 했던 애가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과 반이었는데 성적이 전체에서 1등 하는 아이였어요. 3학년 되니까 가끔씩 와서 그럼 내가 사회과학서 따로 코너가 있어서 개는 공부를 잘하니까 지금 너 여기서 읽고 싶은 책 갖고 읽고 다시 갖다 꽂아 놔라 그러면 개가 태백산맥 갖고 와서 읽고 갖다 꽂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개가 경희대 한의학과를 했는데 1차

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2차도 그렇게 고집했어요. 그랬다가 이듬해에 한샘학원 전액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아마 학원에서 생활비 보조도 받았던 것 같아. 그 친구는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울대를 진학했어요. 서울대 진학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국 교사대회 2주년 땐가 경희대에서 교사대회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이 친구가 왔어. 다른 친구들 데리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이형진 복직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해고된 후에 4년 정도 지나서죠?

황진도 예.

이형진 그 기간 동안에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해직 교사로서 내부에 남아 있던 전교조 선생님들과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 했던 과정을 좀 정리해주시죠.

황진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좀 하다가 나중에 지부에서, 인천지부에서 정식으로 같이 결합돼 가지고 하면서 원종찬 선생님이 잘 알지 모르겠어요. 원종찬 선생님이 그때 지부 정책실장 하고 하니까 거기에 달라붙어서 전적으로 하고 저는 책장사 해야 되니까 매일 같이 못 가니까 가끔씩 가서 처음에 그 학생들이 전문대 점거를 했어요. 점거하고 자료들 뭐 전부 찾아가고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백인엽이 옛날 자료들 나오고 그런 것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대 그쪽은 교수협의회, 장석우 교수나 뭐 강광 교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리가 불편한 분이 계셨는데 내 이름은 모르겠네요. 교수 중에 그런 분들이 교수들. 인천대 학생들 전문대 학생들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인천대 학

생회, 총학생회 간부 중에 지금은 보면 배진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백인엽 그때 학생이 무슨 부장을 맡아오고 있었어요.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 할 때 그 친구들 다 삭발하고 쇠파이프 들고 그렇게 싸우고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대학생들이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아니면 싸움이 어려웠다고 봐요. 뭐 중고등학생이 할 건 아니니까. 인천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잘 싸운 것 같고 같이 연대해서 시민사회나 또 인부총련 이런 쪽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형진 정상화 투쟁은 어쨌건 지역 내 아주 중요한 사학 정상화 투쟁의 이슈였습니다.

황진도 그렇죠.

이형진 선생님께서 복직을 하시게 되는 게 94년이거든요.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니었지만 복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이 된 건데 당시 김영삼 정부였을 때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아쉬움이나 그리고 복직하게 되고 나서 이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황진도 그래서 어쨌든 선인학원과의 싸움이 승리하면서 재단 이사들이 정상화 투쟁하는 쪽에서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이민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밖에서 있다가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이 승리하면서 인천대 직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교사로 복직할 때, 99년도 복직할 때까지.

이형진 정상화 직후에 총장이?

황진도 장석우 씨가 했을걸요. 그리고 93년도에 허용철 선생님하고 둘이 민사소송을 했어요. 소송 자료들도 지금 있긴 한데 그

래서 변호사 없이 둘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때 어떤 재단이 계속 아마 그 소송을 했으면 허용철 선생하고 나하고는 그야말로 원상복직 원상회복 됐을 텐데 그때 그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님이 해직 교사들 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건의도 받고 또 위원장 생각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전부 해직 상태가 너무 오래가니까 생활고가 말이 아니니까 뭐 해직된 선생님들 중에 여러, 일자리 없으니까 이것저것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일 많이 갔던 데가 학원 쪽.

이형진 전국으로 보면 천 명이 넘었죠.

황진도 천오백, 뭐 한 30명 퇴직자들이 그 정도 되고 뭐 거기서 처음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파탄 나는 가족도 많고 이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위원장이 안 되니까 조건은 협상을 했는데 협상 조건이 김영삼이가 원상회복이 아니고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전교조 활동 안 하겠다, 각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쪽팔리는, 각서 안 써가지고 잘렸는데 각서 쓰고 들어오라는 게 이거 자존심 상해서 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각서 쓰는 거는 쓰되 정부에다 내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위원장한테 내는 걸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여선생님이 투신자살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존심 문제 비굴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도 막 자존심 상해서 그 밤잠 못 잘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면 된다 그랬는데 집사

람이 하여튼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 또 민사소송이 언제 뭐 될지도 모르니까.

이형진 두 분만 하신 거잖아요.

황진도 예, 선인학원에는 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뭐 조직 결정에 따르는 게 좋겠다 내가 그래서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복직하는 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해직 기간 동안에 임금도 못 받는데 4년 반 경력도 인정 못 받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해야 한다 해서 교육민주화 동지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형진 선생님 복직은 처음 만성중학교로 가셨네요.

황진도 예, 그 해에 고등학교 일본어 T/O가 없다, 중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럼 중학교를 가면 내가 뭘 가르쳐야 애들한테 죄를 적게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어니까 그래도 중학교 한문이라는 것이 한자 공부니까 한자로 문장 만들어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그나마 애들한테 죄를 덜 짓겠다면서 중학교 한문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만성중학교가 그때 신설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열다섯 학급이니까 수업 시수는 15시간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그 첫 해에는 괜찮았죠.

이형진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황진도 만수, 그 주공 아파트 88단지 바로 옆에. 그 길 만수로 길 하나 놓고 만월중학교하고 만성중학교 이렇게 있어요.

이형진 여기서 몇 년?

황진도 거기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진작에 무슨 고등학교 T/O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 학기 초부터 내신해서 이렇게 갔을 텐데 그거 안 하고 학기 중에 5월 달이 됐는데 정보산업고가 그 해 신설 학관데 일본어 교사가 그 T/O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전공 찾아가겠다 그리고 학기 중간에 옮겨가게 된 거죠.

이형진 정보산업고 이후에 가신 청학공고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황진도 그래도 그 정보산업고는 당시에 뭐 학교 이름이 정보라는 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선호하는 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산업과가 애들이 그 당시 실업계라고 얘기했는데 실업계 학교 중에서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 그래서 애네들 수준은 실업계 중에서 제일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특별히 뭐 인문계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청학공고 갔을 때는, 청학공고는 애들이 그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는 애들 그러니까 수업하기 힘들죠. 공부에 관심 없고 뭐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학익여고, 옥련여고 이렇게 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도 이명박 정부 때에 자사고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 데 우수한 애들을 좀 뽑고 나가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그 성적이 낮은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문계 애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업 시간 되면 그냥 자는 애들 부지기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자립형 사립학교 그다음에 거기다가 외고 이런 그런 특수학교들이 먼저 선발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힘들어지고 근데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자사고 같은 거 그대로 또 유지하겠다고 하면 하는 학교들이 계속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에 조희연 교육감은 그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이 없애긴 했어요. 했는데 또 분위기가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부분에 또 염려되기도 해요.

이형진 선생님, 4년간의 해직 기간을 지나고 전교조 선생님으로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조합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또 복귀하신 상황이면 그동안에 겪은 걸 꼭 얘기를 한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좀 이전에 선인학원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황진도 처음에 4년 반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7학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시간 되면 그때 우리 두더지 잡기라고 얘기했어요. 한쪽에서 조용히 시키면 여기서 돌아와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귀엽기는 한데 그럴 정도로 애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뭐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업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또 애들한테 적응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같이 하려고 했던 거고. 여전히 학교 보면 애들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89년 이후에 그렇

게 살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특별히 이렇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형진 선생님들하고는 어땠어요.

황진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단 교장들은 드러내놓고 적대시하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중견 교사가 돼버렸잖아요. 사십대가 넘어서 복직해갖고 뭐 오십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교장들이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그러죠, 우리를. 그니까 그게 96년도 그때부터 학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전교조에서 주장했던 것들인데 그거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사회위원으로 좀 참여해 달라고 의뢰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고 또 교사위원도 있고 학부모 위원들, 학부모 위원들은 교장들이 많이 장악을 하죠. 그리고 그때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따로 있지만 교육위원 선거가 있어서 이청연 교육위원 진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걸 선출하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이 더 우리한테 컸던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보다도 학부모니까 우리 아이 학교 가서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이형진 예.

황진도 만수주공 살 때 그 조동초등학교. 그 전에 큰 딸 애가 인명여고 거기 다녔으니까 청학공고 있을 때는 인명여고 학부모 위원으로 가서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학익여고 이렇게 쓸 때는 또 우리 늦둥이가. 큰 애는 졸업해버리고 늦둥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초동초등학교 거기 가서 또 학부모 위원하고.

이형진 복직하시고 난 후에 셋째 아이를 보신 거죠?

황진도 그렇죠. 94년 3월에 복직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남매로 자라가지고 이게 너무 외롭다 그래서 이제 애 하나 더 낳아주면 지들끼리 나중에 근데 셋째는 어떻게 했냐면 셋째 출산하면은 의료보험 등재를 안 시켜줬어요. 그때는 하나만 낳기 운동하느라고.

이형진 90년대인데요?

황진도 95년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이 인구 정책에 의해서, 진짜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병원비도 많이 지출했어요. 셋째 나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형진 아, 그 시점까지는 그랬네요. 선생님, 복직하신 후에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또 교사 부모로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 아이들 학교에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같이 참여하시고 쪽 하셨는데 2018년에 8월 달에 정년퇴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복귀하신 후에 20년을 더 전교조 결성 당시 이전 시점과 그러니까 복귀한 후에 이렇게 교육 현실의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진도 우리가 전교조 초창기에는 학교 뭐 교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죠. 전교조 출범한다고 그러니까 교원 뭐 우대 정책 그래갖고 실제로 내가 해직될 때 그때 봉급 받은 거 한 70만 원 정도 돼요. 뭐 연금 기여금 빼고 뭐 세금 빼면 근데 연봉이 명목 연봉이 천만 원이 안됐어요. 근데 복직을 해서 95년도, 94년도 가니까 연봉이 2천 넘어

가는 거예요.

이형진 두 배 됐네요.

황진도 네, 4년 반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사들한테 불만을 잠재우려고 그 처우를 많이 개선을 해준 거죠. 그 전에 그 세대들은 교사들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전교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학교 일숙직 전담원 제도, 그다음에 그 교사들 임신 출산 육아 그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 출산 휴가 한 1개월, 3개월 그런 것들이 많이 그 교사들이 그 복지 이런 것들로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요즘은 교사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도 다 학력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교사가 되려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학력 수준이 높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부모들도 학력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급도 적고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IMF 이후로 교사공무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평생직장 개념,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 고시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뭐 대학 졸업하고 제때 바로 임용되는 수보다 보통 2년, 3년 노량진 고시학원 가서 계속 치열하게 교직으로 진입하기가 그렇게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그 요즘 들어오는 교사들은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웬만한 것들이 뭐랄까 복지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지죠.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약고 그러니까 조직에 잘 안 들려고 그러죠. 교총으로 가든지 뭐 전교

조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 개인적인 그 세대 자체가 또 혼자 하나 낳아서 잘 키워주는 그런 시기라서 집에서 키울 때 자랄 때도 대우 받으면서 자라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교사라는 직업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새로 뭐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화하는데 발 안 담그려고 하고.

이형진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해보시면서 느낀 거니까.

황진도 예, 그리고 저만 해도 이미 그 퇴직한지 8년이 돼가지고 또 그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요.

이형진 선생님 퇴직하시기까지 여러 학교들을 쭉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근무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황진도 아니, 선인학원은 사립이죠. 처음에 복직하고서부터. 복직하고서 우리 해직 교사들이 전부 공립으로 복직이 돼요. 사립에서 해직돼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형진 예.

황진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직이 안 됐어도 어차피 선인학원 투쟁에 의해서 공립으로 됐고 해직됐어도 어차피 공립으로 가는 그런.

이형진 그런데 14년 8월에 정년퇴임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한 활동 중에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해직 교사들 전화회복 조치를 위한 인식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진도 이제 2천, 2년도에 DJ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교사공무원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줘요. 그리고 거기 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런 데 보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걸 인사기획처나 애네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불이익이라 함은 앞으로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뭐 그 여권을 발급하는데 뭐 차별을 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원래 취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이후로 전교조에서는 계속해서 교육부랑 교섭을 해요.

그리고 김진표 장관 때는 경력 인정 이런 것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직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증서 한 장 주고 종이 찌가리 하나 주고 끝이다 왜 후속 조치 안 하느냐 그렇게 역대 정부에다 주장하고 했는데 더구나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소송도 하고 해서 다 졌어요. 소송을 광주하고 대구 이쪽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백십여명이 소송을 했어요. 거기는 그 대법원까지 가서 깨졌는데 거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로를 부린 거예요. 2심 재판관이 선고를 결심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을 서부지원 법원장으로 보내버리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저 패소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인사 연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는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이니까 뭐 해보나 마나 그렇게 졌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교

조 본부에서 가는 그 소송에 신청을 했어, 했는데 거기는 행정심판이 지금 그거 해갖고 1심에서 깨져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원상회복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전교조는 전교조 집행부 본부가 있지만 이거 과거 한 때 일로 생각을 하고 전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 그래서 86년 이때부터, 2016년 이때부터 몇몇이서 우리 해직 교사들 다시 조직화 해서 좀 하자 싸우자 해서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에 해직 교사들만으로 구성된 교육민주화 동지회를 결성했어요. 결성해서 제가 그때부터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교조 본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니들 이거 해결 어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할 때 해고자 원상회복 문제를 나중 문제로 거론도 안 하고 이런 노동조합이 어딴냐 이런 노동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있잖아요. 2013년에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이제 노조 아니라는 통보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법외노조가 됐어. 노동조합이 아닌 걸로 됐어요.

그럼 어쨌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노조 아닌 통보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그냥 그때 팩스로 보내고 했으니까 그때 팩스로 노조원이 통보한 것은 그걸 한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나 해서 보내면 끝날 문젠데 이 비겁한 문재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막 문재인 생각하면 욕 나오려고 그러는

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대법원에다 떠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행위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문제인 정권에서는 우리 원상회복 이거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일찌감치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더라도 민주당이라도 좀 압박해서 해보자 그래서 2018년에 하여튼 우리가 결성을 하고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원상회복 특별법에 관한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걸 2년 전 2020년에 교사 교원 및 그 임용 제외 교원의 원상회복 지위에 관한 법률안에서 여야 113명 동의 받아서 발의를 했어요. 그중에 국힘당 한 명이 딱 있어. 용인시장에 어떤 그 정찬홍 위원장 하여튼 사춘 되는 사람이었는데 정 뭐더라 그 양반이 또 그 시장 때 무슨 뭐 뇌물 사건으로 해서 의원직 상실했어요. 하여튼 국힘당 한 명 나머지 112명은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뭐 이렇게 다 해서 내놨는데 민주당 180석 아무 소용없어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만나서 특별법 가지고 발의할 때도 다니면서 서명 받고 뭐 이런 것도 했고 이낙연 당 대표로 있을 때 당 대표도 만나고 했는데 이낙연 만나고 났더니 벌써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작년 4월에 재보궐 선거에서 깨지고 나니까 우리 문제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정권창출 돼야지 그나마 뭐 또 비밀 언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대선에 어떤 기여를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을 했어요. 선거 운동. 그

랐는데 저버려 갖고 또 5년 동안은 또 틀렸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원상회복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 그러니까 2020년 12월 1일 날 출범해서 거기다가 우리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올해 안에 조사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아마 정부 그다음에 국회 법원에다가 뭐 권고안을 보내게 될 텐데 거기서 89년 강제해직이 국가폭력이다 라고 인정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대구하고 광주에서 소송했던 분들 대법원까지 가서 재심 사유가 되니까 그걸 갖고 재심을 해볼 건덕지가 생기는 거고.

그럼 그걸 또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나 국회에다가 다시 또 특별법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인 시위는 물론 뭐 정부나 이런데 국회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 현직 교사들 자체적으로 결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진행하다가 작년 여름에 퇴직교사들이 지금 거의 한 삼분의, 사분의 일 이상은 퇴직했어요. 나이들이 삼십 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현장에 남아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혹서기에 나와서 뭐 또 1인 시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럼 일주일에 수요일에 한 번씩만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수요일 날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형진 교육청 앞에서 전국적으로 다?

황진도 주로 교육청 앞에서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

감이 선출직이 아니고 정부에서 임명했던 교육위원회였거든요. 교육위원회 소속은 교육감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육감들이 군사 정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퇴직시키는 데 다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교육청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선출직 교육감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정권이 재창출이 됐으면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텐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뭐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고 또 역사 바로 서기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하여튼 죽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돌이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80년에 인천에 오셔가지고 89년 물론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였습니다. 89년에 한 일 년간의 격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아이와 부인이 계셨고 어려운 해직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복귀해서 20년 다시 근무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애환은 많았겠습니까만 아이들이나 부모 부인한테도 많이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도** 집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집사람이 생각해줘서 같이 그 인정해줘서 해직도 가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은 어쨌든 제가 해직됨으로 인해서 큰 아이가 학교를 네 군데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해직되기 전에 조동초

등학교 만수동 거기 살 때 일학년 거기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서점을 하느라고 제물포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니까 이쪽 저기 거기 무슨 학교인가.

**이형진** 선인재단 아니었습니까?

**황진도** 선인재단 아니고 체육관 저쪽 너머에 제물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 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천대를 지나서 그쪽까지 가니까 길도 먼데다가 또 찾길도 건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를 선인학원 앞에 있는 사진관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집에다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2학년은 그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3학년 때 다시 또 송의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3학년, 4학년 그렇게 다니다가 개가 5학년 때 되던 해에 이쪽 연수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와요. 또 동춘초등학교를 전학을 시켜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학교를 계속 옮겨 가는 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걸 어쨌든 애가 잘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한테 미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잘 적응해 줬다는 생각에 또 고맙기도 하고 가족들한테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해직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상선 항진증입니다.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제가 8남에 장남인데 밑에 동생들이 이제 오빠한테 그런 공격을 했어요. 반박을 그러면 모든 해직 교사들이 부모가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건 소용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쨌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89년 그때 분위기가 막 교사들이 노조 만든다고 그

러니까 방송에서 맨날 겁주는 얘기 하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전화를 가끔 하셨어요. 야 너는 그 저기 뭐야 가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6월 10일 날 우리 인천대회에서 결성식 하는 장면이 KBS가 와서 그걸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저녁 6월 1일 날, 저녁 9시 뉴스에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못 봤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보고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를 어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저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고 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직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역시 부모님들은 자식 편이 돼요. 에이 설마 뭐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런 쪽으로 바뀌거든. 그리고 그전에 아버님이 시골에서 뭐 이장도 하고 농협 조합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선거 투표 날 되면 참관인 내지는 선거관리위원이 따로 없으니까 가서 그거 하시면서 주로 여당 쪽에서 했던 분인데.

이형진 이제는 2번(야당).

황진도 예, 그러면서 나중에 국민승리21 이런 거 할 때는 권영길을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뭐 살아오는 신념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자식 편이 돼주는 게 하여튼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생각이 들고 제가 퇴직 이후에 삶이라는 것을 퇴직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퇴직하면 뭘 하면 어떻게 살 건가 다행

히 어쨌든 학부모 단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냐, 거기 2014년부터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또 무상급식 거기도 관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참언론 시민연합 만들어서 언론 감시 운동도 하고,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씩 늘어서 그런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그렇게 퇴직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 안 하면 또 뭐 하고 살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여전히 내가 전교조 활동을 안 했으면 학교 안에, 인화에 관한 그 틀에 갇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평생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전교조로 인해서 어쨌든 학교 안에도 판결이가 이루어졌어요. 전교조 지지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서로가 좋은 게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의 본질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참 다행이었다 평생 사람을 잘 못 보고 살 뻔 했는데 이 사건을 해서 참 다행이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나가 보니까 훌륭하고 좋은,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람으로 다가와서 앞으로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오늘 황진도 선생님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교조 운동이 계기가 돼서 아까 교사로서의 삶에 큰 변화를 겪으셨는데 지금까지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오히려 퇴직 후에 더 활발

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진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022 내가 살아온 이야기

초판 발행 / 2022년 12월 30일

펴낸이 / 오경중

펴낸곳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78 402호  
tel. 032)862-5353 / fax. 032)862-5352  
e-mail. idph@hanmail.net

디자인 / 도서출판 다인아트 032)431-0268

인 쇄 / 진흥문화사

제 본 / 대한제책

ISBN 979-11-968967-2-0 (03300)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